



동학농민혁명사  
지침서

동학농민혁명참여지경에 회복심의위원회

## ■ 간행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민주주의 사회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숙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은 좀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10여년이란 오랜 시간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06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수집과 둘째, 수집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동학농민혁명사 일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연구·분석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서 1892년부터 1893년까지의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관군, 일본군, 중앙 정부의 활동 내용을 낱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본 자료와 연구성과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국은 동학농민혁명이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확보와 보급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6년 12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 일러두기

## 1. 범위 및 내용

- 1) 시 기 : 1892년 ~ 1895년
- 2) 구성 및 내용
  - 1부 : 1892년 ~ 1893년 교조신원운동(교)
  - 2부 : 1894년 ~ 1895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군 활동 : 전라도(전), 충청도(충), 경상도(경), 강원도(강)  
경기도(기), 평안도(평), 황해도(황)
    - 반(反)동학농민군 활동 : 중앙 정부(정), 관군(관), 일본군(일)

## 2. 편집 원칙

- 1) 날 짜
  - 음력을 기준으로 하되 양력을 병기하였다.
  - 月만 알고 日을 알 수 없는 경우, 月 말미에 표기하였다.
  - 단, 정확한 日을 알 수 없지만 사건 진행상 파악이 가능한 경우, 앞선 사건 바로 다음날에 표기하였다.
- 2) 내용 및 용어
  - 기본 자료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 원문을 인용할 경우 최대한 원문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표를 해주고 바로 밑에 설명문 수록하였다.
  - 모든 내용의 말미에는 원자료의 출처(자료명, 쪽수)를 수록하였다.
- 3) 기 호
  - “ ” : 1차 인용
  - ‘ ’ : 2차 인용
  - 『 』 : 저서 표시

## 3. 기 타

- 1) 본 일지는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www.e-donghak.go.kr](http://www.e-donghak.go.kr))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 향후 수정내용이나 추가내용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목 차

1부 교조신원 운동기(1892년 ~ 1893년) .....	1
1892년(壬辰年) .....	3
1893년(癸巳年) .....	11
2부 동학농민혁명기(1894년~1895년) .....	31
1894년(甲午年) .....	33
1월 .....	33
2월 .....	35
3월 .....	39
4월 .....	47
5월 .....	75
6월 .....	95
7월 .....	105
8월 .....	119
9월 .....	133
10월 .....	157
11월 .....	199
12월 .....	237
1895년(乙未年) .....	259
1월 .....	259
2월 .....	263
3월 .....	265
4월 .....	269
7월 .....	271

## 1892년(壬辰年)

### 7월

교 서인주(徐仁周, 徐璋玉의 이명)와 서병학(徐丙鶴) 등 교단의 핵심인물들이 최시형(崔時亨)에게 교조신원을 위한 복합상소를 요청하였으나, 최시형이 반대하였다(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本教歷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7, 1996, 이하 『叢書』 314쪽 ; 「侍天教宗釋史」 『叢書』 29, 103쪽).\*

\*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에서는 서인주와 서병학이 신원운동의 전개를 주장한 1892년 7월부터 교도들이 회집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 8월

전 손화중(孫化中)의 포에서 선운사 용문암(龍門菴)의 석불(石佛)에 들어 있던 비결책(秘訣冊)을 탈취하였다. 당시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은 그 나라가 망할 것이요, 망한 후에 다시 흥한다”는 소문이 있었다(「東學史」(草稿本) 『叢書』 1, 437쪽).

### 10월 20일 (양. 12월 8일)

교 10월에 서인주와 서병학이 또다시 교조신원운동의 전개를 요청하였을 때도 거절하였지만, 10월 20일경에 드디어 공주에서 교조의 신원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주(淸州) 솔피[松山]에 있던 손천민의 집에 의송소를 정하고 강시원, 김연국, 손천민, 손병희, 임규호, 서인주, 서병학, 황하일, 조재벽, 장세원 등이 모여 논의하였으며, 의송단자는 손천민이 작성하였다. 의송소를 공주로 정한 다음 10월 17일에는 입의통문(立義通文)을 각지에 내려보내 공주로 모이도록하고 두목들에게는 청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一八九四年의 農民戰爭篇 附東學關係資料 Ⅰ: 東學文書』 驪江出版社, 1985, 이하 『資料大系: 東學文書』 57-60쪽).\*

\* 대부분의 동학교단측 기록에는 서인주와 서병학이 최시형의 지시를 어기고 자의로 공주집회를 열고 감사 조병식에게 글을 올린 다음 입의통문을 내린 것으로 기록하였다. “서인주, 서병학 2인이 사훈(師訓)을 불준(不遵)하고 자의(自意)로 도인(道人)을 공주에 회집(會集)하여 서(書)를 감사 조병식(趙

秉式)에게 치(致)하다(「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壹, 439쪽), “(최시형이) 불공허지(不肯許之)하신대 양인(兩人)이 지유온언(至有慍言)하되 신사(神師)가 종불허(終不許)하시다. 10월에 원근 제도인(諸道人)이 설공주부도회(設公州府都會)하니 양서(兩徐)가 불준사교(不遵師教)하고 천자설지야(擅自設之也)하니(「本教歷史」『叢書』 27, 315쪽), 혹은 “서인주, 서병학 두 사람이 신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의대로 도인을 공주에 집합하여 글을 감사 조병식에게 보낸다. (중략) 이때에 신사께서 대신사의 신원에 대한 여러 도인의 의논이 분운할 뿐 아니라 이미 신원운동이 발달됨을 따라 더욱 지목이 심하여진지라 부득이 대신사의 신원운동으로 입의문을 발하시니”라고 밝히고 있다(김재계, 「교회사」(11), 『天道教會月報』 271호, 1934.8).

#### 10월 21일 (양. 12월 9일)

교 10월 21일\* 공주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던 충청 감사 조병식(趙秉式)에게 <각도동학유생의송단지(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를 제출하였다. 자신들이 밤낮으로 수도하고 축원하는 것은 “광제창생(廣濟蒼生)과 보국안민(保國安民)”임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동학교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資料大系 : 東學文書』 60-67쪽).\*

- ① 동학은 사학(邪學)이 아니라 유불선을 합일한 것으로 유교와는 대동소이하고 이단이 아니다.
- ② 서양 오랑캐의 학문<서이지학(西夷之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왜(倭)의 해독은 다시 외진(外鎭)에서 날뛰고 있고, 흉역(兇逆)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
- ③ 특히 왜국은 각 항구에서의 통상을 통해 이익을 독점하고 전곡(錢穀)을 다 빼내어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서울과 요해처, 관세와 시장세, 산림천택(山林川澤)의 이익이 모두 외부의 오랑캐에게 돌아간다.
- ④ 가혹한 탄압으로 교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체포된 교도들을 석방해 달라.
- ⑤ 최제우의 신원(伸冤)을 조정에 계달(啓達)해 달라.

\* 감사 조병식의 <제음>이 10월 22일 나왔으므로 <의송단지>를 21일에 올린 것으로 이해하였다.

#### 10월 22일 (양. 12월 10일)

정 충청 감사 조병식이 <제음(題音)>을 내려 동학은 이단(異端)일 뿐이며 ‘사학(邪學)의 여파(餘派)’라고 규정하고, 금단 여부의 문제는 조정에서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資料大系 : 東學文書』 67-68쪽). 이때 공주집회에 모인 동학교도의 숫자는 약 1,000여 명이었다(「時間記」『叢書』 2, 175-176쪽).

### 10월 24일 (양. 12월 12일)

정 충청 감사 조병식이 충청도 각 읍에 감결(甘結)을 내려 동학금단을 빙자하여 “각 읍의 수령이 요민(饒民)을 협박하여 뇌물을 받고 각 읍의 교예(校隸)가 양민을 침학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였다(『資料大系 : 東學文書』 68-70쪽).

### 10월 27일 (양. 12월 15일)

교 조병식의 감결이 나온 3일 후인 10월 27일 최시형은 삼례집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각 두령은 포내(包內) 도우(道友)를 관섭(管攝)하여 일제히 삼례역에 래회(來會)하라. 차문(此文)을 견(見)하고 래회(來會)치 아니하면 시(是)는 기죄(其罪) 사은(師恩)을 부(負)하고 사문(師門)에 출(出)함시오 기의(其義) 신천(神天)에 려(戾)함이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유문(通諭文)을 각지에 보냈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0쪽 ; 『資料大系 : 東學文書』 70-71쪽).\*

\* 권병덕은 이때 서병학과 서인주가 최시형에게 전라감영에 소청(訴請)하기를 요청하였고, 최시형이 이를 받아들여 개최된 것으로 서술하였다(『李朝戰亂史』 『叢書』 27, 345쪽).

### 11월 2일 (양. 12월 20일)

교 11월 2일 삼례에는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였으며, 이들은 전라 감사 이경식에게 의송을 올렸다(『本教歷史』 『叢書』 27, 318쪽).

교 삼례집회에서 소장을 작성한 것은 서병학이었고 ‘괴수(魁首)’는 서인주였다. 서인주는 감영에서 파견된 영장(營將) 김시풍(金始豐)에게 “충군효부모(忠君孝父母)의 도(道)로 안심수도(安心修道)하며 각안기업(各安其業)하거늘 이관리배(爾官吏輩)가 수도인(修道人)을 양해(陽害)해야 약재살인(掠財殺人)하기에 집회하였다”고 하여 동학교도에 대한 관리들의 탐학과 수탈이 집회의 주 원인임을 밝혔다(『南原郡宗理院』 『宗理院史附東學史』, 1924).

교 서병학에 의해 소장이 작성되기는 했으나, 탄압이 두려워 소장을 고정(告呈)할 마땅한 사람이 없자 우도(右道)의 전봉준과 좌도(左道)의 유태홍(柳泰洪)이 자원하여 고정을 맡았다(『宗理院史附東學史』).

\*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草稿)」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1쪽). 전라 감사의 제사(題辭)가 나온 것이 글을 올린 지 5-6일 후이고, 제사를 받아 본 후 다시 글을 올린 것이 11월 7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2쪽) 처음 글을 올린 것은 11월 2일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그 내용은 충청감영에 올린 것과 대동소이하며 그 요체는 교조의 신원과 지방관들의 침탈 금지였다(『資料大系：東學文書』 71-75쪽；「本教歷史」『叢書』 27, 318-320쪽；「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1-442쪽).

### 11월 7일\* (양. 12월 25일)

교 동학교도들이 재소하였다. 그 내용은 앞의 의송과 유사하나 외세와 관련된 부분은 빠지고 관리들의 침탈 금지와 교조의 신원 요구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資料大系：東學文書』 77쪽；「本教歷史」『叢書』 27, 320쪽；「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3쪽).

정 이에 대한 전라 감사의 대답이 5-6일 후에 나왔다. 그 내용 역시 충청감영의 그것과 비슷하며, “동학의 조정에서 금하는 바이니 다시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었다(『資料大系：東學文書』 75쪽；「本教歷史」『叢書』 27, 318-320쪽；「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2).\*\*

\* 감사 이경식의 제음(題音)이 의송(議送)을 올린지 5-6일 후에 나왔고, 이에 대해 동학교도들이 다시 의송을 보낸 것이 11월 7일이므로 늦어도 11월 7일에는 감사의 제음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 『동학문서(東學文書)』에는 전라 감사의 제음이 11월 9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도들의 재소(再訴)에 대해 감사가 제음을 내린 날짜도 11월 9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7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11월 9일 (양. 12월 27일)

정 전라 감사 이경식이 다시 전과 동일한 제음을 내렸다(『資料大系：東學文書』 77-78쪽；「本教歷史」『叢書』 27, 320-321쪽；「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3쪽).

### 11월 11일 (양. 12월 29일)

정 전라 감사가 각 읍에 감결을 보내 동학은 조정에서 금지하는 이단이지만, 그것을 빙자하여 침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資料大系：東學文書』 78쪽；「本敎歷史」『叢書』 27, 321쪽；「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壹, 443쪽).

### 11월 12일 (양. 12월 30일)

교 교단지도부는 동학교도에 대한 침탈을 금지하는 전라 감사의 감결이 각 읍으로 내려진 다음 날인 11월 12일 완영도회소(完營都會所)의 이름으로 경통(敬通)을 돌려 즉시 해산하여 귀가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별히 5개항의 규칙을 정하여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조의 신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신원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라.
- ② 최시형이 마땅히 삼례에 와서 지휘하여야 했으나, 노인에게는 너무 먼 길이라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내부가 분열되지 말고 대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
- ③ 이번 집회는 비단 사방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양영(兩營)의 관척(關筋)으로 지목(指目)이 없을 것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니 앞으로 침착이 있으면 작은 일은 이웃 고을 각 집에 연락하여 함께 관아에 호소하고, 큰 일은 도소에 알려 의송하여 바로잡도록 하겠다.
- ④ 혹 윤강(倫綱)을 범하는 교도가 있으면 그 접의 교도들이 모여 질책을 하고, 다음에는 수접주(首接主)가 질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아에 알리도록 하라.
- ⑤ 이번 일로 가산을 탕산한 교도가 있을 것이니 서로 돕도록 하라(『資料大系：東學文書』 78-81쪽).

\* 최시형은 삼례로 오는 도중 낙상(落傷)하여 보은으로 돌아갔다(「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壹, 444쪽；「本敎歷史」『叢書』 27, 321쪽).

### 11월 19일 (양. 1월 6일)

교 교단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도들이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때 교도들 사이에서는 복합상소를 하지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단에서는 11월 19일 밤에 다시 경통을 하달하여 제때에 납세하고 사농공상에 힘쓰며 정심정기(正心正氣)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지시하면서 “복합상소에 대해서는 하회(下回)를 기다리라”고 지시하였다(『資料大系：東學文書』 81-83쪽；「本敎歷史」『叢書』 27, 321-322쪽；「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壹, 444쪽).

### 11월 21일 (양. 1월 8일)

정 교도들이 해산하지 않자 11월 21일에는 전라감영에서도 “동학교도들이 아직 해산하지 않았으니 교도에 대한 토색을 엄금하여 안접(安接)케 하라”는 감결을 각 읍에 다시 내렸다(『資料大系：東學文書』 85쪽).

### 12월 1일 (양. 1월 18일)

교 그러나 일부의 동학교도들은 해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주(公州)·신도(新都) 등지에서 다시 집회를 가졌다. 삼례집회가 끝난 다음인 1892년 12월 1일에도 공주·옥천(沃泉)·환강(換江)·서영(西營)·신도 등 충청·전라지역의 동학교도들이 공주에 다시 모여 충청 감사에게 ① 칙령충청도내농민일체(飭令忠淸道內農民一體) 귀의동학사(歸依東學事) ② 향당유체포동학지령지방관리중(嚮當有逮浦東學之令地方官吏中) 유수위우동학인자 금엄령해수뢰관리(有收賂于東學人者 今嚴令該收賂官吏) 가사위쇄환사(可使爲刷還事) ③ 감사주순편촌벽읍(監司周巡僻村僻邑) 자위적간사(自爲摘奸事) 등 3개 조항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감사의 해산 명령을 받고 공주에서는 해산하였으나, 그 후 다시 신도로 가서 둔취해 있었다(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 민란」, 『1894년농민전쟁연구』 4, 1995).\*

\* 교단측 기록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오지영(吳知泳)의 「東學史」에는 “이에 서인주, 서병학 등이 충청관찰사 조병식에게 서(書)를 정(呈)하고 이어 전라관찰사 이경식에게 서(書)를 치(致)코저 할새 ... 선생이 글을 보내어 영문(營門)에 치(致)하기를 曰 ... ”하여 전라감영에 정소한 글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감영의 대응 등을 기술한 다음 “차시 충청 감사 조병식에게도 동일한 사의로 써 소(訴)를 올렸더니 ... ”라고 되어 있어서 전라 감사에게 소(訴)를 올린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충청 감사에게 소(訴)를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 삼례집회에 참여하였던 전봉준(全琫準)과 김개남(金開南)·김덕명(金德明)·손화중 등은 전라도 일대의 교도 수백 명을 이끌고 무장군수가 동학교도들로부터 빼앗은 돈 1,000냥을 돌려받기 위해 무장을 향해 갔으며, 이들이 금구 원평에 도착했을 때 무장의 좌수와 이방이 와서 돈 1,000냥을 되돌려주자 비로소 해산하였다(『宗理院史附東學史』).

### 12월 6일 (양. 1월 23일)

교 삼례집회에 참가하였던 교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복합상소가 결정되는 12월 6

일까지도 귀가하지 않았고 있다가, 혹은 귀가하였다가 다시 보은 장내리(帳內里)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보은에 모여든 교도의 수가 너무 많자 12월 6일 교단에서는 접주의 신표를 가진 교도들에게만 도소 출입을 허가하는 경통을 하달하였다(『資料大系 : 東學文書』 86쪽 ;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6쪽).

교 12월 6일 마련한 보은의 도소에서는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1892년 12월에는 정부에 조가회통(朝家回通)이라는 상소문을 보냈다. 조가회통에서 보이는 동학교도들의 요구조건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조의 신원 및 포교의 자유와 교도들에 대한 관리들의 침탈 금지였다. 그러나 동학의 독자성과 유불선에 비해 오히려 동학의 교리가 뛰어남을 강조한 반면, 제2차 공주집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세에 대한 반대 요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資料大系 : 東學文書』 86-91쪽 ;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6-448쪽 ; 「本教歷史」 『叢書』 27, 324-326쪽).

전 삼례집회 이후에도 이인기(李仁基)·노병무(盧炳武)·임병구(林炳九)라는 자 등은 남도어사(南道御使) 혹은 안렴사(按廉使)를 사칭(詐稱)하여 교도들을 침탈하기도 하고(「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5쪽 ; 「侍天教歷史」 『東學思想資料集』 參, 598-599쪽), 관의 침탈이 계속되자 최시형은 거듭되는 교도들의 복합상소 요구를 받아들여 복합상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도소를 설치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6쪽 ; 「本教歷史」 『叢書』 27, 323쪽).

전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하였다.\* 전봉준은 보국안민과 정심(正心)이라는 동학의 생각에 동감하였고, 동학의 소위 '경천수심(敬天守心)'에는 '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입도하였다고 하였다(『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叢書』 22, 371쪽 ;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叢書』 23, 171쪽).

\* 전봉준의 입도시기에 대해서는 1885년설, 1888년설, 1890년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초』에서 전봉준 스스로는 1892년부터 동학에 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1893년(癸巳年)

### 1월 10일 (양. 2월 26일)

전 전봉준이 직접 '창의문(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로 돌렸다. 창의문은 전라도 일대 각 군의 아문(衙門)에 나붙었으며, 남원(南原)·운봉·곡성·구례 등지에서는 같은 시각에 방문이 붙었다(崔炳鉉, 『南原郡東學史』, 1924).\*

\* 전봉준은 창의문을 돌린 후 복합상소에 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봉준은 복합상소에 참여하지 않고 전라도에 남아 척왜양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 1월\*

교 조가회통을 보낸 다음에도 최시형은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복합상소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1893년 1월 서병학, 손천민(孫天民), 이용구(李容九) 등이 다시 최제우의 신원을 위하여 상장규훈(上章叫閹)할 것을 요청하자(『東學道宗釋史』 『叢書』 29, 311쪽), 신원운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최시형은 드디어 복합상소를 결정하고 봉소도소(奉疏都所)를 청주 송산리(松山里)에 있는 손천민의 집으로 정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8쪽).

\* 「본교역사(本教歷史)」에는 2월에 복합상소가 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최시형은 “시기미지(時機未至)”임에도 불구하고(『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8쪽) “각지의 도유(道儒) 다수 회집하여 이대신사신원복합지의(以大神師伸冤伏閹之意)로 고우신사(告宇神師)하되 ... 부득이 허지(許之)”라고 하여 이때까지도 복합상소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교도들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복합상소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海月先生文集』 『叢書』 27, 237-238쪽 ; 「本教歷史」 『叢書』 27, 326쪽 참조).

교 이어 최시형은 통유문을 보내 각 도의 교도들에게 일제히 모여 복합상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8-449쪽).

### 2월 1일 (양. 3월 18일)

교 복합상소를 위해 동학교단의 대표들이 상경한 2월 8일보다 7일 앞선 2월 1일(吉日)

에 서병학이 먼저 상경하였다(「侍天教宗釋史」『叢書』29, 92쪽 ; 「東學道宗釋史」『叢書』29, 312쪽).

## ■ 2월 7일 (양. 3월 24일)

교 복합상소 직전인 2월 7일 동학교도들이 서학을 배척하는 격문을 서양 영사관 앞으로 보냈다(「東學道宗釋史」『叢書』29, 317-318쪽).\*

\* 손천민의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손천민이 상경한 것은 2월 8일이었다.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는 손천민 계열이 필사한 것이다(朴孟洙, 「崔時亨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박사학위논문, 1995, 192쪽). 따라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내용은 2월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에 붙은 것과 동일하다.

## ■ 2월 8일 (양. 3월 25일)

교 강시원(姜時元), 손병희, 손천민, 김연국, 박인호(朴寅浩) 등이 같은 날 시행된 세자 탄생 축하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는 과유(科儒)로 가장하고 상경하였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 : 韓國東學黨蜂起一件」『叢書』19, 121쪽 ;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51쪽).\*

\* 이때 수원 근처의 수많은 촌민들이 세자의 탄신일을 전후하여 과거보러 가는 유생들과 섞여 서울로 올라갔고, 공주에서도 1892년 12월(양력)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학농민군들이 충청 감사에게 요구한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때 상경한 동학농민군들이 매우 많았으며, 동학교도들은 난리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상경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급히 포리(捕吏)들을 파견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는 이때 이미 동학교도들이 '난리'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상경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며, 상경하는 교도들의 수가 많았음을 보여준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5).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이 병란을 기도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학교도들이 세자 탄신을 맞아 베풀어진 별시(別試)를 보러 가는 과유(科儒)로 위장하고 서울에 잠입하였음은 권병덕의 자서전에서도 확인된다(「淸菴權秉惠先生自敘傳」『韓國思想』15, 1977, 330쪽).

교 상경한 교도 대표들은 서울 남부 남소동(南小洞) 최창한(崔昌漢)의 집에 봉소도소를 정하고 상소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9쪽).

교 동학교단의 대표들에 앞서 상경하였던 서병학이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를 오탁(麤打)”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손병희·김연국·손천민 등이 반대함으로써 이 계획은 무산

되고 말았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49쪽).\*

- \* 최시형도 1898년 5월에 체포된 뒤 복합상소 당시의 정황에 대해 한 사람이 “우리들이 군인으로 변장하고 먼저 민영준(閔泳駿)의 집을 공격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였던 대중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다고 하였다(The Korean Repository vol. 5(june 1898), 234-235쪽). 이돈화는 “도소(都所)에 모여 상의(相議)할세 때에 서인주(徐仁周) 서병학(徐丙鶴)은 상소(上疏)하여 진정(陳情)할 뜻이 없고 교도(敎徒)로 하여금 병복(兵服)을 환착(換着)케 하고 병대(兵隊)와 협동(協同)하여 정부간당(政府奸黨)을 소탕(掃蕩)하고 크게 조정(朝廷)을 개혁(改革)하기로 결정(決定)하였는지라(서인주선상경주선(徐仁周先上京周旋))”라고 하여 (『天道教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143쪽). 서병학 혼자가 아니라 서인주와 서병학이 함께 정부간당의 소탕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며, 서병학이 아니라 서인주가 먼저 상경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 ■ 2월 10일 (양. 3월 27일)

교 동학교도 대표들은 2월 10일에 치성식(致誠式)을 행하였다(『資料大系：東學文書』 91-97쪽).

교 2월 10일경 전라도 삼례(參禮)에서는 교도 수천 명이 모여 전라 감사에게 또 다시 글을 올렸다.(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역사비평』 7, 1999) 글의 내용은 3월 11일 보은집회 당시 보은관아에 걸린 글과 동일하였다. 이전에 충청 감사와 전라 감사에게 보낸 글이나 복합상소문과 비교해 볼 때 교조의 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거의 전적으로 척왜양(斥倭洋)을 통한 보국(輔國)이 강조되고 왜이(倭夷)와 양이(洋夷)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었으며, 발신자의 명명에서도 처음으로 “동학창의회소(東學倡義會所)”가 등장하였다. 또한 이글은 전라 감사에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전라도 53개 군현 전체에 보냈다(『嶺上日記』 『叢書』 2, 274쪽 ; 『南遊隨錄』 『叢書』 3, 126쪽 ; 『東學文書』 『叢書』 5, 63쪽, 66쪽, 70쪽 ; 『天道教書』 『叢書』 28, 226쪽 ; 『續陰晴史』 上, 258쪽 ;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3쪽 ;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57쪽).\*

- \* 「뮤텔문서」에는 어디에 보낸 것인지 알 수 없고 말미에 “동학인소록(東學人所錄)”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통문, 말미에 도서(圖署)가 찍혀 있고 발신자의 명명이 “동학창의회소(東學倡義會所)”로 되어 있는 “용담(龍潭) 대아(大衙) 통고(通告)”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동학인소록(東學人小錄)”이라고 적혀 있는 전라 감사 앞으로 보낸 통문 등 같은 내용의 글 3종류가 수집되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용담 대아 통고”라는 제목의 글에는 작성 일시가 2월 10일 묘시(卯時, 오전 5~7시)로 되어 있다. 남원에 살던 유생 김재홍(金在洪)의 일기 『영상일기(嶺上日記)』에는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각 읍의

관아에 척왜양을 주장하는 격서(檄書)를 붙였다고 하였으며, 그 사실을 그의 일기 2월 10일자에 쓰고 있다. 또 “밤중에 방문을 붙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2월 9일 밤에 붙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재홍은 동학교도들이 밤중에 방문을 붙이고 열읍(列邑)에 민요(民擾)를 선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였으나, 척왜양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가상하다고 평가하였다(「嶺上日記」『叢書』2, 274쪽). 일본공사관 측에서는 삼례의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53개 군에 동일한 내용의 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였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叢書』19, 126쪽).

교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일반 민인들과 동학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통문(通文)을 게시하였다.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고 혹시라도 두려워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왜양을 초멸(剿滅)하려는 것일 따름이고 평민(平民)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신증을 기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민간에 폐를> 범한 자는 처벌할 것이다.”(『續陰晴史』上, 258쪽).

## 2월 11일 (양. 3월 28일)

교 박광호(朴光浩)를 소두(疏頭)로 한 교도대표 40명은 광화문으로 나가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의 내용은 조가회통과 마찬가지로 외세의 침탈이나 서학에 반대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반면 충청·전라 감영에 올린 글과 비교해 볼 때 동학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많고, 동학의 독자성과 유불선에 비해 오히려 동학의 교리가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資料大系：東學文書』91-97쪽). 상소문에는 “경천정심(敬天正心) 보국안민(保國安民)”이라는 8자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3, 311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97쪽, 451쪽; 「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49-452쪽; 「東學史」『東學思想資料集』貳, 433-436쪽; 「本教歷史」『叢書』27, 326-328쪽).\*

\* 글 내용에 조금씩 편차가 있으나 그 대체는 같다. 다만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草稿)」와 「본교역사(本教歷史)」에는 “도신수재(道臣守宰)는 민족(民族)을 초개(草芥)와 같이 보고 향간토호(鄉奸土豪)는 교도들을 화천(貨泉)으로 여겨 주구토취(誅求討取)하니”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동학문서(東學文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1894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민족(民族)’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본교역사(本教歷史)」와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草稿)」가 쓰여질 때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본교역사(本教歷史)」는 1910년 8월 1일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 창간호부터 오상준(吳尙俊)이 집필하여 연재하였으며, 1913년 3월호까지 연재하다가 중단된 후 1914년 8월호부터 다시 연재하여 그 해 11월호로 연재가 끝났다(「東學初期教團史解題」『叢書』27, 10쪽).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草稿)」는 프린트본인 『천도교총서(天道教叢書)』의 일부이며, 1920년 <천도교청년교리 강연부(天道教青年教理 講演部)>에서 「교리강의안」으로 작성되었고, 1933년에 간행된 『천도교창건사(天道教創建史)』 서술의 근간이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申一澈, 「解題」『東學思想資料集』壹, 1979).

### 2월 13일 (양. 3월 30일)

교도들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밤낮으로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격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13일 사알(司諫)을 통해 구전으로 “귀가하여 안업(安業)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국왕의 교지가 하달되었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2쪽). 이에 대해 일부의 교도들은 “양왜(洋倭)가 동학교도들이 척화(斥和)한다는 이유로 국왕을 위협하여 동학교도들을 쓸어버릴 것을 강청(強請)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왕명이 있다고 하여 물러날 경우 자기들을 포함하는 와언(訛言)이 옳다는 혐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창의(倡義)하는 사유를 다시 회계(回啓)하여서 자신들의 본의를 드러내준다면 “척화(斥和)의 본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물러날 것이라며 해산을 반대하기도 하였다(『聚語』 『叢書』 2, 53-54쪽).

### 2월 14일 (양. 3월 31일)

교도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하였던 동학교도들은 해산하라는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2월 14일과 15일에 걸쳐 대부분의 교도들은 해산하여 하향하였다(『海月先生文集』 『叢書』 27, 238쪽).

교도 2월 14일 밤 서울 기포드(Gifford)학당의 정문에 서교를 배척하는 방문이 붙었다(『舊韓國外交文書』 10 (美案 1), 718-719쪽; 『東學文書』 『叢書』 5, 58-59쪽;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68-69쪽, 94-96쪽; 『日本外交文書』 (韓國篇) 5, 455쪽). 그 요체는 서교(西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선의 서교 신자들에게 서교를 버리고 유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말미에 제시한 “수락양두-축(遂落兩頭-逐) 구횡일목-화(口橫一木-和) 일혜일혜-명(日兮月兮-明) 선왕거수-선왕법(先王去水-先王法)”이라는 과자는 곧 “축화(逐和) 명선왕법(明先王法)”이라는 뜻으로 척사론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 2월 18일 (양. 4월 4일)

교도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에 서교를 비판하는 글이 붙었다. 말미에 “수락(遂落) 양두(兩頭) 구횡일목(口橫一木) 일혜일혜(日兮月兮) 선왕거수(先王去水)”라는 과자로 된 글이 있으며, “백운산인 궁을선생(白雲山人 弓乙先生)” 명의로 된 방문의 내용은 유학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패륜적이라는 점을 통박하는 것이며,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공격할 것임을 명시하였다(『舊韓國外交文書』

10 (美案 1), 719-720쪽; 『東學文書』 『叢書』 5, 60-62쪽;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 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67-68쪽, 129-130쪽; 『日本外交文書』 (韓國篇) 5, 454-455쪽).

## 2월 20일 (양. 4월 6일)

교 2월 20일을 전후하여 프랑스공관에도 서교를 배척하는 방문이 게시되었다. 여기에도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공격할 것임을 명시하였다(『續陰晴史』 上, 257쪽).\*

\* 척왜양 방문이 학교나 선교사의 집, 외국 공관 이외에도 동대문과 남대문 등의 중요한 지점에도 붙었다는 기록(『東京朝日新聞』 1893年 4月 29日 東學黨事件의 顛末; 『大阪朝日新聞』 1894年 6月 27日 『叢書』 23, 67쪽; 趙景達, 『異端의 民衆反亂: 東學と 甲午農民戰爭』, 1998, 岩波書店, 100쪽), 북합상소 무렵부터 보은집회 이전 사이에 지방 곳곳에도 나붙었다는 기록도 있다(『續陰晴史』 上, 261쪽). 이외에도 이 무렵 종친부(宗親府) 앞에 붙은 방문에는 “사-사(巳-四) 주기-기(走己-起) 언유반사-변(言有反絲-變) 토물목-면(兔勿目-免) 력재행환-세(力在幸丸-勢)”, “조불인(鳥不人)”, “삼각산(三角山)” 등의 파자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여 있다(『東學文書』 『叢書』 5, 75쪽).

교 경향각지에서 척왜양 방문운동이 전개되자 2월 20일경 동학교단에서는 “물비요언(勿鄙堯言)하고 척연자반(惕然自反)할 것을 지시하는 통유문을 하달하였다(『本敎歷史』 『叢書』 27, 328-329쪽; 『天道敎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2쪽).

교 이어 일부 교도들과 동학교도라고 칭탁한 무뢰배들까지 나서서 민인들을 선동하여 소요가 계속되자 “시시(是時)에 무뢰자제(無賴子弟) 혹 도인(道人)이다 하여 요민(擾民) 작료(作鬧)하는 자 유(有)하고, 혹 종도(宗徒)로 종사하는 자도 신자(信者) 부독(不篤)하여 수도(修道) 불성(不誠)하여 스스로 세인(世人)의 지목(指目)을 초(招)하는 지라”고 하여 이들을 경계하는 통유문을 다시 내려 교도들을 단속하고자 하였다(『本敎歷史』 『叢書』 27, 329-330쪽; 『天道敎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3쪽).

## 2월 26일 (양. 4월 12일)

교 일본 변리공사 오이시 마사키(大石正己)는 4월 12일(음력 2월 26일)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에게 “동학교도 6만여 명이 서울로 가려한다”는 전라 감사의 전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日本外交文書』 (韓國篇) 5, 455쪽).\*

\* 김윤식은 이 무렵 동학교도들 간에 청주천안 등지에서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며, 충청도에는 영동보은목천 등지에 동학농민군들이 모여 있다고 하였다. 또 이들이 서울로 가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기록하였다(『續陰晴史』上, 261쪽). 이 무렵 외국공관 등에 나붙은 방문에 적혀 있던 “3월 7일 쳐들어 가겠다”는 내용 때문에 동학교도들이 서울에서 모인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며, 서울에 주재 하던 외국 공관들과 선교사들 사이에는 일대 동요가 일어났으며 그 대책에 부심하기도 했다.

## 2월

교 서울에서 척왜양 방문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왜양을 물리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되었다. 그 요체는 “금수 같은 왜양(倭洋)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병이(秉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충의지사(忠義之士)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다(『東學文書』『叢書』5, 76-85쪽).

교 정교는 1893년 2월 동학교도들의 광화문 복합상소 때에 “대원군은 몰래 동학농민군 수만 명을 서울로 와서 모이게 하고 불궤(不軌)를 도모하여 그의 손자 준용(竣鎔)을 추대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성사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大韓季年史』『叢書』4, 359쪽).

## 3월 2일 (양. 4월 17일)

교 오후 2시경에는 일본공사관 벽에도 “조선국 삼사원우초(朝鮮國 三師員羽草)”명으로 척왜척양(斥倭斥洋)을 주장하는 궤서(掛書)가 붙었다. 여기에는 서양인들에게 통고한 방문과 달리 임진왜란 때의 참혹함을 상기하며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화이론적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舊韓國外交文書』2(日案 2), 385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61-463쪽;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叢書』19, 88-89쪽, 137-139쪽).

교 일본공관에 척왜양 방문이 붙은 직후\* 일본 공관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군은 자신이 직접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불러 효유하고 싶으나, 자신도 일찍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내통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교사한다는 의혹을 살까 두려워 방관만 하고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또한 대원군은 조선의 병사들이 수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동학교도가 이들을 선동하게 되면 병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가운데 노인과 부녀자, 어린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인천으로 피난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叢書』19, 140-141쪽).

\* 대원군과 일본인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서가 3월 2일 오후 2시 일본공사관에 붙은 척왜양 방문 바로 뒤에 나오고 대원군의 견해를 정리한 말미에 4월 17일(음력 3월 2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을 적고 있다. 따라서 대원군과의 대담은 일본공사관에 척왜양 방문이 붙은 직후의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3월 3일 - 4일 (양. 4월 18일-19일)

교 좌포도청에 체포된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의 거괴(巨魁)가 전라도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일본공사관 측에서는 그들의 수령이 전라도에 3-4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61-462쪽).

### ■ 3월 6일 (양. 4월 21일)

교 3월 6일 밤 부산성문에 척왜양 통문이 붙었다. 그 내용은 전라감영에 보낸 글이나 용담 관아에 붙은 것과 완전히 동일하였다(『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71-472쪽).

### ■ 3월 10일 (양. 4월 25일)

교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던 국왕의 약속과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날로 심해졌다. 교도들은 목숨조차 연명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손병희·박용호(朴龍浩)·이관영(李觀永)·권재조(權在朝)·임정준(任貞準)·이원팔(李元八) 등 교단의 핵심인물들은 김연국의 집에 머물고 있던 최시형을 찾아갔다. 이들은 “아직 선사(先師)의 지원(至冤)이 미신(未伸)하고 각 지방에서 도인들이 모두 도탄(塗炭)에 빠졌으니 보유(保維)할 수 있는 방책을 지시하소서”라고 하며 신원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3월 10일 최시형은 마침내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제우의 신원을 얻기 위한 보은집회를 개최하였다.

교 보은 관아의 삼문(三門) 밖에는 동학교도들의 주장이 담긴 보은관아통고(報恩官衙通告)가 나붙어 있었다. 이 방문의 내용은 2월 10일경 삼례집회에서 전라 감사에게 올린 글이나 같은 무렵 전라도 각지의 관아 및 3월 초 부산성문에 붙은 격문

과 완전히 동일하였다. 교조신원이나 동학의 금단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척왜양(斥倭洋) 주장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왜양(倭洋), 특히 왜적의 침입에 대해 임진왜란 당시의 원수를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본의는 왜양을 물리치는 데 있으며, 관리들에게도 충의(忠義)의 사리(士吏)들을 모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지휘부를 “창의소(倡義所)”라고 불렀다(「聚語」 『叢書』 2, 27-29쪽).

### 3월 초순

기 보은취회에 접주와 교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경기지역 동학교인이 참여하였다(「수원군중리원연혁」 『天道教會月報』 191호, 1926.11).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고 쓴 5색 대기(大旗) 가운데 경기도 광주점의 ‘광의(廣義)’, 죽산점의 ‘죽의(竹義)’, 진위점의 ‘진의(振義)’, 용인점의 ‘용의(龍義)’, 양주점의 ‘양의(楊義)’, 수원점의 ‘수의(水義)’ 등 각 지역의 접소를 나타낸 크고 작은 깃발을 설치하였다(「聚語」 『叢書』 2, 33쪽).

강 관동대접주 이원팔이 보은집회에 참여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4쪽).

### 3월 11일 (양. 4월 26일)

교 전국의 교도들에게 보은군 장내리로 모이도록 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최시형은 이튿날인 3월 11일 보은으로 갔다. 최시형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도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2-453쪽 ; 「本敎歷史」 『叢書』 27, 328-330쪽).

교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낮으로는 석루(石壘)를 쌓거나 마을 뒤편 개천가에 진(陣)을 만들고 밤으로는 장내리와 부근 마을 200여 호의 민가로 가서 잤다. 날마다 모여 드는 교도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오전 10시경에 사방 1백여 보(步)이고 높이가 반장(半丈) 정도이며 사방으로 문이 나있는 석루(石壘)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오후 4시경에는 마을 주민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함께 모여 앉아 경전을 읽었다. 또 이들은 충의(忠義), 선의(善義), 상공(尙功) 등 소속 지역을 표시하는 중기(中旗), 그리고 작은 오색기(五色旗)와 함께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고 쓰여진 대기(大旗)를 세워두었으며, 장차 왜양(倭洋)을 공격하려 한다고 성언(聲言)하였다(「聚語」 『叢書』 2, 29-34쪽 ; 『續陰晴史』 上, 261-262쪽).

교 보은집회의 주도자는 수령(首領) 최시형(崔時亨), 차좌(次座) 서병학, 이국빈(李國彬, 또는 李觀永), 손병희, 손사문(孫士文), 경강(京江)·충경접장(忠慶接長) 황하일(黃河一)·서일해(徐一海), 그리고 전라도(全羅道) 접장(接長)으로 이름은 알 수 없는 운량도감(運糧都監) 전도사(全都事) 등이었으며, 보은집회에 모인 교도들의 수는 2만여 명에 이르렀다.\* 황현은 보은집회에 모인 교도들이 모두 소와 땅을 팔아 식량과 표주박 발낭(鉢囊) 등을 싸서 굶어지고 갔다고 하였고(「梧下記聞」『叢書』1, 46-47쪽), 이복영(李復榮)은 부여(扶餘) 근처의 교도들이 모두 전토(田土)를 팔아 양식을 준비하여 갔으며, 처자와 서로 울면서 이별하였다고 하였다(「南遊隨錄」『叢書』3, 131쪽).

\* 김윤식(金允植)은 처음에는 2만 7천여 명, 나중에는 7만여 명이나 된 것으로 추산하였고(『續陰晴史』上, 261, 263쪽),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叢書』29, 100쪽)에서는 수십 만으로 추정하였다. 또 충청도 유생 이단석(李丹石)은 6만 7천명이 모였다고 하였으며(「時間記」『叢書』2, 176쪽), 어윤중은 2만여 명 혹은 만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교 이들은 집회 개시 직후 장내리 인근 각 마을로 “놀라지 말 것이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라”는 내용의 통문을 보내어 주민들을 위무하였다. 보은군의 공형들에게도 “동학(東學) 유생(儒生)들이 척왜양 창의(倡義)를 위하여 귀군(貴郡) 장내리에 회소(會所)를 정하였으니 수령에게 보고하라”는 글을 보냈다(「聚語」『叢書』2, 34-35쪽; 「白石書牘」『叢書』3, 305-306쪽).

교 같은 무렵 전라도 금구 원평에도 동학교도 만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이들 역시 척왜적양을 주장하며 “인천 제물포로 직항하려 한다”고 성언(聲言)하기도 하였다(「南遊隨錄」『叢書』3, 131쪽; 『南原郡東學史』; 『續陰晴史』上, 262쪽, 264쪽).\*\*

\* 이복영(李復榮)은 ‘불하수만(不下數萬)’으로, 김윤식은 만여 명으로, 최영년(崔永年)도 만여 명으로(「東徒問辯」『叢書』6, 349쪽) 기록하고 있다.

\*\* 김재홍(金在洪)에 따르면 “삼월망간전문(三月望間傳聞) 삼남동학배도회우각처(三南東學輩都會于各處) 충청회우보은(忠淸則會于報恩)령남척회우밀양(嶺南則會于密陽) 본도척회우금구(本道則會于金溝) 중각지수만(衆各至數萬) 사도지복색착무수청주의(使徒之服色着無袖靑周衣) 메구홍희운(袂口紅絺云)”이라 하여 같은 무렵에 경상도 밀양에서도 동학교도들의 집회가 있었다고 한다(「嶺上日記」『叢書』2, 274쪽).

### 3월 16일 (양. 5월 1일)

교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도 질서를 유지하고 뜻을 모으기 위한

통유문(通諭文)을 붙였다. 내용은 보은관이통고와 유사하나 “왜양을 소파(掃破)하여 종사를 지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충성하고 큰 공을 세우자”, 또 “하늘님이 진실로 더러운 요기를 싫어하여 무극(無極)의 조화를 주었으니 지사남아(志士男兒)로서 절의(節義)를 세울 때이며”, “때가 왔다! 때가 왔다!(時乎時乎)”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聚語」 『叢書』 2, 39-42쪽).\*

\* 동일한 내용의 글이 「나암수록(羅巖隨錄)」에도 동학통문(東學通文)이라는 제목 하에 소개되어 있다. 그 발신주체는 “북접창의소(北接倡義所)”로 되어 있다(『叢書』 2, 374쪽).

### ■ 3월 20일 (양. 5월 5일)

교 금구집회에 모인 교도들이 3월 20일경 보은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관군측에 정탐되기도 하였다(「聚語」 『叢書』 2, 34쪽). 김윤식은 금구집회의 주도자 황하일과 손화중이 만여 명을 이끌고 3월 21일 보은에 도착한다는 사통(私通)이 있었다고 하였다(『續陰晴史』 上, 264쪽).\*

\* 보은에 살던 김용목(金容穆)은 3월 23일 무렵 “호남과 호서의 교도들이 합진(合陣)하여 그 위세가 늠름하다”라고 하여 금구의 교도들이 보은으로 합세한 것이 기록하였다(「白石書牘」 『叢書』 3, 317쪽).

### ■ 3월 22일 (양. 5월 7일)

교 보은에 모인 동학 교도들은 보은상주 등지의 수령을 초치(招致)하였으나 거부하자 이방과 호방을 잡아들여 군량(軍糧)과 군기(軍器)를 내놓을 것을 독촉하였다. 토호와 부민(富民)들에게도 통문을 보내 군량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續陰晴史』 上, 262-263쪽). 보은에 살던 유생 김용목(金容穆)은 3월 22일 밤 동학교도들로부터 백미 30석을 3일내로 보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패를 당할 것이라고 쓴 글을 받았다(「白石書牘」 『叢書』 3, 317쪽).

교 보은 군수가 교도들을 만나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오로지 척왜양을 위해 창의하였으므로 감영에서 문서로 지시하고 면전에서 타일러도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동학은 사술(邪術)이 아니고 설혹 사술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처지에서 충(忠)을 의롭게 여기는 점은 마찬가지로 같다. 각처의 유생(儒生)들이 같은 마음으로 죽음을 맹세하고 충(忠)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교 이와 같이 스스로를 유생(儒生)으로 칭하며 척왜양과 충군(忠君)을 강조하던 동학교도들은 3월 22일 다시 한번 척왜양 방문 동학인방(東學人榜)을 붙여 그들의 주장을 재천명하였다(「聚語」 『叢書』 2, 35-36쪽).

### 3월 23일 (양. 5월 8일)

교 보은 군수와 동학교도들 사이에는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의 대담이 오고 갔다. 다만 전날과 달리 “생령(生靈)들은 방백수령의 탐학무도(貪虐無道)와 토호들의 무단무절(武斷無節)로 도탄(塗炭)의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지금 소청(掃淸)하지 않으면 언제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여 탐학한 방백수령 뿐만 아니라 토호들의 무단도 소청함으로써 국태민안을 이루고자 하였다(「聚語」 『叢書』 2, 37-38쪽).

### 3월 24일 (양. 5월 9일)

교 보은읍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첩보가 전해지자 각 지역 접(接)의 교도들 가운데서는 봉장(棒杖)을 준비해 두는 자들도 있었으나, 도소에서는 이를 엄금시켰다(「聚語」 『叢書』 2, 44쪽).

### 3월 25일 (양. 5월 10일)

교 금구에 동학교도가 모이자 금구 군수는 원평 주민들을 초치(招致)하여 교도들에게 술과 음식을 공급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교도들은 관아에까지 들어가서 공갈(恐喝)하였으며, 전주감영에도 패서를 보내 3월 25일에 전주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였다(「南遊隨錄」 『叢書』 3, 131쪽).\*

\* 김윤식에 따르면 금구의 동학교도들은 인천 제물포로 직주(直走)한다고 성언(聲言)하였고, 3월 28일자 일기에서 동학교도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점사(店舍)마다 만원이어서 일반 인들은 모두 노숙을 하는 형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였다(『續陰晴史』 上, 262쪽). 보은집회에 모였던 교도들도 수삼일 후에는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고도 하였고(「白石書牘」 『叢書』 3, 306쪽 ;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76쪽), 3월 그믐경에 해산하여 1대는 서울로 올라가고 1대는 동래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다고도 하였다(「白石書牘」 『叢書』 3, 312쪽). 이에 대해 어윤중은 “만약 너희들이 <국왕에게> 상달(上達)할 사정을 문장(文狀)으로 만들어 오면 마땅히 전달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서쪽으로 올라가서 서울을 경동(驚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교도들을 회유하였다(「聚語」 『叢書』 2, 68쪽).

### 3월 26일 (양. 5월 11일)

교 교도들은 어윤중에게 자신들의 뜻을 적은 문장초건(文狀草件)을 올렸다. 그 내용은 자신들도 선왕조(先王朝)에서 화육(化育)한 적자로서 삼강오륜(三綱五倫)과 화이(華夷)의 분별을 안다는 점, 자신들이 창의하여 왜양을 물리치자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오로지 잡아 가두고 쓸어버리려고만 하는지에 대한 반문, 왜양이 비록 강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죽음으로써 왜양을 물리치려 한다는 점, 이러한 뜻을 국왕에게 다시 알려 자신들이 의(義)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해산하겠다는 점 등이었다. 문장초건(文狀草件)은 창의 유생 허연(許延)·이중창(李重昌)·서병학(徐丙鶴)·이희인(李熙人)·송병희(宋秉熙)·조재하(趙在夏)·이근풍(李根豐) 등 7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聚語」『叢書』2, 49-52쪽).

기 이날 밤 8시경 수원, 용인(龍仁) 등지에서 동학농민군 300여 명이 보은에 도착하였다(「聚語」『叢書』2, 55쪽).

정 선무사 어윤중이 공주영장 이승원(李承遠), 보은 군수 이중익(李重益), 순영군관(巡營軍官) 이주덕(李周德) 등을 거느리고 직접 속리면 장내리의 집회장소로 찾아가서 국왕의 효유문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교도들은 자신들의 뜻이 오직 척왜척양하여 국가에 충성하려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방백수령들이 비류(匪類)로 여기어 침략(侵掠) 학대(虐待)함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갑자기 해산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들을 비류로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보전할 길이 없게 되므로 조정에서 자신들을 적자(赤子)로 인정만 해준다면 당장 해산할 것이라고 말하며 저항하였다.

### 3월 27일 (양. 5월 12일)

정 어윤중은 다시 사람을 보내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교도들은 “해산하는 길에 포교를 풀어 막기 때문에 먼저 귀가하려던 노약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 국왕으로부터 다시 답변이 내려오면 그때 모두 함께 해산하겠다”라고 하며 버텼다. 3월 27일에도 수원·용인·남원 등지에서 교도들이 몰려 왔다(「聚語」『叢書』2, 54-55쪽).

### 3월 28일 (양. 5월 13일)

기 수원점의 동학농민군 등 6-7백 명이 장내리(帳內里) 삼마장(三馬場) 장재평(壯才坪)에 기(旗)를 세우고 설진(設陣)하였다(「聚語」『叢書』2, 56쪽).

### 3월 29일 (양. 5월 14일)

교 다른 모든 깃발을 철거하였지만, 오직 척왜양기(斥倭洋旗)만은 남겨두어 자신들의 요구가 척왜양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지도부에서는 노약자들을 진중(陣中)으로 부터 주변으로 철수시켰으나, 상주·전산·태안·수원·광주·천안(天安)·직산(稷山)·덕산 등지의 교도들은 오히려 장내리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몰려든 교도들에게 쌀을 파는 상인들이 연로에 이어졌다(「聚語」 『叢書』 2, 56-57쪽). 이때 보은의 교도들은 아직 오지 않은 교도들에게 글을 보내 일이 급하니 농사일은 염려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촉구하였고, 이 글을 받은 교도들은 그 즉시 보은으로 갔다고 하였다(「南遊隨錄」 『叢書』 3, 131쪽).

기 수원집이 장재(壯才)에서 장내(帳內)로 진을 옮기었다. 12시경 광주 수백 명이 네 바리에 돈을 싣고 왔다. 광주(廣州), 천안, 직산, 덕산 등지를 비롯한 많은 돈이 장내로 흘러 들어오고 길에는 쌀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다(「聚語」 『叢書』 2, 56-57쪽).

### 3월 30일 (양. 5월 15일)

교 30일이 되어 일부 귀가하는 교도가 있었지만, 일부는 오히려 몰려오고 있었다. 이때 몰려든 교도들은 장수·영광·무안·순천(順天)·인동·지례 등 전라도와 경상도 교도들로 비교적 보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도들이었다. 이들은 이서(吏胥)들로부터 해산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수백 리를 달려 왔으므로 국왕의 비답(批答)을 다시 받기 전에는 갈 수 없다며 장내리로 몰려들었다.

### 3월

교 어윤중은 집회에 몰려오는 자들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재기가 조금 있으나 뜻을 얻지 못한 자
- ② 탐학이 횡행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백성을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그것을 제어하려는 자
- ③ 외이(外夷)가 우리의 이원(利源)을 빼앗는 것을 통분으로 여겨 망령되게 큰소리 치는 자
- ④ 탐관오리의 침학을 받으면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자
- ⑤ 경향에서 토호(土豪)의 무단(武斷)에 위협받아 스스로 보전할 길이 없는 자
- ⑥ 경외(京外)에서 죄를 짓고 살기 위해 도망한 자
- ⑦ 영읍(營邑)의 속리(屬吏)로서 의지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
- ⑧ 농사를 지어도 남는

곡식이 없는 자와 상업을 하여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자 ⑨ 우매한 자로 품문으로 듣고 들어와 낙지(樂地)로 삼는 자 ⑩ 부채에 시달려 견디지 못하는 자 ⑪ 상천(常賤)으로서 신분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聚語」『叢書』2, 66쪽)

교 보은집회 때에 안유사(按諭使) 어윤중과 중군(中軍) 홍계희(洪啓禧)가 ‘동학괴수(東學魁首)’를 만나 파병귀가(罷兵歸家)할 것을 타이르자, 그 ‘괴수(魁首)’가 해산의 전제로 제시하였다는 6개항의 요구조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① 척왜양사(斥倭洋事) ② 민씨축출사(閔氏逐出事) ③ 호포혁파사(戶布革罷事) ④ 당오혁파사(當五革罷事) ⑤ 각 읍세미정지사(各邑稅米精持事) ⑥ 착목면불통외국물색사(着木綿不通外國物色事)(「栗山日記」 癸巳 3月 15日).\*

\* 「울산일기(栗山日記)」에는 어윤중이 동학괴수를 만났다고 기록한 일기의 날짜가 3월 15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3월 15일은 어윤중이 아직 보은으로 내려오기 전이었다. 그가 보은 장내리 집회장소를 찾아가서 교도들과 직접 대면한 것은 3월 26일이었다. 일기의 저자는 충주에 세거(世居)하던 유생이었고, 들은 품문을 적은 탓으로 날짜상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4월 1일 (양. 5월 16일)

교 어윤중이 보은집회의 교도들을 모아놓고 해산을 종용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서병학이 발문게방(發文揭榜)은 모두 호남취당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聚語」『叢書』2, 69-70쪽 ; 『續陰晴史』 上, 266쪽).

정 어윤중은 국왕의 두 번째 효유문을 들고 다시 장내리로 찾아갔다. 효유문의 내용은 이전 것과 대동소이하였으나, “너희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는 말과 지방수령과 관속들의 침탈을 지적한 점, 해산하면 빼앗겼던 토지와 재산을 돌려줄 것이니 겁먹지 말고 해산하라는 점 등이 부가되었다. 비답을 들은 교도들은 5일 후에 해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어윤중은 무력을 써서 해산시키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은 나라에 가득한 불평의 기운을 규합한” 동학교도들의 진용이 군진(軍陣)의 기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글에는 글, 무(武)에는 무(武)에 응대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어서 함부로 병위(兵威)를 써서 해산시키지 못하고 타이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윤중은 교도들이 국왕으로부터 적자임을 인정받으면 해산하겠다고 한 점을 염두하며 “조정에서도 교도들이 적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설득 과정을 거쳐 교도들은 결국 3일 내에 해산하겠다고 약속하였다(「聚語」『叢書』2, 64-66쪽).\* 이어 교도 가운데 사족(士族) 출신이자

두령으로 보이는 몇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① 외이(外夷)들이 서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필자) 섞여 살며 우리의 이원(利源)을 다 소모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다. 원컨대 온 나라의 의려(義旅)와 함께 물리치자.

② 탐묵의 자행은 외교(外交)(개항-필자) 이래로 더욱 거리낌이 없어 사악한 무리들이 제 각기 앞다투어 박탈(剝割)을 일삼는다. 비록 제재(制裁)를 가하라는 (국왕(國王)의-필자)명(命)이 있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우리들이 조정에 고하여 탐관오리를 축출(逐出)하려고 한다.

③ 이 집회에서는 촛척(寸尺)의 병기도 휴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민회(民會)이다. 듣기에 각 국에도 역시 민회가 있어서 조정의 정령(政令) 가운데 민국(民國)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회의하여 강정(講定)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인데 어찌하여 비류라고 지목하는가?

④ 충청 감사와 영장(營將) 윤영기(尹泳璣)가 결탁하고 서로 호응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인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은 일이 매우 많은데 이것이 이번 취회(聚會)를 양성(釀成)한 원인이다. 또 해산하라고 하였지만 이미 모두 토지와 재산을 팔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어디로 돌아가란 말인가. 또 영읍(營邑)의 향호(鄉豪)들이 기꺼이 들어와 살게 하겠는가. 여기서 모두 살던가 모두 죽던가 하겠다(「聚語」 『叢書』 2, 67-69쪽).

\* 이때 일부 교도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뿌리며 향북사배(向北四拜)하였다 한다(『續陰晴史』 上, 266쪽 ; 「聚語」 『叢書』 2, 64-65쪽 ; 「侍天教宗釋史」 『叢書』 29, 101쪽).

#### ■ 4월 2일 (양. 5월 17일)

교 청주병영(淸州兵營)의 병사 100여 명이 장내리에 들어와 주둔하자 최시형과 서병학은 그 날 밤 병든 자와 식대를 내지 못한 자들을 남겨둔 채 장내리를 빠져나갔다.

교 보은의 동학 교도들이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경기 수원집에서 840명, 용인집 200여 명, 양주, 여주지역의 270여 명, 안산집 150여 명, 송과집 100여 명, 이천집 400여 명, 안성집 300여 명, 죽산집 400여 명, 강원도 원주집 200여 명 등이 돌아갔다(「聚語」 『叢書』 2, 72-73쪽).

#### ■ 4월 3일 (양. 5월 18일)

교 대부분의 교도들도 해산하기 시작하였다(「聚語」『叢書』2, 72쪽; 『續陰晴史』上, 269쪽).

#### ■ 4월 5일 (양. 5월 20일)

교 어윤중은 보은의 교도들이 해산한 다음인 4월 5일 금구로 향하였다가 금구로부터 보은으로 가던 400여 명의 교도들을 진산(珍山)에서 만나 이들을 효유하여 해산시켰다(『續陰晴史』上, 269쪽).

교 금구에 모여 있던 교도들도 4월 5일 이후에는 해산하였다(『續陰晴史』上, 269쪽).

#### ■ 4월

교 “보은집회 이후 동학도(東學徒)가 더욱 치성(熾盛)하여 지례(知禮) 삼도봉(三道峰) 아래 모여 있다”, “진주(晉州) 덕산(德山)에 그 본거지가 있다”거나(「固城府叢瑣錄」『叢書』4, 124쪽), 혹은 “충추·청주 근처에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모인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白石書牘」『叢書』3, 330-331쪽). 또 「대관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에는 보은에서 물러난 교도들이 4월 중순경 다른 지방의 교도들과 합세한 후 경상도 언양(彦陽) 근처에 모여 정부 요직에 있던 간신(佞臣) 28명을 끌어 없애고 이국안민(利國安民)하자는 기치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大阪朝日新聞」1895年 1月 3日 『叢書』23, 138쪽).

#### ■ 5월

전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전라도 순창 근처에 모여있다는 풍문이 있었고(「白石書牘」『叢書』3, 340쪽), 청나라의 전차에 대포와 군수품을 싣고 서울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뮤텔주교일기』1, 1893년 5월 14일). 같은 달 동학교도들이 상주 우복동(牛腹洞)과 호남 두류산(頭流山) 등에 둔취(屯聚)해 있으며, 장리(臟吏)를 죽이지 않고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을 민간에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 모일 것이라고 호언(豪言)하였다(『續陰晴史』上, 276-277쪽).

## ■ 6월 14일 (양. 7월 26일)

기 인천부의 관예(官隸)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14일 밤에 인천부의 아전과 군교, 병사, 백성 등 수백 명이 때를 지어 인천 감리서에 몰려와서 여러 청사와 본 관서의 관예들의 집을 쳐부수었다. 관예 가운데 중상을 입은 자가 16명이었다(『承政院日記』).

## ■ 6월

충 진산의 동학교도들이 동학을 반대하는 금산을 공격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31쪽).

## ■ 7월

교 서병학 등이 최시형에게 교조신원운동을 다시 벌일 것을 요구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54쪽 ; 『海月先生文集』 『叢書』 27, 240쪽).

전 보은집회 후에 손화중은 무장, 김개남은 남원에 본포(本包)를 두었으며, “전봉준은 교도들을 모아 전라도 금구 원평에 주재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전봉준과 김개남은 호남지방에서 교도들을 혹은 모이게 하고 혹은 흩어지게 하며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동학교도들의 회집(會集)은 1892년 7월부터 시작하여 1894년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侍天教宗釋史』 『叢書』 29, 102-103쪽).

충 동학교도들이 충주에서 회집하여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였다(『續陰晴史』 上, 281쪽).

## ■ 9월

충 충청도에서 다시 동학교도들이 모여 500-600명씩 혹은 1,000천여 명씩 취산(聚散)하고 있었다. 이때 체포된 부괴(副魁) 송모(宋某)는 보은집회 때 해산한 이후 조정에서 동학교도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것은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행위라 판단하여 다시는 해산하지 않을 작정으로 재차 모였다고 하였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 : 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148-149쪽).

기 여주 혹은 이천에서 50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옥사를 파괴하고 수감된 교도

1명을 빼내어 갔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叢書』 19, 150쪽 ; 「侍天教宗釋史」『叢書』 29, 103쪽).

## 가을

황 팔봉 접주 김구를 포함한 황해도 동학교도 15명이 보은의 최시형을 찾아와 접주의 접지를 받았다(『白凡逸志』).

## 11월

전 전봉준이 고부민 40명과 함께 군수 조병갑(趙秉甲)에게 폐정개혁을 등소하였다가 체포되었다(「全琿準供草」『叢書』 18, 15쪽).

전 전봉준 등에 의해 고부에서 ‘사발통문 봉기계획’이 작성되었다. 모두(冒頭)에 ‘각이 이집강 좌하(各里 里執綱 座下)’라고 된 사발통문 봉기계획의 앞 부분에는 20명의 서명이 사발 모양으로 쓰여 있으며, 그 뒤에는 선후책(善後策)을 토의결정(討議決定)하기 위(爲)해야 고부(古阜) 서부면(西部面) 죽산리(竹山里) 송두호가(宋斗浩家)에 모여 결의한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의 행동방책이 기록되어 있다.

① 고부성(古阜城)을 격파(擊破)하고 군수(郡守) 조병갑을 효수(梟首)할 사(事), ② 군기창(軍器倉)과 화약고(火藥庫)를 점령(占領)할 사(事), ③ 군수(郡守)에게 아유(阿諛)하여 인민(人民)을 침어(侵漁)한 탐리(貪吏)를 격징(擊懲)할 사(事), ④ 전주영(全州營)을 함락(陷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사(事)

## 12월

전 전봉준이 고부민 60명과 함께 재차 폐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등소를 하였으나 쫓겨났다(「全琿準供草」『叢書』 18, 15-16쪽).\*

\* 정창렬은 조병갑은 11월에 고부민의 정소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의 탐학상이 폭로되어 1893년 11월 30일자로 익산 군수로 전임되었으나, 후임자들이 고부 군수로 임명을 받고도 부임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수령으로 전임되거나, 신병 등을 이유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조병갑은 계속 고부 군수로 남아 있었으며, 1894년 1월 9일 다시 고부 군수로 임용되었지만, 11월 30일 이후에도 조병갑은 전임을 전제로 후임자를 기다리며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고부민들이 12월에 정소(呈訴)를 한 곳은 감영이었다고 이해하였다(鄭昌烈, 『고부민란연구』 하, 『한국사연구』 49, 1985).

## 1894년(甲午年) 1월

### 1월 9일 (양. 2월 14일)

전 익산 군수로 전임되었던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잉임(仍任)되었다(『日省錄』).

### 1월 10일 (양. 2월 15일)

전 고부민란이 발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古阜民擾日記」 54쪽).\*

\* 최영년(崔永年)의 「동도문변(東徒問辨)」에서는 1월 11일 읍민 수백 명이 명례궁보(明禮宮湫)의 수세(收稅)문제로 등소(等訴)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叢書』 6, 351쪽).

전 고부민란 발발 당시 처음에 모인 난민은 500여 명 정도였으며,\* 민란의 양상은 처음부터 “진영은 정숙하였고, 호령은 명석하여 여느 석기군(席旗軍, 일본에서 농민들이 봉기할 때 석기를 내세우고 일어난 데서 온 말) 같지가 않았다. 난민들은 죽창 등으로 무장을 하고 동헌을 습격하였으며, 사발통문의 서명자 명단에 나오는 바와 같이 태인의 최경선, 정읍의 손여옥 등 전봉준과 가깝게 지내던 인근 읍의 동학 접주들이 가담하였다. 지도부는 결군(乞軍)을 조직하여 민인들을 동원한 다음, 총포로 위협하여 강제로 가담시키기도 했다. 관아를 점령하여 탐묵한 이서배를 징치(懲治)하였으며, 창고를 털어 곡식을 나누어 가졌으며, 쉽사리 해산하지 않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古阜民擾日記」 54쪽 ; 張奉善, 「全奉準實記」 『井邑郡誌』, 1936).

\*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는 수천 명이라고 하였으며(『叢書』 1, 49쪽), 「동도문변(東徒問辨)」에서는 수백 명이 명례궁보(明禮宮湫)의 수세(收稅)문제로 등소(等訴)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남유수록(南遊隨錄)」에서는 고부민들이 소원(訴怨)하기 위해 관문 밖에 모였을 때는 시중(市中)에서 따르는 자가 몇 십 명에 불과하였으나, 일경(一境)에서 소문을 듣고 모인 자가 또 다시 몇 십 명이 되었고, 점점 많아져 100명, 1,000명으로 무리를 이루자, 전봉준이 거기에 뛰어들어 장두(狀頭)가 되고 선동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叢書』 3, 193쪽).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던 일본군 후비보병(後備步兵) 독립 제19대대의 미나미 소좌(少佐)가 쓴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에는 “고부민 200여 명이 봉기하였으나 통솔할 사람이 없자 전봉준에게 찾아가 ‘우리를 위해 힘을 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봉준은 거절하였고, 다시 요청하자 전봉준이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중개인이 되어 고부 군수를 경질해줄 것을 전라 감사에게 여러 차례 애원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자 전봉준은 이에 이르러 비로소 폭도에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전 난민(亂民)들이 관아로 쳐들어왔을 때 조병갑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이서배들 역시 도망치고 없자 그들의 가옥을 파괴한 뒤, 옥문을 열고 억울하게 갇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전봉준은 동헌에 들어가 이방(吏房) 등 조병갑의 악정(惡政)에 조력한 자들을 소환하거나, 잡아들여 매일 이들을 심문하여 악정의 시말(始末)을 조사하였다. 진영(陣營)을 관아 안팎에 설치한 고부민들은 장막을 치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웠다. 또 조병갑이 신보(新沓)를 수축한 뒤 고부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창고에 쌓아놓은 벼 1,400석을 양식으로 사용하였다.

### 1월 14일 (양. 2월 19일)

전 14일까지 가담한 사람이 15개 마을 1만여 명이 이르자 장정을 선발하고 노약자는 귀가시켰으며, 각 촌락마다 5명의 대표가 이들을 통할하였다.

### 1월

전 관아를 점령한 후 창고의 곡식을 헐어 나누어 가지는 등 그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관철되자 난민들은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南遊隨錄』 『叢書』 3, 193쪽; 『南原郡東學史』). 이에 대해 지도부는 위협 혹은 설득을 통해 난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전봉준은 해산하려는 난민들에게 “너희들은 관미(官米)를 먹었으니 죽을 죄에 해당한다. 그러니 함께 살 길을 도모하자”고 하였다(『全琫準實記』). 또 지도부는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각각 마을의 동장, 집장들에게 모두 다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고묘하고 지혜로운 수단을 꾸며” 민란을 지속시켰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5-56쪽). 장봉선의 「전봉준실기(全琫準實記)」에서는 이러한 협박과 설득을 통해 “군중은 수령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해산하고자 하였으나 죄과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1월 17일 (양. 2월 22일)

전 난민들은 진영을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지도부는 수차례 회합하여 향후대책을 논의하였고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다.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1월 17일 말목장터로 옮겨 주둔한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백산(白山)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全琫準實記』).

## 1894년(甲午年) 2월

### 2월 15일 (양. 3월 12일)

전 소강상태에 있던 민요가 재기한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日省錄』).

정 농민봉기 진원지 지방관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전라 감사 김문현(金文鉉)이 올린 장계에는 고부의 난민을 잡지 못했고 명확한 조사도 행해지지 못했는데, 단지 해읍의 백성이 폐단을 조목조목 진술한 소장과 해읍의 수령을 파직하여 나문하는 것으로 논죄한 것과 해당 관속(官屬)에 대해 공초(供招)를 받아 처벌해 달라는 요청만 있었다. 이에 문책을 가하여 전라 감사 김문현과 고부 군수 조병갑에게 각각 월봉과 나문정죄(拿問定罪)로 처하고,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다(『日省錄』).

### 2월 19일 (양. 3월 25일)

전 민요가 재기되어 사방에서 무뢰(無賴), 발피(潑皮)가 모여들기 시작하였다(「東徒問辨」 『叢書』 6, 351쪽).

### 2월 20일 (양. 3월 26일)

전 난민의 규모가 천여 명 정도의 세력으로 불어나자 전봉준은 2월 20일경 그 여세를 몰아 민란을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봉기계획’을 실현에 옮기고자 전라도 각지로 ‘보국안민’을 위한 ‘창의격문(倡義檄文)’을 보냈다.\* 『南遊隨錄』에는 그 대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수목지관(守牧之官)은 치민(治民)의 도(道)를 모르고 생화(生貨)의 본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전운영(轉運營)이 창설됨으로써 폐단이 번극(煩劇)하여 민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초야(草野)의 유민(遺民)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좌시(坐視)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군자(君子)들은 제성분의(齊聲奔義)하여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南遊隨錄』 『叢書』 3, 180-181쪽).\*\*

\* 파계생(巴溪生)의 「고부민요일기(古阜民擾日記)」, 황현(黃玑)의 「오하기문(梧下記聞)」 등을 이용하여 2월 22일 전후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정창렬, 앞의 논문, 1985, 126쪽), 고부에서 각지로 격문을 돌린 사실을 2월 20일조에 기록하고 있는 「남유수록(南遊隨錄)」을 근거로 늦어도 2월 20일 이전에 격문이 비전(飛傳)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5).

\*\* 「고부민요일기(古阜民擾日記)」에도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 58주의 동학농민군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 목적은 다만 1군의 이해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리혁(釐革)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병미향(兵米向)은 먼저 군창(郡倉)의 세곡을 빼앗아 이에 충당한다는 것이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6쪽).”

## ■ 2월 22일 (양. 3월 28일)

전 고부민란이 재기하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라 감사 김문현은 군사를 모아 대비하게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0-51쪽).

정 2월 22일에는 국왕의 윤음(綸音)을 반포하여, 민란의 원인이 “탐학한 관리가 백성을 침탈한 데 있다”고 규정하고 여러 지방 관리의 장부(藏否)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日省錄』).

정 갑신정변의 주모자 김옥균은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일행 중 홍종우에 의해 암살되었다(『윤치호일기』 3, 1894.27.March).

## ■ 2월 25일 (양. 3월 31일)

전 말목장터에서 백산으로 이동하였고(『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6쪽), 이어 전봉준은 난민들에게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을 징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요가 월경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고, 난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다(「全琿準實記」).\*

\* 김방선(金邦善)의 『임하유고(林下遺稿)』에도 지도부와 난민 대중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지적하였고(『叢書』 5, 21-23쪽), 초토사 홍계훈의 보고에 따르면 고부민들 사이에는 전봉준을 감영에서 온 수교와 함께 체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3쪽).

전 순천에서 민란이 일어났다(「梧下記聞」 『叢書』 1, 51쪽).

## 2월 26일 (양. 4월 1일)

정 고부 군민의 소요에 대해 이미 안핵사를 파견하였으나 연이은 전라 감사의 보고를 보니, 난민의 정상(情狀)이 갈수록 헤아릴 수 없어 도신과 안핵사로 하여금 별도로 효유하게 하였다(『日省錄』).

## 2월 28일 (양. 4월 3일)

전 영광에서 민란이 일어났다(「梧下記聞」 『叢書』 1, 51쪽).

## 2월 29일 (양. 4월 4일)

전 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 리 떨어진 곳에 동학농민군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8쪽).

## 2월 말경

전 고부의 난민들은 “음력 2월에 이르러서는 ‘보국안민창대의(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펼치며 완전히 반항의 결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방 이웃이 이 기세에 휩쓸려 찾아와 가담하는 자가 많았고 칭하기를 ‘동학당’이라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쪽)고 하여 2월말 무렵이면 각지에서 난민들이 몰려들어 천여 명 정도로 세력이 불어났다. 이때 난민들의 깃발에는 읍호(邑號)가 등장하였으며(박맹수,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관련 신자료 : 東學推考 해제」 『한국근현대사연구』 2, 1995) 본격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林下遺稿」 『叢書』 5, 21쪽).

전 난민들은 서로 교대하여 인원이 감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창을 갖고 삼삼오오 서로 왕래하는 자가 끊이는 일이 없었다. 난민들이 주둔한 근방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음식점을 비롯하여 잡화점 등이 갑작스럽게 장을 이루어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4-55쪽).

## 1894년(甲午年) 3월

### 3월 1일 (양. 4월 6일)

- 전 전봉준은 수백 명의 난민을 동원하여 줄포의 세고(稅庫)를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7쪽).
- 경 영남에는 봄부터 동학이 성행했는데 동학 교주 최시형이 보은 장내리에 ‘수천’의 동학도를 거느리고 있던 상황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世藏年錄』 『叢書』 2, 245쪽 ; 『甲午斥邪錄』 『叢書』 11, 7쪽 ; 『甲午以後日記』).
- 경 관동수접주 최맹순(崔孟淳)이 예천 소야(蘇野)에서 동학의 집을 설치하고 공공연히 포교를 하기 시작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7-8쪽).

### 3월 3일 (양. 4월 8일)

- 전 신임군수 박원명의 효유에 따라 3월 3일경 난민들이 해산하기 시작하였다(『全奉準實記』).
- 전 이때 남은 난민은 3백여 명이었고, 대부분이 동학교도였다(『南原郡東學史』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0쪽).
- 정 암살된 김옥균(金玉均)의 시신이 인천에 도착하자 민씨정권은 갑신정변의 주도자인 개화파에 대해 다시 탄압을 시작하였다(『甲午實記』 『叢書』 6, 268-269쪽 ; 『羅巖隨錄』 『叢書』 2, 383쪽).

### 3월 9일 (양. 4월 14일)

- 정 중국 병선(兵船)이 월미도(月尾島) 뒷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역적 김옥균의 시신을 신고 왔으므로 즉시 한양선(漢陽船)에 옮겨 신고 그대로 출발하여 경강(京江) 쪽으로 갔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 『日省錄』).
- 정 시원임 대신의 차자(筭子)와 양사(兩司)의 합계(合啓)로 인하여, 역적 김옥균에게 모반대역부도율(謀反大逆不道律)을 적용하고 이괄(李适)과 신치운(申致雲)을 처벌했던 전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 ■ 3월 10일 (양. 4월 15일)

전 전봉준이 사냥꾼들로부터 총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0쪽).

### ■ 3월 11일 (양. 4월 16일)

전 동학농민군 약 3,000여 명쯤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扶安)으로 가는 것을 태인에서 볼 수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3쪽).\*

\* 여기서는 “대장으로 추대된 자는 전명술(田明述)이라 하며 연령은 40세 가량으로서 복장은 보통이었다”고 하여 전봉준 부대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시천교역사(侍天敎歷史)」 『叢書』 29, 614쪽에는 3월 17일 손화중이 수천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태인, 부안 등지를 순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충 3월 11일경 충청도 황간, 영동(永同), 옥천, 보은 등지에서도 동학교도들이 크게 일어나 양반들이 봉욕을 당하였다(『白石書牘』 『叢書』 3, 451쪽, 453쪽, 456쪽).

### ■ 3월 12일 (양. 4월 17일)

충 금산에서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몽둥이를 들고 흰 수건을 쓰고서 관아로 몰려와 아전의 집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다(『梧下記聞』 『叢書』 1, 55-56쪽). 이때 금산에서 통문을 돌린 것은 금산의 ‘동도소(東都所)’였다(『日省錄』; 배항섭, 앞의 논문, 1995).\*

\* 신용하 교수는 이것을 무장의 동도소(東都所)로 해석하여 그것을 ‘남접대도소’라 명명하였으며, 농민전쟁의 전개와 관련하여 이 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위 사료의 ‘동도소’를 전봉준이 손화중, 김개남 등과 협의하여 북접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무장(茂長)에 세운 남접대도소로 이해하였으며, 그 시기는 대략 안핵사 이용태(李容泰)가 도착하여 민란 주동자들을 수색 체포하기 시작한 2월 29일에서 3월 3일경으로 추정하였다(愼鏞廈,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1993, 139-141쪽).

### ■ 3월 13일 (양. 4월 18일)

전 고부민란 참여자들이 완전히 해산하였다(정창렬, 앞의 논문, 1985, 113쪽). 전준은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林下遺稿』 『叢書』 5, 21-22쪽; 「金洛鳳履歷」 『叢書』 7, 377쪽).\*

\* 「전봉준실기(全琫準實記)」에는 고부민란이 끝난 다음 전봉준이 손화중을 찾아간 데 대해, “부하를 잃은 전봉준이 몸소 방문하여 구원을 청함에 손화중은 시기상조를 역설하였으나 전씨의 간원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 ■ 3월 16일 (양. 4월 21일)

전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동음치면(冬音峙面) 당산(堂山)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00여 명이였다.

### ■ 3월 18일 (양. 4월 23일)

전 동학농민군이 사방에서 몰려와 1,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수백 명이 법성포(法聖浦) 진량면(陳良面) 용현리(龍峴里) 대나무 밭에서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조충·호미·낫·삽 등을 탈취해갔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동학에 반대하고 탄압하였던 자들을 잡아다가 구타하였고, 군량으로 삼기 위해 인근 석교촌(石橋村)의 미곡상(米穀商) 덕필(德必)이 무치(貿置)해 둔 백미(白米) 60석을 빼앗고 그 집을 파괴하였다. 또 이들은 무장현감에게 글을 보내 일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통보하였다(「隨錄」 『叢書』 5, 159-161쪽).

### ■ 3월 20일 (양. 4월 25일)

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포고문’을 발포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4쪽 ;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29, 1985, 117-118쪽). 이 때 모인 동학농민군의 수는 약 4천여 명이였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1쪽).

전 동학농민군은 기포와 동시에 기포(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①불살인 불살물(不殺人 不殺物) ②충효쌍전 제세안민(忠孝雙全 濟世安民) ③축멸왜이 징청성도(逐滅倭夷 澄清聖道) ④구병입경(驅兵入京) 진멸권귀(盡滅權貴) 대진기강 입정명분(大振紀綱立定名分) 이종성훈(以從聖訓) 등 사대명의(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大韓季年史」 『叢書』 4, 363쪽 ; 「時事新報」 『叢書』 22, 292-293쪽, 295쪽).\*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에는 4대 명의가 3월 25일에 내걸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내용의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 6만 명의 동학농민군을 불러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 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여 동학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시에 ‘4대명’을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시사신보(時事新報)」에도 동학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시기 동학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11, 2002).

전 무장의 부민들에게서 군량(軍糧)을 징수한 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1쪽),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고부로 향하였다(「大阪朝日新聞」 『叢書』 23, 11-13쪽).

### 3월 21일 (양. 4월 26일)

전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이 20일과 21일에 걸쳐 고창(高敞)으로 이동, 21일은 고창에서 숙영하였다.\*

\* 동학농민군은 3월 20일 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포한 다음 적어도 그 가운데 일부는 곧바로 고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줄포에 있던 일본인 과계생(巴溪生)이 쓴 「고부민요일기(古阜民擾日記)」에 따르면 흥덕의 장사꾼들의 말에 의거하여 3월 20일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무장의 굴치를 넘어 덕흥리를 지나갔으며, 다음 날은 고창에 모였다가 점차 서진하여 일부는 정읍으로 일부는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는 사포를 지나 줄포로 왔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古阜民擾日記」 57쪽. 「고부민요일기」는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265-289쪽과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中, 『叢書』 25, 17-30쪽에도 실려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이 흥덕에 들어간 것은 3월 22일이었고, 고창 쪽에서 이동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20일과 21일에 걸쳐 고창으로 이동한 다음 고창에서 하루를 숙영하고 22일 흥덕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고창에 들어올 때 동학농민군들은 “구폐교정절목(揀弊矯正節目)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해산하였으나, <동학농민군들을> 잡으려고만 하니 무슨 마음에서인가? 장차 전주로 가서 감영과 안핵사에게 그 이유를 묻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隨錄」 『叢書』 5, 179쪽).

전 고창에 머물던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는 3월 21일부터 정읍-고부 방향으로, 일부는 사포를 지나 줄포 방향으로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7쪽).

### 3월 22일 (양. 4월 27일)

전 고창에서 숙영한 동학농민군이 흥덕으로 향하여 이날 정오 무렵 동학농민군은 말을

타거나 걸어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며, 북을 두드리고 총을 쏘아대며 흥덕 사후포(沙後浦)로 들어갔다(『隨錄』 『叢書』 5, 161-162쪽).

### ■ 3월 23일 (양. 4월 28일)

전 흥덕에서 하루를 머문 동학농민군은 이날 부안 줄포로 향하였고, 오전 10시경 머리에 황색 두건을 쓴 십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미리 줄포에 들어와 점심 3천 5백상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점심 때쯤 줄포 사정(射亭)으로 동학농민군 수천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오후 6시쯤 고부로 향하였다(『隨錄』 『叢書』 5, 161-162쪽).

전 동학농민군은 청홍백황색의 깃발을 상하로 흔들고 좌우로 받치거나 혹은 급하게 혹은 느리게 흔들며 부대를 지휘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무기로는 죽창, 활, 화살, 창이 있었고 총은 구제의 화승총이었다. 동학농민군을 이끄는 도장(都將)은 아직 정졸(丁卒)에도 이르지 못하는 소장부(小丈夫)라는 소문이 돌았고, 동학농민군은 고부로 출발하기에 앞서 폐정의 이혁(厘革)을 요구하는 격문을 사방에 부착하였으며, 그 요체는 “아태조(我太祖)의 혁신정치로 돌아가면 그친다”는 것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7-58쪽).

전 동학농민군의 깃발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혹은 순천, 광주(光州) 등의 지역명이 쓰여 있었다(『隨錄』 『叢書』 5, 162쪽).

전 저녁 8시경에는 승마자 20여 명을 포함하여 총창 등으로 무장한 3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고부에 들어왔다. 이들은 향교와 관아 건물에 분산하여 주둔해 있으면서 저녁은 읍내의 이민가(吏民家)에 분정하여 해결하였다(『隨錄』 『叢書』 5, 162-163쪽, 177-178쪽).

### ■ 3월 24일 (양. 4월 29일)

전 고부의 동학농민군들이 고부군의 군기를 탈취하여 태인과 금구 원평 방면으로 향하였다.

전 제주의 동학농민군이 사포에 상륙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8쪽).

### ■ 3월 25일 (양. 4월 30일)

전 동학농민군 일부는 이날 태인으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고, 일부는 이날 고부에서 두 지면으로 이동하여 화약고를 공격하였다가 실수하여 화약이 폭발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어 군기고를 공격하였고 고부 백산 예동에서 숙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6쪽 ; 『隨錄』 『叢書』 5, 162-163쪽, 177-179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8쪽).

전 고부의 공형들은 동학농민군들은 평민이 아니라 동학교도(東學教徒)라고 보고하였다(『隨錄』 『叢書』 5, 163쪽).

정 호서·호남·영남의 험잡지류의 취당을 엄단할 것을 명령하여 우두머리를 우선 효수하여 경계하도록 하는 등 강경한 대책을 시행하였다(『日省錄』 「命湖西湖南嶺南雜類聚黨嚴飭禁斷」).

### ■ 3월 26일 (양. 5월 1일)

전 저녁 6시경 고부 백산 예동에 있던 동학농민군은 백산이 있는 태인군 용산면 화호(禾湖) 신덕정리(新德亭里)로 이동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6쪽 ; 『隨錄』 『叢書』 5, 179-180쪽).

전 백산지역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김제군에 전령(傳令)을 보내 읍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과 곡식이 얼마쯤인지 내용을 잘 아는 아전이 장부를 가지고 길가의 역참에서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6쪽).

### ■ 3월 26일 - 29일 (양. 5월 1일-5월 3일)

전 백산의 동학농민군은 3월 26일 저녁에서 3월 29일 오후 2시 사이에 이른바 ‘백산대회’를 통해 진용을 새로 갖추었다.\*

\* 백산대회가 개최된 날짜에 대해 신용하는 3월 25일 동학농민군의 진용을 개편하면서 ‘4대명의’와 ‘12개조 규율’을 공포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격문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신용하, 앞의 논문, 1985, 131-133쪽). 정창렬도 백산대회의 날짜를 3월 25일로 이해하면서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에 나오는 바 “고부읍에서 유연(留連)한지 삼일 후에 대군을 몰아 고부 백산에 진을 옮기고”라는 내용을 근거로 “진봉준 부대가 고부에 도착한 것은 3월 23일이고, 그 3일 후는 3월 25일이니까, 백산대회는 3월 25일이 된다”고 이해하였다(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35쪽 주28 참조). 그러나 3월 23일의 3일 후를 3월 25일로 파악한 점이 석연하지 못하며, 동학농민군의 날짜별 활동지역을 살펴 볼 때도 동학농민군이 총 집결한 ‘백산대회’가 3월 25일에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우선 전봉준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의 경로는 3월 23일 12시경 줄포에 도착하여 오후 6시경에 출발하였으며, 오후 8시경에는 고부를 점령하였다. 3월 24일에는 원평 방면으로 향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25일 고부 두지면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화약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약이 폭발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인 오후 2시경 군기고로 향하기 위해 고부 서북쪽 간로(間路)상에 있다가 고부 백산과 예동에서 숙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梧下記聞』 『叢書』1, 56쪽 ; 『隨錄』 『叢書』5, 163-164쪽, 178쪽, 180쪽).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일부의 동학농민군은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그날 밤을 머물렀다(『梧下記聞』 『叢書』1, 56쪽 ; 『隨錄』 『叢書』5, 178쪽). 이상의 사실로 볼 때 3월 25일 현재 전봉준 부대는 고부의 동북쪽에 있는 백산이 아닌 먼 고부 서북쪽에 있는 군기고를 공격하였으며 그날 밤은 고부 백산과 예동에서 숙영하였다. 또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 따라서 3월 25일 백산대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 때 백산대회가 개최된 시점은 동학농민군 본대가 백산과 예동으로부터 태인 화호(백산 옆)로 이동하여 주둔한 3월 26일 저녁 6시경(『梧下記聞』 『叢書』1, 56쪽 ; 『隨錄』 『叢書』5, 179-180쪽)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동 시점이 저녁 6시경인 점을 고려하면 3월 27일 이후부터 ‘제중의소(濟衆義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3월 29일 오후 2시 이전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배항섭, 앞의 논문, 2002)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백산으로 옮긴 이후부터 동학농민군들은 각지로 전령과 통문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백산대회 직후로 여겨지는 3월 29일경 동학농민군의 수는 무장기포 당시의 2배에 가까운 6, 7천여 명이었다(『隨錄』 『叢書』 5, 182쪽).

전 백산대회를 통해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總管領)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總參謀)에 김덕명·오시영, 영솔장(領率將)에 최경선, 비서(秘書)에 송희옥·정백현을 선정하였다(『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467-468쪽 ; 『東學史(草稿本)』 『叢書』 1, 456-457쪽).\*\*

\*\* 초고본에는 간행본과 달리 “손화중, 김개남이 총관령이 되고 김덕명, 오시영이 총참모가 되고 최경선이 영솔장이 되고 송희옥, 정백현 등이 비서가 되었었고”라는 내용이 빠져 있으며, 격문을 발한 주체도 호남창의소(湖南倡義所)로 되어 있다. 한편 백산대회나 창의문은 유일하게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나와 있다.

전 백산대회 당시 대장기폭(大將旗幅)에는 보국안민이라고 크게 써넣었고, 두 번째로 격문(檄文)을 써서 사방에 전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 문 : 우리가 의(義)를 거(擧)하여 차(此)에 지(至)함은 그 본의(本意)가 단단타(斷斷)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蒼生)을 도탄(塗炭)의 중(中)에서 건지고 국가(國家)를 반석(磐石)(반태산(磐泰山))의 우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貪虐)한 관리(官吏)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횡포(橫暴)(강포(強暴))한 강적(強賊)(도적(盜賊))의 무리를 구축(驅逐)하자 함이다. 양반(兩班)과 부호(富豪)의 앞에 고통(苦痛)을 받는 민중(民衆)들과 방백(方伯)

과 수령(守令)의 밑에 굴욕(屈辱)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冤恨)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躊躇)치 말고 이 시각(時刻)으로 일어서라. 만일(萬一) 기회(期會)를 잃으면 후회(後悔)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甲午 正月 日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467-468쪽 ; 『東學史(草稿本)』, 『叢書』, 1 456-457쪽)

\*\*\* 말미에 대회날짜를 갑오 정월로 기록한 것은 3월의 오기이다.

### ■ 3월 29일 (양. 5월 4일)

전 백산에 설진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태인현으로 서찰 한통을 보내 포수와 창수 각 1백 명을 거느리고 북과 나팔, 징과 바라를 일제히 울리며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서찰 말미에는 '제중의소(濟衆義所)'라고 서명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6쪽).

전 이날 저녁\* 6-7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태인읍으로 들어가 곧장 동헌과 내아(內衙)를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관정(官庭)에 공형들을 결박하여 둔 채 하루를 머물렀다가 다음 날 금구를 향해 출발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8쪽 ; 『隨錄』 『叢書』 5, 165, 180-182쪽).

\* 태인현을 공격한 날짜는 「수록(隨錄)」 『叢書』 5, 165쪽에는 3월 28일로, 180쪽과 182쪽에는 3월 29일 밤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3월 29일 오후에 태인현으로 서찰을 보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3월 29일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위영(壯衛營) 정령관(正領官) 홍계훈(洪啓薰)을 전라병사(全羅兵使)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日省錄』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3쪽 ; 『兩湖電紀』 『叢書』 6, 85쪽)

## 1894년(甲午年) 4월

### 4월 1일 (양. 5월 5일)

전 태인의 동학농민군이 감금되어 있던 죄수들을 방송하는 한편, 공금과 문서들을 몰수하여 오전 10시경에 원평으로 가는 대로로 진격하였다. 이날 정오경 원평에 도착한 동학농민군은 천변(川邊)에 설진하고 숙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8쪽; 「隨錄」 『叢書』 5, 165쪽, 180-182쪽).

전 ‘백산여당(白山餘黨)’으로 표현된 고부지역의 일부 동학농민군이 부안으로 갔으며, 이들은 부안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하동면(下東面) 분토동(分土洞)에 주둔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는 500여 명이었으며, 죽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붉은 깃발에는 ‘보국안민’이라고 쓰여 있었고, 작은 깃발에는 부안·고부·영광·무장·홍덕·고창 등의 읍호(邑號)가 쓰여 있었다. 또 이들 가운데 200여 명이 관아로 쳐들어감 감영으로 보내기 위해 차출하여 장청에 대기시켜 놓았던 포군들을 각안기업(各安其業)하라며 모두 해산시켰다(「梧下記聞」 『叢書』 1, 59쪽; 「隨錄」 『叢書』 5, 167쪽, 182-183쪽).

전 진산(珍山) 방축리(防築里)와 충청도 옥천(沃川) 서화면(西化面)에도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다(「隨錄」 『叢書』 5, 183쪽).\*

\* 진산의 동학농민군이 4월 2일 금산의 행상 김치홍, 임한석 등의 공격을 받아 패산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산에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이루어 모인 것은 늦어도 4월 1일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 충청병사 이용복(李容復)이 장계에서, 동학농민군 3,000명이 성외(城外)의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영(令)을 전달하여 효유하였으나 해산은 고사하고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서, 그들의 종적을 살펴본 뒤에 병력을 동원하여 토벌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2쪽).

경 김산·지례·거창에서 4월 중순 동학농민군의 협의로 대구로 잡혀온 20여 명 중 3명이 동학의 주문을 품안에 숨기고 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9쪽).

#### 4월 2일 (양. 5월 6일)

전 이날 아침 부안 분토동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이 부안공형에게 사통을 보내 장시(場市)에서 분전수세(分錢收稅)하는 일을 금지할 것 등 4개조의 폐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부안읍에 쌓아둔 전곡 가운데 쌀 10석과 돈 200냥을 즉시 보낼 것을 지시하고, 읍내 신재명(辛在明)의 집에 무치(賃置)해 두었던 쌀 120석을 집유(執留)하여 다른 데로 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공형들에게는 지목전(指目錢)이라는 명목으로 4,000냥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였다. 이들은 4월 2일 저녁 6시경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총을 쏘며 부안현 서도면(西道面) 부흥역(扶興驛)으로 옮겨 주둔하였다(『隨錄』 『叢書』 5, 167-168쪽).

전 진산의 동학농민군이 김치홍(金致洪)과 임한석(任漢錫)이 이끄는 보부상의 공격을 받아 114명의 전사자를 내는 큰 타격을 입었다(『隨錄』 『叢書』 5, 184쪽).

전 부안현감 이철화(李喆和)는 이들이 금산이나 태인 지역의 동학농민군과“일이어야(一而二也) 합성일단(合成一團) 분작삼대(分作三隊) 상통성기(相通聲氣)”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隨錄』 『叢書』 5, 167-168쪽).

충 홍계훈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장위영(壯衛營) 병대와 통위영(統衛營) 병대 그리고 서영(西營)의 평양병을 이끌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쪽 ; 『兩湖電記』 『叢書』 6, 85쪽 ; 『日省錄』).

정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격을 높여 장위영병을 이끌고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서도록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쪽 ; 『兩湖電紀』 『叢書』 6, 85쪽 ; 『日省錄』).

#### 4월 3일 (양. 5월 7일)

전 금구 도로변에 설진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감영 포군 1만여 명이 동학농민군을 치러온다는 소문을 듣고(『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1쪽) 오후 4시 금구에서 후퇴, 오후 6시경 태인으로 와서 인곡, 북촌, 용산 등지에서 숙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59쪽 ; 『隨錄』 『叢書』 5, 166쪽, 184-185쪽).

정 고종이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소를 옮겼다(『日省錄』).

관 이날 감영에서는 김제, 부안, 흥덕, 고창, 정읍, 장성, 태인 등 7개 읍에 동학농민군들이 후퇴할 때 뒤따라가며 섬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梧下記聞』 『叢書』 1, 60쪽).

- 관 금산군에서 진산, 옥천 등지에 둔취해 있는 동학농민군에 대처하기 위해 병정과 각 읍으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던 포군을 보냈다(「隨錄」『叢書』 5, 184쪽).
- 관 홍계훈이 호남에 진주하기 위해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이두황(李斗璜)과 교장(敎長) 이문구(李文九)·이명구(李明九)·양성록(楊聖祿)·최흥정(崔興禎)과 2개 부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미시(未時, 오후 1-3시) 경에 인천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또한 대관인 오달영(吳達泳)·오원영(吳元泳)·원세록(元世祿)과 교장인 윤희영(尹喜泳)·추성엽(秋聖燁)·김대유(金大有)·한응연(韓應淵)·김진풍(金振豐)·홍명석(洪明錫)이 3개 부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유시(酉時, 오후 5-7시) 경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膽錄」『叢書』 6, 3쪽 ; 「兩湖電記」『叢書』 6, 85쪽).
- 관 홍계훈이 감리서에 4일 출발할 것을 알리고 분란이 없게 하라는 감결을 보냈다(「兩湖招討膽錄」『叢書』 6, 26쪽).

#### 4월 4일 (양. 5월 8일)

- 전 태인의 인곡, 북촌, 용산 지역에서 숙영한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는 태인에 남고\* 1천여명은 4일 12시경에는 부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4월 1일 무렵부터 부안에 모여 있던 500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부안의 동학농민군은 동헌을 공격하여 현감을 구금하고 공형을 결박한 다음, 군기를 탈취하였다(「隨錄」『叢書』 5, 170쪽, 186쪽 ; 「東匪討錄」『叢書』 6, 160쪽).

\* 4월 6일 밤 혹은 4월 7일에 낮에도 태인의 인곡, 북촌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도교산으로 이동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隨錄」『叢書』 5, 171쪽 ; 「兩湖招討膽錄」『叢書』 6, 9쪽) 이때 일부는 부안으로 가고 일부는 태인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황현은 동학농민군이 합세한 곳을 상소산(上蘇山)이라 하였다(「梧下記聞」『叢書』 1, 60쪽).

- 전 4월 4일 부안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제중의소(濟衆義所)라는 명의로 범성포 이항에게 민폐의 근본은 구실아치의 부정에 있고, 구실아치의 부정원인은 탐관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탐관이 범하게 된 것은 집권자의 탐람(貪婪)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9개조의 민막(民瘼)이 포함된 통문을 보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쪽 ; 「東匪討錄」『叢書』 16, 176-177쪽).

- 전 이날 새벽 고산 관아문 밖 기둥에 “본도대장 서(本道大將 徐)”의 명의로 “장차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5일 오후 4시경 고산을 지날 터이니 병사 한 사람당 짚신 1짝과

돈 1냥씩을 준비해두라”는 방문이 붙었다(『隨錄』 『叢書』 5, 185-186쪽 ; 『東匪討錄』 『叢書』 6, 160쪽).

전 태인, 김제, 부안, 고부 등 4개 읍으로 통하는 길을 모두 차단하여 동학농민군들의 이동을 막도록 하고, 감영의 중군(中軍)이 병대를 이끌고 태인 지역으로 들어갔다. 정오 무렵 금구 원평에서 113명의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체포되었고, 여산에서도 1명, 전주 부근 마을에서 2명이 체포되었다(『梧下記聞』 『叢書』 1, 60쪽 ; 『隨錄』 『叢書』 5, 186쪽). 그러나 이 가운데 동학농민군은 수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양민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1쪽).

정 시원임대신회의에서 농민반란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일부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선탄압의 방침을 재확인했다(『日省錄』).

관 홍계훈이 3개 부대를 인솔하여 평원호를 타고 유시 경에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4쪽).

관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경에 대관 원세록이 거느리고 있는 1개 부대의 병력이 군수물자와 대포와 함께 창룡호(蒼龍號)에 탑승하였다. 대관 이두황이 거느리고 있는 1개 부대의 병력이 한양호(漢陽號)에 탑승하였고, 나머지 3개 부대의 병력은 중국의 군함(軍艦) 평원호(平遠號)에 타고 신시(申時, 오후 3-5시) 경에 출발하여 호남으로 내려갔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쪽 ; 『兩湖電記』 『叢書』 6, 85쪽).

#### 4월 5일 (양. 5월 9일)

전 부안의 동학농민군들이 아침에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맹장(猛杖)을 쳤으며, 정오 무렵 관아에서 부안 성황산(城隍山)으로 이동하였다.

전 오전 10시경 진잠(鎭岑)의 평민(平民) 수천 명이 모여 동학교도의 집 9채를 파괴하자, 동학농민군 역시 장차 통문을 돌려 일제히 모이고자 하였다(『東匪討錄』 『叢書』 6, 161쪽).

전 정읍에서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올라와 부안의 동학농민군 대열에 합세하였다(『隨錄』 『叢書』 5, 186쪽).

관 4곳의 중국 병선(兵船)이 안개때문에 바다에 끼어 지체하였다가 유시경에 군산포 앞 바다에 정박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86-87쪽).

관 이두황이 신시경에 군산포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쪽).

관 원세록이 술시(戌時, 오후 7-9시)경에 군산포 앞 바다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쪽).

관 홍계훈이 유시경에 군산진에서 조금 떨어진 바깥 바다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쪽).

#### ■ 4월 6일 (양. 5월 10일)

전 부안에 있던 동학농민군은 4월 6일 아침 8시경부터 부안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고부의 도교산(道橋山)으로 향하였고, 감영에서는 병정과 별초군(別抄軍) 보부상(裨負商)을 도교산으로 파견하였으며, 동학농민군과 이들은 황토산(黃土山)에서 맞닥뜨려 오후 4시경부터 접전이 시작되었다(『隨錄』 『叢書』 5, 173-174쪽).

전 태인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들도 4월 6일 밤 8시경에는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였으며, 다음날인 4월 7일 새벽 4시경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감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1-62쪽; 『隨錄』 『叢書』 5, 171-172쪽, 174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쪽; 『東匪討錄』 『叢書』 6, 16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9쪽; ).\*

\* 태인과 부안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시각과 관련하여 사료상에 일부 혼란이 있어서 어떤 자료에는 4월 7일에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隨錄』 『叢書』 5, 171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쪽). 그러나 4월 7일 새벽에 도교산 황토현에서 감영군(監營軍)을 격파한 동학농민군은 곧장 정읍으로 향하여 오후 2시경에는 정읍 연지원(蓮池院)과 모천(茅川) 강변에 둔취해 있었고(『隨錄』 『叢書』 5, 172쪽, 175쪽), 그 날 밤 8시에는 정읍 관아를 공격하고 있었다(『隨錄』 『叢書』 5, 175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쪽). 따라서 「수록(隨錄)」과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에 나오는 태인 현감 홍면주(洪冕周)의 첩정(牒呈) 내용 가운데 태인의 인곡, 북촌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시각인 “당일 술시(戌時)”는 4월 6일 밤 8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隨錄』 『叢書』 5, 171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쪽). 이때는 이미 고부 도교산 옆에 있는 황토현에서는 부안으로부터 이동한 동학농민군과 영군 간의 전투가 시작된 다음이므로 태인에 있던 동학농민군도 이 소식을 접하고 합세하기 위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8일 고부 군수 박원명이 보고한 첩정 가운데 태안과 부안에 둔취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였다는 시각인 “작일 오시(午時)” 역시 4월 6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隨錄』 『叢書』 5, 171쪽).

전 줄포에서 낙오한 동학농민군 수명이 체포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8쪽).

전 4일 동학농민군에 잡혀 있던 부안현감 이철화는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4월 6일 오후 구금에서 풀려났다(『隨錄』 『叢書』 5, 173-174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쪽).

관 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京軍) 700여 명이 4월 6일 오후 4시경 군산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임피로 이동하여 숙영하였다. 경군은 도착하자마자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병이 패배 소식을 접하고 크게 위축되었다(『兩湖電記』 『叢書』 6, 93쪽).

관 홍계훈이 탄 중국 병선(兵船)이 군산포 물이 얕아서 포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시경에 육지에 내려 곧바로 전주로 향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쪽 ; 『兩湖電記』 『叢書』 6, 86-87쪽).

관 홍계훈이 교장 이하 병사들에게 육지에 이르러 주의할 것을 효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6-27쪽).

관 홍계훈이 대관에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전령을 보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7쪽).

관 홍계훈이 공주 공형에 “각자 맡은 일을 차질 없이 하라”고 통지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7-28쪽).

#### ■ 4월 7일 (양. 5월 11일)

전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4월 7일 오후 2시경 정읍의 연지원(蓮池院)과 모천변(茅川邊)에 진을 쳤다. 동학농민군은 이날 밤 8시경 읍내로 들어가 정읍관을 공격하여 옥문을 파괴하고 수감되어 있던 동학교도 6명을 풀어주었으며, 무기고를 파괴하여 기계와 창검 등의 무기를 탈취한 다음 공형과 이속, 도사령(都使令)의 가산을 파괴하고 보부상의 주접처(住接處) 3집을 불태웠다. 이들은 저녁을 먹은 다음 밤 10시경 고부 삼거리로 가서 숙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3쪽 ; 『隨錄』 『叢書』 5, 172쪽, 175-176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9-10쪽 ; 『兩湖電記』 『叢書』 6, 89쪽 ; 『東匪討錄』 『叢書』 6, 162쪽).

전 동북에서 이미 4월 7일 이전에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동북현을 공격하여 군기와 관곡을 탈취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쪽).

전 황토현 전투 직후인 4월 7일경 부안 근처 13읍의 수령들은 모두 감영으로 도피하였으며, 군기와 전곡(錢穀)은 동학농민군에게 탈취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8쪽).

- 충 충청 감사 조병호(趙秉鎬)가 조정에 전보(電報)로, 충청도의 동학농민군들이 진잠(鎭岑), 연산(連山), 옥천 등지에 각각 5-6천 명씩 무리를 모아 주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공주 이인역(利仁驛)에 부상(負商) 4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학농민군들이 부상만 보면 죽여서 원한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쪽).
- 관 초토사가 이끄는 장위영병이 고부에 도착하여 이날 고부에서 숙영하였다. 홍계훈은 경군 수백 명과 청군 17명과 함께 도착하였으며 청군은 대환포(大丸砲) 4좌(坐)를 가지고 왔다(『隨錄』 『叢書』 5, 172쪽, 174-175쪽).
- 관 홍계훈과 장관이 임피현을 출발하여 유시 경에 완산(完山)에 도착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이 창궐하여 완군(完軍)의 기가 꺾여 그들을 효유(曉諭)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동학농민군에 전주 감영군이 패배하였다. 함헌감(欽憲監)이 오후 6시 반에 전주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7쪽 ; 『兩湖電記』 『叢書』 6, 86-87쪽).
- 일 일본육군 참모총장이 포병 소좌 이지치 고스케(伊地知幸介)를 부산으로 파견하여 재부산 일본영사관의 무관 및 총영사 등과 협의하고 재경성 대리공사 스기무라(杉村濬)와 통신을 통해 농민전쟁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參謀本部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 1, 94쪽).

#### ■ 4월 8일 (양. 5월 12일)

- 전 오전 10시경에 동학농민군은 고부군 신점 쪽에서 흥덕으로 진격하여 민가에 요구하여 점심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모군(募軍)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반드시 실상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며 군기고를 부수고 환약(丸藥)과 창검, 조총 등을 탈취한 후 오후 2시경에 고창으로 향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3쪽 ; 『隨錄』 『叢書』 5, 190-192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9-10쪽 ; 『東匪討錄』 『叢書』 6, 163쪽).
- 전 오후 2시경에는 정읍 방향으로부터 각기 20여 명과 40여 명으로 구성된 동학농민군이 차례로 흥덕 이동면 율현 대로와 일남면 구산 앞 대로를 거쳐 곧장 고창으로 향해 갔다(『隨錄』 『叢書』 5, 192쪽).
- 전 밤 8시경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흥덕으로부터 고창에 들어와 곧장 관아를 공격하여 옥문을 부수고 체포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7명을 석방하고 대정현감(大靜縣監)을 지낸 읍내 은모(殷某)의 집을 공격하여 가산을 파괴하고 방화하였으며,\* 이어 성안으로 들어와 군기를 탈취하고 호적 등 장적(帳籍)을 거두어 조사하였고, 동헌 및 각

공해를 파괴하고 현감이 가진 인부를 탈취하려 하자 현감은 도주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날 밤 고창에서 숙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4쪽 ; 「隨錄」 『叢書』 5, 189-192쪽 ; 「兩湖招討臚錄」 『叢書』 6, 9-10쪽 ; 「東匪討錄」 『叢書』 6, 164쪽).

\* 이때 고창에 들어간 동학농민군들은 은대정의 집뿐만 아니라 부내(府內)에 방화하여 내쫓긴 사람의 수가 1만 8천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9쪽).

전 고창현에서 동학농민군 7명이 체포되었다(「隨錄」 『叢書』 5, 189쪽).

전 정읍에서도 동학농민군 70여 명이 체포되었지만, 이 가운데 동학농민군은 5-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208쪽).

충 회덕 현감이 충청 감사 조병호에게, 동학농민군 누천명(屢千名)이 읍내 관아에 돌입하여 군기를 빼앗아 진잠으로 향했다고 보고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5쪽).

관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충청병사 이용복(李容復)에게 감결을 보내 충청도는 동학 도당의 소굴이라 하면서 철저히 그 정형을 탐지하여 감결이 도착한 후 3일 안에 전주부(全州府)로 급히 보고하도록 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33쪽).

관 군함이 무사히 도착하였다. 동학농민군 백여 명을 포로로 잡아 진영(鎭營)에 가두었다. 고부 도교 전투에서 전주 감영군 7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동학농민군이 회덕(懷德)의 백사장에 있다고 하여 충청도 감영으로부터 회덕에 포군을 동원하여 보냈다. 중국 군함의 함장 이화(李和)가 전주에 이르러 적정을 정탐한 뒤에 형세를 보아 육지에 내리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회덕의 동학농민군이 관아에 돌입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진잠으로 향하자 금영(錦營, 충청감영)에서 군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87-89쪽).

관 홍계훈이 전주관관에게 전령을 보내 군사가 주둔할 때 필요한 보루, 깃발, 토갑 등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28쪽).

관 홍계훈이 아전 관노 사령청에 전령을 보내 주의할 점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28쪽).

관 홍계훈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인도할 자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32쪽).

관 홍계훈이 충청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를 잡아들이고 보고

하는 것을 요구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2-33쪽).

관 홍계훈이 청주 감영에 감결을 보내 동학농민군의 정형을 수색하고 전주에 보고하는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3쪽).

관 홍계훈이 53주에 감결을 보내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고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3-34쪽).

#### 4월 9일 (양. 5월 13일)

전 고창에서 하루 밤을 머문 동학농민군은 12시쯤 고창을 떠나 무장으로 향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4쪽 ; 「隨錄」 『叢書』 5, 189-190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10쪽 ; 「東匪討錄」 『叢書』 6, 164쪽).

전 오후 4시경 무장으로 들어갔다.\*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는 1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들은 체포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40여 명을 풀어주었고, 동헌과 공해(公廨)를 파괴하였으며 군기고를 파괴하여 화약 등 무기를 탈취하였으며, 또 성 내외의 인가를 불태웠다. 이어 도망간 이서배들을 수배하는 한편, 아전과 군교 10여 명을 죽였고 주변을 둘러싸는 성을 만드는 한편 무장 관아에서 10리쯤 떨어진 호산봉(狐山峰)에 설진(設陣)하여 3일을 머물렀다(「梧下記聞」 『叢書』 1, 66쪽 ; 「隨錄」 『叢書』 5, 193-194쪽, 196-198쪽, 203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11쪽, 15쪽 ; 「兩湖電記」 『叢書』 6, 96쪽 ; 「東匪討錄」 『叢書』 6, 165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쪽).

\* 무장에 들어간 시각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난다. 4월 9일 낮 12시에 고창에서 무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는 기록(「隨錄」 『叢書』 5, 190쪽), 오후 4시에 무장에 도착하였다는 기록(「隨錄」 『叢書』 5, 193쪽), 오전 10시에 무장에 도착하였다는 기록(「東匪討錄」 『叢書』 6, 165쪽)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수록(隨錄)」의 기록을 따르기로 한다.

전 옥과에서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관아로 쳐들어가 현감을 결박한 다음 군기 및 관곡(官穀)을 모두 탈취하여 정읍으로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쪽).

전 무장현에서는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무장을 떠나간 이후 4월 9일 체포한 29명을 포함하여 4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어 있다가, 4월 9일 다시 무장을 점거한 동학농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梧下記聞」 『叢書』 1, 64쪽 ; 「隨錄」 『叢書』 5, 191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11쪽 ; 「東匪討錄」 『叢書』 6, 165쪽).

관 충청 감사가 회덕에서 포로로 잡은 동학농민군 80여 명을 어젯밤에 공초(供招)한

것과 또한 공주부의 서쪽 거마산(車馬山) 아래로 부대를 이동할 계획을 보고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89-90쪽).

- ┌ 관 오시경에 원세록에게 명령하여 서울의 병사를 거느리게 하고 공주에서 5리쯤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90-92쪽).
- ┌ 관 충청 감사 조병호가 동학농민군이 회덕에 와서 무기를 빼앗아 진잠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쪽).
- ┌ 관 홍계훈이 충청도 병영과 수영 및 각 읍에 감결을 보내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고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4-35쪽).
- ┌ 관 홍계훈이 중영장에게 전령을 보내 “본진에 간혀 있는 사람 중에 동학농민군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35쪽).

#### ■ 4월 10일 (양. 5월 14일)

- ┌ 전 무장의 동학농민군이 관아에 난입하여 이교(吏校) 가운데 체포되어 피살된 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각 촌락과 도로변에도 체포되어 피살된 자가 수십 명이였다. 또한 군기와 집물(什物) 화약 등을 남김없이 탈취해갔으며, 각종 문부와 문적들을 불태웠다(「隨錄」 『叢書』 5, 196쪽).
- ┌ 관 회덕에서 관군이 동학농민군 수백 명과 싸워 대파하고 빼앗겼던 총 44정, 창 41자루, 칼 60자루, 총환 수 말, 철추 5개 등을 환탈하였으며, 동학농민군 2명을 체포하였다(「東匪討錄」 『叢書』 6, 164쪽).
- ┌ 관 전라도 영광에서 출진 중인 초토사 홍계훈은 동학농민군 진압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외병차용안(外兵借用案)을 정부에 전보를 보냈다(이선근, 『한국사(현대편)』 을유문화사, 1963, 65-66쪽).
- ┌ 관 완영(完營)의 우영관(右領官) 이경호(李景鎬)가 동학농민군 몇 십 명을 찢터 죽였다. 감영의 부대를 나누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김시풍을 처치하기로 결정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7-9쪽 ; 「兩湖電記」 『叢書』 6, 90-92쪽).
- ┌ 관 홍계훈이 금구·태인·정읍·흥덕에 전령을 보내 앞으로 행군하여 전진할 것이므로 인도, 망을 보는일, 보호하는 일을 폐단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

討騰錄』『叢書』6, 35-36쪽).

관 홍계훈이 나주목(羅州牧)과 장성부에 전령을 보내 동학농민군이 나주목과 장성부로 향하니, 그들을 소탕하고 동학농민군 우두머리를 잡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騰錄』『叢書』6, 36쪽).

관 홍계훈이 전주 영장에게 감결을 보내 김시풍의 아들 2명과 김인동(金仁同)을 잡아 가두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騰錄』『叢書』6, 36쪽).

#### 4월 11일 (양. 5월 15일)

전 나주에서 19명,\* 무장에서 9명의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었고, 주발·염주·부적·각색의 술수 통문과 사서(私書) 등 책자가 압수되었다. 이때 체포된 김영배(金永培)는 원래 충청도 정산(定山) 차현(車峴) 거생(居生)으로 2월경 서울에서 내려와 양성(陽城) 소사평(素沙坪)에 도착, 그 곳의 동학농민군들과 10여 일 머무르다가 이어 금구 원평 취당으로 가서 사통을 가지고 충청도로 가던 중 전주 독교가(獨橋街)에서 진영의 포교에게 체포되었으며, 김용하(金用夏)는 태인 출신으로 동학에 들어갔다가 금산으로 가는 길에 전주에 이르러 포교에게 체포되었다(「兩湖招討騰錄』『叢書』6, 7-8쪽; 「兩湖電記』『叢書』6, 94쪽; 「時事新報』『叢書』22, 282쪽; 「万朝報』『叢書』22, 392쪽).

\* 「시사신보(時事新報)」에는 나주 목사 민종렬이 4월 11일 경 나주 인근 승안리(勝安里)에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둔취해 있자 이민(吏民)을 이끌고 나가 공격하여 27명의 동학농민군을 생포하였다고 하였다.

관 초토사 홍계훈이 비도(匪徒) 중에 통문을 들고 왕래하는 자, 사방에 산재하여 백성을 침탈하는 자를 각 지방관이 체포하게 하였다(「兩湖招討騰錄』『叢書』6, 7-8쪽; 「兩湖電記』『叢書』6, 94쪽).

관 금구현에서 군정 1백 명을 초모(招募)하였으나, 민들이 모두 도망 가버렸다(「兩湖招討騰錄』『叢書』6, 37-38쪽).

관 완백에게 한 부대를 파견하여 태인·정읍 2고을을 순찰하게 명하였다. 아울러 군사를 나누지 말고 고부의 난민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지시하였다(「兩湖電記』『叢書』6, 92-96쪽).

관 전주 감영군과 민간에서 모집한 장병과 도내의 보부상에게 밖에서 지원하도록 명하

였다(「兩湖電記」 『叢書』 6, 92-96쪽).

관 대관 원세록 군대가 태인읍에 주둔하였다.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동학농민군 중에 통문을 들고 왕래하는 자, 사방에 산재하여 백성을 침탈하는 자를 체포하게 하여 나주목에서는 19명 무장현에서는 9명을 잡았다. 김시풍과 서로 호응함이 가장 심한 자 3명을 효수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92-96쪽).

관 정석희(鄭錫禧)를 잡아 가두고 사로잡는 80여 명 중 3명을 남문 밖에서 처형하고 67명은 무죄로 훈방하여 보내고 15명은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兩湖電記」 『叢書』 6, 92-96쪽).

관 홍계훈이 출전하는 대관 교장에게 전령을 보내, 보발을 시켜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7쪽).

관 홍계훈이 53주에 감결을 보내, 농민을 안정시키는 감결을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여 골골마다 부쳐 알게 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7쪽).

관 홍계훈이 태인에 감결을 보내, 금구에서 모집해 보낼 100명을 다른 곳에서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백성들이 본업에 편히 하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7-38쪽).

관 홍계훈이 전주 영장에게 전령하여, 김시풍을 효시할 것이며, 김영배, 김용하, 김동근을 압송하며 남문 밖 시장에 대기시키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8쪽).

관 홍계훈이 사문에 명령하여,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할 일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8-39쪽).

관 홍계훈이 전주 영장에게 전령을 보내, 본진에 갇혀 있는 동학농민군 중 67명을 남문 밖에 압송시켜 대기시키고 14명을 그대로 엄히 가두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膽錄」 『叢書』 6, 39쪽).

#### ■ 4월 12일 (양. 5월 16일)

전 4월 12일 오전 10시경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이 영광에 도착하였다.\* 군수는 배를 타고 칠산포(七山浦) 앞바다로 도주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군기고에 불을 질러 군기를 탈취하고 군기고에 불을 지르고 호적을 태웠으며, 요호(饒戶)로부터 전곡(錢穀)과 마필(馬匹)을 빼앗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쪽; 『隨錄』 『叢書』 5, 198쪽; 『東匪討

錄』『叢書』 6, 170쪽 ; 「甲午朝鮮內亂始末」『叢書』 25, 125-126쪽).

\* 영광으로 들어간 일시는 4월 12일 오전 10시(「隨錄」『叢書』 5, 196쪽, 200쪽 ; 「兩湖招討謄錄」『叢書』 6, 12쪽), 오후 2시(「隨錄」『叢書』 5, 198쪽) 등 각기 다르게 나와 있으나, 무장에서 2대로 나누어 영광으로 갔다는 기록(「東匪討錄」『叢書』 6, 170쪽), 아침 일찍 무장으로부터 영광을 향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兩湖招討謄錄」『叢書』 6, 12쪽) 2대 가운데 1대는 오전 10시, 1대는 오후 2시경 영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관 태인에 주둔한 부대에 계속 통지하여 그 성을 굳게 지킬 것을 명하였다(「兩湖電記」『叢書』 6, 96-98쪽).

관 통위병 500명과 장위영 영병 2대와 극로백(克爐伯) 1좌와 화약과 총알 각 1,000봉지를 갖추어 기선(汽船)으로 곧 내려 보낼 것을 전보하였다(「兩湖電記」『叢書』 6, 96-98쪽).

관 이희준(李羲駿)을 금국(鎭局)에 파견하여 군무를 도모하게 하여 적을 토벌하고 승리를 보고하였다(「兩湖電記」『叢書』 6, 96-98쪽).

관 동학농민군을 빨리 토벌할 것을 재촉하였다(「兩湖電記」『叢書』 6, 96-98쪽).

관 홍계훈이 진시(辰時, 오전 7-9시) 경에 대관과 교장, 종사군관(從事軍官)인 사과(司果) 이효응(李敎應), 훈련주부(訓練主簿) 이규문(李奎文), 진사(進士) 유철영(柳哲永), 전 주사(前 主事) 박용화(朴鏞和), 출신(出身) 홍병진(洪秉晉)·김낙구(金洛龜)·조의갑(趙義甲), 전 오위장(前 五衛將) 홍유성(洪儒成), 전 현감(前 縣監) 장진우(蔣鎭宇), 전 도사(前 都事) 박재준(朴在準), 유학(幼學) 김관호(金觀鎬)·배은환(裴垠煥)·고제완(高濟完)·박장화(朴莊和)와 병사 3개 부대를 거느리고 영광군으로 가 동학농민군의 동정을 살폈다(「兩湖招討謄錄」『叢書』 6, 13-14쪽).

관 홍계훈이 전주 영장에 감결을 보내, 금구현에서 압송해온 김인서(金仁西)를 옥에 가두고 전말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 6, 40쪽).

관 홍계훈이 전라도 관찰사에 공문을 보내, 김인경(金仁京)을 추적할 것을 요구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 6, 40쪽).

관 홍계훈이 전주판관에게 전령을 보내, 장막의 여러 도구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 6, 40-41쪽).

관 홍계훈이 전주의 각 면에 전령을 보내, 포수와 관노의 무리가 평민을 괴롭혀 폐를 줄 경우 결박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 6, 41쪽).

#### ■ 4월 12일 - 15일 (양. 5월 16일 - 19일)

전 동학농민군들은 영광 일대에서 4일 간 유진하였는데, 낮으로는 진법을 조련(操鍊)하며 밤으로는 경전을 읽었다(「大阪朝日新聞」『叢書』23, 14쪽). 그동안 식사는 성 밖에 있는 조정언(曹正言)과 김진사(金進士) 양가에 배정하여 해결하였다(「東匪討錄」『叢書』6, 170쪽; 「甲午朝鮮內亂始末」『叢書』25, 314쪽). 여기서 동학농민군은 전열을 새로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영광에 주둔하던 무렵 동학농민군들의 수는 날로 늘어났다. 영광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5리마다 복병을 두었으며, 30리 거리를 두고 2천 5백 명씩 배치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수는 날마다 증강되어 하루에 늘어난 수가 몇 천 명이 되는 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사방에서 동학농민군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운집하여 각처를 왕래하였고 지역 간의 서신 왕래도 활발해졌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4쪽; 「內亂實記朝鮮事件」『叢書』25, 177쪽).

전 가담하는 동학농민군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동학농민군 진영에서는 짚을 모으고, 사토(沙土)로 성첩(城堞)을 보수하였고 운반해 온 양식을 비축하였다(『隨錄』『叢書』5, 199쪽; 「兩湖電記」『叢書』6, 108쪽).

전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영광에서 동학농민군 규율을 단속하는 두 종류의 행동준칙 ‘대적시 약속 4항(對敵時約束 4項)’과 ‘12조 계군호령(12條 戒軍號令)’을 내렸다.\*

\*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계군호령(戒軍號令)이 나온 시점에 대해서는 3월 29일-4월 4일 사이(鄭昌烈, 앞의 논문, 1991, 140쪽), 혹은 3월 25일 ‘4개명의(四個名義)’를 제시하였다는 정교(鄭喬)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를 인용하여 백산대회 때(愼鏞廈, 앞의 책, 1993, 154쪽)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조선폭동실기(朝鮮暴動實記)」에는 ‘영광적영(靈光賊營)의 군령장(軍令狀)과 계군령(戒軍令)’이라는 소제목 하에 소개되어 있다(『叢書』25, 202쪽, 204쪽). 또 『주한일본공사관(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9쪽에는 영광으로 간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보고하는 4월 16일자 전라 감사의 전보 내용과 함께 소개되어 있고, 「동비토록(東匪討錄)」『叢書』6, 175쪽에도 4월 19일 도착한 영광군수의 보고내용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에도 동학농민군이 한양호를 공격한 기사와 영광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실고 있고(「東京朝日新聞」明治 27年 6月 3日『叢書』22, 352쪽),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이러한 군호와 계문이 내려진 시점에 동학농민군이 무장 영광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하였다(『叢書』25, 120쪽). 다만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4월 27일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사실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續陰晴史』上, 311쪽).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계군호령(戒軍號令)은 동학농민군이 영광을 점령하는 무렵 동학농민군의 수가 늘어나자 내부 규율을 강화할 필요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배항섭, 앞의 논문, 2002) 일본측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이 “영광에서 합세하였다”고 기록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3쪽) 「만조보(萬朝報)」에는 이 가운데 4개 항의 약속이 무장에서 정한 규율인 듯이 밝히고 있으나, 이때 동학농민군이 매 20리마다 1천여 명씩 주둔해 있었다고 한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영광에서 정한 사실을 오묘한 것으로 보인다(「万朝報」 明治 27年 6月 5日 『叢書』 22, 397-398 쪽). 또 「대관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과 「만조보(万朝報)」에서는 12개조의 계군호령이 12개의 군기(軍旗)에 쓰여 있다고 하였다(「万朝報」 明治 27年 6月 5日 『叢書』 22, 397-398 쪽 ;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叢書』 23, 17쪽).

관 향군은 물론 경군들까지도 군산에 상륙한 이후 도망하는 자가 이어져서(『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60쪽 ; 「万朝報」 明治 27年 6月 1日 『叢書』 22, 394쪽 ;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5月 31日 『叢書』 23, 11쪽) 군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4월 12일경에는 이미 그 수가 원래의 700명에서 470명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다(「內亂實記朝鮮事件」 『叢書』 25, 177쪽).

#### 4월 13일 (양. 5월 17일)

전 13일과 14일 양일 밤에 혹은 6-70명, 혹은 4-50명이 각자 총과 창검을 들고 부안, 흥덕, 고부, 정읍 등지로 흩어져 가는 것이 관군 측이 보낸 探吏에 의해 목격되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4쪽 ; 「兩湖電記」 『叢書』 6, 108쪽)

관 심영(沁營, 강화 진무영) 병사 400명을 내려 보냈다(「兩湖電記」 『叢書』 6, 99쪽).

관 홍계훈이 병영과 좌우수영에 감결을 보내 ‘본영의 군교·아전·관노·사령 및 포군 등을 각별히 단속하고 평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잡아 가두고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백성들에게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1-42쪽).

관 홍계훈이 전주 영장에 전령을 보내 행군할 때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2쪽).

관 홍계훈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행군할 때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2쪽).

관 홍계훈이 전주관관에게 전령을 보내 행군할 때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3쪽).

일 일본 군함 대화환(大化丸)이 항구에서 나왔다(「兩湖電記」 『叢書』 6, 98쪽).

#### ■ 4월 14일 (양. 5월 18일)

- 전 동학농민군 50 - 60명이 오후 2시경 법성 구수포(九岫浦)로 가서 한양호를 공격하여 전운국(轉運局) 위원(委員) 김용덕(金容德)과 일본인 선장 다나카(田中富之助) 등 4명을 잡아다가 돈을 빼앗은 다음 일본인은 곧 석방하였다. 함께 체포되었던 한국인은 그 후 약 7일 간이나 동학농민군들에게 끌려 다니다가 탈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0-51쪽 ; 「隨錄」 『叢書』 5, 200쪽 ; 「兩湖電記」 『叢書』 6, 106쪽 ; 「東匪討錄」 『叢書』 6, 170-171쪽).
- 관 이두황이 2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금구·태인·정읍·고창·흥덕 등지로 갔다(「兩湖電記」 『叢書』 6, 99-103쪽).
- 관 심영 병사가 법성포에서 하선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99-103쪽).
- 관 홍계훈이 2개 부대를 무장현의 가까운 곳에 보내 동학농민군의 동정을 정탐하게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1쪽).
- 관 홍계훈이 금구·태인·흥덕·정읍·고창에 전령을 보내, 관군과 관련된 사항을 문제 없이 거행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3쪽).
- 관 홍계훈이 출진한 대관에 전령하여 군대가 태인의 진중으로 향해야 하고 병사들의 척후에 관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3-44쪽).
- 관 홍계훈이 호서 54주에 감결을 보내 동학농민군에게 귀화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벌할 것이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4쪽).
- 관 홍계훈이 출진 대관에 전령하여 동학농민군의 정세를 정탐하여 보고하고 효유문으로 잘 깨우치고 타이르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5쪽).
- 관 홍계훈이 도내 보부상 두목과 여러 상업에 종사하는 백성에게 전령을 보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45-46쪽).

#### ■ 4월 15일 (양. 5월 19일)

- 정 고부 안핵사 이용태를 건과(譴罷)하는 처벌을 내렸다(『日省錄』).
- 관 홍계훈이 심영의 병사들이 빨리 내려올 것을 청하고 2개의 부대를 파견하여 전진

하게 하고 장차 차례로 뒤에서 지원할 계획을 보고하였다(「兩湖電記」『叢書』6, 104-105쪽).

관 홍계훈이 익산 군수를 행군할 때의 운량관(運糧官)으로 임명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6, 46쪽).

관 홍계훈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전라도 감영에서 보낸 병사 100명 중 50명은 행군할 때 쓸 것이며, 나머지는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6, 46쪽).

관 홍계훈이 금구현령에게 전령을 보내 행군할 때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叢書』6, 47-48쪽).

#### 4월 16일 (양. 5월 20일)

전 동학농민군은 무장에서 봉기한 이후 최초로 자신들이 봉기한 목적이 “탐관오리로 하여금 허물을 고쳐 스스로 혁신하게 하는 일과 국태공(國太公)으로 하여금 감국(監國)하게 하여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여 부자 간의 천륜과 군신 간의 대의(大義)를 온전히 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없애는 데 있음을 밝히는 통문을 창의소의 명의로 전주에 있던 초토사 홍계훈의 완영유진소(完營留陣所) 앞으로 보냈다(「隨錄」『叢書』5, 199-200쪽).

전 동학농민군은 경군이 계속하여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오전 8시경 반은 영광에 남고 반은 함평으로 향하였다(「兩湖電記」『叢書』6, 107쪽; 「東匪討錄」『叢書』6, 175쪽; 「萬朝報」明治 27年 6月 7日『叢書』22, 408쪽).

전 4월 16일에는 오전 8시경 영광을 출발하여 오후 4시경 함평에 도착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는 6-7천여 명이었다(「南遊隨錄」『叢書』3, 204쪽; 「隨錄」『叢書』5, 200쪽; 「兩湖招討謄錄」『叢書』6, 15쪽; 「兩湖電記」『叢書』6, 110쪽; 「東匪討錄」『叢書』6, 174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1쪽).

전 깃발을 들고 총을 쏘며 들어와 곧장 동헌으로 쳐들어간 동학농민군은 이교, 노령(奴令) 및 수성군 등 150여 명이 관문(官門)에서 그들을 방어하자 관문을 파괴하고 동헌으로 난입하였다. 이에 앞서 각 면의 사민들 1백여 명이 동학농민군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와서 모여 매일 동헌에 들어와 지키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이들에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읍폐민막(邑弊民瘼)을 교정(矯正)함으로써 보국안민하기 위하여 각 읍을 두루 다니는 길에 이 고을에 들어

오게 되었다”라고 자신들의 봉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 공해(公廨)로 나누어 머물면서 읍내의 요민들로부터 군량미를 거두어 들였고, 민가에 나누어 들어가 취사하였다. 이어 공형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고, 관공(官供)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곤(大棍)으로 5대씩 때린 후 이들에게 포리(逋吏)들의 성명과 각종 문부(文簿)를 거두어 오게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8쪽; 「南遊隨錄」 『叢書』 3, 204쪽; 「隨錄」 『叢書』 5, 200-201쪽; 「兩湖招討臚錄」 『叢書』 6, 15쪽; 「東匪討錄」 『叢書』 6, 175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2쪽, 30쪽).

관 기기국(機器局)에서 청평천(淸平川)에서 새로 제조한 약 5례와 일본 화약 5통과 양화약(洋火藥) 300봉과 대포약 40봉과 나개철 400개를 강화의 군함으로 실어 보냈다(「兩湖電記」 『叢書』 6, 111-112쪽).

관 홍계훈이 출진 대관에게 전령을 보내, 내일 군사를 출발해 영광군으로 향해야 함으로 도로 소식 및 향도군이 행하는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48-49쪽).

관 홍계훈이 전주 영장에게 전령을 보내, 죄인을 취조한 문서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49쪽).

#### ■ 4월 16일 - 18일 (양. 5월 20일 - 5월 22일)

전 동학농민군은 함평에 주둔하는 동안 진세를 펼치고 기예를 과시하기도 했다(「梧下記聞」 『叢書』 1, 69쪽).

전 함평의 동학농민군은 사방의 요로(要路)를 막고 각 마을의 총창과 마려(馬驢)를 모두 빼앗았고, 군기와 짐물을 숨긴 군기 감관과 이방에게 곤장을 쳤다(『南遊隨錄』 『叢書』 3, 204쪽).

#### ■ 4월 18일 (양. 5월 22일)

전 함평의 동학농민군은 이날 나주 공형에게 통문을 보내 자신들이 봉기한 목적을 밝혔다. 그 내용의 요체는 4월 16일 초토영에 보낸 통문과 같으나, 자신들이 열읍(列邑)을 순회하는 목적이 “탐관을 징치(懲治)하고 염리(廉吏)를 포상(褒賞)하며, 이폐민막(吏弊民瘼)을 교혁(矯革)하고 전운영의 폐막을 영구히 혁파하려”는 데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 자신들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 목사가 각 읍에서 병사

를 모아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무고한 이민(吏民)들만 다치게 되었음을 탓하는 한편, “광주와 나주 사이에 피가 흘러 강을 이룬다”는 고결(古訣)과 “광주와 나주의 땅에 인적이 영영 끊이게 된다”는 도선(道詵)의 말을 거론하여 위협하면서 각 읍에서 모군한 병사들을 모두 귀농시키고 수감된 교도들을 석방시키면 나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 곧바로 회답을 달라고 요구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69-70쪽).

- \* 「양호전기(兩湖電記)」 4월 11일자 전보에는 나주에서 19명을 체포하였다고 하였으며(「兩湖電記」 『叢書』 6, 94쪽),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에는 나주 목사 민종렬은 4월 11일경 나주 인근 승안리(勝安里)에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둔취해 있자 이민(吏民)을 이끌고 나가 공격하여 27명의 동학농민군을 생포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時事新報」 明治 27年 5月 24日 『叢書』 22, 282쪽; 「万朝報」 明治 27年 5月 25日 『叢書』 22, 392쪽).

전 함평에 있던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인 7-8천 명이 무안 접경을 넘어가서 하루를 머물렀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253쪽; 「万報朝」 『叢書』 22, 410쪽;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中卷」 『叢書』 25, 13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쪽).

정 호남 민인에게 효유문을 내리면서 고부 민란 발발의 책임자인 전(前) 군수 조병갑을 잡아 조사할 것과 고부 안핵사 이용태에게 귀양을 보내는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일부 관료를 처단하면서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무마하려는 조치였다(『日省錄』).

정 비어있는 전라 감사 자리에 외무협판(外務協辦) 김학진(金鶴鎭)을 임명하였다(『日省錄』).

정 일본 대리공사 스기무라(杉村濬)는 농민전쟁에 대해 조선정부가 취할 만한 두 가지 대응책을 예상하고 있었다. ‘제1책은 내정개혁으로 회유책을 취하는 것’, ‘제2책은 병(兵)을 청국에서 빌어 난당(亂黨)을 무력으로 평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는 민씨정권에게 있어서 타격이 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취할 것으로 파악하고 일본군의 출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었다(『日本外交文書』 27-2, 「全羅忠清兩道ノ民亂ニ付鄙見上申ノ件」, 152~153쪽).

관 홍계훈이 출전하는 대관에게 전령을 보내, 전주로부터 행군하여 태인현에 도착하여 숙박할 것이니 대관이 거느린 병사들은 먼저 전진하지 말고 천천히 행군하여 다시 알리기를 기다리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2쪽).

관 경군이 정읍의 경내에 머물렀다. 홍계훈이 대관, 교장, 군관, 병사를 이끌고 행군하여 금구현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4쪽; 「兩湖電記」 『叢書』 6, 108-109쪽).

#### ■ 4월 19일 (양. 5월 23일)

전 무안군(務安郡) 삼내면(三內面)에 들어와 하루를 숙영한 동학농민군은 나주 쪽으로 향하였다가 나주로 가지 않고 다시 함평으로 돌아왔으며, 이날 초토사에게 두 번째로 글을 올렸다(「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叢書』 19, 253쪽; 「万報朝」 『叢書』 22, 410쪽;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中卷」 『叢書』 25, 13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쪽). 이 글에서 동학농민군은 방백(方伯)과 수령들이 선왕(先王)의 법(法)으로 선왕(先王)의 민(民)들을 다스리지 않고 탐학만 일삼아 삼정(三政)을 문란케 하고, 전운영과 균전관(均田官)이 농간을 부리고 각사(各司) 교예배(校隸輩)들의 토색이 극심하여 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 민들이 수령과 감시에게 호소해 보았지만, 적당(賊黨)이라고 지목하여 병대로 공격하여 살육만 하니 부득이하여 오늘의 거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무장한 것도 자신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임을 밝혔다. 이어 전국의 백성들이 순의(詢議)하여 위로는 국태공(國太公)을 받들어 감국(監國)하게 하여 부자(父子)의 인륜(人倫)과 군신(君臣)의 의리(義理)를 온전히 하고 아래로는 여민(黎民)들을 편안케 하여 종사(宗社)를 보전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어 7개 조항의 민막(民瘼)을 제시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70-71쪽; 「南遊隨錄」 『叢書』 3, 204-205쪽; 「東學文書」 『叢書』 5, 133쪽; 「東匪討錄」 『叢書』 6, 209쪽). 이에 대해 나주 목사 민종렬(閔種烈)은 “명분이 없는 거사는 마땅히 도륙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을 보냈다(「梧下記聞」 『叢書』 1, 70쪽).

전 함평에서 초토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대원군 옹립(國太公監國)을 제기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71쪽; 「兩湖招討臚錄」 『叢書』 6, 16쪽).

관 홍계훈이 동학농민군이 함평을 점거하였으므로 행군하여 나주로 갈 것을 보고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09-110쪽).

관 홍계훈이 진시(辰時) 경에 금구현에서 출발하여 오시(午時) 경에 정읍현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15쪽).

관 홍계훈이 고창현에 도착하여 먼저 보낸 대관과 병사들을 만나고 숙박하였다(「兩湖招討臚錄」 『叢書』 6, 15-16쪽).

관 심영의 병사들은 군산창(群山倉)에 도착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1쪽).

관 심영의 병사들이 웅연(熊淵)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2-113쪽).

#### ■ 4월 20일 (양. 5월 24일)

관 홍계훈이 공사청(公事廳)에, 정읍으로부터 행군하여 오시 경에 흥덕을 거쳐 다시 고창에 도착하였고 내일 영광으로 향하여 곧바로 함평에 들어갈 계획을 보고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1쪽).

관 홍계훈이 나주 목사에 전령을 보내, 동학농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초토사가 지금 행군하여 향해 갈 것이다. 경내 각처의 요새지를 지키고 방어하는 계획은 전에 명령한 것에 의거하여 완벽하게 경계하라고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5쪽).

#### ■ 4월 21일 (양. 5월 25일)

전 함평 무안 일대에서 5일 간이나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경군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함평을 떠나 4월 21일\* 오전 8시경에 장성 월평리에 도착한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이 아침을 먹고 삼봉(三峰) 아래 있는 황룡촌(黃龍村)에 진을 쳤다(「梧下記聞」 『叢書』 1, 71쪽 ; 「南遊隨錄」 『叢書』 3, 205쪽 ; 「兩湖電記」 『叢書』 6, 113쪽).\*\*

\* 「난과유고(蘭坡遺稿)」에는 전투가 벌어진 날자가 22일이라고 하였다

\*\* 「양호전기(兩湖電記)」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이 함평을 떠나 장성 나주 방면으로 향한 것이 오후 2시경이라고 하였다.

충 충청도 청산(靑山)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이 무장으로 문장(文狀)을 보내 “지금 황해도와 평안도의 회답을 받아보니 5월 그믐날 접응을 한다고 하므로 동남 제부(諸部)에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고, 회덕의 제3대 두령 박(朴)이 파견한 정찰대가 청산영(靑山營)의 포교에게 체포된 사실을 전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쪽).

경 고부군 안핵사 이용태의 유배지를 경상도 김산군(金山郡)으로 정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체포하여 그대로 배소로 압송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관 초토사 일행이 고창으로부터 장성에 들어와 점심을 먹고 영광으로 떠났다(「南遊隨錄」 『叢書』 3, 205쪽).

관 홍계훈이 전주로부터 행군하여 고창에 이르렀고 동학농민군이 모인 곳으로 향할 계

획을 보고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1-112쪽).

관 홍계훈이 영광에 이르러 숙박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7-18쪽 ; 「兩湖電記」 『叢書』 6, 112-113쪽).

#### ■ 4월 22일 (양. 5월 26일)

전 동학농민군이 장성 황룡촌에서 주둔하였다.

관 홍계훈이 이학승·원세록·오달영에게 병사 300명을 거느리고 장성 등지로 가서 동학농민군의 정황을 살피게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6-17쪽).

관 홍계훈이 고창 현감에게 전령을 보내 이춘경(李春京)이 몰래 동학농민군과 통하여 기밀을 전하였고, 서재성(徐在成), 이동술(李同述)은 동학농민군으로 우리의 기밀을 보냈다. 3명을 격식을 갖추어 옥에 가두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5-56쪽).

관 홍계훈이 병영과 순창·광주·나주·담양·장성·강진에 전령을 보내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전명숙(全明叔, 전봉준)·손화중·정익서(鄭益西)·김도삼(金道三) 등을 빨리 잡을 것을 재촉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6-57쪽).

#### ■ 4월 23일 (양. 5월 27일)

전 오후 2시경 동학농민군은 황룡촌(黃龍村)에서 경군과 최초의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경군은 크게 패하여 경군을 이끌던 대관 이학승이 전사하였고 극로백 1좌, 회선포(回旋砲) 1좌와 화약 등을 빼앗겼다(「梧下記聞」 『叢書』 1, 72쪽, 338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16-17쪽 ; 「兩湖電記」 『叢書』 6, 114쪽 ; 「東匪討錄」 \* 『叢書』 6, 191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4쪽).

\* 「동비토록(東匪討錄)」에는 장성전투가 4월 22일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군은 다시 월평리로 들어가 밥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경군이 습격해온다 소문을 듣고 정읍 쪽으로 향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72쪽 ; 「兩湖招討謄錄」 『叢書』 6, 16-17쪽).

전 이날 밤 동학농민군은 장성에서 정읍 사이 어딘가에서 숙영하였다.

- 관 윤음(綸音)으로 종사(從事) 이효응이 2차례 타이르고 5차례나 효유 하려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3-114쪽).
- 관 미시 경에 장성 황룡장터에서 접전하여 동학농민군 7-80명이 부상당하였다. 관군은 대관 이학승이 죽고 장병 4명이 부상을 입고 극로백 1좌와 회선포 1좌를 잃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6-17쪽 ; 「兩湖電記」 『叢書』 6, 113-114쪽).
- 관 홍계훈이 출진대관에게 전령을 보내 동학농민군이 머무는 황룡촌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8쪽).
- 관 홍계훈이 출진대관에게 전령을 보내 “심영의 병사 2개 부대에는 그 군영의 참모관(參謀官)인 전 현감 이용인(李容仁) 및 대관 김규량(金奎亮)·조중련(趙重鍊)과 함께 다시 파견하니, 도착하면 제반 군무의 일을 기회에 따라 상의하면서 전진하라.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일을 함께 모여 비밀리에 처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감히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락이 되지 못하게 하고, 힘을 다하여 섬멸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58쪽).

#### ■ 4월 24일 (양. 5월 28일)

- 전 장성에서 정읍 사이 어딘가에서 24일을 숙영하며 보냈다.
- 정 고종은 임지로 내려가는 전라 감사 김학진에게 “잘 내려가서 부디 백성들을 위무하고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 비적들을 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日省錄』).
- 정 고부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의하면, 고을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일곱 조목인데, 이결(移結), 전운소(轉運所)에서 총량을 늘린 양여미(量餘米)로 인해 새로 생긴 부족분, 유량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결세미(結稅米), 개간한 진답(陳畝)에 대한 도조(賭租), 개간하지 않은 진답에 대한 시초(柴草), 만석보(萬石淤)의 수세(水稅), 팔왕보(八旺淤)의 수세 등이었다. 또한 죄인 최시중(崔時仲)과 김양보(金良甫), 좌수(座首) 김봉현(金鳳賢), 호장(戶長) 은세방(殷世邦), 이방(吏房) 은인식(殷仁植), 수교(首校) 은덕초(殷德初)와 백성 심덕명(沈德明), 조성국(曹成國) 등을 옥에 가둬 두도록 하였다(『日省錄』).

#### ■ 4월 25일 (양. 5월 29일)

- 전 장성에서 정읍 사이 어딘가에서 2일을 숙영한 동학농민군은 25일 정읍에 들어갔

다. 정읍에 들어간 동학농민군은 초토영(招討營) 운량감관(運糧監官) 김평창(金平昌)의 집에 난입하여 가산을 파괴하고 전곡과 의복을 모두 탈취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은 이것을 혹은 팔기도 하고 혹은 비축해 두기도 했다. 이어 25일 정오 무렵에는 원평으로 향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원평에서 국왕의 효유문을 가지고 온 이효응, 배은환을 살해하였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17-18쪽, 61쪽).

┌ 전 동학농민군은 이날 원평이나 금구일대에서 하루를 숙영하였다.\*

\* 초토사 홍계훈이 26일 금구현에 도착하였을 때 “저 무리들이 그 고을로부터 이동하여 전주의 삼천(三川)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과, 26일 동학농민군이 원평을 거쳐 전주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두정(豆亭)에 도착하였다는 전주 가도사의 전보를 통해 알 수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1 ; 「兩湖招討騰錄」 『叢書』 6, 17-18쪽).

┌ 경 경상 감영에서 호남에 비류가 갈수록 창궐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만약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130쪽).

┌ 정 충청 감사 조병호를 경상 감사에 임명하고, 충청 감사는 지종정경(知宗正卿) 이현영(李鎰永)을 임명하였다(『承政院日記』 ; 『日省錄』).

┌ 관 장성 황룡장전투(長城黃龍場戰鬪)후에 군사를 돌려 전주로 향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5-116쪽).

┌ 관 홍계훈이 영광군을 떠나 고창현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17-18쪽).

#### ■ 4월 26일 (양. 5월 30일)

┌ 전 전주 서쪽의 삼천(三川) 혹은 전주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두정(豆亭)에 도착하여 이날 밤 숙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1쪽 ; 「兩湖招討騰錄」 『叢書』 6, 17-18쪽).

┌ 충 충청 감사 조병호가 조정에 전보로,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해산했으나 봉변을 당한 양반들 집에서 가동(家僮) 수백 명을 모은 다음 동학농민군의 집만 골라 불을 질러서 수일 안에 다시 동학농민군들이 모여 소란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3쪽).

┌ 관 홍계훈이 정읍현에 도착하고 유숙하였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18쪽).

#### 4월 27일 (양. 5월 31일)

전 삼천 혹은 두정 일대에서 하루를 숙영한 동학농민군은 27일 아침부터 전주성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오전부터 서문, 북문, 남문 등을 공격하여 전주성을 함락하였다(「梧下記聞」『叢書』1, 73쪽; 「南遊隨錄」『叢書』3, 205쪽; 「固城府叢瑣錄」『叢書』4, 138쪽; 「東匪討錄」『叢書』6, 180-181쪽; 『全州府史』1943, 113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31-32쪽).\*

\* 「동비토록(東匪討錄)」에서는 오전 10시경 동학농민군이 성안으로 돌입하였다 했고,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정오경부터 서문쪽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였으며, 「고성부총쇄록(固城府叢瑣錄)」에서는 아침에 청도원까지 진격해온 동학농민군이 오후 2시경 북문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하였으며, 「남유수록(南遊隨錄)」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 오후의 장이 예전과 다름없이 섰다고 하였다(『叢書』3, 205쪽). 이로 미루어 볼 때 동학농민군의 공격은 오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는 2, 3만 명에 달하였다. 주요 지도자는 전봉준을 비롯하여 김순명(金順明), 동장사 이복용, 박선봉장, 정장군, 광장군 등이었다(「兩湖電記」『叢書』6, 129쪽; 「東匪討錄」『叢書』6, 196-197쪽).

전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동학농민군 측에서는 마침 그날이 서문 밖 장날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을 상인으로 위장시킨 다음 성안에 투입시켰다. 성문은 이와 같이 위장해서 들어간 동학농민군,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내통한 관속들에 의해 안에서 열렸다(「南遊隨錄」『叢書』3, 205쪽; 『全州府史』113쪽).

전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성내의 주민들을 위무하였다. 길에서 부녀자가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축하지 않고 길가의 아동들에게 부축하여 일으켜주도록 하였다. 농민들에게는 위유(慰諭)하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모내기할 때를 놓치지 말라 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성을 점령한 날 오후에는 성내 장시에는 사람들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왕래하였고 온 성안의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였다고 하였다(「南遊隨錄」『叢書』3, 205-207쪽).

전 동학농민군이 점령 후 전주성에서는 이교, 노령(奴令), 민인 가운데 도망할 겨를도 없이 살해, 약탈, 폭행을 당한 자가 다수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반 민인에 대한 이전의 원한도 있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몰래 부호를 납치·협박하여 재화를 빼앗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전봉준의 본의가 아니었다. 전봉준은 힘을 다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특히 전주 출신의 동학 집주 서영두(徐永斗)는 동학농민군의 폭력을 막고

민간인과 동학농민군 사이를 중재하는 등 폭력과 약탈행위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全州府使』 114쪽).

전 동학농민군은 전라 일대 농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전 감사 김문현, 전 전운사 조필영, 전 균전사(前 均田使) 김창석(金昌錫), 전 고부 안핵사(前 古阜 按覈使) 이용태 등 4명을 효수한 후에 해산하겠다고 성언하기도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2쪽).

전 감사 김문현은 동학농민군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아나고 없었으며(『全州府史』 113쪽), 전주성이 함락되는 시각 초토사 홍계훈은 영광에서부터 계속 동학농민군의 꿈무늬를 쫓아다니다가 태인현에 도착하여 있었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17-18쪽).

정 대호군 이원회(李元會)를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로 차하하여 병정을 이끌고 당일로 하직하여 떠나게 하고 이미 파견한 경병(京兵)과 심병을 지휘하게 하였다(『日省錄』).

관 홍계훈이 진시 경에 태인현에 도착하고, 저녁에 금구현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18쪽).

#### 4월 28일 (양. 6월 1일)

전 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성 남쪽 완산 위에 진을 치고 대포 3발을 발사하자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서문과 남문을 열고 돌진해 나왔다. 남문으로 나온 동학농민군은 흰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 앞을 가리면서 공격하였다. 성내의 동학농민군도 보루 위에 올라가 일제히 관군을 공격하였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환도를 차고 천보총(千步銃)을 가지고 선두에서 공격해오던 동학농민군 30여 명이 전사하였고, 퇴각하는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수백 명을 사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19쪽).

전 이날 오후 8시 경에 동학농민군이 성 안팎에 불을 질러 인가가 계속 타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는 관군의 보고가 있었다(『兩湖招討騰錄』 『叢書』 6, 20쪽).

전 오후 경병이 전주 서문 밖 민가 8-90채를 불태웠다(『梧下記聞』 『叢書』 1, 338쪽).

충 충청 감사 조병호가 조정에 전보로, 충청도의 보은이 동학농민군에게 함락될 지경이라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3쪽).

정 전주 함락의 보고(양 5.31)를 듣고 민영준(閔泳駿)이 고종의 내락을 받아 원세개(袁世

凱)에게 차병안(借兵案)을 제의하였다. 단 이때 의정부 조회를 발하여 정식의 수속을 취하지는 않았다(田保橋潔, 「일청양국의 출병」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275쪽).

- ┌ 관 홍계훈이 전주의 삼천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18쪽).
- ┌ 관 홍계훈이 용두현에 도착하고 완산에 진을 쳤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0-21쪽).
- ┌ 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전주성을 공격하였다. 진시 경에 전주의 앞산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전주성을 공격하였다. 진시 경에 이르러 동학농민군 장수 중에 갑옷을 입고 칼춤을 추며 천보총을 쏘는 자 30여 명을 사살하고 그 나머지 수백 명을 베었다. 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는데 해가 어두워 후퇴하였다. 술시 경에 동학농민군이 성 내외의 관청건물과 집에 불을 질러 다 태우고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켜 함락시키지 못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5-116쪽).

#### ■ 4월 29일 (양. 6월 2일)

- ┌ 전 동학농민군이 북문을 나와 황학대를 쳐다보며 관군을 공격하자 관군이 회신포를 발사하여 동학농민군 백여 명을 사살하고 성안으로 퇴각시켰다(「梧下記聞」 『叢書』 1, 77쪽).
- ┌ 충 충청 감사 조병호가, 도내에서 잇달아 동학농민군들이 곳곳에서 봉기하지만 지방관들은 팔장만 끼고 있고, 청산현에는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3~34쪽).
- ┌ 경 통영의 아전 송래상(宋來相)과 오위장 이명구(李命九)가 서울을 다녀온 후 서울은 평상시와 같이 조용하고 조령 아래는 전혀 큰일이 없는데 오직 호남의 소요가 도처에 전파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통영에서 고부민란 염탐기가 나오고, 전라감영에서 경군이 패주한 소식이 전해졌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133-135쪽).
- ┌ 정 시원임대신회의 이전에 정식 외교문서로서 차병요구서를 원세개에게 전달하였다(「甲午實記」 『叢書』 6, 276쪽 ;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13권, 北洋大臣 來電, 5-7쪽).\*

\* 민영준과 원세개와의 협의에서 청병 요청은 원세개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5월 23일 홍계훈의 상주전문이 올라온 뒤, 26-27일경에 위안스카이는 민영준을 방문하여 조선 초토사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만약 자신에게 군대를 쓰게 한다면 5일안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말 것을 호언장담하였다. 전주성이 함락된 5월 31일에 민영준은 위안스카이를 찾아간 자리에서 원병을 청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후 조선정부가 청병하였다고 공언

하면서 기정사실화하였다(이선근, 앞의 책, 1963, 59-68쪽, 78-98쪽; 李泰鎭, 「1894년 6월 청군(淸軍) 조선(朝鮮) 출병 결정과정의 진상」 『한국문화』 24, 1999, 317-346쪽. 청국의 파견 경위에 대해서는 具仙姬, 『開化期 朝鮮의 對淸政策 研究』, 해안, 1999, 158~166쪽 참조).

#### ■ 4월 30일 (양. 6월 3일)

전 홍계훈의 보고에 따르면 전주성의 동학농민군이 4-5명 혹 6-7명 씩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62-63쪽).

정 조선정부에서 청나라에 정식으로 청병차병 공문을 보냈다.\*

\*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1882년 제물포조약과 1885년 천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명목상의 구실이었고, 특히 천진조약에는 단지 조선에 군사를 파견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였다(朴宗根, 『청일전쟁과 조선』(한국어판), 일조각, 1989, 8~27쪽).

관 이원회를 순변사로 임명하고 평양의 장병 500명과 통위영 포대 장병에게 대포를 끌고 출발시켜 환영으로 보냈다(「兩湖電記」 『叢書』 6, 117-118쪽).

관 홍계훈이 여산 부사에게 전령을 보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거하였기 때문에 사면으로 포위하여 공격하려고 하는데 밤사이에 도주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엄히 방어하여 한 놈도 포위망에서 새어나감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각 마을에 명하여 하나하나 잡아 가두고 전말을 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61-62쪽).

## 1894년(甲午年) 5월

### 5월 1일 (양. 6월 4일)

- 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남문으로 몰려나오자 관군이 회선포를 발사하여 퇴각시켰으며, 이때 동학농민군 300여 명이 사살되었다(「梧下記聞」 『叢書』 1, 80쪽).
- 정 민씨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전라 감사인 김문현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와 민씨 척족세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日省錄』).
- 정 중국 군함의 영접을 위해 공조 참관 이중하(李重夏)를 영접관(迎接官)으로 임명하였다(『日省錄』).
- 관 순변사를 임명하여 완영으로 보냈다. 순변사가 평양 감영의 병력 500명을 거느리고 완영으로 갔다(「兩湖電記」 『叢書』 6, 119-120쪽).
- 관 진남영(鎭南營)에서 탄약 20케와 병력 100명을 신시 경에 출발시켰다(「兩湖電記」 『叢書』 6, 119-120쪽).
- 관 홍계훈이 각 읍에 전령을 보내 “도주하는 동학농민군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막론하고 마을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비록 1명의 수상한 놈이라도 있으면 한편으로는 결박하여 압송하여 보낼 것이며, 한편으로는 마음먹고 파수하여 절대로 그물에서 새어 도주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62쪽).

### 5월 2일 (양. 6월 5일)

- 전 전주성 점령 후 관군이 날로 증가되고, 사방이 포위되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끊겼으며, 몇 차례 전투에서 패배하고 군량은 바닥이 났고, 성을 타넘어 도망치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들이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전봉준은 점괘를 보며 “3일을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 또한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죽을 곳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조금 더 참지 못하는가”라고 하며 동학농민군들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80-81쪽).

- 전 동학농민군이 서문을 열고 몰려나와 용머리 고개에 진을 치고 있던 관군을 공격하려 하자 관군이 대포를 계속 발사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80쪽).
- 관 동학농민군의 장병 50명과 적당 수백 명을 체포하거나 베었다. 성을 수복하지 못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19-120쪽).
- 일 참모본부에 대본영을 설치하였다(檜山幸夫, 「日清戰爭主要年表」 『日清戰爭』, 講談社, 1997, 이하 「日清戰爭主要年表」).
- 일 제5사단에 동원명령을 내렸다(외교사료관, 「기밀전보, 육군대신 → 재부산 大島 함장 外記 소좌」, 『東學黨變亂ノ際日清兩國韓國へ出兵雜件』).
- 일 오오토리(大鳥圭介) 공사, 군대를 인솔하여 조선에 출병하였다[제1차 출병](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 이하 외교사료관, 「기밀전보, 해군대신 → 재인천 선임장교 大和 함장 赤木」, 『東學黨變亂ノ際日清兩國韓國へ出兵雜件』, 6월 5일).

### 5월 3일 (양. 6월 6일)

- 전 홍계훈이 오후 4시경 전주성 북문을 나와 황학대를 거쳐 완산을 공격하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과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순명과 14세의 장사 이복용을 사살하였고, 전봉준에게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혔으며, 동학농민군 500여 명을 사살하였다. 소위 대장기를 탈취하고 총과 창 5백여 자루를 빼앗았으며, 이에 따라 전주성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반은 도주하고 남은 동학농민군들도 자중지난에 빠졌다고 보고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338쪽; 「若史」 『叢書』 2, 211쪽; 「南遊隨錄」 『叢書』 3, 209쪽; 「隨錄」 『叢書』 5, 215-216쪽; 「兩湖招討隨錄」 『叢書』 6, 21쪽; 「兩湖電記」 『叢書』 6, 12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77-78쪽).\*

\* 황현은 이 전투에서 도망한 동학농민군이 300명, 전사한 동학농민군이 200여 명이라고 하였고(「梧下記聞」 『叢書』 1, 338쪽), 「남유수록(南遊隨錄)」에서는 전투 시각이 밤 8시경이라고 했다(『叢書』 3, 209쪽).

- 충 충청 감사 조병호가 조정에 전보로 보고한 내용에서, 충청병영에서 파견된 영병(營兵)이 노성(魯城)에 도착하였으며, 전신국(電信局)은 은진(恩津)에 후퇴 설치해서 통신에 편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77쪽).
- 정 스기무라(杉村濬) 임시 대리공사가 전환국 방관 안경수를 만났을 때, 함께 있던

주사 김학우는 이들은 청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동지 6명을 규합해 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들은 청병과견 중지와 민씨정권 퇴진을 모의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67~269쪽).

정 유길준은 조선의 독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립국이나 보호국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청·일 양국에 의해 혹은 영국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68~269쪽).

관 총탄으로 전봉준의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 북문으로부터 나온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김순명, 이복용을 잡고 목을 베었다. 동학농민군 나머지가 모두 도주하고 흩어져 성안으로 들어갔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1-22쪽, 69쪽 ; 『兩湖電記』 『叢書』 6, 120-121쪽).

관 동학농민군 500여 명을 베거나 사로잡고 대장기를 탈취하고 총과 창 300여 자루를 취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69쪽 ; 『兩湖電記』 『叢書』 6, 120-121쪽).

## 5월 4일 (양. 6월 7일)

전 5월 4일 동학농민군 측에서는 ‘제중생등의소(濟衆生等義所)’의 명의로 피도소지(彼徒訴志)를 홍계훈에게 보내 ‘귀화할 뜻’을 전달하였다. 피도소지의 주요내용은 먼저 거병도륙(擧兵屠戮)한 것은 지방관들이었고, 대원군을 모셔 감국(監國)케 하는 것은 이치가 매우 합당한 것으로 역모(逆謀)가 아니라는 점, 경기전(慶基殿)에 방포(放砲)한 것은 관군이고,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다만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동안 있었던 보복행위와 굴충(掘塚)과 재물을 빼앗은 일은 자신들도 매우 증오하는 것이라는 점, 초토사가 선처하여 보고해주기를 바란다는 점 등이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66-67쪽).\*

\*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上(207쪽)에는 적당소지(賊黨訴志)로 나와 있으나, 영인본에는 피도소지(彼徒訴志)로 되어 있다(『叢書』 6, 66쪽).

전 이때 동학농민군 측에서는 홍계훈에게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함께 전달하였다.\* 「전봉준판결문(全琫準判決文)」에는 그 가운데 14개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2-433쪽).

\* 그것은 동학농민군 측의 소지에 대해 홍계훈이 내린 5월 5일자(5월 5일)의 제사(題辭)의 내용 가운데 ‘금록납제조(今錄納諸條)’라는 구절이 들어 있고(『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68쪽), 전봉준도 이때 홍계훈

에게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 데서 알 수 있다(『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叢書』 22, 367쪽 ;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叢書』 23, 169쪽). 또 “봉준 등은 곧 전운소(轉運所) 혁파사(革罷事) ... 등 27개조를 내어 가지고 상주(上奏)하기를 청하였더니 초토사가 즉시 승낙한 고로”라는 「판결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2쪽) ; 배항섭, 「집강소시기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44, 1994).

일 일본정부가 청국에 조선출병을 통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18쪽).

### 5월 5일 (양. 6월 8일)

전 홍계훈은 제사와 두 차례의 효유문을 보내 동학농민군 측의 폐정개혁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속을 해주지 않고 해산을 종용하며, 해산할 경우 각 읍에 명령하여 체포하지 않도록 할 것이지만, 해산하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진압하여 남김없이 초멸(剿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68쪽).

전 이에 대해 동학농민군 측에서는 재영회중제생등(在營會中諸生等)의 명의로 김학진에게 동학농민군에게 공격위주로만 대하는 홍계훈의 태도를 비난하는 한편, 경기전의 파괴가 자신들의 행동이 아님을 변명하면서 빨리 입성하여 화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순상합하(巡相閣下) 행소(行所)에 급함을 알리는 문장(文狀)’을 보냈다.\*

\* 이 문장(文狀)은 5월 5일자 ‘관감등서(關甘謄書)’ 바로 앞에 수록되어 있고(『隨錄』 『叢書』 5, 207-208쪽), 초토사가 공격위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비난하며 자신들의 위급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김학진의 선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5월 4일 있었던 초토사와의 일차 협상이 끝난 다음 초토사로부터 호의적인 약속을 얻어내지 못한 다음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4).

관 홍계훈이 동학농민군 측에 전령을 통해 “너희들은 귀화할 뜻이 있는데도 <집으로 갈 때> 도로가 막힐까 염려하니 물침표(勿侵標)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해산하려는 자는 무기와 창을 거꾸로 들고 이 깃발 아래에 와서 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글을 보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71쪽).

관 사시(巳時, 오전 9-11시) 경에 호분위(虎賁衛)의 사관(士官)이 대내에서 주는 실탄을 가지고 도착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21-123쪽).

### 5월 6일 (양. 6월 9일)

전 홍계훈은 공사청으로 보내는 전문에서 동북문으로 빠져 도망하는 동학농민군이 많고, 적진에서는 총소리 하나 없이 전봉준이 죽었다는 방문을 내걸고 살려주기를 애걸한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동학농민군측에서 두 사람의 사자(使者)를 초토사에게 보내 “해산하려고 해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구타할까 염려가 된다”며 해산시에 신변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홍계훈은 해산할 경우 “양민이 적의 협박에 따른 자는 마땅히 논하지 않겠다”고 효유하여 보냈다고 보고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71쪽 ; 『兩湖電記』 『叢書』 6, 123-124쪽).

일 오오토리 공사가 인천에 도착하여 “내일 오전 4시에는 수사병(水師兵) 300명을 대동하고 육로를 따라 경성(京城)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257쪽).

### 5월 7일 (양. 6월 10일)

전 동학농민군은 초토사에게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은 귀화하는 날이 곧 신원되는 날입니다.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호소한 민원은 조목마다 왕에게 보고되고 여러 읍에 하달되어 백성들이 본업에 편히 하는데 이르렀습니다.”라는 글을 보내 5월 4일에 요구한 폐정개혁조항을 국왕에게 보고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5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95쪽)

전 전라 감사 김학진은 5월 5일경 동학농민군 측으로부터 받은 <고급문장(告急文狀)>에 대한 답변 성격의 효유문을 비장(裨將)을 통해 동학농민군 측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①너희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②너희들이 나에게 호소하려는 억울함은 이미 잘 알고 있다. ③호소하려 해도 살피주는 자가 없고 도망하려 해도 살아날 길이 없게 되었는데 평소에 화심(禍心)을 품고 있던 흉괴(凶魁) 허탄(虛誕)한 말로 선동하여 이와 같은 망측(罔測)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④흉괴 이외에는 살 길이 있다. 흉괴 외에는 정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왕의 교시이다. 병기를 반납하고 성문을 열고 흉괴를 포박하여 항복하라 ⑤자꾸 글을 보내 영똥한 말만 늘어놓지 말라. 내 말을 잘 듣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 등이었다(『南遊隨錄』 『叢書』 3, 210-211쪽 ; 『草亭集』 『叢書』 5, 403-405쪽).\*

\* 「초정집(草亭集)」에는 이 글이 4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신사도(新使道)에게 명원(鳴冤)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한 내용이 들어 있고, 이것은 5월 5일경 동학농민군 측에서 김학진에게 보낸 고급문장(告急文狀)의 “생등(生等)이 입성(入城)한 것은 구백(舊伯)에게 설원(雪冤)하고, 지원(至冤) 극통(至冤)한 일을 조가(朝家)에 아뢰줄 것을 신사도(新使道)에게 명원(鳴冤)하기 위해서이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전 김학진의 효유문에 대해 동학농민군들은 구 감사 김문현과 초토사가 탄압 일변도로 대응하는 점을 비난하며, 이미 초토사 홍계훈에게 전달한 폐정개혁요구 조항을 국왕에게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답서를 전라 감사 김학진에게 다시 보냈다. 이 글에서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이 경군과 대적한 것은 초토사가 먼저 공격하였기 때문이며, 전주성에 있는 경기전을 파괴한 것도 초토사라고 하였다. 또 나라의 근본인 민(民)을 도탄에 빠뜨린 것은 모두 탐관오리와 간신(奸臣) 권척(權戚)들이 국정(國政)을 조롱(操弄)하고 수탈을 극심하게 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죽이려고만 하는 초토사 홍계훈을 공박하면서 김학진에게 감영으로 부임하여 만민(萬民)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초토사에게 올린 폐정개혁요구를 국왕에게 계달(啓達)하여 보국안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南遊隨錄」 『叢書』 3, 211-212쪽).

관 청국의 섭통령이 보병 1,000명을 거느리고 하륙하여 아산읍(牙山邑)으로 향하고, 마군(馬軍) 100과 섭제독(葉提督, 葉志超)이 거느린 보병 1,500명과 마군 150명이 하륙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24-126쪽).

일 주한일본공사 오오토리가 일본 해군육전대 420명에 대포 4문을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였다(『日本外交文書』 27-2, No. 530, 「大鳥公使ノ到着報告ノ件」 182쪽).

## 5월 8일 (양. 6월 11일)

전 이날 아침 초토사 홍계훈은 드디어 동학농민군 측의 폐정개혁요구를 국왕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오전에 전주성의 동학농민군은 초토사에게 “귀화하는 오늘 그 엄한 명령으로 신원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호소하자 그 민원이 폐하에게까지 알려져 이 세상 영원하도록 그 덕망을 칭송하게 된 것은 오직 각하의 처분에 있었으므로, 즉시 문을 나서서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기다리고 병기는 하교에 의하여 모두 거두어 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보내고 전주성에서 빠져나갔다(「兩湖電記」 『叢書』 6, 15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95쪽). 이때 동학농민군 대다수는 병기를 반납하겠다고 초토사 홍계훈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병

기를 가지고 나왔다(『隨錄』 『叢書』 5, 212-213쪽 ; 「東匪討錄」 『叢書』 6, 195쪽).

\* “초토사는 곧 격문을 성중에 투입하여 봉준(琫準) 등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겠으니 속히 도당들을 해산하라는 뜻을 유달(諭達)하였다. 그러나 봉준 등은 곧 전운소(轉運所) 혁파사(革罷事) ... 등 27개조를 내어 가지고 상주(上奏)하기를 청하였더니 초토사가 즉시 승낙한 고로”라는 「관결문」의 내용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2-433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0-51쪽).

전 동학농민군은 저녁 무렵 동·북·서문으로 나와 총칼을 가지고 일대는 황방산(黃方山)에 이둔(移屯)하고 일대는 검암리(黔岩里) 뒷산에 이둔하였다가 밤을 틈타 김제로 직향하여 조광진가를 공격하고, 저녁을 먹은 뒤 고부 백산으로 갔다(『隨錄』 『叢書』 5, 212-213쪽).

전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일부는 김제, 부안, 고부, 무장 등지로 향하여 가고 일부는 금구, 태인 등지로 향하여 갔으며, 지냈던 창과 칼 등 병기의 일부는 흑 태인현에 반납하고 일부는 흑 지나는 각 점(店)에 맡겨 두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3쪽, 77쪽).

전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김제로 직향하여 둔진(屯陣)하고 흑은 5명 흑은 6-7명씩 차차 해산하였다(『隨錄』 『叢書』 5, 214쪽).

전 동학농민군은 4로(路)로 나누어 남향(南向)하였는데, 2천 명가량이 흥덕을 경유하여 무장지방으로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0쪽).

전 무장으로 간 동학농민군들이 민가를 토색하고, 전주 구미동의 부자집도 습격하였다(『隨錄』 『叢書』 5, 223쪽).

관 오전 10시경 홍계훈이 3백여 개의 사다리를 만들어 성밖에 걸어 세우고 병사들이 일제히 성벽을 넘어 가서 남문을 열게 하고, 대관·교장·군관을 거느리고 들어가 전주성을 수복하였다. 장성의 월평(月坪) 땅에서 잃어버린 극로백 1좌와 회선포 1좌·실탄 및 각 읍에서 빼앗은 군기·총·창 1,000여 자루 불랑기대포(佛狼機大砲) 20좌·연환(鉛丸) 10말·화약 1,000여 근 및 나머지 활·화살·갑옷투구·칼·도끼 등속을 모두 거두어 들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2쪽 ; 「兩湖電記」 『叢書』 6, 128쪽 ; 「東匪討錄」 『叢書』 6, 195쪽).

관 동학농민군 중 사방으로 흩어져간 자들을 각 읍에 지시하여 잡아들이도록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31-133쪽).

### ■ 5월 9일 (양. 6월 12일)

관 포로로 잡은 동학농민군의 목을 베었다(『兩湖電記』 『叢書』 6, 129-131쪽).

일 혼성여단 선발대가 인천에 상륙하였다(『日淸戰爭主要年表』).

### ■ 5월 10일 (양. 6월 13일)

전 전주성에서 해산한 동학농민군 일부가 김제에 모여 진을 치고 있었다(『兩湖電記』 『叢書』 6, 134쪽).

전 김제의 동학농민군들은 점막을 파괴한 다음 민가에 밥을 시켜 먹었다(『隨錄』 『叢書』 5, 212-213쪽; 『東匪討錄』 『叢書』 6, 199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3쪽).

전 전봉준이 5월 8일 금구, 9일 김제를 거쳐 태인으로 들어갔다(『全琫準供草』 『叢書』 18, 66쪽).

전 김제에서 유숙한 동학농민군 400-500명은 덕림면(德林面)에서 무장으로 향했다(『東匪討錄』 『叢書』 6, 212쪽).

경 경상도에서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경한 각 지방에 동학농민군이 많고 특히 선산·상주·유곡이 '동학농민군의 소굴'이라고 부산에 있는 일본총영사가 파악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9~70쪽).

경 경상감영이 있는 대구에서 경계를 매우 엄하게 하여 남자의 야행을 금하고 감영소속의 병사는 매일 조련을 하는데, 4-5년 전 일본상인의 손을 거쳐 구입한 6백정의 소총으로 30간 정도의 거리에 4방 1간 정도의 표적을 세워, 첫날에 이를 명중한 병사 1명을 즉시 등용하여 선달 벼슬을 주어 다른 병사를 크게 고무시켰다고 하고, 이 소총 중에 총의 점화구가 녹슬어 발화되지 않는 것은 화승총으로 개조한 것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9~70쪽).

일 혼성여단 선발대가 경성에 도착하였다(『日淸戰爭主要年表』).

### ■ 5월 11일 (양. 6월 14일)

전 동학농민군 5백여 명이 고부 흥덕리(興德里)에서 유숙하고 11일 묘시(卯時, 오전 5-7시)경 60여 명은 고창으로, 나머지는 모두 무장으로 향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은 지나가는 연로에서 식상(食床)을 분정(分定)하고 짚신을 토색하였다(「東匪討錄」 『叢書』 6, 212쪽).

전 동학농민군이 김제에 난입하여 귀화하지 않고 오히려 행패를 부렸다. 이 가운데 일대는 김제, 부안, 고부 등지로 향하고 일대는 금구, 태인 등지로 향하였으나, 전과 같은 작난은 없고, 또 저들이 소지한 창검 가운데 약간은 태인현에 바치고 약간은 인근 각 점(店)에 맡겨 두었으며 재발할 기미가 없다고 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2-24쪽 ; 「時事新報」 『叢書』 22, 319-320쪽).

전 김제에서 부안 지방으로 간 인원수는 6-7백 명 정도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3쪽).

전 초토사 홍계훈이 12일 삼례에 도착하기 전에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가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본업에 편히 하려는 자들이 겁에 질려 감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등장(等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홍계훈은 제음을 내려 “만약 귀화하여 각각 해산한 사람은 침범하여 책망하지 말고 본업에 종사하게 하라”고 하고 각 읍에도 만일 잔당이 무기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교화가 안 된 사람이니 각 읍, 면, 리로부터 낱알이 잡아 결과를 알리라고 지시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36-137쪽).

전 전봉준이 순변사 이원희에게 전라도유생등원정우순변사이원희(全羅道儒生等原情于巡邊使李元會)를 보내면서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였다(『續陰晴史』 上, 322-323쪽).

일 혼성여단 제1차 수송대가 인천에 입항하였다(「日清戰爭主要年表」).

## ■ 5월 12일 (양. 6월 15일)

전 동학농민군이 태인 경내에 둔취하여 화약과 병기를 가지고 읍저에 모여 있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77-78쪽).

전 순변사 이원희의 전보에 따르면 동학농민군 가운데 한 분대(分隊)는 전주에서 고산(高山)으로 한 분대는 김제로, 한 분대는 금구로 향하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초토사가 몇 백 명을 체포하거나 살해한 것은 모두 피난한 백성들이고 동학농민군 아니라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89쪽).

전 동학농민군 7-8백 명이 깃발을 들고 창검을 방포하면서 김제 읍저에서 유숙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오후 4경에 동진강을 건너 대요(大腰) 석교(石橋) 등지로 향하였다(「東匪討錄」 『叢書』 6, 343쪽).

전 한 일본인 정탐자가 일본공사관에게 전보로 알린 전주성 철수 직후 동학농민군의 동태는 남모르게 서북문을 빠져 나와 금구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다시 세력 확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동류들과 약속하기를, 아직은 각처의 믿을만한 곳에 몸을 숨기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또 정부군과 청나라 군대가 와서 추격을 하더라도 절대 싸우지 말고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들은 5-6백 명씩 작대(作隊)하여 각처의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은신하고 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89쪽).

전 홍계훈도 전문을 통해 전주화약 직후 동학농민군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적도(賊徒)들은 전주에서 도주한 후 통문을 띄우기를 들은 소문에 의하면 청국군의 수는 다만 3천 명 뿐인데 수만 명이라고 와전되었고, 또 각국의 군대가 도로에 계속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병력을 퇴진(退陣)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일이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청국군이 물러간 뒤에 다시 의기를 들까 하니 각군(各軍)의 장졸(將卒)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명령을 기다리기 바란다”라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89쪽).\*

\*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에 따르면 청군의 상륙 소식을 접한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병란(兵亂)을 일으킨 것은 오직 당로(當路)의 시랑(豺狼)을 도륙(屠戮)하고 국왕의 곁을 깨끗이 하는 데 있을 뿐이었는데, 이에 이르러 전하(殿下)에게 심려를 끼친 바가 크고 청군의 군대가 이미 상륙하였다. 우리도 마땅히 잠시 그 봉(鋒)을 피하여 공순(恭順)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叢書』 23, 66쪽).

일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가 5월 12일 주한일본공사 오오토리에게 “우리 군대의 철수가 지연되는 이유로 삼기 위해 각하는 공공연한 방법을 써서 공사관의 직원이나 영사관의 직원을 폭동이 일고 있는 지방에 파견하여 실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실황조사는 가능한 한 느리게 할 것이며, 그 보고서는 고의로라도 평화로운 상태와는 반대가 되도록 작성케 할 것을 절망(切望)한다”는 전보를 발송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58쪽, 123쪽).

## 5월 13일 (양. 6월 16일)

전 동학농민군 천 여명이 고부 난산시(卵山市)에 모여 있다가, 5-60명씩 태인지방으로, 1-2백 명씩 무장 굴치(屈峙)로 갔다(『隨錄』 『叢書』 5, 233쪽).

전 초토사는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각처에 산둔(散屯)하

있던 동학농민군들이 모두 태인읍에 집합하여 군기를 전부 관고(官庫)에 반납하고 퇴귀(退歸)를 자원하여, 혹자는 피착(被捉)되고 혹자는 귀가하여 하나같이 모두 해산하고 다시는 둔취(屯聚)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동학농민군들이 전부 평정되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9쪽).

정 전 전라 감사 김문현을 거제부로 위리안치하고 가극(加棘)의 형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 5월 14일 (양. 6월 17일)

전 동학농민군은 태인의 읍저 2리쯤 되는 동구천(洞口川)에 동학농민군 100여 명이 각각 병기를 가지고 모여 있으며, 간간히 방포하거나 요민의 전곡을 토색하고, 혹은 그들이 사는 각리(各里)에서 무리를 지어 있고, 이들은 장차 전라좌도(全羅左道)로 갈 것이라 하였다(『隨錄』 『叢書』 5, 233쪽).

전 초토사가 태인 현감에게 내린 전령에 따르면 태인현의 관속배(官屬輩)가 동학농민군을 체포한다고 하면서 귀가하여 본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집에 떼를 지어 들어가 부수거나 가재도구 등을 탈취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고부, 태인, 김제, 부안, 무장, 장성 등지 동학농민군들은 5-60명 혹은 10여 명, 5-6명씩 무리를 지어 부자집에 들어가 밥을 빌어먹거나, 요호(饒戶)에 들어가 음식을 토색질하여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兩湖詔諭警錄』 『叢書』 6, 81쪽; 『兩湖電記』 『叢書』 6, 149-15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94-95쪽).

전 전봉준이 태인에 머물고 있었다.\*

\* 전봉준은 전주를 나와 5월 8, 9일 간 김제를 거쳐 5월 10일경 태인에 도착하였다(『全琿準供草』 『叢書』 18, 66쪽). 이어 5월 17일 오전 10시경에는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태인에서 정읍 북면 한교(漢橋)를 거쳐 연지점(蓮池店)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정읍에서 하루를 잔 다음 5월 18일 오후 2시경 장성 쪽으로 향해 갔다. 이것은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태인에 있던 전봉준이 이원회가 서울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시 한번 폐정개혁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정읍으로 이동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隨錄』 『叢書』 5, 234-235쪽; 『兩湖電記』 『叢書』 6, 153쪽). 따라서 5월 14일 현재 전봉준은 태인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순변사 이원회와 초토사 홍계훈의 전보에 의거하여 “호남의 비류들 가운데 괴수(魁首)는 이미 처단하였고,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잔당으로서 흩어져 도망한 자들은 연명으로 하소연하고 애걸하면서 모두 무기를 놓고 혼연히 귀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순변사는 즉시 철수하도록 하였다(『日省錄』).

### 5월 15일 (양. 6월 18일)

관 순변사와 심영 병방(沁營兵房)이 배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1-142쪽).

### 5월 16일 (양. 6월 19일)

정 심영 병방은 당분간 전주부에 머물러 있게 하고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당일로 철수하게 하였다(『日省錄』).

### 5월 17일 (양. 6월 20일)

전 순변사 이원회가 전주를 떠나는 5월 18일 이전(鄭昌烈, 앞의 논문, 1991, 166쪽) 전봉준은 귀가하는 동학농민군을 도륙(屠戮)한 나주,\* 금구 수령의 행패를 지적하여 귀가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비난과 폐정개혁안이 포함된 ‘호남회생등상서(湖南會生等上書)’를 제출하였다(「南遊隨錄」 『叢書』 3, 215-216쪽 ; 「東匪討錄」 『叢書』 6, 209쪽 ; 『續陰晴史』 上, 323-325쪽).\*\*

\* 나주 목사는 동학농민군 32명을 살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 부하 중에는 나주 목사를 공격하여 죽이자는 자들이 있었으나, 전봉준은 그것을 만류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전봉준을 접견한 일본인 우미우라(海浦篤彌)는 “농사는 나라의 근본인데, 5월 6월은 농사일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때 병사를 움직이면 제민(濟民)의 뜻을 크게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군량을 얻어 추수 후에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東學黨視察日記」 『叢書』 25, 77쪽).

\*\* 5월 17일경 순변사 이원회에게 제시한 폐정개혁안은 모두 3군데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나,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모두 24개조로 된 『속음청사(續陰晴史)』의 폐정개혁요구 조항과 비교해 볼 때 『동비토록(東匪討錄)』에는 ‘군전(軍錢) 춘추매호일양식원정사(春秋每戶一兩式元定事)’라는 항목이 빠진 23개항이 제시되어 있다. 「남유수록(南遊隨錄)」에는 모두 22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해읍지방관(該邑地方官) 매답용산어본 읍(買贖用山於本邑) 의률감처사(依律勘處事)’, ‘시세력탈인선롱자(恃勢力奪人先蠶者) 살기신징려사(殺其身懲勵事)’, ‘탐관오리(貪官汚吏) 침학잔민(侵虐殘民) 일일과출사(一一擺黜事)’, ‘결상두전(結上頭錢) 고전각색(考錢各色) 년증세가(年增歲加) 일병물시사(一併勿施事)’ 등 4개의 항목이 빠져 있는 대신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없는 ‘각국인사처항구(各國人使處港口) 불득입도성설관사(不得入都城設館事)’, ‘봉국태공감국섭정사(奉國太公監國攝政事)’ 등 2개 항목이 들어 있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4).

- 전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칼을 차고 총을 쏘고,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 태인 고현면(古縣面) 동촌면(東村面), 남촌면(南村面)에 분취해 있는데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隨錄』 『叢書』 5, 233쪽).
- 전 태인의 동학농민군 40여 명이 전주에서 자기 마을로 돌아온 후 부사에게 구호를 강요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9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97쪽).
- 전 오전 10시경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각각 창과 총을 가지고 태인쪽에서 정읍으로 들어와서 북면 한교(北面 漢橋)를 지나며 점막의 노파 양소사(梁召史)를 끌어다 총을 쏘서 살해한 뒤 읍에서 3리쯤 되는 연지(蓮池) 점막에 이르러 도리(都吏) 박민창 집에 들어가 가사를 파괴하는 등 제반 행패가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隨錄』 『叢書』 5, 234-235쪽 ; 『兩湖電記』 『叢書』 6, 153쪽).
- 전 고산, 삼례를 거쳐 전주에 도착하여 머물며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탐지한 일본인 정탐원 고도(高嶋) 유학생(留學生)은 곳곳에서 동학농민군이 출몰한다는 것은 풍설일 뿐, “동학농민군이 재발할 징후가 아무 곳에도 없”고 동학농민군들 가운데는 귀가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2-113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9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189쪽).
- 관 순변사의 군대가 배편으로 군사를 철수하였고, 강화 부대의 병방(兵房)은 영관과 함께 장병과 대포 1좌 회선포 1좌를 가지고 그대로 진(陣)에 주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4-145쪽).

## ■ 5월 18일 (양. 6월 21일)

- 전 오후 2시경 정읍에 있던 동학농민군의 한 무리가 장성으로 갔다(『隨錄』 『叢書』 5, 235쪽 ; 『兩湖電記』 『叢書』 6, 153쪽).
- 전 전봉준이 5월 18일 정읍에서 순변사 이원희에게 동학회생등장(東學會生等狀)을 제출하였다.\* 여기서 동학농민군은 홍계훈이 신변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폐정개혁안의 시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경우 뒷날 다시 봉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隨錄』 『叢書』 5, 234쪽 ; 『東匪討錄』 『叢書』 6, 220쪽).

\* 「수록(隨錄)」에는 명확한 날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원희가 서울로 철수하기 위해 5월 18일 군

산을 향해 떠났다는 기사에 바로 이어 나오고 있으며, 「동비토록(東匪討錄)」에는 그 날짜가 5월 18일로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무렵 초토사 홍계훈도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등장(等狀)을 받았다고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36쪽).

전 5월 18일 - 19일경 흥덕에서 쌀매집을 하고 있던 일본 상인(日高友四郎)은 근래 동학농민군이 이르는 곳마다 충만하여 흥덕 이남, 나주 이북은 제반정령(諸般政令)이 모두 당인(黨人)의 손에서 나와 지방관은 단지 그 콧김을 살피는 형편이 되었으며, 동학농민군은 항상 부호자(富豪者)로부터 재곡을 강탈하여 빈곤자에게 진휼하고 혹은 약탈한 미곡을 시가에 비하여 5-6할 싸게 방매한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0쪽).

관 초토사가 장위영의 장병을 거느리고 충청도로 향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5쪽).

### ■ 5월 19일 (양. 6월 22일)

관 홍계훈이 거느린 군관, 대관, 교장 및 장위영 병사 5개, 진남영 병사 1개 부대가 극로백 2좌와 회선포 2좌를 가지고 전주부를 출발하여 충청도 공주목(公州牧)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4-25쪽).

### ■ 5월 20일 (양. 6월 23일)

전 5월 20일경(鄭昌烈, 앞의 논문, 1991, 166쪽) 전봉준이 장성에서 김학진에게 폐정개혁을 요구하였다(「大韓季年史」 『叢書』 4, 372-373쪽 ; 「東京朝日新聞」 『叢書』 22, 356-357쪽 ; 「大阪毎日新聞」 『叢書』 23, 258쪽).\*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와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에는 제10항이 빠진 13개조만 제시되어 있으나, 「대관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에는 “각항도고여수세혁과사(各項都賣與收稅革罷事)”라는 항목 하나가 더 제시되어 모두 14개조가 실려 있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 측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은 시기와 자료에 따라 13개, 14개, 22개, 23개, 24개, 27개 등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측은 폐정개혁의 실시를 촉구하는 글을 보낼 때마다 이미 5월 4일경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27개조를 거듭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전라 감사 김학진은 초토사가 전주에서 서울로 철군하기 직전인 5월 20일경(金洋植, 「全州和約期 執綱所에 대한 研究史的 檢討」 『史學志』 26, 1993) 동학농민군

측에 효유문을 보내 무장을 해제할 것과 조속한 해산을 촉구하며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각 면리마다 집강(執綱)을 두겠으니, 만일 그대들 중에 무슨 원통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강이 사유를 적어 영문으로 소송하여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6개항의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57-159쪽에는 병기반납에 대해 규정한 제4조항이 빠져 있다; 「隨錄」 『叢書』 5, 228-232쪽; 「草亭集」 『叢書』 5, 406-408쪽; 「民亂地方視察復命書」 『叢書』 19, 331-334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4-115쪽).

【함】 원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일본과 청국 간에 전투가 벌어졌으며, 일본군이 대패하여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풍설, 러시아군이 조선 국경을 넘어 들어 왔다는 풍설이 돌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112-113쪽).

【관】 장위영의 포 2좌와 포대의 장병과 청주 부대의 1대 중 정예한 자를 뽑아 강화의 부대에 부처 전주에 머물게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6-147쪽).

## ■ 5월 21일 (양. 6월 24일)

【전】 태인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장성으로 갔는데 수요는 많지 않고 순창에서 순천으로 간 동학농민군도 100명이 안 되는데 조석의 음식을 사서 먹는다는 관군 측의 보고가 있었다. 이들은 귀화할 뜻을 보였는데, 아내와 가정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귀화하였고 도로에서 방황하는 자는 아내도 없고 가정도 없이 추적하여 체포되는데 밥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순천 부사와 영장의 보고가 있었다(「兩湖電記」 『叢書』 6, 148쪽).

【전】 태인·금구·정읍·고부의 아전이나 관노 사령들이 동학농민군들에게 양값음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의 살림을 몰수하자 돌아가도 의지하여 머물러 살 곳이 없게 된 동학농민군 일부가 혹 5-60명 혹 10명 혹 5-6명씩 모여 부자집에 쳐들어가서 밥을 뺏어 먹는 일이 발생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9-150쪽).

【전】 전봉준은 5월 21-22일경\* 의소(義所)의 명의로 동학농민군의 사적인 보복과 설분행위를 엄금하는 강경한 내용의 포고문을 내렸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3쪽).

\* 이 보고를 한 일본상인(日高友四郎)은 당시 흥덕에 체류 중이었으며, 5월 8, 9일경에 동학농민군 2천여 명이 흥덕을 지나가자 당분간 잠적해 있으라는 자신이 기거하던 집주인의 충고를 듣고 얼마간 숨어지냈으나,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현감 이하영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고, 이하영으로부터 안심하고 상업활동을 하라는 회신 별지을호(別紙乙號)를 접수한 지 10여 일 후에 이 포고문이 나왔다. 숨

어 지낸 기간과 보호요청에 대한 회신이 나온 시간을 2-3일정도로 잡을 때 이 포고문은 5월 21-22 일경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 정 오오토리 일본 공사가 우에노(上野專一) 영사에게 개혁과 인사들이 과연 정부 개혁 운동에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88쪽).
- 정 유길준은 교섭아문 주사로 임명되었으며, 김가진도 부호군에서 내무참의로 재임명 받았다(『政事冊』 갑오, 528쪽, 529-530쪽).
- 관 홍계훈이 공주목에 도착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4-25쪽).
- 관 미시 경에 장병들이 금영 진영에 도착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7쪽).
- 관 섭통령이 군사 4백 명을 거느리고 전주로 향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49-150쪽).

#### ■ 5월 22일 (양. 6월 25일)

- 전 22일 초토사의 보고에 따르면 무장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이 무덤을 파고, 사는 집을 헐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태인의 일부 동학농민군은 태인의 수령이 순위영(巡衛營)의 효유문을 가지고 가서 효유하자 귀가하여 생업에 편히 종사하고 있으나 무기는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53-154쪽).
- 관 죽인 동학농민군의 머리를 발송하였다(『兩湖電記』 『叢書』 6, 153-154쪽).
- 관 홍계훈이 진남영 병사 1개 부대를 돌려보냈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5쪽).

#### ■ 5월 23일 (양. 6월 26일)

- 전 전주에서 해산한 장흥지역의 동학농민군 3-40명이 혹 총이나 창을 들고, 혹은 말이나 노새, 당나귀를 타고 촌민들에게 강제로 짐을 짊어지게 하여 의기양양하게 장흥 지경으로 들어왔다(『日史』 『叢書』 7, 477쪽).
- 정 오오토리 공사가 국왕을 알현하고 5개조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90-293쪽).
- 정 오오토리 공사는 소위 일본당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김가진, 유길준, 조희연(趙羲

淵), 안경수 등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90-293쪽).

관 홍계훈이 거느린 군관, 대관, 교장 및 장위영 병사 5개 부대에게 극로백 2좌와 회선포 2좌를 가지고 공주목에서 회군하여 출발하였다(『兩湖招討謄錄』 『叢書』 6, 25쪽).

### 5월 24일 (양. 6월 27일)

전 일본인 정탐원의 보고에 따르면 태인군은 평온하고 동학농민군이 지나갈 때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다고 하였다. 장성과 고부에서는 수백 명이 둔취하여 강도질을 한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2쪽).

정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왔다(『日省錄』).

일 청과 전쟁을 대비하는 일본 대본영 참모총장 타루히토(熾仁親王)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선을 가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개의 전선가설대를 편성하여 병참총감에 소속시켜서 제1지대는 부산에서 청주까지 가설하고, 제2지대는 서울에서 청주까지 가설하도록 임무를 내렸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198쪽).

일 혼성여단 제2차 수송대가 인천에 입항하였다(『日清戰爭主要年表』).

### 5월 26일 (양. 6월 29일)

전 5월 22일 전주에 도착하여 5월 26일까지 태인, 고부, 부안, 김제, 금구 등지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정탐한 일본인 경부(警部) 오기하라(荻原秀次郎)가 “동학의 잔당이 각지에 출몰한다는 풍설이 있을 뿐이다. 상찰하건대 처음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무리들이 패주 후에도 따로 생계의 방도가 없으므로 계속 각처에서 도적질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고 동학농민군이라 자칭하면서 여행자나 양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2-113쪽).

### 5월 28일 (양. 6월 30일)

전 5월 28일경 장성 백양사 근처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들은 10여 명 혹은 2, 30여 명

씩 작당(作黨)하여 각지를 횡행하며 요호들의 전곡과 총 등을 빼앗아 갔으며, 4월 감영에서 모병(募兵)할 때 응한 포수와 보부상 등을 죽이기도 하였다(『隨錄』 『叢書』 5, 235-236쪽).

전 담양에서도 5월 28일 5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총창으로 무장하고 관아를 공격하고 담양에서 숙식하였다(『隨錄』 『叢書』 5, 236쪽).

전 동학농민군 접주가 2-30명의 동학농민군을 보내 흥덕에서 쌀 매집을 하고 있던 일 본인 상인을 찾아가 “현재 이곳 미가의 폭등을 초래한 것은 해외수출이 심히 많은 데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일본인들이 이 내지까지 들어와서 미곡을 매집하면 토착민들이 즐지에 기근으로 죽을 지경이 된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곡을 엄행하게 될 것이므로 작합(勻合)도 실어내지 못한다”는 통지문을 전달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0쪽).

## 5월 말경

전 전봉준이 사적인 보복과 설분을 엄금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곳곳에서 ‘굴인총(掘人塚) 징사채(徵私債), 겁부민(劫富民), 욕사족(辱士族), 조매관장(嘲罵官長), 박속이교(縛束吏校)’하는 설분적(雪憤的) 행동이 잇따랐다. 황현(黃玹)은 이에 따라 전봉준 등 지도부도 동학농민군 전체를 “두루 알아 통제[管束]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였으며, “전봉준 등이 비록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려고 난을 일으켰지만, 민간에서는 ‘주리풍년’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본래의 뜻이 이와 같이 궤열(潰裂)될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5월 이후에 봉준은 각 지방을 순시하면서 방종하지 않도록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명령은 오히려 행해지지 않았고, 각각 ‘접(接)’이라 하면서 오직 힘센 자가 서로 우두머리로 행세하려 하였다”고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07-110쪽).

전 동학농민군이 담양에 있을 때, 청대인(淸大人) 1명과 총제영(摠制營) 대관(隊官) 이웅천(李熊川)이 함께 담양으로 가서 효유하자 동학농민군이 귀화함은 물론 가지고 있던 병기를 반납하겠다고 하였다(『隨錄』 『叢書』 5, 243쪽).\*

\* 이능화의 『천도교창건사(天道敎創建史)』에서는 청국인이 섭지초의 비장(裨將) 류영경(劉永慶)으로 되어 있고, 해산 권고에 전봉준이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 동학농민군은 초토사가 회군한 이후 더욱더 맹위를 떨쳐 곳곳에서 개미떼처럼 둔취하였다(『錦城正義錄』 『叢書』 7, 5쪽).

일 일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94년 5월 하순 동학농민군은 다시 전라도 고부, 경상도 김해 그리고 충청, 평안도의 불평당 등과 통모하여 탐관오리의 압제를 소탕하고 폐정을 혁신하여 국기(國基)를 공고히 하자고 창도(唱道)하여 각처에서 봉기하였다는 것이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12쪽).

## 1894년(甲午年) 6월

### 6월 1일 (양. 7월 3일)

정 오오토리 일본 공사는 제2안으로서 내정개혁방안의 세목을 마련하고 외무독관 조병직에게 ‘내정정리요강안(內政整理要綱案) 5조’를 보냈다. 내정개혁 5개 조항 및 세목으로서 27개의 절목을 두고 각조항의 하단에 3일, 6개월, 2년 내의 시행기한을 명시하여 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舊韓國外交文書 2 : 日案 2』, No. 2906, 「內政改革力說 및 同綱領案提議」, 661~662쪽).

일 제1전선가설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외무성 외교사료관, 『日淸韓交涉事件ノ際ニ於ケル軍用電線架設關係雜件』 이하, 외교사료관, 『군용전선잡건』).

\* 제1지대의 386명은 부산-청주 구간을 담당하여, 부산-대구 구간은 기존에 조선이 설치한 전선을 이용하였으며, 1894년 7월 29일에 대구로부터 군용전선가설공사를 시작하였다. 제2지대의 445명은 서울-청주 구간을 담당하였고 먼저 7월 12일에 서울-인천 구간의 전선을 개통시켰다. 이 시기의 가설은 조선정부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일본군의 비합법적인 공사였다.

### 6월 2일 (양. 7월 4일)

전 정읍 쪽에서 담양으로 들어 온 4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수성청(守城廳)에 방화하고 수성별장(守城別將) 국인묵(鞠仁默)의 집을 파괴하였다(『隨錄』 『叢書』 5, 235-236쪽).

일 제2전선가설대가 인천에 도착하였다(외교사료관, 『군용전선잡건』).

### 6월 4일 (양. 7월 6일)

전 위도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 미곡상(米穀商)이 탄 배를 공격하여 상품과 돈 등 3,000원 정도를 빼앗아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4쪽).

### ■ 6월 6일 (양. 7월 8일)

전 전봉준이 순창에서 천우협 관계자 14명을 만났다. 이때 전봉준이 거느린 동학농민군수는 5월 28일 담양으로 들어온 동학농민군수와 마찬가지로 500여 명이었다. 전봉준과 천우협 관계자들은 서장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전봉준은 일본인들에게 열음을 순행하는 목적은 폐정개혁을 위해서라고 말하였고, 천우협 측은 민씨정권과 청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격문을 전봉준에게 건넸다(『二六新報』 明治 27年 8月 11, 12日, 11月 16日 『叢書』 22, 115-118쪽, 156-159쪽; 『續陰晴史』 上, 316쪽; 『천우협』 96-100쪽; 강창일,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2, 76-78쪽).

정 고종은 ‘자수자강(自修自強)’을 목표로 하는 ‘대경장 대징창(大更張 大懲創)’을 선언하였다(『日省錄』).

### ■ 6월 7일 (양. 7월 9일)

전 천우협 관계자들이 전봉준에게 폭탄을 시험해보였다(강창일, 앞의 책, 2002, 78쪽). 6월 7일 혹은 8일경에\* 전라 감사 김학진에게 부민을 침학하는 무뢰배들에 대해 관에서 체포해줄 것을 바라는 동시에 나주와 금구의 수령을 파출(罷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순창회생전봉준송대화송창헌정창진김대춘등장(淳昌會生全琿準宋大和宋昌憲鄭昌振金大春等狀)’을 보냈다(『隨錄』 『叢書』 5, 243-245쪽).

\* 등장을 올린 날짜가 “6월(月) 일(日)”로 나와 있으나 이 <등장>이 6월 7일에 나온 김학진의 효유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가지고, 이<등장>에 대한 <제교>의 내용 가운데 “이미 작일 유문(昨日 諭文)에서 다 말했듯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유문>은 6월 7일자로 된 김학진의 <사유도내난민문(四諭道內亂民文)>(『草亭集』 『叢書』 5, 409-410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교>는 6월 8일 나온 것으로 보이며, <등장>은 그 하루전 6월 7일이나 8일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 ■ 6월 8일 (양. 7월 10일)

전 전봉준 등이 보낸 ‘순창회생등장(淳昌會生等狀)’에 대한 김학진의 제교(題敎)가 나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에서 체포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잡초와 벼삭(동학농민군과 무뢰배-필자)을 쉽게 판별하는 것과 같지 못하고, 너희들의 떳떳함을 밝히는 것도 여기에 달렸으니 각지에서 집강을 정하여 <무뢰배를> 금단하고

체포하여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 나주와 금구 양읍의 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 중이다. 즉시 귀향하여 안업하도록 하라”(『隨錄』 『叢書』 5, 244-245쪽).\*

\* 제교에 6월 7일자로 된 김학진의 사유도내난민문(四諭道內亂民文)(『草亭集』 『叢書』 5, 409-410쪽)을 언급하며 “작일 유문(昨日 論文)”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제교가 나온 날짜를 6월 7일로 이해하였다.

전 전봉준은 순창회생등장(淳昌會生等狀) 직후 재상서(再上書)를 올려 “읍폐 가운데 작은 것은 해당 지방의 수령에게 알려 고치고, 큰 것은 감영에 올려 고치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계조(稷租)를 창설한 것과 죽창군을 월 3회 점고하는 것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여기에 대해 김학진은 계조의 경우 편부(便否)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폐단이 된다면 정소(呈訴)함이 옳을 것이고, 죽창의 경우는 ‘어폭지비(禦暴之備)’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폐단이 있다하여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고 하여 즉각적인 시정에 난색을 표명하였다(『隨錄』 『叢書』 5, 245쪽).\*

\* <등장>에 대한 김학진의 <제교>가 6월 8일에 나왔고, 전봉준은 6월 8일 순창에서 옥과(玉果)로 가기 때문에 8일 옥과로 출발하기전으로 추정하였다.

전 전봉준은 천우협 관계자들에게 동학농민군 당부(黨符) 14개, 동학 식문(式文)과 약간의 돈, 의류와 짚신을 주고 옥과로 향하였다(강창일, 앞의 책, 2002, 79쪽).\*

\* 「영상일기(嶺上日記)」에는 일단의 동학농민군이 태인에서 순창으로 왔다가 하루를 머문 뒤 옥과, 담양, 창평, 동북, 낙안, 순천, 보성을 거쳐 낙안으로 갔다고 기록하였다(『叢書』 2, 285쪽).

## 6월 8일 - 9일 (양. 7월 10일-11일)

정 오오토리 공사는 조선측의 위원인 신정희(申正熙) 등 2명에게 이 조항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른바 노인정회의에서 신정희, 김종한(金宗漢), 조인승(曹寅承) 등은 시한부 개혁 요구가 내정간섭이라는 점을 들어 논박하기도 했지만, 일단 접수하고 말았다.(『舊韓國外交文書 2 : 日案 2』, No. 2928, 「內政改革綱領細目の鈔呈」, 671-674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02-108쪽).

### ■ 6월 9일 (양. 7월 11일)

정 조선정부는 독자적인 개혁방침을 확정하고 개혁을 추진할 권력기구로서 교정청(校正廳)을 설립하였다(『日省錄』; 『甲午實記』 『叢書』 6, 287-288쪽).

### ■ 6월 11일 (양. 7월 13일)

전 6월 10, 11일경에 공주 근방에서는 “손(孫), 전(全) 양장(兩將)은 해로로, 또 수괴 전 녹두는 육로로 하여 양도(兩道)로 나누어서 경성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어서 동학농민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매일 대(隊)를 지어 공주를 거쳐 경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며 그들의 입경목적(入京目的)은 일청양국의 출병과 각국 군함의 집결에 관하여 각국 공사에게 각각 그 군대를 철회할 것을 유설(遊說)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풍설이 돌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6쪽).

전 흥양(興陽) 동학농민군이 낙안목장(樂安牧場)으로 향(向)하면서, 이향(吏鄕)에게 통문을 보냈다(『邑報抄概冊』 규-古5125-86).

### ■ 6월 13일 - 14일 (양. 7월 15일-16일)

정 3차 노인정회의에서 신정회는 오오토리 공사에게 일본의 내정간섭은 조선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우선 일본이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기한부 실행안을 철회하여 주기를 주장하였다(『舊韓國外交文書 2 : 日案 2』, No. 2929, 『同上改革案의 駐留日兵撤收後措辦回答』, 674쪽).

### ■ 6월 14일 (양. 7월 16일)

전 흥양의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읍폐를 교정(矯正)한다며, 성내 난입하여 이향을 구타하고 낙안으로 향하였다(『邑報抄概冊』).

충 국왕이 충청 감사 이헌영(李鑣永)을 소견할 때 “호서는 기보(畿輔)를 방어하는 삼남의 요충지이니 공경히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자 “비류들이 지난해 봄부터 보은에서 소요를 일으킨 이후에 잔당이 아직까지도 아무 때나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호서는 호남보다는 창궐하는 것이 덜하였지만, 회덕과 진잠 등의 읍에 이르러서는 침범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고 온 도가 자연 소란스럽고 와언(訛言)이 퍼졌다”고 아뢰었다(『承政院日記』).

### ■ 6월 16일 (양. 7월 18일)

전 전봉준이 광주(光州)에 머물렀다(「東學黨視察日記」 『叢書』 25, 68쪽 ; 김양식, 「1, 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 『역사연구』 2, 1993, 137쪽).

### ■ 6월 17일 (양. 7월 19일)

전 전봉준이 남평(南平)에 머물렀다(「東學黨視察日記」 『叢書』 25, 68-69쪽 ; 김양식, 위의 논문, 1993, 137쪽).

정 일본의 대본영도 본격적으로 청국과의 개전을 결정하였다. 그날 경성과 부산간의 군용전신선 가설을 시작했다(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1968, 162쪽).

### ■ 6월 18일 (양. 7월 20일)

전 전봉준이 능주(綾州)에 머물렀다(「東學黨視察日記」 『叢書』 25, 69쪽).

평 평양에서 정탐활동을 하던 일본군 3명이 평양 주민 300여 명의 공격을 받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録』 3, 231-232쪽).

### ■ 6월 20일 (양. 7월 22일)

충 신임 충청 감사 이현영이 공주 선화당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7쪽).

### ■ 6월 21일 (양. 7월 23일)

평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자 평안도 병사들이 일본군에게 총을 쏘서 일본군 사상자가 있었다(박종근, 앞의 책, 1989, 196쪽).

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척족정권을 무너뜨렸다.\* 당시 승정원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공사 오오토리가 군병을 이끌고 새벽을 틈타 쳐들어와 영추문(迎秋門)에 육박하였다. 빗장을 부수고 곧장 들어와 궁 안의 각사(各司)를 휘젓고 다니며

총포(銃炮), 창도(創刀) 등 기물을 표략(剽掠)하고 창호(窓戶)를 부수고 시어소(時御所)에 육박하였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박종근, 위의 책, 1989, 48~90쪽; 『뫼텔주교일기 I(1890~1895)』, 1894년 7월 23일 기사, 252~254쪽).\*\*

\* 1894년 6월말 현재 일본은 청의 간섭에 대해 속방론을 주장하거나 청일 양국의 내정 개혁 강요를 통해 청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또한 조선정부의 정권교체도 무망한 상황에서 청일 전쟁을 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의 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청군의 구축의뢰를 받으려고 하였다(박종근, 위의 책, 1989, 27-72쪽).

\*\* 1894년 6월 일본의 경복궁 점령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일제 침략의 대표적인 왜곡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たす—戦史から消ざらた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 高文研, 1997 참조). 경복궁점령시 당시 일본공사관(日本公使館) 및 일본군(日本軍)의 해명에 의하면, 일본군대(日本軍隊)가 대궐 뒤에 위치한 북한산으로 야영을 하러 가려고 대궐 앞을 지나는데, 이때 조선군대 쪽에서 그들에게 총을 쏘았으므로, 그에 대한 반격이 가해지고 대궐을 점령한 것이라고 하였다(당시 일본측의 왜곡보고를 그대로 인정하는 연구로서 高橋秀直, 『日清戦争への道』 東京 創元社, 1995, 438~443쪽). 그렇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이미 대규모 공세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대문 밖의 산위에다 대포를 설치할 정도였다. 또한 대궐 문은 왕의 명령에 의해 열렸으며, 일본군들은 처음에는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후인 두번째 대궐 담에 이르러서 총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뫼텔주교의 일기 I(1890~1895)』, 253쪽; 왕현중,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130-147쪽).

## ■ 6월 22일 (양. 7월 24일)

정 동래 부사 민영돈(閔泳敦)이 장계에서, “일본인이 전선을 가설한다고 핑계 대고 제멋대로 내지를 돌아다니는데, 변방을 지키는 직임에 있으면서 진압하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처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왕이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承政院日記』).

정 고종의 친재를 일시 정지시키고 대원군을 섭정으로 삼았다(『日省錄』).

정 고종은 사색편당의 논을 일체 타파하고 문지(門地)에 관계없이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사의 천거를 천명하는 조칙을 발표하였다(『日省錄』 「勅諭大小臣工」).

정 새로운 정치를 위하여 근대적 교육제도의 실시를 천명하였다(『韓末近代法令資料集(I)』 1쪽).

정 병조판서에 전라 감사 김학진을 임명하고 속히 올라오도록 하였다(『日省錄』).

일 아리스가와 노미야(有栖川宮) 참모총장이 군사령관 편제안을 상주(上奏)하였다(「日清戰爭主要年表」).

### ■ 6월 23일 (양. 7월 25일)

일 일본 해군이 아산만 풍도에 있던 청국 함대를 공격하였다[청일전쟁 발발](「日清戰爭主要年表」).

### ■ 6월 23일 - 24일 (양. 7월 25일-26일)

전 장흥의 자리번지와 강진 읍내장터 등에 도소를 설치하고 토호들을 잡아다가 징치하고 있었다(「日史」 甲午 6月 21日, 7月 3日 『叢書』7, 478-479쪽).

전 흥덕·영광·부안 등지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성내에 1-2백 명씩 모여 있었다(「東學黨視察日記」 『叢書』 25, 74쪽).

### ■ 6월 25일 (양. 7월 27일)

전 김개남이 남원에 입성하여 민간에서 말과 총 등을 찾아 빼앗았다. 이들은 남원에 들어오기에 앞서 태인을 출발하여 순창·옥과·담양·창평·동북·낙안·순천·보성·곡성을 거쳐 왔다(「嶺上日記」 『叢書』 2, 285쪽).

정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갑오개혁 정권이 수립되었다(『日省錄』).

### ■ 6월 26일 (양. 7월 28일)

정 군국기무처는 장정과 회의원을 공포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수행하는 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章程存案』 개국 503. 6.26 議案 草記).

### ■ 6월 27일 (양. 7월 29일)

일 일본군과 청나라 섭사성(聶士成)이 거느리는 청국군 4-5천이 직산현 성환에서 전

투를 벌였으며, 청나라 군대가 패주하여 공주에 들어와 유숙하였다[성한전투](「錦藩集略」 『叢書』 4, 8쪽).

## ■ 6월 28일 (양. 7월 30일)

전 서병학·장두재(張斗在) 등 주요한 동학교도들이 석방될 때 그들보다 며칠 늦은 6월 28일에 서장옥이 석방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쪽). 석방된 직후 서병학이 관군에 붙어 앞잡이 노릇을 한 반면 서장옥은 장두재와 함께 대원군을 찾아가서 청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밀의한 바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55쪽).\*

\* 장두재가 김개남손화중 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아등(我等)이 대원군을 찾아갔다’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서장옥도 장두재와 함께 대원군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황현에 따르면 “어떤 소문에는 서장옥이 몰래 운현궁에 들어가 대원군의 밀서를 전해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의 고유(告諭)는 실은 일본의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삼가 곧이 듣지 말고, 군사를 정돈하여 북쪽으로 올라와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하여 서장옥과 대원군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梧下記聞』 『叢書』 1, 247쪽)

충 공주에서 일박한 청국군이 공주를 떠났다. 청국군은 연기(燕岐)·청주(淸州)·청안(淸安)·음성(陰城)·충주를 거쳐 강원도 방면으로 우회하는 북상 길을 선택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8쪽).

충 청군 영접관 이중하는 공주에 남고, 공주 판관 신옥이 호행(護行)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20쪽).

충 충청 감사 이현영이 연기·청주·청안·음성·충주 관아에 감결을 보내 청국군의 행로를 알리고 지방관이 경내를 지나갈 때까지 보호하며 따라가고, 숙박 여부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다(「錦藩集略」 別甘 燕岐 淸州 淸安 陰城 忠州 『叢書』 4, 64쪽).

정 군국기무처는 반상(班常)이라는 신분적 차별제도를 폐지하고 귀천에 구별 없이 인재를 채용할 것을 의결했다(『議定存案』 개국 503. 6.28. 「議案 草記」).

정 군국기무처는 과부의 재가는 귀천을 논하지 말고 자유에 맡길 것을 의결했다(『議定存案』 개국 503. 6.28. 「議案 草記」).

정 군국기무처는 공·사 노비제도는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판매하는 일은 일절 금할 것을 의결하여 사회신분제를 폐지하였다(『議定存案』 개국 503. 6.28. 「議案 草記」).

- 정 삼남염찰사(三南廉察使) 엄세영(嚴世永)을 선무사로 겸해 발령하여 각 지방관과 더불어 군국기무처의 개혁 의안을 설명하여 동학농민군을 효유하여 농민들을 귀화시키도록 하였다(『日省錄』).
- 정 군국기무처는 사민(士民)들이 진정서를 내면 기무처 회의에 제출하여 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의결하였다(『日省錄』).

## 6월 28일경

- 전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보도에 따르면, 남원의 동학농민군들은 “전에 폐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일어났으나 조유(詔諭)를 듣고 초토사와 화약을 맺고 (중략)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있었지만 일본은 대병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중략) 조금이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중략) 궁중의 일을 물을 겨를조차 없으므로 우리가 먼저 일어나 일병을 막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종근, 앞의 책, 1989, 213쪽).

## 6월 29일 (양. 7월 31일)

- 전 무장 동학농민군 5-6백 명은 일본병이 장차 이를 것이라 하면서 성중 난입, 무기를 탈취하였다(『古文書』 2, 서울대학교도서관, 1987, 412쪽).
- 전 6월 29일에는 전라도 성당(聖堂)에서 도인(道人)이라고 칭하는 자 20여 명이 총과 창을 들고 임천으로 쳐들어왔다. 이들은 위국안민(爲國安民)을 칭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총과 마필 등을 빼앗아갔고, 요호에게는 기민(飢民)을 진휼한다는 명목으로 조(粗) 271석 10두, 미(米) 15석, 우(牛) 1척(隻), 전(錢) 150냥 등을 빼앗았으며, 질청(作廳)에 들어가 차지하고 앉아 이서(吏胥)들을 불러 하룻밤 대접을 받고 다음날인 7월 1일에 돌아갔다(「錦藩集略」 『叢書』 4, 28쪽).

## 6월

- 정 예천에서 동학의 세력은 6월과 7월에 크게 성행하여 마침내 마을을 횡행하면서 포덕이라 일컫고 입도를 시키는데 합류하는 사람이 하루에 천 명이 되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8쪽).

## ■ 6월 말경

- 전 하동부에서는 광양(光陽)에서 온 동학농민군들이 하동의 시쾌(市儻)들을 끌어들여 부중(府中)에 도소를 설치하여 사방을 다니며 약탈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85쪽).
- 전 금구의 김인배(金仁培)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순천에 들어와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무기를 약탈하고 사람들의 돈과 곡식을 빼앗았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354-355쪽).
- 전 곡성 읍내도 김개남 부대의 공격을 받아 여리(閭里)가 경탕(傾蕩)될 상황이 되기도 했다(「谷城郡守報狀」 『叢書』 16, 441쪽).
- 전 목포에서도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만호진(萬戶鎭)을 공격하여 군기를 몽땅 빼앗아 갔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215-217쪽).
- 전 군산지방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주민이 모두 동학에 입도한 상태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0-241쪽).
- 충 금산에서는 이웃 진산의 동학농민군들이 몰려와 동학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민가 200여 호를 불태우고 약탈하였으며, 그 뒤에도 진산의 동학농민군은 다시 금산에 들어가 200여 호의 민가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생매장하거나 소나무에 결박하고 불태워 죽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31쪽).

## 1894년(甲午年) 7월

### 7월 1일 (양. 8월 1일)

- 전 최경선이 나주를 공격하기 위해 7월 1일에 나주 북방 4km 지점인 금안리 일대에 진을 쳤다(『錦城正義錄』 『叢書』 7, 11쪽).
- 정 각 도의 감영 병영 및 주·부·군·현·진·역·보 등의 이서와 군졸들의 총액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각종 명목의 상납과 공용지방사례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議案』 개국 503.7.1, 23-24쪽).
- 정 공문서에 국문(國文)과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할 것을 정식으로 의결하여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하여 국민을 계몽하려고 하였다(『議案』 개국 503.7.1, 23쪽).
- 정 일본은 '가조약안(假條約案)'을 체결하여 철도와 전신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日本外交文書』 27-1, No. 442, 「朝鮮政府ト假條約締結ノ件」 652-65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24-26쪽).
- 일 서울-부산 간 도로수선대[공병 제6대대 제1중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 5사단 병참감독부』 1894. 8. 1).
- 일 제5사단의 나머지 병력이 도한(渡韓)을 개시하였다(『日清戰爭主要年表』).

### 7월 초순

- 전 장성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사홍이 곡성에 쳐들어가 관아의 무기와 민가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谷城郡守報狀』 『叢書』 16, 441쪽).
- 전 6월 말 석방된 동학교도 장두재가 7월 초에 대원군을 만나서 청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물리치기로 합의한 후 김덕명, 김개남 및 손화중 앞으로 기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55쪽).
- 전 동학농민군이 능주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다(『古文書』 2, 414쪽).
- 전 남원 동학농민군이 안의(安義)와 함양(咸陽) 공격하였으나 패배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56쪽).

경 일본군이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에 병참부를 설치하였는데 동래에서 문경까지 약 40리마다 병참부를 설치하는데 동래·밀양·청도·대구·독명원·해평·낙동·태봉·문경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대참(大站)외에 소참(小站)도 두었다. 지나갈 도로는 3백 명이 대를 지어 3일에 십 리씩 닦는데 길이 좁은 곳은 전답을 가리지 않고 구덩이는 메우고 돌을 뽑아내며 나무를 베어내서 평탄하게 만들었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237쪽).

### 7월 2일 (양. 8월 2일)

전 전봉준이 남원에 들어갔다(「嶺上日記」 『叢書』 2, 285쪽).

전 나주 대접주 오권선이 나주 북면 일대에서 동학농민군을 동원하여 7월 2일에 금안리로 내려와 최경선과 합류하였다(「錦城正義錄」 『叢書』 7, 11쪽 ; 「蘭坡遺稿」 『叢書』 8, 120쪽).

충 보은 군수 정인량(鄭仁亮)이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사각면(四角面) 고승리(高升里) 냇가에서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모여 있어서 군수가 효유(曉諭)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동학교도 김개쇠(金介釧)가 생일에 임박해 손님을 청했다고 하였다. 군수가 온 것은 이방이 아뢰었기 때문이라고 하니, 동학농민군들이 이방을 잡아 갔는데 이를 쫓아갔더니 5리쯤 떨어진 산골짜기 나무숲 아래 있던 여러 사람이 맞이하면서 “이번 소란스런 시기를 맞아서 마땅히 창의(창의)를 해야 할 것인데 관가(官家)에서 기왕 행차하였으니 우리들의 창의 두령이 되어 달라”고 청하였다. 정인량은 서울 소식을 모르고 참여할 수 없었고, 군수로서 동학의 두령이 될 수 없으며, 선비로 창의한다고 해도 충청감영과 병영에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31-33쪽).

정 군국기무처는 양반의 상업경영의 자유화를 공포했다(『議定存案』 ; 『日省錄』).

정 군국기무처는 역인(驛人)과 창우(倡優), 피공(皮工) 등은 모두 천인에서 면함을 허용할 것이라고 하여 칠반천인을 해방하는 의안을 결정했다(『議定存案』 개국 503.7.2, 「議案 草記」).

### ■ 7월 3일 (양. 8월 3일)

전 장흥의 동학농민군이 장흥으로 이동하여 도회(都會)를 열었다. 동학농민군들은 끊이지 않고 왕래하였다. 혹은 십여 인 혹은 수십 인, 삼사십 인이 길에 끊어지지 않았는데, 서로 부르기를 접장(接長)이라 하였고, 아이들은 동몽접장(童蒙接長)이라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속인(俗人), 자신들은 도인(道人)이라고 하였으며, 상좌(上座)의 사람을 교장(敎丈)이라고 하였다(『日史』 『叢書』 7, 479쪽).

경 일본인이 천여 명이나 대구 미산(眉山)에 주둔하면서 군량과 기계를 실은 소가 7, 8백 필이나 되어 대구의 인심이 소란해지고 피난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168쪽).

### ■ 7월 4일 (양. 8월 4일)

전 함열(咸悅) 웅포(熊浦)의 동학농민군 300여 명이 아침부터 시장에 난입하여 부민의 금곡을 약탈하여 약간을 빈민에 급여하고 또 총칼 등을 수색하여 가져갔다. 이들은 다음 목적지인 황산(黃山, 강경 근처)으로 가서 같은 활동을 한 뒤 북쪽을 향하여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39쪽).

평 청국 군대가 평양에 들어왔다. 당시 평양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에 따르면 이날 이후 청국 장수와 평양감사 민병석은 일본인에 대한 살육을 명령하였으며, 조선인들 사이에는 “일본이 대병을 동원하여 조선을 병탄하려고 하여 왕성을 이미 함락하였고, 국왕은 포수수(捕囚手)당함에 따라 청국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대병을 파견하였는바 조선인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6-247쪽).

정 고종이 대소 신민에게 개혁에 관한 윤음을 내렸다(『日省錄』 「下綸音于大小臣民」).

### ■ 7월 5일 (양. 8월 5일)

전 최경선과 오권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이 날 오후에 출발하여 금성산을 거쳐 저녁 해가 진 다음 어둠을 틈타 서성문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공격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목사 민중렬과 나주 수성군의 저항을 받고 실패하였다. 전봉준은 최경선이 구원해줄기를 요청하자 “저들은 각기 그 자신의 직분을 다할 뿐인데 무슨 이유로 먼저 공격하였는가. 접장은 내말을 듣지 않아

폐하였으니 나의 도움을 바라지 마시오”라고 하며 거절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56쪽 ; 「錦城正義錄」 『叢書』 7, 11-12쪽).

경 예천의 동학농민군 수십 명이 읍내에 들어와서 전 영장 이유태(李裕泰)를 끌어내서 결박하고 구타하여 거의 사경에 이르게 하고 돈을 탈취해갔다(「甲午斥邪錄」 『叢書』 11, 9쪽).

경 전형조참의 지식영(池錫永)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 간신 민영준과 진령군 등을 잡아들여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日省錄』).

일 대본영을 궁중으로 이전하였다(「日淸戰爭主要年表」).

### ■ 7월 6일 (양. 8월 6일)

전 전주서 전봉준과 김학진이 만나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관민상화를 이끌어내었다(「梧下記聞」 『叢書』 1, 179-180쪽 ; 「隨錄」 『叢書』 5, 247쪽).

충 연산 현감 이병제(李秉濟)가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의하면, 충과 창으로 무장한 동학농민군 20여 명이 6일 충을 쏘며 읍내에 돌입해서 총 4자루, 돈 30냥, 민간의 말 3마리를 빼앗아갔다(「錦藩集略」 『叢書』 4, 35쪽).

경 일본인이 전선(電線)을 가설하여 서울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170쪽).

경 전봉준은 전라 감사 김학진의 협의요청에 따라 7월 6일 전주에서 회담을 가졌다. 전봉준은 집강소를 인정받고 전라도일대의 행정권을 이양받게 되었다(『梧下記聞』 『叢書』 1, 61~62쪽 ; 「隨錄」 『叢書』 5, 275-276쪽 ; 「草亭集」 『叢書』 5, 411쪽).

### ■ 7월 7일 (양. 8월 7일)

충 연산 현감 이병제가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의하면, 동학농민군 100여 명이 2시경 또 돌입해서 돈 100냥을 빼앗아갔다(「錦藩集略」 『叢書』 4, 35쪽).

경 신임 경상 감사 조병호가 목천(木川)의 집에서 출발하여 7일에 감영에 도착하였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169쪽).

### 7월 8일 (양. 8월 8일)

전 전봉준은 김학진과의 회담 후 봉상면(鳳翔面) 구미리(九尾里)로 나갔으며(『隨錄』 『叢書』 5, 247쪽), 김학진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각 읍 집강 앞으로, 평민 침학을 금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무기와 공물 반납을 하라는 통문을 발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82-183쪽 ; 『隨錄』 『叢書』 5, 277-278쪽).\*

\* 오하기문에는 이 통문이 구례에 도착한 날짜가 7월 12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전 군산에서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강경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강경에서 석성을 거쳐 공주로 가서 그 곳에서 바로 경성을 향하여 출발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36-237쪽).

충 연산 현감 이병제가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의하면, 동학농민군 10여 명이 충을 쏘며 들어와 말 1마리를 빼앗아갔다(『錦藩集略』 『叢書』 4, 35쪽).

평 청국 군대 1,500명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평양 지역 한민(韓民)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15쪽).

평 평양감사 민병석이 청국군에 호응하여 군량을 모으고 포군을 모집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116-119쪽; 박종근, 앞의 책, 1989, 196쪽).

정 병조판서로 임명받은 전라 감사 김학진을 그대로 유임하도록 하였다(『日省錄』).

### 7월 9일 (양. 8월 9일)

전 전라도 부안의 동학농민군이 서천군으로 들어와 방포하며 “전라도 연해에 정박해 있는 일본선박이 몇 백 척이나 되어 전라도 전체가 놀라고 있다. 계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부족한 것이 마필과 군기이다”라고 하며 총과 화약, 마필(馬匹) 등을 빼앗아 갔다(『錦藩集略』 『叢書』 4, 34-35쪽).

충 서천 군수(舒川郡守) 김인수(金麟洙)가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의하면, 9일 12시경 부안 동학농민군이라고 하는 무리 57명이 충과 창을 지니고 한산(韓山)에서부터 충을 쏘며 읍내에 들어와서 각 관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라도 연해에 일본 배 몇 백 척이 있다고 하면서 말과 무기를 요구하여 4시경 총 6자루, 화약 3근, 철환(鐵丸) 100개, 창 2자루, 나귀 2마리, 말 1마리를 탈취해서 가지고 갔다(『錦藩集略』 『叢書』 4, 34-35쪽).

정 학부협관 겸 군국기무처의원인 정경원을 삼남선무사로 임명하고 이후 양호선무사로 활동케 하였다. 7월말 8월초 충청지역에서 정경원은 각지 동학 접주를 집강으로 차정하여 동학농민군들을 갑오정권의 개혁사업에 순응하도록 유도했다(『洪陽紀事』 『叢書』 9, 105-106쪽).

### 7월 10일 (양. 8월 10일)

정 정부는 봉건적인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근대적인 조세제도로 개편한다는 목표 아래 종래 여러 가지 부세의 현물납과 봉건재정 원칙을 개혁하고 각종 부세명목의 간소화와 조세의 금납화를 시행하였다(『軍國機務處議案』).

### 7월 11일 (양. 8월 11일)

정 국군기무처는 신식화폐발행장정을 반포하였다. 신식화폐를 다액 주조하기에 앞서 외국화폐와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일본화폐의 유통을 합법화시켰다(『議案』 「新式貨幣發行章程」).

### 7월 12일 (양. 8월 12일)

전 서병학이 변절하여 관군에 붙어 남부도사(南部都事, 종5품)라는 자리를 맡았다(『日省錄』;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1-462쪽)\*.

\* 6월 22일경 동학교도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석방되는 데 서병학도 이 무렵에 석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1895년 8월 29일 기사에는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의 거괴인 서병학을 감옥에서 꺼내 미관(微官)을 부여함으로써 유무(諭撫)의 매개자로 삼았다고 하였다(「大阪朝日新聞」 『叢書』 23, 85쪽). 서병학은 이틀 뒤인 7월 14일에 면직되었으나(『日省錄』), 그 이후 서병학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면직된 이후에도 관군 측에 붙어 동학농민군 진압에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란록(避亂錄)」에는 도사(都事) 서병학이 1894년 10월 12일 충청도 위무사로 임명된(『日省錄』) 전지중추원사(前知中樞院事) 박제관(朴齊寬)과 함께 선유사의 자격으로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지고 내려와 각 읍을 돌며 동학농민군을 회유하였다고 하였다(「避亂錄」 『叢書』 9, 34쪽). 공주의 유생 이용규(李容珪)에 따르면 서병학은 8월 7일 공주로 들어와 김영국포(金榮國包)를 설득하여 해산시켰으며, 8월 11일에는 갈산(葛山)으로 들어가 동학농민군과 양반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떠났다고 하였다(「若史」 『叢書』 2, 220쪽). 1895년 정월에도 참모관(參謀官)의 직함을 차지하여 관군을 앞세우고 동학농민군을 색출, 체포하고 있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4, 365쪽).

- 정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별도로 선거조례(選舉條例)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議案』 「選舉條例」 개국 503.7.12, 46~47쪽).
- 정 군국기무처는 향회 설치의 건을 제정하여 지방민의 권력참여를 제도화시키려고 하였다(『議定存案』 1894.7.12).
- 정 전라 감사 김학진은 6월 28일과 7월 2일에 제정된 군국기무처 의안 25개 중 9개를 적시한 공문을 7월 12일 각 군에 보내 게시하도록 하였다(『隨錄』 『叢書』 5, 46~47쪽 ; 『日史』 『叢書』 7, 482쪽).

### 7월 15일 (양. 8월 15일)

- 전 7월 보름 무렵 전봉준과 김개남 등이 남원에서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을 불러 모았다(『梧下記聞』 『叢書』 1, 179쪽).\*

\* 남원대회의 날짜를 6월 15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창렬, 앞의 논문, 1991 ; 신용하, 앞의 책, 1993).

- 경 예천의 우음동 접주인 박래헌(朴來憲)이 그 무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서울나들이에서 안동 부사의 행리를 빼앗아갔다(『甲午斥邪錄』 『叢書』 11, 9-10쪽).
- 정 신관제 시행에 따라 김홍집 총리대신을 비롯하여 이재면 궁내대신, 민영달 내무대신, 김윤식 외무대신, 어윤중 탁지대신, 윤용구 법무대신, 서정순 공무대신, 박정양 학무대신, 이규원 군무대신, 엄세영 농상대신, 안경수 경무사 등이 새로 임명되었다(『日省錄』 ; 柳永益, 『甲午更張研究』, 일조각, 1990, 141쪽).
- 정 군국기무처는 7월 5일 전형조참의 지식영 상소에 대한 응답으로 의안을 제정하면서, 민씨척족정권 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전 선혜청 당상 민영준(閔泳駿), 민씨측근인 무녀 진영군(眞靈君), 전삼도통제사 민형식(閔炯植) 3인의 처벌을 결의했다(『日省錄』).

### 7월 17일 (양. 8월 17일)

- 전 장두재가 동학농민군의 재기포를 촉구하는 편지를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에게 보낸 지 일주일 정도 후인 7월 17일 전봉준은 무주집강소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방금 외구(外寇)가 범궐하였다. 국왕이 옥을 당했으나, 우리들은 마땅히 달

려가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하나 저 도적들이 바야흐로 청나라와 전쟁 중이어서 그 예봉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갑자기 맞서 싸웠다가는 그 화가 종사(宗社)에 미칠지도 모른다.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기세를 올려 계책을 취하는 것이 만전지책(萬全之策)이다. 바라건대 반드시 경내의 각 접주에게 통문을 돌려 서로 상의하여 각자 안업(安業)하고 경내에서 서동(胥動)하는 무리를 일절 금단하여 마을에서 횡행하며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를 절망(切望)한다”(『隨錄』 『叢書』 5, 278-279쪽).

충 연풍 현감(延豐縣監) 한진태(韓鎭泰)가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의하면, 문경 공형이 사통으로 일본 중장(中將)일행 30여 명이 방금 도착했고 고군(雇軍) 355명을 모집하여 내일 아침 색리(色吏)를 정하여 안보병참부에서 기다리라고 연풍현에 알려왔다(『錦藩集略』 『叢書』 4, 37쪽).

정 호남 선무사 엄세영이 이미 농상아문 대신에 채수되었으므로 속히 조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호서 선무사 정경원을 삼남선무사(三南宣撫使)로 겸차(兼差)하여 임명하였다(『日省錄』).

정 염찰사 엄세영의 보고에 의해 고부의 진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유망으로 인한 미수세곡을 허감한 1,580석은 특별히 상정가로 대신 바치게 하되, 신임 전운사와 이전 전운사로 하여금 장부를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또한 호남지방의 폐정으로 각각 양여미(量餘米), 신설된 명목, 조복미(漕復米)를 이획(移劃)하는 것, 운선(輪船) 비용을 획하(劃下)하는 것, 흘림선[流音船]의 폐단, 종인(從人)과 역졸(驛卒)이 토색질하는 것, 세곡 총량을 늘리는 것 등을 시정하도록 하였다(『日省錄』).

정 일본 정부는 장차 조선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조선을 명의상 독립군으로 공인하지만 일본이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日本外交文書』 27-1, No. 438, 「朝鮮問題ニ關スル將來ノ日本ノ政策ニ關スル閣議案 上申ノ件」, 646-649쪽).

## ■ 7월 18일 (양. 8월 18일)

전 전봉준이 나주에서 도인을 많이 죽였다는 이유로 김학진에게 파직을 요구한 나주 목사 민종렬과 나주 영장 이원우가 파직되었다(『梧下記聞』 『叢書』 1, 195쪽).

충 연풍 현감 한진태가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 의하면, 일본 중장일행 30여 명이 18

일 지나가면서 고군 355명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주지 않았고, 조령에서 충주에 이르는 50리 근처의 5개 동네는 백성이 모두 도피해서 마을이 비었다. 일본군은 매일 3-40명 혹은 4-50명씩 왕래가 잦고, 전신선 가설 후 안보동(安保洞)에 분국(分局)을 설치해서 몇 백 명씩 언제나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37-38쪽).

충주 목사 민영기(閔泳綺)는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서, 이달 18일 일본 육군 이등군리(二等軍吏) 하마나(濱名寬祐)와 장위영 초관 1명, 포도청 포교 1명이 부산항에 상륙하는 만여 명의 일본군을 영접하기 위해 충주에 와서 머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38-39쪽).

정 박제순(朴齊純)이 전라 감사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22일 전라 감사로 임명받은 후 부임하지 못하다가 상소를 올린 것이었는데, 7월 18일에 다시 충청 감사 겸 충청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하였다(『日省錄』; 『承政院日記』).

정 군국기무처 회의원과 각아문 대신이 각기 달라 정책의 혼선과 불일치를 가져오고 있었으므로 대신과 장신(將臣) 모두를 군국기무처에 포함시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軍國機務處議案』).

정 백성들이 전라 감사 김학진의 유임을 원하므로 그대로 감사의 직을 유임시켰다(『日省錄』).

#### ■ 7월 19일 (양. 8월 19일)

정 갑오정권은 관초(關草)를 통해 군국기무처 의안을 각 지방에 유포시키고 있었는데, 경상도에서는 7월 19일 이후 지방에 유포되었다(『關草存案』 8.20).

#### ■ 7월 20일 (양. 8월 20일)

전 광양의 동학농민군이 3백여 명의 민인들을 잡아다 치죄한 뒤 산거(散居)하였다(『邑報抄概冊』).

충주 목사 민영기는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서, 19일과 20일 일본군이 200명씩 혹은 300명씩 영남에서부터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올라와 1,100명 가량이 지나가거나 혹은 유숙하면서 서울로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39쪽).

- 정 고종은 새로 정부의 대신으로 임명된 총리대신 이하 신임 칙임·주임관을 모아놓고 정치 경장에 대하여 말하고 10부 아문에 윤음을 내렸다(『日省錄』).
- 정 갑오개혁정부는 일본의 이권 개입을 보장하는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을 체결시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日本外交文書』 27-1, No. 442, 「朝鮮政府ト假條約締結ノ件」, 652-656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24-26쪽).

#### ■ 7월 22일 (양. 8월 22일)

- 충 충주 목사 민영기는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서, 21일과 22일 잇달아 일본군이 통과한 수가 1천 1-2백 명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그간 인부 수천 명을 청하는 대로 모집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41쪽).

#### ■ 7월 23일 (양. 8월 23일)

- 전 동학 수천 명이 전라 우수영[해남]을 공격하여 군기고를 타파하고 무기를 일일이 수거해갔을 뿐만 아니라, 공전과 장교들이 차고 있던 칼과 민가의 재물도 모두 빼앗아 갔다(『高宗實錄』 ; 「邑報抄概冊」).
- 정 갑오정권은 관초(關草)를 통해 군국기무처 의안을 각 지방에 유포시키고 있었는데, 경상도 동래지방에도 유포되었다(『目錄(四)』 ; 『關草存案』 8.20).

#### ■ 7월 24일 (양. 8월 24일)

- 충 충주목사 민영기는 충청 감사에게 올린 첩정에서, 24일에 일본군 1천여 명과 기마(騎馬) 70여 필이, 25일에 일본군 1천여 명과 기마 1백여 필이, 26일에 일본군 1백여 명이 계속해서 지나갔고, 관문 앞 20리쯤의 하담(荷潭) 나루에 군량과 병기 등을 적치한 것이 길다랗고, 흑 머물러 있고, 흑 배를 탔으며, 흑 육지로 서울로 직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42쪽).
- 경 예천의 이민(吏民)들이 관아의 객관에 모여서 동학농민군들을 막아낼 방안을 상의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10쪽).

### 7월 26일 (양. 8월 26일)

전 광양과 흥양의 동학농민군 2천 명이 하동에 래회(來會)한다는 기별이 있었으며, 광양의 동학농민군 400여 명이 하동에 들어왔다가 돌아갔다(「邑報抄概冊」).

전 남원지역 동학농민군이 운봉을 공략한다는 소문이 돌자, 운봉에서 박봉양 주도로 민보군을 결성하였다(「朴鳳陽經歷書」 『叢書』 7, 539쪽).

경 국왕이 경상도의 선비와 백성들은 소요를 멈추라는 교서를 내렸다. 경상도 백성은 선현(先賢)의 후손이거나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의리를 분별하고 시국을 살피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근래 한 사람이 앞장서자 많은 사람이 호응하여 도처에서 무리를 모아 소요를 일으키고도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각기 생업에 안주해서 밤낮 불안한 나의 근심을 풀어 달라는 뜻이었다(『承政院日記』).

경 예천에서 집강 총독(總督) 등 70여 명의 집사를 차출하여 집강소를 설치하고 약조(約條)를 정하였다. 집강은 장문건(張文健)·황송해(黃松海), 총독은 황돈일(黃敦一)·김시규(金時圭) 등 향리 출신이 맡고, 읍내외에서 1천5백여 명의 민보군을 모집해서 관아의 무기로 무장을 시켰다(「甲午斥邪錄」 『叢書』 11, 10-24쪽).

정 삼남선무사 정경원을 양호선무사로 하고, 영남선무사는 이중하를 차하하였다.(『承政院日記』 ; 『日省錄』)

정 일본의 강요하에 조선 정부는 조일양국맹약(朝日兩國盟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대청전쟁을 수행하는 데 조선과 일본 양국이 ‘공수상조(攻守相助)’한다는 내용의 군사동맹이었다. 양국맹약에는 전쟁과정에서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한 제반 협조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었다(박종근, 앞의 책, 1989, 96-99쪽).

### 7월 27일 (양. 8월 27일)

전 동학농민군 800여 명이 깃발을 들고 방포하면서 광양으로부터 순천으로 향하였다. 동학농민군 600여 명이 부정한 것을 자행한 섬진병리(蟾津兵吏)를 곤치(棍治)한 다음 하동으로 향하였다(「邑報抄概冊」).

### 7월 28일 (양. 8월 28일)

전 하동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185쪽).

### 7월 30일 (양. 8월 30일)

일 부산수비대[보병 제10연대 제4중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5사단 병참감독부』 1894.8.30).

### 7월

전 7월 3일 임명된 전라좌수사 김철규(金澈圭)가 부임차 남하하다 동학농민군에 잡히자 사람을 전봉준에게 보내 그 표신(標信)을 얻고 성찰(省察) 4명의 호위를 받아 좌수영으로 부임하였으나 부임 후 군교 등과 은밀히 동학농민군 수어지책을 모의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84-185쪽).

전 하동의 민병이 광양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있던 광양의 동학농민군과 하동의 시승(市僧)들을 강너머로 축출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85쪽).

전 장수·진안·무주·용담·금산 5개 읍은 민포(民砲)를 일으켜 거적(拒賊)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87쪽).

전 7월 말경 전봉준 등이 김학진에게 폐정개혁요구안을 담은 등장(等狀)을 올렸다.\* 김학진은 전주 사민(士民)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올린 등장의 제조(諸條) 가운데 국계(國計)와 관계되는 7개항에 대해서는 조정의 처분을 바라며 장계(狀啓)를 올렸다(『日省錄』; 「啓草存案」 『叢書』 17, 6쪽; 『各司謄錄』 63, 국사편찬위원회, 1992, 214쪽).\*

\* 이 등장을 올린 주체는 전주의 사민(士民)으로 되어 있다. 전봉준 스스로도 동학농민군을 사민이라 지칭한 바 있으며(「全琿準供草」 『叢書』 18, 20쪽), 등장의 내용이 전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동학농민군 측에서 제기하고 있던 폐정들이라는 점, 그리고 ‘관민상화’가 이루어져 전봉준과 김학진이 함께 무국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전봉준 측에서 올린 등장으로 보인다.

전 강진의 군교와 민정, 영리(營吏)들이 외형상 입도(入道)하여 다른 지역 도인들이 들어와 작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86쪽).

전 김개남이 장수(長水)로 들어가려다 민포군의 저항에 부딪히자 정기(精騎) 100명을 이

끝고 임실(任實) 상여암(上興菴)으로 갔다(「梧下記聞」 『叢書』 1, 191쪽).

전 7월 이후 만경(萬頃)의 관노와 동학농민군들이 양반과 이교들을 징치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318쪽).

전 진도(珍島) 조도면(鳥島面)에 사는 박중진(朴仲辰)이 영광, 무장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배를 타고 진도로 들어와서 군기를 약탈하고 마을 다니며 방화하고 약탈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209-212쪽).

## 1894년(甲午年) 8월

### 8월 초

전 8월 초에 남원 동학농민군이 운봉을 거쳐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로 가서 부민 정씨로부터 많은 식량을 빼앗았고, 안의현으로 가서 현감 조원식(趙元植)에게 협력을 구했다. 조원식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으나, 날이 저물자 숨겨두었던 장정들을 동원하여 불시에 동학농민군을 습격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 “3백여 명”이 죽었다고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156쪽).

충 충청 감사 이헌영이 영동 집강 손인택(孫仁澤) 등에게 보낸 공한에서, 취당하여 소동을 벌이는 것은 집강을 정하여 금지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영동현에서 보낸 보고에 따르면 천여 명의 도당이 인가에 들어가 사람을 치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무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 이를 엄히 금지시키고 단호하게 명령을 전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57-58쪽).

### 8월 1일 (양. 8월 31일)

충 충청 감사 이헌영이 장계에서, 동학농민군 만여 명이 8월 1일 공주 정안면에 다시 모여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방관과 편비(褊裨)를 보내서 취회 이유를 묻자 우리들은 이미 창의를 하였으나 이번의 모임은 충청 감사와 관관의 원류(願留, 유임 청원)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43쪽 ; 「啓草存案」 『叢書』 17, 11쪽).

충 공주 건평(乾坪) 유생 이유상(李裕尙)이 민준호(閔俊鎬)가 중심이 된 유회(儒會)에서 토왜보국(討倭報國)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유회군 100여 명을 지휘해서 떠났다(「南遊隨錄」 『叢書』 3, 226쪽).

정 금릉위 박영호가 사면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日省錄』).

일 부산수비대[보병 제10연대 제4중대] 가운데 1, 2, 3중대는 부산-송파진 간의 병참부수비병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다.

### ■ 8월 2일 (양. 9월 1일)

- 충청 감사 이현영이 장계에서, 동학농민군이 기치를 들거나 창과 칼을 지니고 공주 부내에 들어와 길에 가득히 차서 마을에 소요를 일으키므로 그 무리의 두령인 임기준(任基準)을 불러서 책망하니 원류는 비단 저희뿐 아니라 유장(儒狀)과 민소(民訴)를 합사(合辭)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43-44쪽).
- 경 예천에서 동학농민군이 읍내로 들어가는 사방 통로를 막아서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여 장이 서지 못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25쪽).
- 전라 감사 김학진은 ‘전주사민연장제조(全州士民聯狀諸條)’라는 명의로 장계를 올렸다. 여기에서는 미납세미의 상정대전납 조정, 보세 및 잡세의 혁파, 진결의 결세, 전운사의 잡비, 양여미 등 7가지 폐정 개혁을 요청하였다(『日省錄』).
- 일 참모총장이 대본영의 히로시마(廣島) 이주(移駐)를 주청(奏請)하였다(『日清戰爭主要年表』).

### ■ 8월 3일 (양. 9월 2일)

- 충청 감사 이현영이 장계에서, 공주 부내에 들어온 동학농민군들이 조금씩 사방으로 흩어져서 공주 부내의 10여 리 혹은 2-30리에서 각기 둔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44쪽).
- 김산의 동학 세력이 더욱 커져서 물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 두목은 죽전(竹田)의 남정훈(南廷薰), 진목의 편보연(片輔彦)·편백현(片白現)이고, 죽정(竹汀)의 강주연(姜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강평(江坪)의 도사 강영(姜泳), 봉계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의 선달 장기원(張箕遠), 신하의 배군헌(裴君憲), 장암의 권학서(權學書)는 집주들이었다(『世藏年錄』 『叢書』 2, 256쪽).

### ■ 8월 4일 (양. 9월 3일)

- 정 유생들은 갑신정변의 여당(餘黨)을 ‘군부(君父)를 욕보이고 일본과 화친을 주장하며 매국(賣國)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박영효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日省錄』; 『羅岩隨錄』 『叢書』 2, 395~396쪽).
- 갑오정권은 삼남지방 각처에 ‘유민(莠民)’이 거칠어지고 소란이 날로 심해졌으므로 그 지역에서 삼남 도선무사를 특과하여 우선 이들을 효유 귀화시키되, 불가능한 경

우에는 후속적으로 파견되는 군대로써 진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議定存案』 갑오 8.4 議案).

정 군국기무처는 “급히 결가를 책정 행회하여 민의(民疑)를 풀도록 할 것”이라는 의안을 제출하여, 결가책정 방안을 포함하는 지세제도의 개혁방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하였다(『日省錄』; 『議定存案』 개국 503.8.26; 『公文編案』 4, 「경상, 충청, 전라, 황해, 강원 關文」).

### ■ 8월 5일 (양. 9월 4일)

일 서울-부산 간의 병참수비대 보충병으로 하사 3명, 병졸 49명을 파견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5사단 중로 병참감본부』 1894. 8. 30).

### ■ 8월 6일 (양. 9월 5일)

충 선무사 정경원이 홍주(洪州)에 와서 경내의 동학접주들을 불러모아 훈음을 읽고 효유하였다. 이때 가장 유명했던 동학 접주들은 홍주의 김영필(金永弼)·정대철(丁大哲)·이한규(李漢奎)·정원갑(鄭元甲)·나성뢰(羅成蕾), 덕산의 이춘실(李春實), 예산(禮山)의 박덕칠(朴德七)·박도일(朴道一), 대흥(大興)의 유치교(兪致教), 보령의 이원백(李源百), 남포의 추용성(秋鏞成), 정산의 김기창(金基昌), 면천의 이창구(李昌求) 등이었다(『洪陽紀事』 『叢書』 9, 107쪽).

경 김산의 동학 두령 편보언이 도집강(都執綱)을 칭하고 김천시(金泉市)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입도자는 성명을 기록하고, 접주·접사(接司)·대정·중정 등 유사를 나누어 정했으며, 최법헌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주었다(『世藏年錄』 『叢書』 2, 258쪽).

### ■ 8월 8일 (양. 9월 7일)

경 예천에서 적성접주 권경함(權景咸)이 금당실에 접을 설치하면서 통문을 집강소에 보내 읍내의 참봉 박기양(朴琦陽)과 전 영장 이유태, 그리고 선달 이삼문(李三文)·윤계선(尹啓善) 4인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26-27쪽).

정 경상감영은 7월 25일에 중앙에서 만든 선무 27개조를 경상도 각 지방에 유포시키고 있었다(『目錄(四)』 7.25).

### ■ 8월 9일 (양. 9월 8일)

경 예천집강소에서 동학의 금당실 접에서 요구한 박기양 등 4인의 거취를 논의하고 죽음으로 맹세하여 동학농민군에게 보낼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박기양은 집강소 설치 후에 살 길이 생겼다고 며 40석과 돈 1천 냥을 군자금으로 내고 올해의 추수도 집강소에 일임하겠다고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27쪽).

경 예천집강소에서 보낸 회답의 요점은, 박기양 등 4명은 읍내사람으로 모두 저축이 있어 부유한데 내외 수만 생령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관아에서 관할하는 백성을 감히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28쪽).

### ■ 8월 10일 (양. 9월 9일)

경 예천에서 동학농민군 수십 인이 병기를 가지고 북부에서 노략질하며 사람을 때려 사경에 이르게 한다는 급보를 받고 민보군을 보내서 11명을 붙잡고 조총·환도·철퇴를 거두어 왔다. 민보군 수백 명이 지켜보는 속에 심문하는데 “우리는 모두 동학인인데 우리를 죽인 후에 너희들이 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항거해서 화적죄로 모두 한천가로 끌고 가 생매장을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29-30쪽).

경 갑오정권은 노비들의 신분해방투쟁을 우려하는 관문(關文)을 내어 지나친 투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였다(『關草存案』 갑오 8.10 關文; 『各司謄錄』 63, 218~219쪽).

### ■ 8월 11일 (양. 9월 10일)

전 전봉준이 전주에서 일본인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봉준은 “우리들의 거사는 생각지도 않게 오늘 청일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실마리가 되기에 이르렀는바 우리는 이를 천추의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日清交戰錄』 12, 明治 27年 10月 16日, 43쪽).

경 소야 수집주 최맹순이 유천 접주 조성길(趙成吉)의 죄안을 기록해서 관아로 보내고 임의 조치하도록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31쪽).

### ■ 8월 12일 (양. 9월 11일)

충 천안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일본인 6명을 주살(誅殺)하였다. 동학농민군 수십 명이 포함된 천안 사람들이 수리하고 있는 다리를 일본인들이 건너려고 하였는데 이를 막자 충돌이 벌어져서 일본인 6명이 모두 살해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0~122쪽).

### ■ 8월 13일 (양. 9월 12일)

전 전봉준은 감사 김학진의 서찰을 들고 나주를 찾아가 목사 민종렬에게 수성군의 해산을 권고하였다. 이때 전봉준은 부하 10여 명을 거느리고 맨손으로 나주 목사를 방문하였다(『錦城正義錄』 『叢書』 7, 49-52쪽 ; 『全琫準供草』 『叢書』 18, 68쪽 ; 『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483-484쪽).

### ■ 8월 17일 (양. 9월 16일)

정 경상북도 병마절도사 민준호(閔俊鎬)가 총어영 병방으로 내천(內遷)되었으나 아직 임소에 있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오래 비워 둘 수 없다고 하여 개차하였다(『承政院日記』).

일 일본은 평양성 전투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승리하였다(『續陰晴史』 上, 337쪽).

### ■ 8월 18일 (양. 9월 17일)

평 평안도 삼등현에서 일본군 제2연대 매점의 토모다 나오조오(反田直藏) 등 4명이 상해되었다(박종근, 앞의 책, 1989, 234쪽).

### ■ 8월 19일 (양. 9월 18일)

전 김개남이 남원에서 대규모 대회를 열고 기포를 결의하였으며, 8월 19일 경부터 동학농민군이 남원으로 모여들었다(『梧下記聞』 『叢書』 1, 209-210쪽, 217-218쪽 ; 『嶺上日記』 『叢書』 2, 286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71-72쪽).

- 전 남원부 부동(釜洞, 上東面 釜節里)의 동학농민군 강감역(姜監役)과 유학규(劉學圭)가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을 거느리고 본부(本府)에 있던 활과 포와 화약을 부동으로 실어갔다(『嶺上日記』 『叢書』 2, 286쪽).
- 충 충청 감사 이현영은 동학농민군 몇 천 명이 금강 근처에 둔취하면서 공주 주내로 들어간다고 하자 감영의 군졸들과 부내의 동민을 동원하여 야간 내내 방수(防守)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12쪽).
- 일 일본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 외상은 오오토리 공사에게 훈령하여, “평양전투의 청군 패주로 이 기회에 적절한 간섭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먼저 조선정부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장에 주의할 것과, 다음으로 제3국에 대한 조선의 외교 내치상의 중대한 사건은 공사의 동의 후 시행케 할 것”을 지시하였다(『日韓外交資料集成』 4, 140~141쪽).

#### 8월 20일 (양. 9월 19일)

- 전 유복만이 교룡산성을 점령하고 병기고를 열어 무기는 남원부로 보내고, 화약은 길에다 뿌렸는데 두께가 한 마디정도 되었으며, 화살은 태워서 신철(薪鐵) 대신 사용하였고, 질려(蒺藜) 수십 가마니를 여기저기에 뿌렸다(『梧下記聞』 『叢書』 1, 210쪽).
- 전 홍양·보성·태인·남원 산동방 부동(山東坊 釜洞) 등지의 동학농민군 연합부대 천여 명이 남원읍 동헌에 도회소를 설치하고 군기와 산성 무기고를 파괴한 뒤 무기를 모두 탈거하였으며, 각 면의 부자들로부터 전곡을 빼앗았다(『古文書』 2, 412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71쪽).

\* 「영상일기(嶺上日記)」에는 8월 19일로 되어 있다(『叢書』 2, 286쪽).

- 경 동학세력이 날로 커지다. 예천·안동·의성에서 동학을 배척하자 충청·강원·경상도의 각 접이 상주 이정(梨亭)과 소야 등지에 도회(都會)를 하였다. 송사가 있어도 관아를 찾지 않고 모두 소야에 갔으며, 동학농민군 검찰관 장극원(張克元)이 감사와 같은 행리와 수행원을 데리고 각 군현을 순행하는데 가는 곳마다 소송자가 저자와 같이 모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49-50쪽).
- 강 동학농민군들이 대화면에 들어가 김장수(金長水)의 가사(家舍)를 훼손하고 그 집안의 즈물(汁物)을 탈취하였다. 이들이 대관령을 넘어 강릉부(江陵府)로 진격한다고 큰 소리쳤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45쪽).

정 경상감영은 8월 10일 이후 결의한 의안을 경상도 각 지방에 고시하도록 하였다(『目錄(四)』; 『關草存案』 8.20).

### ■ 8월 21일 (양. 9월 20일)

경 관동대접주와 상북(商北)·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 13접주가 회합하고 예천집강소에 생매장한 사건의 책임자를 압송하라는 통문을 보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53쪽).

### ■ 8월 22일 (양. 9월 21일)

일 대구병참수비병 18명이 경상도 기저에서 동학농민군 3명과 관리 1명을 사로잡았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894.10.2).

### ■ 8월 23일 (양. 9월 22일)

일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 무로다(室田義文)가 오오토리 공사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충청도 하담(河潭) 가흥(可興) 근방의 동학농민군이 일본 군대의 짐을 운반해주지 못하게 함으로 병참부에서 매일 필요한 100명의 인부 중 4, 5명만 응하는 형편을 말하고 충청 감사와 지방관들에게 사람들을 설유(說諭)하거나 징계하도록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2-123쪽).

일 도로수선대의 공병대가 동학농민군 탄압을 목적으로 안동에 파견되었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중로 병참감독부』 1894.9.23).

일 부산수비대의 후지타(藤田)부대, 1소대 소속 77명이 정찰목적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다.

### ■ 8월 24일 (양. 9월 23일)

충 충청 감사 이현영이 동학농민군에게 군기를 빼앗긴 일로서 노성 현감 김정규(金靖圭)를 파직하였다(『錦藩集略』 『叢書』 4, 13쪽).

- 정 갑오정권은 종전의 동학농민군 대책, 즉 한편으로 선유하고 한편으로 탄압한다는 양면책을 써왔는데, 이제부터 의정부, 탁지아문, 각영에 토벌을 준비하고 군무아문으로 하여금 토벌작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다(『議定存案』; 『日省錄』).
- 정 대원군은 8월 24일 이후 전라·경상·충청 등 삼남지방에 효유문을 보내면서 “조정에서 이미 삼도에 선유사를 파견하여 덕의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이 끝내 이를 듣지 않고 조정에 거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난민의 죄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요즈음 정부의 개혁정치에 대해, “종전 그릇된 폐단으로 백성들의 병폐가 된 것을 하나하나씩 바로잡고 인의를 화목하게 닦아 화평한 복을 돈독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우리 성상(聖上)의 백성을 위하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을 설득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47-51쪽).
- 정 대원군은 각지에 소모사, 선무사라는 이름으로 동학농민군 진무를 가장하여 충청도의 양반토호와 전라도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밀서(密書)를 보내 봉기하도록 촉구하였다(『東學文書』 『叢書』 5, 99쪽).
- 일 일본측은 1894년 8월 말경부터 당시 대원군의 의도를 “평양에서의 일청 양군은 반드시 일본군의 패배로 돌아가고 청군은 곧바로 경성에 돌입하는 경우에 청국과 기맥을 통하고, 또 일면에는 양(陽)으로 동학농민군 진무의 효유를 발하고 음(陰)으로 밀사를 보내 동학농민군을 초집(招集)하여 청군 내착시(來着時) 내외 항일세력을 규합하여 일본병을 격퇴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15-19쪽).
- 일 후지타(藤田)부대가 안동에서 보은으로 진군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중로 병참감독부』 1894.9.23).
- 일 수안보 지역의 충주수비병 8명이 충청도 덕산에서 동학농민군 4명을 사로잡아 대구 병참부 헌병대에 인도하였다.
- 일 충주수비병 14명이 충청도 보은에서 약 1,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 ■ 8월 25일 (양. 9월 24일)

- 전 김개남이 임실에서 남원으로 들어왔다. 부사 윤병관은 이미 도망간 지 한달 정도가 되었다. 오는 도중 오수에 이르렀을 때 동학농민군 가운데 한 명이 찰방의 사무실에 들어가 은가락지를 빼앗았다. 김개남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은가락지를

빼앗은 동학농민군의 목을 베어 막대기에 매달아 형렬 앞에 세워 동학농민군을 경계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10쪽).

전 김개남이 남원에 들어올 때 “징과 북의 장단에 맞춘 동학농민군의 행렬은 남원까지 80리를 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도적이 이처럼 치열했던 바는 아직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10쪽). 선두 행렬이 남원에 이르자 “군복을 갖춘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김개남을 맞아 들었다” 부민이나 유생들은 모두 도망가고 남원읍내는 동학농민군으로 가득 찼으며 부중과 교통산성 두 곳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김개남은 남원관아를 비로소 차지하고 전라좌도 도회소(都會所)라는 정청(政廳)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군제를 오영(五營)으로 편제하여 전 영장(前營將)은 담양 접주 남응삼, 후영장은 남원 오수접주 김흥기, 우영장은 김대원, 좌영장은 김용관, 중영도통장(中營都統將)은 김개남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주(謀主)는 남원 김우척이 맡았다. 각영의 병력 수는 5-6천 명씩이라 하며 각영에는 일원장(一元將)과 이원장(二元將)을 두었고 그 밑에 군수군(軍守軍)과 영군(營軍)이 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영에는 성찰, 통찰을 수십 명씩 두었다. 한편 각 군·현의 집강소 활동도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서기와 성찰, 집사, 동몽을 두어 업무를 보게 하니 마치 관청을 방불케 하였다(「嶺上日記」 『叢書』 2, 287쪽 ; 「甲午略歷」 『叢書』 5, 418쪽 ; 「南原郡東學史」).

전 김개남은 전라 좌도의 동학농민군들 약 7만 명을 남원에 소집하여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장차 남원을 거점으로 전면적으로 봉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이 대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전봉준은 먼저 남원에 달려가서 “지금 시세(時勢)를 보건대 일본과 청이 전쟁중인데 어느 쪽이 이기든지 반드시 군사를 우리들에게 돌릴 것이다. 우리들은 비록 무리는 많지만 오합지졸이어서 쉽게 무너진다. 이 무리로서는 끝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귀화(歸化)에 탁(托)하여 각 고을에 동학농민군 역량을 보존하면서 시세의 변이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김개남으로 하여금 전면봉기의 계획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손화중도 잇따라 달려와서 “우리들이 봉기한지 반년이 되었다. 전라도가 모두 호응하고 있지만 성망 있는 사족(士族)이 지지하지 않고, 부민이 지지하지 않으며, 지식인이 지지하지 않는다. 더불어 접장(接長)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고 천해서 화(禍)를 즐기며 표절(剽竊)을 일삼는 자들뿐이다. 인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 반드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방에 우리 역량을 보존하여 구전(苟全)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개남은 “이 큰 무리가 한번 흩어지면 다시 합하기가 어렵다”면서, 전봉준과 손화중의 제의를 거부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10-211쪽).

- ┌ **충** 충청 감사 이현영이 동헌에서 신임감사 박제순과 인수인계를 하고 밀부(密符)를 전한 뒤 공주감영을 떠나 서울로 갔다(『錦藩集略』 『叢書』 4, 13쪽).
- ┌ **경**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오전 10시경 병기를 가지고 용궁현 읍내에 들어와서 창고문을 부수고 군기를 탈취해 갔다(『甲午斥邪錄』 『叢書』 11, 65쪽).
- ┌ **경** 예천군수 조원하(趙爰夏)가 안동진관에 구원을 요청하고, 예천집강소는 안동도총소에 원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급히 보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65-66쪽).
- ┌ **일** 일본군 태봉병참부의 부관인 대위 다케우찌(竹内)가 병정 2명과 함께 태봉 인근인 산양의 동학농민군 집결지를 정찰하다가 발각되어 살해되고 병사 한 사람도 손가락을 잘리고 총을 빼앗긴 채 귀대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16-117쪽).

#### ■ 8월 26일 (양. 9월 25일)

- ┌ **정** 갑오정권은 지세수취 담당자로서 향원(鄉員)의 신설을 결정하였다(『議定存案』; 『公文編案』 4, 「경상, 충청, 전라, 황해, 강원 關文」).
- ┌ **정** 군국기무처는 종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역토 둔토, 사궁장토를 신식에 준하여 지세를 출세시키겠다고 결정했다. ‘갑오면세지승총’이라 불리우는 정책이었다(『日省錄』; 『議定存案』).
- ┌ **정** 군국기무처에서는 “국내의 토지 산림 광산은 본국에 입적한 인민이 아니면, 점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라는 의안을 결의하여 외국인 토지소유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議定存案』).
-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34명]가 부산에서 대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59쪽).
- ┌ **일** 후지타(藤田)부대[부산수비대, 50명]가 용궁·문경 간에서 동학농민군 600여 명과 싸워 2명을 죽이고 가옥 11호를 태우다(방위연구소, 『해군성 4』 1894. 9. 30).
- ┌ **일** 부산병참감에서 부산수비대[보병 제10연대 제4중대]에게 부산-경성 간의 병참선 연변의 경계방어·동학농민군 탄압·군용전선보호를 목적으로 한 파견을 명령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59쪽).

### ■ 8월 27일 (양. 9월 26일)

전 전라각처의 동학농민군은 남원 땅에서 대공론(大公論)을 열 터이니 집합하라는 취지의 격문(檄文)을 사방으로 보내어 이미 집합한 자가 수만 명이다. 각자 병기를 들고 곳곳에 횡행하면서 당외자(黨外者)의 재산을 강탈함에 따라 행로(行路)가 위험하여 여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60쪽).

충 일본영사관 근처에 “이달 12일(양력 9월 11일) 천안에서 일본인 6명을 주살했다”는 동학농민군의 방문(榜文)이 붙어 오오토리 공사가 외무아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8월 23일 순사 3명을 파견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8-122쪽).

충 일본 순사 3인이 천안에 가서 일본인 살해지역을 조사하고 천안 일대의 동학농민군에 관해 정탐한 내용을 상신서에서 기록하였다. 두령 김형식(金滢植), 김구섭(金九燮)이 직산·평택(平澤)·목천·천안 지역을 통할하며, 김용희, 김구섭은 목천, 안치서(安致西)는 온양(溫陽), 홍승업(洪承業)은 천안에 살고 있고, 천안 군민 10 중 8, 9명이 동학농민군에 가맹하고 있고 더욱더 성대해가고 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2쪽).

경 동학 두령인 안동의 김병두(金炳斗)와 하동의 최달곤(崔達坤)이 동래에 가서 부사와 만나서 접대를 받고 말 두 마리와 동전 2관(貫)을 받아왔다. 부산의 일본 총영사가 동래 부사의 동학농민군 비호문제를 알고 오오토리 공사에게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5-126쪽).

일 일본은 ‘삼남의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치열하다는 설’, 또는 ‘동비(東匪)들이 성내로 잠입했다는 설’을 유포시켰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16-132쪽).

### ■ 8월 28일 (양. 9월 27일)

경 예천 화지도회의 동학농민군들이 읍내 집강소에 통문을 보내서,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해치려는 것은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정(常情)이 아니라면서 동학농민군의 본의는 척왜(斥倭)에 있으니 오늘 읍내 도회(都會)는 죄인 2인만 붙잡아 처리하면 함께 척왜를 논의하자고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68-69쪽).

경 예천의 서쪽 화지에서 집결했던 동학농민군들과 북쪽 금당실에서 집결했던 동학농민군들 4-5천 명이 읍내를 공격하였다. 화지동학농민군들은 12시경 유정(柳汀)에서 한천 제방 쪽으로 공격했고 민보군 1천5백 명은 현산과 제방에서 방어를 했는데 화지

동학농민군들이 안동구원병이 온다는 거짓정보에 무너져 패배하였다. 이후 금당실 동학농민군들이 광천 사장(沙場)으로 읍내에 들어오려다가 매복한 민보군에게 기습을 받고 패산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70-74쪽).

경 부산의 일본총영사가 안동에서 나온 유학 서상철(徐相轍)의 격문을 오오토리 공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격문은 척왜를 목표로 이달 25일 안동 명륜당에 집결하자는 내용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3-125).

경 경상감영의 남영병 일대 120명을 병방 신태휴(申泰休)가 지휘해서 이날 대구를 출발하여 칠곡(29일)·인동(9월 1일)·선산(2일)·상주(3일)·용궁(4일)·예천(5일)을 순회하고 9월 14일 남영으로 귀영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413-423쪽).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 50명]가 용궁에서 2회에 걸쳐 동학농민군과 싸웠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74쪽).

## ■ 8월 29일 (양. 9월 28일)

경 예천 읍내에 오전 10시경 안동 구원병 3천31명이 들어왔다. 일본군 53명과 통역·화병(火兵) 10명이 들어왔다. 오후에 안동후군 500여 명이 다시 들어왔다(「甲午斥邪錄」 『叢書』 11, 74-76쪽)

일 부산의 중로병참감 대좌 요시가와(吉川)가 일본군 공병 제1대대장 히구찌(樋口)에게 태봉병참부가 동학농민군 2-3천 명이 습격하려고 한다면서 급히 후원(後援)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충주에 있던 공병소위 고토(後等馬次郎)가 문경에 있던 공병오장 고스기(小衫斧助)에게 지원을 명령하였다. 고토 소위가 공병 25명과 일본인부 12명을 인솔하고 용궁에서 문경으로 가는 도중 8월 29일 오전 9시경 석문(石門)에서 약 600명의 동학농민군과 전투가 벌어졌으나 동학농민군 대장이 쓰러지자 모두 퇴각하였다. 병영으로 쓰던 11개 가옥에 보관된 화승총 103정, 도검 3자루, 창 3자루, 말 2마리, 동전 9관(貫)을 가져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聞慶近傍 東學黨과의 戰鬥報告」 126~128쪽; 「甲午斥邪錄」 『叢書』 11, 78쪽).

일 일본은 안동의 동비들이 일본 병참부를 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갑오정권에 전달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四 東學黨에 關한 件」, 116~132쪽).

일 후지타(藤田)부대[부산수비대, 1소대]가 낙동에 도착하였으나, 곧바로 용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61쪽).

## 8월

- 강 평창군에 사는 오덕보(吳德甫)가 그 해 8월경부터 강릉부 연곡면 신리에서 설첩하고 동학을 포교하기 시작하여 각처에 동학의 접소가 생기고 교도의 수가 늘어났다(「東匪討論」 『叢書』 12, 199-200쪽).
- 강 강원도 원주·영월·평창·정선 등 4읍의 동학농민군이 이해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곳곳에 접을 설치하면서 세력을 결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東匪討論」 『叢書』 12, 123쪽).
- 황 해서(海西) 여러 군에서 동학농민군이 점차 치성해졌다. 그 기세가 서로 상응하였고 산곡(山谷) 중에는 이와 결탁한 자들도 많았으며, 종종 겁략하는 일이 있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1쪽).
- 황·평 황해도 북부와 평안도 일대에 일본군이 전날 아산에서 무고한 조선인 3천명을 학살하였으며, 지금 청국 군대[天兵]가 와서 죽은 3천 명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는 고시문이 나붙었다(「大阪朝日新聞」 『叢書』 23, 86쪽).

## 8월 말

- 전 전봉준은 나주 수성군의 해산을 권고한 뒤 장성에서 손화중을 전주 해산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全琫準供草」 『叢書』 18, 67-68쪽).
- 전 이 무렵 호남의 관리나 양반 가운데 동학농민군을 추종하는 사람으로는 익산 군수 정원성, 구례 현감 조규하, 오수 찰방 양주혁, 화순 진사 조병선, 임실 진사 한홍고, 홍양 진사 신서구, 순천 진사 유재술 등이 있었다(「梧下記聞」 『叢書』 1, 211쪽).

## 1894년(甲午年) 9월

### 9월 1일 (양. 9월 29일)

전 김개남과 기맥이 통하던 금구출신의 대접주 김인배가 홍양, 순천, 곤양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경상도 하동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재기포를 시작하였다. 광양으로 쫓겨갔던 하동지역 동학농민군이 금구의 김인배를 끌어들이어 광양 순천포의 동학농민군과 함께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하였다. 부사는 피신해 버린 상태에서 하동의 민포가 주축이 되어 관아의 뒷산 안봉에서 진을 치고 대비하였는데 섬진강 건너 편의 동학농민군은 두 길로 나누어 한 갈래는 섬진에서 강을 건너 북쪽으로 다른 한 갈래는 광양 남쪽 망덕진에서 배를 타고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부의 남쪽으로 진출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17-21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72쪽).\*

\* 황현은 동학농민군들이 강 건너 하동 쪽의 방비가 엄중함을 보고 겁을 먹고 강을 건너지 못하자 김인배는 부적 한 장을 그려 수탉의 가슴에 붙여 백보 앞에 두고 총을 쏘게 하며 “닭은 반드시 총알을 맞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고, 연달아 세발을 쏘았으나 하나도 맞지 않자 동학농민군들은 부적의 효험을 믿고 부적을 몸에 붙이고 앞다투어 강을 건넜다고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17-218쪽)

충 연풍 현감 서상학(徐相鶴)의 첩보를 받고 외무대신 김윤식이 스기무라(衫村濬) 임시대리공사에게 보낸 조회(照會)에서, 연풍현 고사리면(古沙里面) 온정리(溫井里)에 사는 김명길(金命吉)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중 좁은 산길에서 일본병 한명과 옷을 스치고 지나가자 창을 던지고 총을 쏘아 죽인 것에 항의하였다. 스기무라(衫村濬) 임시대리공사는 9월 24일 남부병참감 이토(伊藤)가 공병대의 행진을 방해해서 격퇴했던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윤식에게 연풍 현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회답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8쪽).

경 예천에 들어온 일본군이 안동방향으로 출발하였다. 상주 이정(梨亭)의 동학농민군을 일본군이 격파했다는 소식을 예천에서 들었다. 소야접주 최맹순과 여당은 모두 도피하고, 군수전과 군수미 그리고 무기를 모두 일본군이 가져갔다고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78쪽).

정 ‘결호전봉납장정(結戶錢奉納章程)’의 시행은 조세징수제도를 기존의 읍단위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으로 분리하였다(『公文編案』 4, 「함경도 高原郡守에게 보낸 훈령」).

-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34명]가 대구에 도착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61쪽).
- ┌ 일 대구수비병 11명이 대구부근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였다.
- ┌ 일 공병대(後藤인솔, 25명+인부 12명)가 문경부근의 석문에서 약 6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2명을 죽였다.

### ■ 9월 2일 (양. 9월 30일)

- ┌ 전 초저녁 어둠을 타서 맨몸에 부적을 붙인 동학농민군이 함성을 지르며 하동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1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72쪽).
- ┌ 전 전봉준이 제2차 기포를 결심하기 직전인 9월 2일 대원군측 밀사인 박동진(朴東鎭)과 정인덕(鄭寅德) 등이 전주로 내려왔다. 이때 전봉준은 태인 집에서 치병(治病) 중이었고 아직 재기포 할 생각이 없었다(『隨錄』 『叢書』 5, 296쪽; 『全琿準供草』 『叢書』 18, 40-41쪽, 56-5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5쪽, 361쪽).
- ┌ 경 진주의 동학농민군이 붙인 방문에서, “국가의 안위는 국민의 생사에 있고 국민의 생사는 국가의 안위에 있다”고 하면서 9월 8일 오전에 각 마을에서 13명씩 평거(平居) 광탄진(廣灘津)에 집결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논의하자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9쪽).
- ┌ 정 대원군의 정권전복 혐의를 포착하려고 했던 경무사 이윤용(李允用)이 대원군에 의해 전격 해임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52-54쪽).

### ■ 9월 3일 (양. 10월 1일)

- ┌ 전 3일 날이 밝자 동학농민군은 하동부 안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마을을 약탈하였다. 제일 먼저 민포군이 일어났던 화개동에서는 민가 500여 채를 불태웠다. 이들은 5-6일간 머물다가 일부는 호남(湖南)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는 김인배를 따라 진주로 갔다(『梧下記聞』 『叢書』 1, 185쪽, 218쪽).
- ┌ 강·충 8월 말경 충청도 제천·청풍 등지의 동학농민군과 영월·평창 등지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대화면을 거쳐 모로치(毛老峙)를 넘어 진부면으로 들어간 다음 각

지로 돌아다니며 포총, 창과 칼, 미투리를 징발하여 무기와 군수를 보충한 뒤 대관령을 넘어 9월 3일 구산역(丘山驛)에서 하룻밤을 지냈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46쪽).

정 궁문장(宮門將) 김기홍(金基泓)이 갑오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제출하여 “금년의 변란은 팔간(八奸)이 박영효와 부동(符同)하여 몰래 왜구(倭寇)를 청하였다”고 하여 갑오정권을 비난하였다(『日本外交文書』 27-1, No. 458의 부속서, 「宮門將金基泓 上疏ノ件」, 676-677쪽; 「羅巖隨錄」 『叢書』 2, 394쪽; 「甲午實記」 『叢書』 6, 310쪽).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 50명]가 예천부근에 체재하며 동학농민군 4명을 사살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301』 4쪽).

#### ■ 9월 4일 (양. 10월 2일)

강 오전 10시경 수백 명이 넘는 동학농민군 부대가 대관령을 넘어 구산역을 거쳐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수십 명은 말이나 가마를 탔으며 나머지는 13자 주문을 외우면서 도보로 행군했다. 이날 밤 동학농민군 후발대 수백 명이 구산역 쪽에서 내려와 합류하였다. 당시 강릉 부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관아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관아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관아와 주막에 나누어 숙식하였고, 이서배들이 각 촌의 부자집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거두어 동학농민군에게 바쳤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47-248쪽).\* 이날 동학농민군을 지휘한 자는 평창의 전죄수 이치택, 지관 권모(權某), 진사 박재희, 영월 나교장(羅敎長), 삼척 황찰방(察訪), 정선 여량역의 지왈길, 강릉 대화면의 김상오·공계정·김순길·손영팔 등이었다(「東匪討論」 『叢書』 12, 138쪽).\*

\* 「동비토론(東匪討論)」에서는 영월·평창·정선 3개읍의 동학교도 수천 명이 강릉부에 쳐들어왔다고 하였다(『叢書』 12, 123쪽, 138쪽).

강 이때부터 “무항산발피지류(無恒産潑皮之類)와 몰지각(沒知覺)한 무리, 양반에게 굴욕을 당하던 무리”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47쪽).

정 궁문장 김기홍의 탄핵상소 이후 해당 정부 대신들은 관례상 사임하는 절차를 밟아 사직소를 올렸다(『日省錄』; 『續陰晴史』 上, 338-339쪽).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34명]가 낙동에 도착하였다.

### ■ 9월 5일 (양. 10월 3일)

강 강릉부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이 관아 동문에 “삼정의 폐막을 고치고 보국안민 한다”는 방문을 내걸고, 일향의 두민들을 불러 모아 임의로 삼정을 삭감하고 요호를 잡아들여 토지와 재산, 전답문서를 빼앗고 이서배들을 징치하는 한편 민간의 송사를 처결하였다(「東匪討論」『叢書』12, 124쪽, 138쪽 ; 「臨瀛討匪小錄」『叢書』12, 249쪽).

### ■ 9월 6일 (양. 10월 4일)

전 전주로 내려온 대원군측 밀사 박동진과 정인덕을 만난 전봉준의 처족 7촌이자 전라좌우도(全羅左右道) 도집강이던 송희옥(宋熹玉)이 9월 6일 전봉준에게 대원군의 밀사가 와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북상하라고 하였다는 편지를 보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5쪽, 361쪽).\*

\* 이 편지는 전봉준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다(「東京朝日新聞」『叢書』22, 373쪽 ; 「大阪朝日新聞」『叢書』23, 174쪽 ; 배항섭, 「반일투쟁의 전개」『한국사』39, 국사편찬위원회, 1999).

경 고성 부사 오횡묵(吳宏默)이 부사직에서 교체되어 서울로 가는 길에 대구감영에서 감사 조병호를 만나 시국에 간해 논하였다. 조병호는 도내에서 민요(民擾)가 일어난 곳이 60여 군현이며, 동학농민군가 사방에서 일어나 없는 곳이 없는데 그 중 용궁·예천·상주·선산·김산·성주가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固城府叢瑣錄」『叢書』4, 236쪽)

경 성주 목사 오석영이 며칠 전에 감영에 들어와서 만나기를 청하는데 성주를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하여 면담을 불허했다고 하였다(「固城府叢瑣錄」『叢書』4, 236쪽).

강 강릉부를 점령한 동학농민군들은 다음날 영동 일대의 최대 지주이자 대표적인 유림세력이었던 강릉부 정동면 선교의 이회원의 집을 습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臨瀛討匪小錄」『叢書』12, 250쪽).

### ■ 9월 7일 (양. 10월 5일)

- 강 읍리 정시중과 최희민은 이회원과 동학농민군을 칠 계획을 세우고 이 날 낮 동학농민군들이 점심과 저녁거리로 쓸 백미 100석과 돈 300꾸러미를 보내 동학농민군을 안심시켰다. 강릉부를 점령하고 점막들과 관아 건물에 나누어 숙식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이날 밤 8시경 강릉부 대소민인 수천 명의 기습을 받았다. 도사 최윤정(崔允鼎)의 지휘 하에 8읍의 대소민인 4-5천 명이 발래치(發來峙)에서 동문으로 뛰어들어 기습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들은 20여 명이 전사하고 총 7자루, 창 157자루, 말 3필을 빼앗긴 채 대관령을 넘어 평창으로 퇴각하였다(『東匪討論』 『叢書』 12, 124-125쪽, 139쪽 ; 『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0쪽).
- 정 의무대신 김윤식은 일본공사가 직접 8월 25일자 영남동학농민군의 격문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해 준다든지, 호서와 호남의 동학농민군들이 서울로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일기에 기록했다(『續陰晴史』 上, 339쪽).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2분대]가 보은으로 진군하여, 중국인 5명을 포획하여 낙동으로 돌아갔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66쪽).

### ■ 9월 7일 - 8일 (양. 10월 5일-6일)

- 전 9월 7, 8일경 전봉준이 대원군이 보낸 밀사를 만나 밀교(密敎)를 전달받았다(『隨錄』 『叢書』 5, 296쪽 ; 『全琫準供草』 『叢書』 18, 40-41쪽, 56-57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5쪽, 361쪽). 또 9월 6일 송희옥의 편지를 받은 다음 삼례로 가서 박동진과 정인덕을 만났다(『全琫準供草』 『叢書』 18, 40-41쪽).
- 전 9월 8일 이전 이견영(李建英)이 남원의 김개남을 찾아가서 국태공의 명령이라며 ‘기병부경(起兵赴京)’할 것을 밀유(密諭)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47쪽 ; 『甲午略歷』 『叢書』 5, 419-420쪽).
- 전 같은 무렵 전봉준도 삼례에서 이견영을 만나 다음과 같은 국왕 명의로 된 밀지를 받았다(『全琫準供草』 『叢書』 18, 40-41쪽). 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금 왜구들이 침범하여 화가 국가에 미치었는바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와 근심을 어떻게 하랴. 이로써 교시하노라”(『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쪽, 360쪽; 『東學文書』 『叢書』 5, 99쪽).
- 전 “국가의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는 국왕의 밀지를 받은 전봉준은 국왕의 밀지가

도착한 사실과 그에 대한 비밀을 당부하는 회람을 의룡(義龍), 월파(月波), 화중(和中) 등으로 명기한 동지들에게 돌렸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쪽, 361쪽).\*

\* 「동학문서(東學文書)」에는 밀지를 보낸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라는 8월 14일자로 된 국왕의 밀지가 실려 있다(『叢書』 5, 112쪽).

### ■ 9월 8일 (양. 10월 6일)

▣ 강 강릉의 죄수 최동집이 10월 1일 향사당에서 향회를 열 것이며, 만약 불참자가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통문을 각면 향회원들에게 띄웠다(「東匪討論」 『叢書』 12, 126쪽).

### ■ 9월 9일 (양. 10월 7일)

▣ 전 전라도 금구의 동학농민군 3백여 명이 고산 관아를 점령하여 하루를 유숙하였다. 다음 날에는 무기를 탈취하여 전주 쪽으로 향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9-1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1쪽).

▣ 기 동학농민군이 죽산·안성(安城)에 침범하여 관아를 점령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5쪽).

▣ 강 강릉부에서 각면마다 오가작통하여 10통을 2개 초(哨)로 나누고 각초에서 대장을 선발한 뒤 9월 13일 일제히 모여 점고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東匪討論」 『叢書』 12, 132쪽).

### ■ 9월 10일 (양. 10월 8일)

▣ 전 재기포를 결심한 전봉준이 태인을 출발, 원평을 거쳐 9월 10일경 삼례에 도착하여 이곳에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하고 기병준비에 착수하였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9) 이때 삼례에서 모여 전봉준과 함께 모의한 인물은 진안의 접주 문계팔(文季八)·김영동(金永東)·이종태(李宗泰), 금구의 접주 조준구(趙駿九), 전주의 접주 최대봉(崔大奉)·송일두(宋日斗), 정읍의 접주 손여옥(孫如玉), 부안의 접주 김석윤(金錫允)·김여중(金汝中)·최경선(崔卿宣)·송희옥(宋熹玉) 등이었다. 전봉준은 각

지의 “충의지사(忠義之士)”에게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않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라는 통문을 돌렸다(「全琿準供草」 『叢書』 18, 23쪽, 69쪽, 71쪽 ;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4-435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9-1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1쪽).

전 전봉준은 각지의 관아에도 재기병을 알리는 통문을 보내 군수품 조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9월 10일 태인현에는 거사를 위해 공곡(公穀)과 공전을 이용해 야 하므로 군수미(軍需米) 300석과 동전 2천 냥을 금구, 원평의 도회소로 수송하기 바란다는 전봉준의 통보가 전달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쪽).

전 정오 무렵 전날 고산현을 점령하였던 금구의 동학농민군 300명이 무기를 탈취하여 전주 풍삭(風朔) 쪽으로 향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1쪽).

전 10일 밤에는 삼례에 집결하였던 동학농민군이 여산을 공격하여 민가를 불태우고 과부를 겁탈하거나 인명을 살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경 충청대도소(忠慶大都所)에서 ‘영우(嶺右)의 각 읍 각촌에 사는 대소민에게’라는 방문을 붙였는데, 왜적들이 침범하고 있으니 복수(復讐)로 국가에 보답하자고 하고, 진주병사가 부임한지 1년도 못되어 왜인(倭人)과의 약조에 따라 선출된 신병사가 도입한다면서 도인과 도외인(道外人)을 가리지 않고 진주에서 대회를 갖는다고 참석을 강력히 권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9-140쪽)

정 정부는 장위영 영관 이두황과 경리청 영관(經理廳 領官) 성하영(成夏永)을 각기 죽산과 안성 군수(安城郡守)로 임명 파송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부임하도록 하여 때를 보아 초무토록 하였다. 또한 장차 계속해서 경병을 파견하여 신림(申林)과 윤웅렬(尹雄烈)이 거느리고 내려가게 했다”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 9월 초순

경 영남의 한 유생이 영남 우도의 동학농민군에 관해 논하면서, 영남 각 읍의 동비들은 모두 덕산(德山)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덕산은 진주 서쪽 지리산 밑에 있으며 피수는 언제나 덕산에 있으면서 그곳을 소굴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비는 모두 상민·천민·사노·관속의 하배(下輩)·패망한 반종(班種)의 부랑분자에 불과하고, 읍속(邑屬)은 관인과 가까운 자들로서 동비의 이목이 되어 관가의 동정을 모

두 알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촌의 동비를 제거하려면 관인과 가까운 동비를 제거하고, 상천인 동비를 제거하려면 먼저 만중의 동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진주의 동비를 제거하려면 덕산의 동비와 심장·시천·청암·사월·사오리에 거주하는 동비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0쪽).

경 성주 향리들이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잡아서 살해한 까닭에 음근동리의 사람을 결속 해서 방수하였다. 비도들이 대마시(代馬市)에 집결해서 성주로 들어가려고 하고 방수군이 힘을 합쳐 막고 있을 즈음에 성주 목사 오석영(吳錫泳)이 야음을 틈타 도망하는 바람에 읍내가 점거되었다. 비도들이 읍내에 들어가며 일시에 불을 질러 민가 600여 호가 전소했는데 3일 동안 불에 타면서 연기가 백여 리에 걸쳤고, 타지 않은 건물은 관아건물 뿐이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世藏年錄』 『叢書』 2, 258-259쪽).

#### ■ 9월 11일 (양. 10월 9일)

경 전 고성 부사 오형묵이 낙동에 숙박할 때 일본군이 낙동강에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많은 배를 만들어 수면에 올리고 목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물이 많을 때는 철 갈고리를 거두어 배를 풀어놓는 것이었다(『固城府叢瑣錄』 『叢書』 4, 240쪽).

정 군국기무처는 의정부의 예하 기구가 아닌 의정부와 대치하는 독립된 입법기구로 군국기무처를 개혁하기로 의결하였다(『日省錄』).

정 군국기무처는 승선원을 궁내부 소속이 아니라 의정부에 예속시키는 의안을 결의하였다. 국왕의 명령도 의정부를 거쳐 나오도록 함으로써 고종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려고 하였다(『議定存案』).

#### ■ 9월 12일 (양. 10월 10일)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가 낙동에서 문경으로 진군하였다.

#### ■ 9월 13일 (양. 10월 11일)

전 밤 삼례에 집결하였던 동학농민군이 여산을 재차 공격하여 군기고를 공격하고 무기들을 탈취하여 돌아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전 밤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전주성을 공격하여 군기고를 파괴한 다음 총통 10개, 환

도 20자루를 탈취하여 삼천 지방으로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정 김윤식은 “외무아문에 들르고 군국기무처 회의소에 갔다. 동학의 소요가 날로 치열해져서 경기와 호서지방에서 피난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장차 서울로 쳐들어온다고 한다”고 일기에 기록하였다. (『續陰晴史』 上, 339-340쪽).

### ■ 9월 14일 (양. 10월 12일)

전 금구 원평의 동학농민군이 김제군 공형에게 군목(軍木) 20동(同)을 행군소(行軍所)로 수송하라는 글을 보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전 14일 오후 4시경 전봉준이 삼례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 8백여 명을 이끌고 총을 쏘며 전주성으로 쳐들어가 군기고에서 총 251자루, 창 11자루, 환도 442자루와 철환 및 각종 물품을 모두 탈취했으며, 저녁에는 창고를 공격하여 화포 74문, 탄환 9,773발, 탄자(彈子) 41,234개, 환도 300자루 등의 무기를 탈취해서 오후 7시경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9쪽).

정 갑오정권은 처음으로 동학농민군에 대해 ‘용무(用武)’하는 것, 즉 진압의 방침을 비로소 확정하였다. “도당 중에 반드시 강압에 못 이겨 참여했으나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자가 다수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그른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향하는 의리로서 포고하여 각기 해산케 하라. 만일 거괴(渠魁)를 잡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먼저 영읍에서 중히 논상(論賞)해 주고 조가(朝家)에서는 또한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강경 초토 방침을 세웠다(『關草存案』 「訓令」).

일 삼랑진 수비병 4명이 밀양에서 약 1,5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8명을 죽이고 10명을 부상을 입혔다.

일 가흥병참부 수비병이 충청도 단월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4명을 사로잡았다(『병1-1』 22쪽).

### ■ 9월 14일 - 15일 (양. 10월 12일-13일)

전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5, 6일 후에는 최경선을 광주로 보내 손화중에게 재기포 사실을 알렸으며, 김개남에게도 연락하였다(『全琿準供草』 『叢書』 18, 72쪽, 78-79쪽).

## 9월 중순

전 8월 말부터 남원에서 재기포 준비를 한 김개남은 이 무렵부터 인근 읍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적극적으로 끌어 모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9-1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1쪽).

전 9월 중순 무렵까지 전라 각지 읍진(邑鎭) 가운데 동학농민군에게 무기를 탈취 당한 곳은 29개 지역이었다(「啓草存案」 『叢書』 17, 30쪽).

전 9월 10일경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한 전봉준은 북접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 그것은 9월 18일 이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교단측에서 나온 통유문에 전봉준과 서장옥(徐璋玉)이 “창의(倡義)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도인을 죽이는 것이 끝이 없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1쪽), 또 같은 9월에 관청과 일본군 병참소에 보낸 글에도 전봉준과 서장옥이 “북접을 끼고 때를 틈타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북접은 스승의 훈계를 각별히 따라 굳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북접을 남접과 구별하고자 하는 글을 보낸 데서 알 수 있다(「侍天教歷史」 『東學思想資料集』 參, 625쪽).

전 「영상일기(嶺上日記)」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이 전라 각지의 관아와 민간으로부터 대동목(大同木)과 공전을 거두었으며, 전세미(田稅米)도 매결(每結) 10두씩을 거두었다. “앞서 적이 각방(各坊)에서 거둔 쌀은 대방(大坊)에서 백 석, 소방(小坊)에서 8-90석이므로 48방에서 거둔 쌀은 몇 백 석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남원 산동방(山洞坊)과 구례에서 거두어들이는 쌀은 300섬이나 되었다(「嶺上日記」 『叢書』 2, 287쪽).

## 9월 15일 (양. 10월 13일)

전 남원의 동학농민군들이 군목(軍木) 색리들을 구타하고 창고에 있던 쌀과 상납할 군목 20동(同) 27필을 탈취해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1쪽).

전 동학농민군 10여 명이 능주로 들어가 김개남의 지시라고 하며 공형들을 불러내고 동전 2만 냥과 백목(白木) 30동을 남원 대도소로 수송하라고 협박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1쪽).

전 하동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곤양 다솔사(多率寺)에서 집회를 가지고 광양, 순천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곤양 읍성으로 들어왔다가 조총 20자루를 빼앗고 진주로 향하여 진주 접경 완사역(完沙驛)에서 합류하였다(「古文書」 2, 404-407쪽).

전 밤 8시경 순천, 고산, 남원, 태인, 금구접이 연합한 동학농민군 천여 명이 순천 선암사에서 각자 총창을 들고 낙안 이교청을 공격하였다(『古文書』 2, 412-413쪽 ; 「梧下記聞」 『叢書』 1, 246쪽).\*

\* 「오하기문(梧下記聞)」에는 9월 18일조에 실려 있다.

강 강릉 각 지역 요호들이 향사당에 모여 2천 냥을 모으고 동학농민군들을 먹이는데 들어간 700여 냥을 메우고 600여 냥은 군기를 보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민포군을 점고할 때 사용하기로 했다(「東匪討論」 『叢書』 12, 140쪽 ; 「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4쪽).

정 의정부에서는 ‘영남구폐별단(嶺南揀弊別單)’을 마련하였는데, 토지에 부과되고 있었던 세목, 즉 전세·대동·삼수·포량 등을 통합하여 지세를 부과하였다. (『日省錄』 ; 『承政院日記』).

정 일본을 방문하는 보빙대사 의화군을 환송하기 위해 각부아문 대신, 협판, 참의들이 한강에 나갔다가 서울로 돌아왔다(『續陰晴史』 上, 340쪽).

일 후지타(藤田)부대가 낙동병참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문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문고 77』 1065쪽).

## ■ 9월 16일 (양. 10월 14일)

전 심야에 동학농민군 1백여 명이 위봉산성(威鳳山城)을 공격하여 군기고에 있는 모든 물품을 빼앗아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0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1쪽).

전 동학농민군 1백여 명이 남원 대도소 김개남의 지휘에 따라 능주에서 군수전과 군수곡을 징발하였다.

정 일본정부와 일본공사 오오토리는 갑오정권에 보낸 서한에서, 삼남지방의 동학농민군이 특히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이런 ‘국해(國害)를 제거하기 위해서’ 과병할 것을 주장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2-133쪽).

\* 주한일본공사 오오토리는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이미 여러 차례 보낸 조희문을 통해서 그동안 선유와 토벌을 감행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은 7월 26일에 조인된

조일양국맹약(朝日兩國盟約)에 근거하여 조일 양국의 합동작전에 의해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청일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 받기 위한 것으로 농민전쟁 진압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9월 이후 반일 봉기한 동학농민군 진압에서는 일본은 '맹약'을 확대해석하여 동학농민군 탄압에 적극 활용하였다(朴宗根, 앞의 책, 1989, 94-99쪽 ; 왕현중, 앞의 책, 2003, 385-387쪽).

일 충주지부 수비병이 단월에서 동학농민군수령 3명을 체포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86-287쪽).

### ■ 9월 17일 (양. 10월 15일)

전 백미 300석, 동전 2천 냥, 백목 15동(同)을 여산으로 보내라는 동학농민군 대도소의 전통(傳通)이 고산관아에 도착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1쪽).

전 남원 대도소 김개남이 광주에 통문을 보내, 동전 10만 냥과 백목 100동(同)을 보내라고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공형들에게 군율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1쪽).

전 남원 동학농민군 수십 명이 운봉을 공격하였으나 패하였다(『朴鳳陽經歷書』 『叢書』 7, 540쪽).

정 하동에 주둔해 있던 영호대도소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진주로 쳐들어 가 읍내와 관청을 점령하였다(『古文書』 2, 406쪽).

정 군국기무처는 각 대신과 장신, 경무사 등이 모두 기무처의 회의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안을 결의하였다(『日省錄』).

정 갑오정권은 전라도 전주, 김제, 태인, 금구, 부안, 임피, 옥구 등 7개 읍의 균전을 금년조부터 원종에 다시 포함시켜 출세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다수의 명례궁 장토의 토지분쟁을 조세개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日省錄』).

일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토 히로부미는 내무대신을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는 주한 일본공사를 맡겼다(井上馨侯傳記編纂會編, 『世外井上公傳』 4권, 原書房, 1968, 390-402쪽).

일 청주지부수비병이 청풍부근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수령을 쓰러뜨리고 4명을 체포하였는데 동학농민군의 사상자는 30명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86-287쪽).

## 9월 18일 (양. 10월 16일)

전 삼례 대도소에서 군산진에 통문을 보내 유박미(留泊米) 1천 석을 즉시 전주 대장촌(大長村)으로 운반하라고 하였다. 또한 포군들로 하여금 총을 들고 와서 무장에 운반해 놓은 세곡 1천 석을 감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군산 첨사는 포군들을 보내주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1쪽).

전 동학농민군 대도소에서는 곡성, 함열 등에도 동전, 백미, 백목 등을 요구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1쪽)

전 호남 동학농민군 백여 명이 또 사천현(泗川顯)에 난입하여 질청(作廳)에서 유숙한 뒤 19일 남해로 산거하였다(『古文書』 2, 406쪽).

전 18일 오후 2시경 낙안군 의소(義所)의 동학농민군 집장 김사일(金士逸)이 보성점의 힘을 빌려서 성밖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나, 성안에서 쏟아져 나오며 공격한 동학농민군에 패하였다(『古文書』 2, 412-413쪽 ; 「梧下記聞」 『叢書』 1, 246쪽).

충 장차 서울로 쳐들어가려 하니 군량을 준비해두라는 전봉준의 통문이 충청도 각 읍에도 전달되었다(『續陰晴史』 上, 340쪽).

충 최시형(崔時亨)은 청산에 각포의 접주들을 청산에 불러 모으고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여”(「天道教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155쪽), “선사(先師)의 숙원(宿冤)을 쾌신(快伸)하고 종국(宗國)의 급난(急難)에 동부(同赴)할” 것을 지시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1쪽). 함께 기포하자는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접에서도 법소(法所)와 도소(都所)를 창의소(倡義所)로 개칭하였으며, “우리 접주들은 힘을 합하여 왜적(倭賊)을 쳐야겠”다는 통문을 돌리고 반일항쟁에 동참하게 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

\* 이때 북접은 산하 각 지역에 기포령을 내리고 군중절목(軍中節目) 25개조를 마련하였다는 기록도 있다(「大阪朝日新聞」 『叢書』 23, 150-151쪽)

충 동학 교주 최시형이 청산에서 기포령(起包令)을 내렸다. 전국의 동학 조직이 무장봉기하여 일본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었다(「侍天教宗釋史」 『叢書』 29, 112-114쪽 ;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1쪽 ; 『白凡逸志』).

경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천여 명을 이끌고 진주로 들어와 질청에 머물렀다(『古文書』 2, 406쪽).

- 정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갑오정권이 협조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후 통첩을 보냈다. 최근 비도들의 경성침범설과 청 패잔병의 합세설을 근거로 하여 “일국의 화근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일 양국의 합동 작전에 의해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일맹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변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2-133쪽).
- 정 호서, 호남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초토를 결정하고 일본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였다(『日省錄』).
- 정 충청 감사 박제순은 전라 감사 김학진의 유화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장계를 올렸다. 호남 비도의 난형(亂形)이 이미 뚜렷해졌는데, 도신(道臣)과 수재(守宰)가 초토의 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인책을 요구했다(『日省錄』).
- 정 전라 감사 김학진은 자신의 잘못을 거론하면서 사퇴를 요청했으나 사직소는 곧바로 수리되지 않았다(『日省錄』).
- 일 일본공사 오오토리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공한을 보내서, 천안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비류를 체포하고자 일본 경부(警部)를 파견한다고 알리고 천안 군수(天安郡守)에게 공문으로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4쪽).
- 일 가흥수비병(11명)이 충청도 요사촌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였다(『병참』 1-1, 22쪽).
- 일 가흥수비병(11명)이 동학농민군 수색을 위하여 경기도 이천에 파견되었다(『병참』 1-1, 22쪽).

## ■ 9월 19일 (양. 10월 17일)

- 전 오후 4시경 낙안을 점령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군기고를 방화한 다음 선암사로 돌아갔다(『古文書』 2, 413쪽).
- 일 용산수비대 1개 소대가 안성→이천→충주로 진군하였다(『한국동학농민군봉기일건』, 10. 17).
- 일 용산수비대 1개 소대가 안성→공주→괴산→보은으로 진군하였다(『한국동학농민군봉기일건』, 10. 17).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34명]가 부산으로 되돌아갔다.

### ■ 9월 20일 (양. 10월 18일)

전 각처의 동학농민군 800여 명이 각자 총칼을 들고 읍저에 난입, 관속들을 위협하고 각 공해에서 숙식 후 하리(下吏) 2명의 집을 파괴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들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우마와 의복 및 산물(産物)을 탈거한 뒤, 22일 모두 고성(固城)으로 돌아갔다(『古文書』 2, 406쪽).

일 육군 대신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 독립후비보병 제 18대대를 서울수비대로 조선에 파견할 것을 승인하였다. 파견 목적은 조선의 일본공사(日本公使) 및 영사, 그리고 일본 거류민보호와 조선에서의 이노우에(井上馨) 공사의 사업을 돕는 것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516쪽).

### ■ 9월 21일 (양. 10월 19일)

기 용인의 직곡과 양지 등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5-6쪽).

정 고종은 의사부 행정부가 서로 대치케 하는 의안과 승선원을 정부에 옮겨 소속하게 하자는 의안을 폐기시켜 버렸다(『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 「議案」 갑오 9.21, 105쪽).

정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를 순무사(巡撫使)로 임명하여 군영(軍營)을 만들어 여러 군대를 통솔하게 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79쪽).

일 주한일본대리공사 스키무리는 조선정부의 제대신들이 자주 원병파견을 요청해왔으며 대원군이 동학농민군 진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미 제대신과 ‘내적으로 타협을 본 후’, 일본이 출병한다는 조희를 먼저 보내고 이를 받아 외무대신이 출병요청을 하였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64쪽).

일 가흥병참부 수비병이 충청도 곤산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4명을 사로잡았다.

일 대구병참부 수비병 4명이 경상도 판순촌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였다.

### 9월 22일 (양. 10월 20일)

- 전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계에 따르면 남원에 모인 동학농민군이 5-6만 명이라고 하였다(「甲午實記」 『叢書』 6, 312쪽).
- 충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천에 주둔하는 이토 병참감의 전보를 인용하여 충주의 일본군 수비병을 파견해서 동학농민군을 막았는데 “9월 16일(양력 10월 14일) 단월(丹月)에서 비괴(匪魁) 3명을 체포하였고 17일 밤에는 청풍 부근에서 비괴 1명을 격살하였으며 비도 4명도 포획”하였는데 이날 비류 30명을 살해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5쪽).
- 경 하동 부근에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군집해서 진주와 통영으로 전진해온다는 정보를 듣고 부산의 일본총영사 무로다가 서울의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에게 일본군이 파견될 김해·웅천·창원·칠원·함안·진해·고성·사천·곤양·진주 등지에서 인부와 우마 그리고 식량 조달에 편의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5쪽).
- 기 용인현 직동(直洞)·금량(金良) 장터에서 죽산 부사(竹山府使) 이두황에게 붙잡힌 동학농민군 20여 명 가운데 이용익(李用益)·정용전(鄭龍全)·이주영(李周英)·이삼준(李三俊) 등이 총살당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6-7쪽).
- 강 강릉에서 각 촌의 민포군 수천 명이 모여 점고를 하고 출신 이진석(李震錫)을 민포군 중군장으로 선임하였다. 민포군들이 각 지역을 돌며 요호전을 내지 않는 조검서, 김진사 댁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4-255쪽).
- 정 신정희를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임명하고 양호순무영(兩湖巡撫營)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동학농민군 토벌작전에 나서게 되었다(『日省錄』).
- 정 전라 감사 김학진을 남원부 취회와 금구 취회당의 봉기에 책임을 지워 해임하였다(『日省錄』).
- 정 고종은 교서를 통해 “처음 봉기가 봉건적 탐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양민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비도들이 일으킨 난, 패역”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다시 귀화하지 않고 왕명을 거역한다면 모두 ‘주살(誅滅)’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日省錄』).

### 9월 23일 (양. 10월 21일)

정 외무대신 김윤식이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의 요청에 따라, 경상 감사에게 칙령을 내려 관군을 출정시키고 2, 3명의 요원을 선발하여 일본군과 함께 다니며 일을 주선하라는 전칙(電飭)을 내린 것을 일본대리공사에게 회답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6쪽).

### 9월 24일 (양. 10월 22일)

충 청주는 동학농민군 서일해(徐一海)가 군중을 인솔하고 수십겹으로 포위하고 있으나 병사(兵使)가 성문을 굳게 닫고 외부 원병을 기다리고 있으나 오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 충청 병사 이장회(李長會)가 “이달 24일에 비류 수만이 성 아래를 범하였는데, 병사가 친히 막아서 싸워 적도 수십 명을 죽이자, 적도들이 비로소 퇴각하여 흩어졌다”고 보고하였다(『承政院日記』).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이 이달 24일에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청주로 내범(來犯)하여 병마절도사 이장회가 친히 거전(拒戰) 수십 명을 살해함으로써 비로소 물러갔다 하고 양호의 동학농민군들이 서로 연락하고 있어 감병영(監兵營)의 병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承政院日記』; 「啓草存案」 『叢書』 17, 46쪽).

경 일본 대리공사 스기무라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산의 일본 총영사가 동래 부사 민영돈이 동학농민군을 환대했다는 사실을 최학봉(崔鶴峰)·김병두(金炳斗)·김만수(金萬守)를 심문한 공초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다른 지방관들의 환대 풍조를 조장하는 이유가 된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6-137쪽).

관 순무영의 중군(中軍)은 허진(許璣)으로 하고 중사관 2사람의 단자(單子)는 황장연(黃章淵)과 정인표(鄭寅杓)로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79쪽).

관 양호선봉장 이규태(李圭泰)가 손시(巽時) 경에 각 소대를 거느리고 일본 병사와 함께 출발하여 유시 경에 충청감영에 도착하고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5쪽).

일 후지타(藤田)부대와 하시다(橋田)부대가 상주에서 동학농민군 약 1,000명과 싸워 50여 명을 죽였다. 동학농민군의 사상자 수는 불분명하였다.

일 부산수비대 150명이 하동에서 진주로 진군하였다(방위연구소 『천대전사료 301』, 1894.10.22).

일 부산수비대[총 150명. 遠田부대(2개소대)+藤阪부대(1개소대)]가 부산에서 마산포를 향하여 백천환(百川丸)에 승선하여 출발하였다(부산수비대의 경상도 서남단 파견 1회).

### ■ 9월 25일 (양. 10월 23일)

기 음죽에서 저녁 6시경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관아를 포위하고 군기를 빼앗아 갔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3쪽).

정 경상 감사 조병호가 전보를 통해 “대구 관관은 비도를 토벌하는 일로 하동, 진주 등지에 파견되었고, 안의현감은 겸임 함양군수(兼任 咸陽郡守)로서 비도를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의정부에서 관관 지식영을 토포사(討捕使)로 차하하고, 안의현감 조원식(趙元植)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차하하였다(『承政院日記』).

일 후지타(藤田)부대[부산수비대]가 경상도 청도에 탐정대 7명을 파견하였다.

### ■ 9월 26일 (양. 10월 24일)

전 손화중도 광주에서 동학농민군 도회를 열고 통문을 돌려 인근 동학농민군을 광주에 결집시켜 전봉준에 호응하였다(「日史」 『叢書』 7, 485-486쪽).

경 경상감영의 남영병 일대 120여 명이 병방 박항래(朴恒來)과 영관 최처규(崔處圭)의 지휘 아래 이날 대구를 출발해서 칠곡(27일)·인동(28일)·선산(29~10월 2일)·개령(3일)·김산(4~6일)·지례(7~9일)·성주(9~11일)를 순회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424-446쪽).

강 9월 중 홍천에서는 지평의 고석주(高錫柱), 이희일(李熙一), 신창희(申昌熙) 등이 이끌던 동학농민군들 수백 명이 접을 설치하며 활동하였다. 지평현 전 감역 맹영재가 민포군 부약장(副約長)이 되어 관포군과 김백선(金伯先)이 이끄는 사포군(私包軍) 등 100여 명을 인솔하고 홍천으로 가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고석주, 이희일, 신창희 등을 죽이자 동학농민군들이 각지로 흩어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충주의 황산총의포로 갔다(「啓草存案」 『叢書』 17, 44쪽 ;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2쪽).

정 포수 100여 명을 거느리고 홍천에 이르러 동학농민군 비류의 괴수 3명을 참획한 지평현의 전 감역 맹영재와 안성, 죽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효유한 안성의 전주사 정기봉(鄭基鳳)에 대해 순무영에서 기전소모관(畿甸召募官)으로 임명하였다(『承政院日記』).

정 전라도 충청도 도순무영(都巡撫營)의 초기에 장위영 정령(壯衛營 正領) 이규태, 전 방어사(前防禦使) 이희중(李熙重)·이병세(李秉世), 부평부사(富平府使) 신림(申林), 통위영 참령관(統衛營 參領官) 구연항(具然恒), 전 부사(前府使) 홍운섭(洪運燮)·신좌희(申佐熙)를 별군관(別軍官)으로 임명하였다. 전 도사(前都事) 김근식(金近植), 군무아문 주사(軍務衙門主事) 오진영(吳振泳), 전 사과(前司果) 홍건조(洪建祖), 유학(幼學) 박영세(朴永世), 진사(進士) 이명상(李明翔)을 아울러 참모사(參謀士)로 임명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79쪽).

일 후지타(藤田)부대[부산수비대, 2분대 인솔]가 문경에서 단양으로 진군하였다.

일 대구수비병 11명이 경상도 성주에서 동학농민군 1명을 죽이고 11명을 사로잡았다.

일 낙동수비병[1분대]과 하시다(橋田)부대[2분대]가 충청도 단양에서 약 4,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 ■ 9월 27일 (양. 10월 25일)

경 예천의 정탐인이 전하기를, 동학농민군이 상주 읍내를 점거하고 객관에 모여 있는데 예천에서 빠져나간 박현성(朴顯聲)·김노연(金魯淵)·권순문(權順文)과 함창의 김복손(金福孫) 함께 있으면서 예천을 도륙한 뒤에 안동과 의성을 벌할 것이라고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85쪽).

경 예천의 향리들이 동학농민군들의 일을 탐지하기 위해 상주 향리에게 밀서를 보냈는데 답신이 오기를 상주는 향리들과 외촌 민정 2천여 명이 수성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말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87-88쪽).

기 안성의 접주 유구서·김학녀, 진천 동학농민군 김금용 등이 안성에서 체포되어 효수되었다(『甲午實記』 『叢書』 6, 313-314쪽).

황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장연에서 일어나 해주성에 들어가 군기를 빼앗고 감사 김춘회를 협박하였다. 각촌의 엽수(獵手) 800명이 여기에 가담하여 성문을 지켰다(『日案』 3, 164쪽).

- ┌ 일 인천수비대[2분대]가 수원에서 가흥으로 진군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삼호 남부병참감부』, 1894.10.27).
- ┌ 일 송파진수비대 40명이 죽산에서 가흥으로 진군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삼호 남부병참감부』, 1894.10.27).
- ┌ 일 가흥수비병과 헌병 15명이 가흥에서 약 1,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헌병 1명이 죽었다.
- ┌ 일 대구수비병 10명이 경상도 성주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수비병 1명이 죽고, 동학농민군 1명을 죽이고 11명을 사로잡았다.

#### ■ 9월 28일 (양. 10월 26일)

- ┌ 경 상주성을 점거한 동학농민군들이 오전 10시경 낙동병참부의 일본군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을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대패하고 성을 물러났다(「甲午斥邪錄」 『叢書』 11, 88쪽).
- ┌ 일 이노우에 일본공사가 서울에 부임하였다(박종근, 앞의 책, 1989, 137-173쪽 ; 유명익, 앞의 책, 1990, 36-50쪽).
- ┌ 일 상등병 148명이 경성-부산간 수비대보충병으로 파견되었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삼호 남부병참감부』, 1894.10.26).
- ┌ 일 안보수비병 38명이 경상도 안보의 동학농민군이 안보 병참부를 불태우자, 약 2,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11명을 죽였다.
- ┌ 일 용산수비대가 충주에 진군하였다.

#### ■ 9월 29일 (양. 10월 27일)

- ┌ 충 안성과 이천에서 진천에 들어온 동학농민군들이 오전 10시경 읍내 주위를 3, 4겹이나 에워싸고 먼저 동헌에 들어가 현감과 공형 및 여러 관속을 결박하고 무기고를 파괴한 다음 병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5-17쪽).

정 명영재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평현감에 임명되었다(『承政院日記』).

정 의정부에서 나주 목사 민종렬, 여산 부사 유제관(柳濟寬)을 호남소모사(湖南召募使)로 차하하고, 홍주 목사 조재관(趙載觀), 진잠 현감 이세경(李世卿)을 호서소모사(湖西召募使)로 차하하고, 영남의 경우는 창원 부사 이종서(李鍾緒), 전 승지 정의묵(鄭宜默)을 소모사로 차하하여 비도들을 막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정 유길준은 청일전쟁 대본영이 설치된 히로시마(廣島)로 이토오(伊藤博文)를 찾아가 김홍집(金弘集)의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인 고문관(顧問官), 군사교관 파견 및 국채(國債) 모집에 대해 협의하였다(『兪吉濬全書』 IV, 일조각, 353~391쪽;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編, 『伊藤博文關係文書』 七, 塙書房, 1979, 308쪽).

\* 이토오(伊藤博文)는 이미 새로 부임한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에게 전권을 이미 부여했으니 속히 귀국하여 정상공사와 협의할 것을 통고했다. 결국 유길준의 일본방문은 아무런 성과없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조선에서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탄압결정이 내려지고 동학농민군 토벌이 진행되었다.

일 히로시마 대본영 카와카미 병참총감의 ‘동학당을 모조리 살육’ 하라는 내용의 전보가 인천 남부 병참감에 전달되었다(井上勝生,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서경문화사, 2002, 327쪽).

일 후지타(藤田)부대와 하시다(橋田)부대가 상주에서 약 1,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50여 명을 죽였다.

일 토다(遠田)부대[부산수비대, 1분대+헌병 5명]가 하동부근 광평동에서 동학농민군 약 600명과 싸워 격퇴시켰다.

일 용산수비대[2분대]가 충청도 내창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일 안보수비병가 수안도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3명을 사로잡았다.

일 낙동수비병이 상주에서 약 1,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50명을 죽이고 2명을 사로잡았다.

## ■ 9월 30일 (양. 10월 28일)

충 충주의 오읍별집강(五邑別執綱) 신재련(辛在蓮)이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제 오후 8시경 각처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전하기를

허황(許黃) 양적이 괴산읍 공청(公廳)을 점거해서 무기를 꺼내고 많은 사람을 강제로 모이게 한다는 등에 관해 알려졌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15, 17쪽).

일 이노우에 일본공사는 내정개혁요강(內政改革綱領) 20개조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지원 아래 철도, 전신망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日本外交文書』 27-1, No. 289, 「朝鮮國內政改革ニ關スル貸付金ニ付具申ノ件」, 476-47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録』 5, 160-165쪽).

일 토다(遠田)부대[부산수비대, 14명]가 하동 섬거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을 죽였다.

일 낙동수비병[2분대]이 경상도 선산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이 죽었다.

일 이천수비병이 경기도 이천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0명을 총살하였다.

일 가흥수비병이 가흥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일 안보수비병이 경상도 진촌(陣村)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고 가옥 1호를 불태웠다.

## 9월 말

기 안승관·김승현 등이 5천여 명을 거느리고 수원부(水原府)를 점령하고 남군(南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관병(官兵)과 일병(日兵)을 만나 여러 날을 싸웠다가 마침내 패하였다(「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508쪽).

강 대화면의 접주 구도미의 김상오, 사건의 공계정, 응미의 전순길, 계촌의 손영팔, 평창 진사 박재회 등이 도당과 포군을 불러 모으고 9월 7일 강릉부에서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관군과 민포군에 대한 복수를 위해 영동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영동인들의 통행은 물론 상납할 진상품이나 각종 문첩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여기에는 영월, 평창, 정선에서 피살된 동학농민군의 가족들도 합류해 있었다(「東匪討論」 『叢書』 12, 136쪽).

강 홍천 내면의 차기석이 동학농민군을 끌어모아 창고에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위협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고 죽였으며, 포목(布木), 어(魚), 괘(藪), 화우(貨羽) 등의 상인들로부터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여 도로가 끊겼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6쪽).

- 강 봉평면에서 윤택열(尹泰烈), 정해창, 조원중, 정운심 등이 동학농민군을 모으고 창고 옆에 본부를 마련한 다음 각촌으로 전령을 내려 매호마다 속미(粟米) 6두, 마혜(麻鞋) 1쌍씩을 거두었고, 소를 빼앗아 하루에도 몇 마리씩 잡아먹었으며, 따르지 않는 자는 죽였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6쪽).
- 강 진부면에서 안영달, 김성칠 등이 기포하였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6쪽).

## 1894년(甲午年) 10월

### 10월 1일 (양. 10월 29일)

- 전 강진병영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여 10월 1일 강진병영에 설치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도소를 철파하고 수성소를 세웠다(『日史』 『叢書』 7, 486쪽).
- 충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충을 쏘며 태안 관아에 돌입해서 부사 신백희(申伯禧)와 종백부(宗伯府)에서 파견된 관원 김경제(金景濟)를 장터로 끌고 가서 살해하였다(『承政院日記』 ; 「昌山後人曹錫憲歷史」 『叢書』 10, 132-133쪽).
- 충 충청병사 이장희가 장계를 올려서, 청주 등지에 붙잡은 동학 두령李宗묵(李宗默)·홍순일(洪順日)·장사 정필수(鄭弼壽) 등을 군민대회(軍民大會)를 열고 효수 경중하였음을 보고하였다(『官報』).
- 경 국왕이 전교하여, “성주(星州)와 하동(河東) 두 고을이 비도의 소요를 흑심하게 겪어 성주에서는 불에 타 버린 민가(民家)가 600여 호(戶)나 되고 하동에서는 온 성(城)이 모두 타 버렸다고 한다. 불쌍한 나의 죄 없는 백성들이 뜻밖에 비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죽은 사람은 더없이 측은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도 의지할 데가 없다. 집과 토지가 모두 쓸모없게 되었으니 추운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재난을 입었을 때의 홀전(恤典)은 원래 정해진 규례가 있지만 국고(國庫)가 텅 비어서 널리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에 부응할 수 없다.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1만 냥을 내려서 해도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두 고을에 나누어 주게 하여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생전의 신역, 환곡, 군포를 모두 탕감하고, 사람들을 불러 위로하고 살 곳을 정해 주는 방도를 좋은 쪽으로 마련하고 각별히 돌보아 주어 떠돌아다니거나 춥고 굶주리는 걱정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 기 수원(水原)의 접주 안승관·김내현이 체포되어 남별원(南筏院)에서 각기 효수되었다(『承政院日記』 ; 「甲午實記」 『叢書』 6, 317쪽).
- 정 선교장의 이회원을 강릉 부사로 임명하였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5쪽).
- 정 충청병사 이장희의 장계에 따라 무기를 빼앗긴 제천현감 김건한(金建漢)을 죄명을

지니고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官報』).

- ┌ 일 후지타(藤田)부대와 하시다(橋田)부대가 선산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 ┌ 일 용산수비대와 가흥수비병이 충청도 보은·내창·서창의 동학농민군을 격퇴시켰다.
- ┌ 일 용산수비대와 낙동수비병이 보은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진멸(儘滅)’ 시켰다.
- ┌ 일 안보수비병이 경상도 중운곡(重雲谷)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6명을 죽였다.
- ┌ 일 낙동수비병[2분대]이 선산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3시간의 전투 끝에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동학농민군의 사상자 수는 불확실하였다.
- ┌ 일 낙동수비병과 가흥수비병이 충청도 보은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진멸(儘滅)’ 시켰다.

#### ■ 10월 2일 (양. 10월 30일)

- ┌ 충 동학농민군들에게 무기를 빼앗긴 음죽 현감 김종원(金鍾遠)과 청안 현감 홍종의(洪鍾益)을 함께 죄를 지니고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 ┌ 기 강화도에서 집주 김원팔이 효수되었다(『官報』).
- ┌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가 전선보호 목적으로 대봉에 체재하였다.

#### ■ 10월 3일 (양. 10월 31일)

- ┌ 충 홍주 목사 이승우가 장리(將吏)를 초집하여 수성군을 편성해서 홍주성이 점거되는 것에 대비하였다. 관병을 모두 5진(陣)으로 나누어 남영관에 김명헌(金明憲), 동영관에 이창욱(李昌旭), 중영관에 이능연(李能淵), 서영관에 한상익(韓相益), 북영관에 김주현(金周炫)을 정하였다. 부상(負商) 중 4, 5명을 파송해서 각처의 동정을 정탐하도록 하고, 유회(儒會)와 농보(農堡)를 연계시켜 서로 돕도록 하였으며, 외촌의 장정들 700여 명을 순번대로 성내를 출입해서 언제나 방수하도록 하였다(『洪陽紀事』 『叢書』 9, 130-131쪽).

- 경 히로시마현에서 온 일본인 어부가 사천에서 동학농민군의 실황을 조사해서 부산의 일본총영사 무로다에게 보고한 것에 의하면, 사천에 집결한 동학농민군 약 2천 명이 둘로 나누어 하나는 고성으로 향하고, 하나는 통영을 습격할 목적으로 지나갔는데 내일은 남해로 나간다고 들은바 자란도라는 섬에서 거동을 살폈더니 다음 날 10시쯤 두 척의 배가 남해로 갔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6-147쪽).
- 관 장위영 별군관 이규태를 선봉장으로 임명하여 교도중대(敎導中隊)의 병사와 통위영의 병사를 거느리고 공주와 청주 등으로 출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79쪽).
- 일 대봉수비병이 경상도 함창현 동박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 ■ 10월 4일 (양. 11월 1일)

- 기 용인접주 우성칠(禹成七)이 용인군 서이면 도촌(西二面 陶村)의 이운선(李閏善)의 밑고로 이두황의 관군에게 체포되어 다음 날 용인 삼문 밖에서 포살당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0쪽).
- 정 법무아문 협관 김학우가 피살되었다(『日省錄』).
- 정 권중석(權鍾奭)·이구영(李龜榮)·이승욱(李承旭)·정도영(鄭道永)·황승억(黃昇億)을 참모관으로 임명하고 유석용(柳錫用)·이달영(李達榮)·송흠국(宋欽國)·허완·이필영(李弼榮)·이재화(李在華)·박정환(朴晶煥)을 별군관으로 임명하여 선봉진에 보내 싸우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79쪽).
- 관 선봉장 별군관 이규태가 통위영 병사(兵士) 2개 중대를 거느리고 공주·청주 등의 길로 출발하였다. 중군(中軍)이 대대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이어 출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79쪽).
- 일 일본군 낙동 병참부에서 9월 25일(양력 10월 23일) 정탐을 하기 위하여 충주지방으로 파견한 육군 보병 일등병 구보(久保岩吉), 우에노(上野棄次郎), 한인 인부 동래인 선경찬(善敬贊) 3인이 청안현 부근에서 동학농민군에게 살해된 소문을 듣고 낙동 병참사령관이 남부병참감 포병 중좌 이토(伊藤祐義)에게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7쪽).

### 10월 5일 (양. 11월 2일)

- 충청도 천안에서 일본인 6명을 살해한 동학농민군 김경선(金敬善), 조명운(趙明云)을 심문할 때 일본 영사나 공관원을 회동시켜 심문해줄 것을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요청해서 허락받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4쪽).
- 대구에서 남영병이 김산에 들어오자 편보언은 도피하고 나머지 동학농민군들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접주와 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게방(揭榜)하고 수색에 나섰다(『世藏年錄』 『叢書』 2, 260-261쪽).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4명]가 토다(遠田)부대를 원조할 목적으로 부산을 출발하였다.

### 10월 6일 (양. 11월 3일)

- 외무대신 김윤식이 충청도 홍주·태안·서산·청주 지역에 동비의 세력이 치열해서 평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충청 감사 박제순의 급보를 받고 일본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8쪽).
- 동학농민군이 괴산 읍내를 점거해서 민가를 불태우고 관아의 무기를 탈취하고 청주 등지로 진군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9쪽).
-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탐리(探吏)를 보내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충주 무극장터와 진천 구만리장터에 취회한 것을 정탐하고 대관 박영호(朴永祐) 김진풍(金振豐)에게 2대를 거느리고 진천 광혜원과 구만리 등지를 순회하도록 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1-22쪽).
- 홍주 목사 이승우(李承宇)를 전라 감사로 제수했으나 비류가 감히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책을 세워 홍주·결성·보령·대흥·덕산·청양·예산·면천 8개 고을이 의지해온 실상과 싸움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우려로 인해 유임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 『洪陽紀事』 『叢書』 9, 118-124쪽).
- 충주·광혜원·진천 등지에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5-29쪽).
- 경상감영에서 예천관아에 감결을 보내서, 유곡역(幽谷驛)이 관장하는 낙원·낙동·연향·낙서·장림·낙평 6개역의 말들을 동학농민군들에게 잃었다며 해당 관아에

서 몰래 정탐하여 찾아 보내라고 하였다(「甲午斥邪錄」 『叢書』 11, 92쪽).

기 경기 파주와 금주 부근에서 동학농민군이 절이나 산곡에 숨어 있으며, 전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군 병참사령부 수비병을 공격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5쪽).

황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해주 서쪽 취야장에 모여 읍폐민막(邑幣民瘼)의 시정과 동학교의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영(海營)에서 민막은 지금 혁파하겠으나 동학은 조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을 곧 해산하였으나 임종현(林宗鉉)의 지휘하에 다시 모여들어 수만 명의 규모를 이루었다. 이들은 강령현(康翎縣)을 습격하여 무기를 획득한 뒤 해주성에 진입하였다. 해주부에 들어간 농민들은 관가를 부수고 군기를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영의 관공문서에 불을 지르고 중군과 관관, 비장 등을 끌어내 구타하고 관찰사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들은 11월 6일까지 해주부에 주둔하였으며, 이들이 감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임종현이 감사 자리에 앉고, 성재식을 강령 현감, 이용선을 안악 군수, 최득주를 해주 관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밖에 중군, 병졸 등을 임명한 도록이 발견되기도 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1쪽, 273쪽 ; 「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309쪽 ; 「日本士官函錄」 『叢書』 16, 371쪽).\*

\* 『일안(日案)』(3, 164쪽)에 따르면 9월 27일 장연에서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일어나 해주성으로 들어가 군기를 빼앗고 감사 김춘희를 협박했고, 각촌의 엽수(獵手) 800여 명도 여기에 가담하여 성문을 지켰으며 장차 황주로 갈 것이라고 했다는 일본병참사령관의 보고를 기록해두고 있다. 그러나 김춘희는 6월 26일 평안감사에서 황해감사로 전직되었지만, 바로 며칠 뒤 정현석이 황해감사로 임명되면서 김춘희는 7월 14일부로 병조 참관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일안(日案)』의 기사는 10월 6일 사건에 대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황 해주성이 함락되자 감영에서는 금천에 있던 일본군병참부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1쪽).

일 일본군 하라다(原田) 소위가 2개 소대를 인솔하고 충주에서 괴산방면을 정찰하던 중 동학농민군 2만 명을 만나 격전을 벌이다가 하라다 소위 이하 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즉사당한 뒤 다음 날 오전 6시에 충주 가흥병참부로 귀대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3쪽).

일 일본군 후비보병(後備步兵) 제6연대 제6중대장 대위 야마무라(山村忠正)는 괴산에서 하라다 소위가 이끄는 2개분대가 군수품을 상실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던 충주 양암면(仰岩面)에 사는 임명근(林命根)을 심문해서, 무기와

양식을 탈취할 목적으로 괴산 관아를 점거하였고, 음죽에서 2만여 명 보은에서 3만여 명이 왔으며, 동학농민군에서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일본군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지나가는데 조우하거나 통행로에서 장애가 될 경우에는 전투를 한다. 그럴 때는 일본군 1명에 동학농민군 100명꼴로 싸운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16쪽).

### ■ 10월 7일 (양. 11월 4일)

정 홍주 목사에 잉임(仍任)된 이승우를 초토사에 차하해서 호연(湖沿) 각 고을에서 적을 막고 소탕하는 일을 지휘하게 하였다(『承政院日記』).

일 일본군 남부병참감 포병 중좌 이토가 이노우에 공사에게 동학농민군 정벌을 위한 일본군 2개 중대의 경유지로 1개 중대는 수원·천안·공주를 거쳐 전주로 가고, 1개 중대는 병참선로와 평행하는 중앙의 도로인 용인·죽산·청주·성주를 거쳐 대구로 가는 계획을 알렸다. 동시에 조선 정부에서 일본 공사에게 일본군 파견을 요청하는 형식을 밟도록 하고 진무사(鎭撫使)와 조선군을 파견하면 일본군은 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을 갖게 되어 후일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7-148쪽).

일 용산수비대 53명이 괴산에서 보은으로 진군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3호 남부병참감부』, 1894.11.4).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가 보은에서 수회에 걸쳐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4명]가 곤양부근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을 죽였다.

일 마츠모토(松本) 군조부대(15명)가 보은지방으로 진군하였다.

### ■ 10월 8일 (양. 11월 5일)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의 등보(騰報)에 따라서, 동학도들에게 붙잡혀간 은진 현감 권중억(權鍾億)을 파출하고 그 대신 첨지중추원사 조병성(趙秉聖)을 임명하였다(『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일 오오츠카(大冢) 공병대 60명이 괴산부근에서 약 5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격퇴시켰다.

## 10월 9일 (양. 11월 6일)

- 충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지휘하는 장위영 병대의 규모가 장관(將官) 이하 1천 명이고 우마(牛馬)는 모두 60필이 되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7쪽).
- 충 안성 군수 겸 경리청 영관 성하영(成夏永)이 충청병영의 구원요청에 따라 경리청 병대를 거느리고 청주성(淸州城)으로 급히 간다면서,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장위영 병대와 약속을 해서 기일을 정해 함께 진군하고 지평현 민보군과도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두황은 음성과 괴산 등지에 비도가 모여 있다면서 진천에 있는 성하영의 경리청 병대도 함께 이들 지역으로 진군하자고 제의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6쪽).
- 충 연산, 진잠을 순찰하고 돌아오다가 공주 한밭에서 갑자기 비도 1만여 명을 만나 붙잡혀 불타 죽은 충청 병영의 영관 염도희(廉道希)와 장졸 72명에게 국사(國事)를 위해 죽었으므로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 주며,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 주고 그 가족들을 위무하고 구휼해 주는 등의 은전(恩典)을 베풀되 그 비용을 공전 중에서 넉넉하게 제급(題給)하게 하며, 생전의 신역(身役), 환곡(還穀), 군포(軍布)는 모두 탕감해 주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이 덕산군수 김병완(金炳琬)을 무기를 빼앗긴 죄로 파출하였음을 보고하였다(『官報』).
- 경 곤양의 일본군 파견지휘관인 대위 스즈키(鈴木)가 부산병참사령부에 보낸 보고에 따르면, 곤양 서쪽 10리 거리의 금오산(金鰲山)에 동학농민군이 다시 집결하는 것을 발견하고 세 방향에서 공격하여 5명을 살해하고 28명을 생포하였다. 진주 백곡촌(栢谷村)에서도 동학농민군 5-6백 명이 집합해서 점차 수가 증가하는 형세라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7-158쪽).
- 관 장위영 부영관(壯衛營 副領官) 겸 죽산진 토포사(竹山鎭 討捕使) 이두황이 동학농민군이 충주(忠州) 무극(無極) 장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토벌하기 위하여 미시경에 죽산부로부터 출발하여 행군을 하여 30리 정도 가서 음죽(陰竹) 돌원점(院店)에 이르러서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3-64쪽).
- 일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남부병참감 이토 중좌의 계획에 따라 일본군의 진행 노선을 알리고 진무사와 병정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진무사는 정부를 대신하는 위의(威儀)와 덕망(德望)이 있는 관리를 선발해서 일본병을 따라가며

관찰사와 부사 등의 관원을 독려하고 비당(匪黨)을 교도(教導)에 노력하여 귀순하도록 하는데 이들의 비용과 음식은 일본군대가 참작하여 보충한다고 하였다. 또 수명의 관원을 선발하여 일어(日語)에 통달한 사람 2, 3명과 함께 가는 곳마다 군수품과 군량을 비축하고 인부와 마필과 방사(房舍) 등을 준비하는 일을 전담하며, 별도로 이속(吏屬)과 순사를 대동하여 심부름과 조달(調達)에 종사시키도록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1쪽).

- 일 독립 후비보병 제19대대[동학농민군 토벌대]가 인천에 도착하였다.
- 일 인천수비대[2분대]가 가흥에 진군하였다(방위연구소, 『진중일지 제삼호 남부병참감부』, 1894.11.6).
- 일 낙동수비병 7명이 보은 사직리에 파견되어 조선인 2명을 사로잡아 낙도에 되돌아갔다.

#### 10월 10일 (양. 11월 7일)

- 기 이종훈과 이용구가 이끌던 경기도의 동학농민군들이 괴산읍(槐山邑)을 공격하였다. 경기도에서 남하하여 충주 무극장에 모여 있던 이들은 일본군과 충돌하고, 괴산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보은으로 출발할 즈음 괴산군수가 괴산 접주(接主)인 서모(徐某)를 타살하자 이에 분노한 그의 아들이 괴산읍에 불을 질러 관아와 민가 수백 호가 불에 탔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6-29쪽 ; 「天道教會史草稿」)
- 관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 이두황 군대가 20리를 가서 무극에 도착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이 괴산으로 옮겨 갔다는 소식을 듣고 20리를 행군하여 음성현(陰城縣)에서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3-64쪽)
- 관 선봉진이 유시경에 각 소대를 거느리고 관문 밖으로 나왔다. 날이 어두워져서 형편상 전진(前進)할 수 없어서 교도소(教導所)의 각 부대는 청파(靑坡)의 앞길에 머물렀다. 통위영의 각 부대는 송례문 밖에서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5쪽).
- 일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남부병참감 이토 중좌가 요청한 일본군 2개 중대의 도착을 알리면서 충청도 괴산·충주·청주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죽산·청주·충주 방면과 진천·청주 방면에서 포위 공격해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비괴록(匪魁錄) 1부를 보낸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2쪽).
- 일 일본 공사관에서 공주에 가 있는 일본군에게 괴산에서 하라다 소위 일행이 동학농민

군에게 패배한 사실을 알리면서 보은과 괴산 지역을 정찰하고 청주에서 새로 파견하는 일본군을 기다리도록 지시를 전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3쪽).

- ┌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가 낙동으로 되돌아 갔다.
-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5명]가 곤양 안심촌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6명을 죽이고 27명을 포획하였다.
- ┌ 일 대구와 낙동수비병(17명)이 보은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을 격퇴시켰다.

## 10월 초순

- ┌ 경 황간과 영동에 동학농민군 대군이 주둔한 후 황간·영동·옥천의 동학농민군들이 일제히 추풍령을 넘어와서 김산과 지례의 동학농민군과 함께 대부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전과 군수미를 강제로 헌납 받았다(『甲午以後日記』).

## 10월 11일 (양. 11월 8일)

- ┌ 전 전봉준은 북접에서 개최한 9월 18일의 청산대회 소식을 10월 11일 통보받았다(「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膽書」 『叢書』 10, 336쪽)\*.

\* 북접에서는 대회를 마친 다음 남접세력과 합세할 계획이었다. 10월 16일 일본군은 보은에서 체포한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최시형은 14일 청산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15, 16일에 걸쳐 2만 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규합한 후 황간, 영동을 경유하여 진주로 가서 전봉준과 합세할 계획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19쪽).

- ┌ 충 북접 교단에서는 10월 11일 청산에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64-65쪽 ; 「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5쪽, 50쪽).

- ┌ 충 보은 장내리에 집결했던 동학농민군이 청산방면으로 이동하여 황간과 영동으로 가서 나누어 주둔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5쪽).

- ┌ 충 경리청 병대가 청주성에 도착하였다. 경리청 영관 성하영이 이문(移文)에서, 경리청 병대는 순무영의 명령으로 장위영 병대와 함께 행군하지 못한다고 알려왔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9-33쪽).

- ┌ 충 서산군(瑞山郡) 예리(禮吏)가 전패(殿牌)를 지고 와서 해당 고을에서 비류가 변란

- 을 일으켜 군수(郡守) 박정기(朴鏡基)는 살해를 당하고 관청 건물은 완전히 불타 버렸다는 것을 알렸다(『承政院日記』).
- 충 전 안성 군수 성하영이 파직된 뒤에 연거푸 비류를 소탕하여 성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고 서산 군수(瑞山郡守)로 차하하여 중앙 군사를 그대로 거느리고 부임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 충 충청병사 이장희가 장계에서, 군물(軍物)을 잃어버린 목천 현감(木川縣監) 이수영(李秀永)을 우선 파출하고 도신이 관원을 보내서 압상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 경 부산의 일본총영사관에서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하동방면으로 파견한 부관 사이토(齊藤)가 돌아와 하동 일대의 동학농민군들은 전라도로 퇴각하였지만 진주지방 인민은 동학농민군의 진무에 크게 도움이 된 일본군이 당분간 주둔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晉州·昆陽地方 東學黨景況과 鎭撫狀況」 157-158쪽).
- 관 선봉진이 유시경에 각 소대를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과천읍(果川邑)에 도착하여 머물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5쪽).
- 관 선봉진이 각 소대를 통솔하여 문밖으로 나왔으나 날이 저물어 행군하기 어려워 교도소 부대는 청과 앞길에서 유숙하고, 통위영의 부대는 송례문 밖에 머물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5쪽).
- 관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 이두황이 동학농민군이 괴산의 한 성(城)을 불살라 함락시키고는 곧바로 청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청주로 출발하여 청안현(淸安縣)에서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4-65쪽).
- 일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서신을 보내서, 진무사와 군수품 및 군량을 관리하는 인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답이 없다면 매우 긴급한 일이라 지체할 수 없다고 속히 파견할 인원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2쪽).

#### 10월 12일 (양. 11월 9일)

- 전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부대가 10월 12일 삼례를 출발하여 은진에 도착하였다. 북상 당시 동학농민군은 약 4,000명이었고, 이들은 주로 전라우도의 동학농민

군이였다. 손화중과 최경선도 원래는 공주로 함께 북상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 내려온다는 정보를 접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 주둔하기로 했다(「南遊隨錄」『叢書』 3, 238쪽 ;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謄書」『叢書』 10, 336쪽 ; 「全琫準供草」『叢書』 18, 23-26쪽, 56쪽, 65쪽).

전 전봉준은 김개남에게도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개남은 49일을 채워야 한다는 참위설을 내세우며 남원에 머물렀다(「梧下記聞」『叢書』 1, 253쪽 ; 「全琫準供草」『叢書』 18, 325-326쪽, 375쪽)\*.

\* 일설에 의하면 김개남은 김씨가 왕이 되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 하였고, 이미 대신 이하 관료들도 임명해두었다는 소문이 있었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1月 3日 『叢書』 23, 136쪽)

충 충청도 위무사(慰撫使)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제관(朴齊寬)을 차하하였다(『承政院日記』).

충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지휘하는 1천 명의 장위영 병대가 청주성에 도착하였다. 충청병사 이장희가 장위영 병대를 성내 진남영에 들어가도록 군령을 내렸다. 안성 군수 겸 경리청 영관 성하영이 마중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叢書』 15, 32쪽).

정 경상도 위무사로 선무사 이중하를 이차(移差)하여 직접 여러 고을을 돌며 일일이 효유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관 선봉진이 미시경에 각 소대를 거느리고 술시경에 수원부에 도착하여 머물렀다(「巡撫先鋒陣謄錄」『叢書』 13, 8쪽 ; 「巡撫使呈報牒」『叢書』 16, 306쪽).

관 양호의 선무선봉진이 주력부대의 행렬이 출발할 것을 아뢰고 향도(鄉導)의 호송이 있어야 함으로 포군(砲軍)과 토병(土兵)중에서 대략 50여 명을 경계 지역으로 와서 기다리게 해놓고 차례대로 향도가 호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이것은 군대의 임무와 관련 되고 군법(軍法)이 있는 것이니 특별히 명령을 내려 군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관문이 도착한 일시는 신속히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巡撫先鋒陣謄錄」『叢書』 13, 7쪽).

관 진위 현령(振威縣令) 조문규(趙文奎)가 선봉의 주력부대가 진위현(振威縣)에 도착할 때의 숙소로 사용할 동헌(東軒)을 보수하여 청소하고 읍의 아전들을 정해 미리 탐문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제내(題內)에서는 경내를 깨끗이 정리하여 비도가 소요하는 폐단이 없도록 조치하고 행군하는 군대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방도를 취하라고 하였다. 또한 앞서 지적한 포군(砲軍)과 토병(土兵) 중에 그 소재지에 따라서

무기를 가지고 경계지역으로 와서 기다리게 하고 군대의 범물을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8쪽).

관 순무영에서 선봉장에게 일본군대가 내일 출발할 것을 알렸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8쪽).

관 과천현(果川縣)의 좌수(座首) 한여교(韓旃敎)·호장(戶長) 이응오(李應五)·지방(吏房) 김한영(金漢榮)에게 ‘해당 경내에 동학농민군들을 혹시라도 숨기고 발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곧 달게 군령을 받겠다’는 다짐을 받았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8-9쪽).

관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 이두황 군대가 청주성에 도착하였다. 경리청의 병사들이 먼저 도착해 있어서 함께 유숙하고 회의를 하여 계획을 정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64-65쪽).

일 남부병참감 이토 중좌가 인천병참사령부에서 증파되어온 후비보병 제19대대에게 내려줄 훈령과 일정표를 이노우에 공사에게 전해서 의견을 물었다. 다음날 제19대대장 미나미(南小四郎)에게 보낸 이 훈령에 따르면, 충청도 충주·괴산·청주에 군집한 동학농민군과 전라도·충청도 각지에 있는 동학농민군이 진압 대상이며, 1개 중대는 서로(西路) 즉 수원·천안·공주를 경유해서 전주로 내려가고, 1개 중대는 중로(中路) 즉 용인·죽산·청주를 거쳐 성주로 가고, 1개 중대는 동로(東路) 즉 병참선로를 따라 가흥·충주·문경을 거쳐 대구로 가는데 좌측은 원주·청풍, 우측은 음성·괴산을 엄밀히 수색하도록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3-156쪽).

일 인천병참사령관 이토(伊藤祐義)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파견대장에게 내리는 훈령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근거를 찾아내어 초멸할 것,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서울의 일본공사관으로 보낼 것, 동학농민군 거물급 사이의 왕복문서 또는 정부내부의 관리나 지방관 또는 유력한 측과 동학농민군 간에 왕복한 문서를 수집할 것, 그리고 파견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와 조달은 모두 일본 사관의 명령에 따르게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3-156쪽).

## 10월 12일 - 16일 (양. 11월 9일-13일)

충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는 논산(論山)에서 손병희가 이끌고 온 북쪽의 동학농민군이 전봉준 부대와 합류함으로써 논산에서 공주로 진격할 때에는 1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全琿準供草」 『叢書』 18, 25쪽, 73-74쪽;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5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1쪽).\*

\* 손병희가 논산에 진을 치고 있던 전봉준 부대와 합류한 시점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10월 16일 논산에 있던 전봉준이 충청 감사 박제순에게 보낼 때 10월 16일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의 명의를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16일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10월 13일 (양. 11월 10일)

충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지휘하는 1천 명의 장위영 병대가 청주성에서 출발하여 진남영 병대를 앞장 세우고, 경리청 병대를 후군으로 삼아, 상당산성과 미원(米院)을 거쳐서 보은으로 향하였다. 미원에서 이두황이 효유문을 공포해서, 동학농민군의 죄를 관부의 허락 없이 경기도에서 병란을 일으킨 것, 도법(道法)으로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 국가의 과세를 완납하지 않은 것, 임금님의 걱정을 생각하지 않은 것, 헐박해서 억지로 백성을 끌고 가는 것, 평등을 가칭해서 명분을 훼손시킨 것, 기이한 말과 괴이한 일로 백성을 현혹시킨 것, 술수를 쓰고 인의를 외면하는 것, 무리를 모아 지역에 할거하는 것, 함부로 천지의 운수를 말해서 역모를 한 것 등 10가지 죄목을 나열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33-35쪽).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이 서계에서, 결성 현감 박기봉(朴基鵬)을 병부견탈죄(兵符見奪罪)로 파출한 것을 보고하였다(『官報』).

강 차기석(車箕錫)·박종백(朴鍾伯)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13일 밤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東倉)을 불태우고 대장 차기석과 접주 박종백은 강릉 좌운(坐雲)으로 갔다(『東匪討論』 『叢書』 12, 143쪽).

정 고종이 교서를 내려, “비도가 때를 타서 일어났건만 나는 백성들이 죄 없이 전란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무마하고 타일렀다. 그런데 끝내 죄를 뉘우칠 줄을 모르고 날로 더욱 창궐하고 심지어 관리를 죽이고 백성을 해치며 고을을 피폐하게 만들기까지 하므로 조야(朝野)가 다 같이 분격하면서 모두들 토벌하지 않고서는 악(惡)을 징계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가는 곳마다 적을 쓸어버리되 그 괴수는 죽이고 헐박에 못이겨 추종한 자들은 풀어 주라고 명하였으니, 그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비도를 죽이려는 것으로서 어찌 중지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면서 동학농민군의 강경 진압을 명령했다(『日省錄』).

관 진시경에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 이두황 군대 본진(本陣)이 경리청·진남영 부대와 합세하여 보은 장내리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향해 갔다. 접주 백학길을 붙잡아 효수하였다. 미원점(米院店)에 도착하여 경리청의 장졸들은 그대로 미원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뒤에서 호응하기로 하였다. 본 진영과 진남영 장졸들은 행군하여 오경(五更, 오전 3-5시)즈음에 보은의 구현 영점(龜峴嶺店)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고개 길은 험하고 골짜기는 깊숙하고 또 한밤중이어서 동학농민군들의 실정을 예측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군사를 머물게 하고 밤을 지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4-66쪽, 98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4-315쪽).

일 동학농민군 토벌 전담부대인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가 공사관과 남부병참감의 훈령을 받고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 충청도 일대에서는 조선정부군과 지방관의 협조를 얻어 전투를 수행했으며 공주성전투 이후 퇴각하는 동학농민군과 격전을 벌이며 전라도일대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65-68쪽).

일 일본공사 이노우에가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군 낙동 병참부에서 9월 25일(양력 10월 23일) 정탐을 하기 위하여 충주지방으로 파견한 군조(軍曹) 야마무라(山村熊松), 가타야마(片山嘉一郎), 구보(久保岩吉)와 통역관 우에노(上野棄次郎), 조선 역부(役夫) 선경찬(善敬贊)이 10일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별도로 정탐을 보내 청안현 부근에서 동학농민군에게 살해된 소문을 들어온 사실을 전하고, 충청 감사에게 해당 지방관에게 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6-157쪽).

일 인천수비대 스즈키(鈴木)부대가 충청도 수촌(壽村)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3명을 죽이고 21명을 사로잡았다.

## ■ 10월 14일 (양. 11월 11일)

전 14일 저녁 김개남 부대가 남원을 출발하여 임실에 도착하였다. 임실에 당도하자 현감 민충식(閔忠植)이 환영하였다. 민영준의 조카인 그는 김개남이 상이암에 있을 때 찾아가 동학에 입도하고 결의형제까지 맺은 바 있다. 이때 김개남부대는 총통을 가진 자가 8천 명이었고 치중(輜重)이 백 리를 이었다고 한다(「梧下記聞」 『叢書』 1, 253-254쪽 ; 「嶺上日記」 『叢書』 2, 288-289쪽).

충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지휘하는 1천 명의 장위영 병대가 보은 장

내리를 들이쳐서 마을을 불태웠다. 장내리는 동네의 민가가 즐비하고 주산 아래 새로 지은 큰 집이 있는데 최범헌이 거처하던 곳이었고, 마을 앞 공한지에는 초막 4백여 처가 있는데 그 사이를 수색해서 징과 북 그리고 창과 몽둥이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2-43쪽).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이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삼례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공주성 아래 도착했다면서 원병이 없는 공주성에서 믿는 곳은 오직 일병(日兵)뿐이지만 아무리 만류해도 일병과 관군까지 철수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외무대신이 군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써서 공주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63쪽).

경 진주 서쪽 30리 지점의 수곡촌(水谷村)에 집결한 동학농민군 4-5천 명을 대위 스킨키가 이끄는 일본군이 공격해서 오전 8시 5분 전투가 벌어졌다. 동학농민군은 산과 들에 가득 찼는데 절반이 산 북쪽으로 퇴거하자 일본군이 1개 소대로 산위를 공격하여 방어진지로 삼은 보루를 빼앗았고, 좌우에도 1개 소대씩 공격하게 하였다. 일본군은 3명만 부상을 당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은 186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마침내 서북 방향의 덕산으로 퇴각하였다. 일본군은 화승총 136정, 탄환 약 5관, 칼 18자루, 창 54자루, 나팔 3개 등과 화약 약 30관, 말 17마리, 소 2마리, 돈 6관 7백 90문을 노획해서 배편으로 부산 총영사처로 가져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4-206쪽).

기 이천의 동학농민군 서수영(徐壽永)·조인윤(趙仁尹)·원석만(元石萬)·김석재(金石才) 등이 보은 구기점(龜基店)에서, 안성의 동학농민군 박공선(朴公善)은 보은 풍취점(風吹店)에서 각각 이두황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1쪽).

정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써 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문을 정식으로 공식 문자로서 공인하였다(『官報』).

관 성하영이 신시 경에 청주에 도착하여 머물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6쪽).

관 선봉장에게 전령을 보내 인자(人字) 군막(軍幕) 18부(部)를 별무사(別武士) 허준(許俊)을 시켜서 거느려 보내고 숫자를 대조해서 받고 이 중 9부는 교도소에 보내주고 그 나머지 9부는 통위영에 주어 배치하여 쓰도록 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2-13쪽).

관 전일(13일) 이두황이 이끈 군대가 새벽에 고개를 넘어서 아침을 먹었다. 진남영 병사들은 곧바로 보은읍으로 가서 주둔하였고, 본 진영의 장졸들은 곧바로 장내리

로 들어갔다. 온 마을을 수사하여 세 놈을 잡아서 즉시 처단한 뒤에 임시막사와 집들을 다 태우고 소굴을 소탕하였다. 그 후 보은읍에 도착하니 3개 진영의 장졸들이 모여서 주둔하여 유숙하고 있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4-66쪽).

일 일본은 한성에서 부산간 선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인 기사를 보냈다(『統署日記(3)』 443-445쪽).

일 일본공사관에서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 장교에게 동학농민군에 관한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 충청도 천안으로 파견한 조선인 최윤화(崔胤華)의 편의를 보여주라고 지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61쪽).

일 부산수비대[1·2·3소대]가 진주 부근 수곡촌에서 약 1,500명의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여 3명이 부상당하고, 동학농민군 186명을 죽이고 2명을 포획하였다.

## 10월 15일 (양. 11월 12일)

전 김개남이 임실을 떠나 전주로 향하였다. 이때 임실 현감 민충식은 행군도성찰(行軍都省察)로서 군복을 갖추어 입고 말에 올라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였다.

충 ‘공주창의소(公州倡義所) 의장(義將) 이유상’이 충청 감사 박제순에게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유상은 “감히 물건대 청나라를 막자는 것인가 일본을 막자는 것인가 의병을 막자는 것인가. 청나라를 막자는 것은 대의(大義)를 멸시하는 것이고, 의병(義兵)을 막자는 것은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 일본을 막자는 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누군들 이러한 마음이 없었겠는가”라고 하였다(『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騰書』 『叢書』 10, 335-336쪽).

충 일본군 문경병참부의 소좌 테와(出羽)가 인천병참사령부의 이토 중좌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충청도의 동학접주 명단 보은 최시형(崔時亨)·황하일(黃河一)·강영석(姜永奭), 회인 유일수(柳日秀), 회덕 김복천(金福天), 충주 성두환(成斗煥), 옥천 박석규(朴石奎), 문의 오일상(吳一相), 청산 이국빈(李國賓), 청주 서일해(徐一海), 영동 손광오(孫光五), 황간 조경환(趙景煥)과 함께 청주에서 지난 달 23일부터 서일해가 수십만 군중을 인솔하고 성을 포위하고 있으며, 최법현은 지금 청산 문암리에 살고 있는데 보은 장안에 모여 40여 리를 연락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

충 동학농민군이 저녁에 연기 관아에 들어가 무기를 탈취하고, 현감 김광현(金光鉉)이 연산 부자라고 이름이 나서 붙잡아 은진으로 갔다. 현감 김광현은 통인을 대

- 신 인질로 두고 250냥을 준 다음에 돌아왔다고 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56쪽).
- 경 경상감영의 남영병 일대 120여 명이 영관 최치규의 지휘 아래 이날 대구를 출발해서 현풍(16일)·창녕(17-19일)·의령(20일)·고령(21일)을 순회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447-453쪽).
- 황 평산 부사에 따르면 15일 평산 누천(漏川)에 동학농민군 300여 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우리들이 모인 것은 부사나 일본군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따로 협의할 것이 있어서이다. 이것을 일본군에게 통보하면 매우 귀찮아 진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디에서도 집합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며 해산하였다고 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15쪽).
- 관 남양(南陽)·안산(安山)·용인·죽산·안성·양성·천안에 관문을 발송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3쪽).
- 관 양호의 순무선봉진이 주력부대의 출발의 의의를 설명하고 공문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상고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3쪽).
- 관 순무영에서 선봉장에게 전령을 보내 ‘공주의 동학농민군이 몹시 방자하게 날뛰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니 지원을 늦출 수 없다’고 하고 즉시 전진해 섬멸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일의 사정을 보고하게 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9쪽).
- 관 선봉진이 일본 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수원부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음을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21쪽).
- 관 선봉진이 사또가 적어 보내준 공고문 몇 부를 베껴 공문으로 기호(畿湖)의 각 고을에 명령하여 거리에 게시할 것을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21-22쪽).
- 관 선봉진이 진시에 휘하의 각 소대가 일본 군대와 함께 행군을 하여 유시 경에 진위현에 도착하여 유숙하고 식사를 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39쪽).
- 관 선봉진이 술시 경 에 군사를 거느리고 성환역(成歡驛)에 도착하여 무사히 숙박하였다. 진시 경에 천안을 향해 출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45-46).
- 일 진시 경에 일본 부대가 과천읍에 내려와서 읍참(邑站)에서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52-53쪽).

일 후비보병 제19대대가 서울 근교 용산(龍山)을 출발하여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다(井上勝生, 앞의 논문, 2002, 321쪽).

## 10월 중순

전 김개남이 자기 휘하의 중간 지도자인 남응삼에게 10월 순경(旬頃) 기병할테니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하였다. 이때 남응삼의 서기(書記)는 김개남을 ‘오합지졸서절지장(烏合之卒鼠竊之將)’이라 하며 출전하자마자 패배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甲午略歷」 『叢書』 5, 422-427쪽).

전 15일 이후 광주에 있던 손화중이 흥덕, 고부, 무장, 정읍, 고창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동원하여 오권선이 이끄는 나주 동학농민군과 함께 나주 동쪽 20리 지점인 침산(砦山)과 송정리 옆에 있는 선암(仙巖), 북쪽인 용진산(聳珍山) 일대에 진출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315쪽 ; 「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276쪽)

## 10월 16일 (양. 11월 13일)

전 전봉준부대가 논산과 노성 일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55쪽).

전 김개남 부대가 전주에 도착하였다(정창렬, 앞의 논문, 1991, 259쪽 ; 『古文書』 2, 415쪽). 신원(新院)에 도착했을 때 순천 부사 이수홍(李秀弘)과 고부 군수 양필환(梁弼煥)을 만나자 군수전을 염출할 목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전주로 끌고 가 진중에 가두었다. 결박당한 이들은 각기 30대, 10대의 곤장을 맞았다. 김개남은 이들에게 군수전 10만 냥과 백목 1백 동을 마련하여 5일 내에 실어 오라고 하였다. 순천에서는 전목(錢木)을 마련하여 20일에 실어다 바치고 살아났으나 고부 군수 양성환은 저항하다 매를 맞고 풀려났으나 장독으로 사망하였다(『承政院日記』).

전 공주공격을 앞둔 전봉준은 남북접 동학농민군이 합세한 직후인 10월 16일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의 자격으로 골육상쟁을 피하고 항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관군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충청 감사 박제순에게 보냈다(「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膽書」 『叢書』 10, 337-338쪽).

전 강진병영이 동학농민군 도소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세우자 인근 동학농민군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동학농민군 천여 명이 장흥 사창 장터에 모였으며, 영암 덕교(德橋)와 강진 석전(石塵) 장터서도 각기 집회하기 시작하였다(「日史」 『叢書』 7, 486쪽).

-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이 비장(裨將)을 통해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관문을 보내 호남 비류가 은진에 들어와 있으니 즉각 병대를 거느리고 공주성으로 와서 함께 방어할 것을 요청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9쪽).
- 경 의정부에서 영남소모사로 전 승지 정의목을 임명한 의정부의 관(關)이 경상감영을 거쳐서 이날 도착하였다. 창원 부사 이종서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것은 도입하기를 기다려서 상의하도록 하였다(「召募事實」 『叢書』 11, 227-228쪽).
- 기 회인읍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있던 이두황 휘하의 관군에게 보은·안성·이천 등지에서 온 동학농민군과 함께 용인 천곡(泉谷)에 사는 이청학(李靑學) 등 동학농민군 7명이 체포되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6-51쪽).
- 관 충청병영에서 보은으로 행군한 장위영 영관 이두황과 경리청 영관 성하영 그리고 진남영 영관에게 전령을 보내서, 지금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노성과 논산으로 북상해 왔는데 그 세력이 크다며 부득불 가서 구원해야 하니 급히 회진(回陣)하라고 하였다. 이두황은 진남영과 경리청 장졸이 금일 문의에 머물고, 장위영 장졸은 회인에 머물며 장차 공주로 향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47-48쪽).
- 관 과천 현감에게 감결을 보내 일본 군대가 과천현에 머물고 있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군대의 사무와 관계되는 일을 행진소(行陣所)로 급히 보고할 것을 지적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23-24쪽).
- 관 선봉진이 진시에 각 소대를 이끌고 일본 병사와 함께 유시 경에 진위(振威)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32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8쪽).
- 관 충청도 신창현감(新昌縣監) 최재학(崔在鶴)이 충청도의 초입(初入) 경계지인 평택현(平澤縣)에서 기다릴 것을 보고하자 “내일 마땅히 출발할 것인데 앞의 진로는 평택·직산 두 곳 중에 아직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니 칠원점(柒原店) 등지에서 다시 탐문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25쪽).
- 관 충청도 관찰사 겸 순찰사(巡察使) 박제순이 상고하여 ‘충청도 감영(監營)에 급한 일이 정확하게 17일에 있다고 하니 동학농민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귀군(貴軍)은 13일 오전에 우리 진영(陣營)에 당도하여서 함께 위험에서 구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요구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27쪽).
- 관 위의 요구에 양호순무선봉진에서는 “①본진이 수원부에 유숙하는 것은 순무영의

명령이며 ②충청감영이 지정한 우환이 있을 것 같은 기한이 이미 지나갔다. ③일본 군대 3개 중대가 지금 부(府)에 들어올 것이므로 내일 새벽에 재촉하여 가서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28쪽).

관 제내(題內)에서 일본 군대가 평택읍에 숙소를 정하고 음식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록에 의거해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올리라고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29-30쪽).

관 진위 현령이 16일 사시에 도착한 관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을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거리에 붙였다. “주력부대가 화부(華府, 현 수원)에 와서 주둔한 것은 곧 은혜와 위엄으로 하여 비류를 온당하게 평정하는 일이다. 본 읍의 경내에 이러한 무리들의 행적이 요즘은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다. 만약 알아듣게 타일러 귀화하게 하되 한결같이 곧바로 무기를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본 읍에서 각별히 섬멸하고 토벌하되 거괴(巨魁)를 부대로 잡아들이고,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는 해당 지역에 편안히 살게 하되, 만일 읍의 세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즉시 급히 보고하여서 병사를 나누어 보내 토벌할 것이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32-33쪽).

관 진위현 잔달리(棧達里)에 사는 민공익(閔孔益)·한홍유(韓弘儒)·김명수(金命壽) 3명을 ‘동학에 물드는 자’라고 하여 체포하여 압송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철저히 캐어 실상을 파악하여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33-34쪽).

관 직산 겸임 평택 현감(平澤縣監)과 신창현감 겸 운량관에게 감결을 보내 17일 군대와 일본군대가 성환참(成歡站)에서 유숙할 것을 전하였다. 또한 숙소와 물건을 마련해 올리는 일은 후록(後錄)에 의거하여 낱낱이 준비하도록 지시하여 때를 당하여 황급해 하는 폐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34-35쪽).

관 참모관·별군관이 공고문 2통을 10월 16일 오시에 진위와 직산의 관가에 도착하여 국한문으로 번역을 하여 각 마을에 게시하게 하였다. 또한 진위에서 동학농민군이 귀화하였다고 보고하고 향약절목(鄉約節目)과 5가(家)를 1통(統)으로 만든 문서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동학농민군이 갔는지 안 갔는지 또는 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사람씩 사실대로 기록하여 주둔한 진영에 보고하라는 뜻을 해당 현령(縣令)에게 지휘했다고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37-38쪽).

관 선봉진이 일본군 한 부대와 17일 천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며 일본 군대 87명과 소위(少尉) 1명 및 경군과 잡대(雜隊) 43명까지 모두 교장 황수옥(黃水玉)으로

하여금 통솔하여 평택·아산 등으로 향하게 하고 또한 천안에서 만나서 출발하자고 약속한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휘하의 각 부대들은 미시 경에 칠원점에서 점심을 먹고 술시 경에 성환역(成歡驛)에서 머물러 유숙하였다고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39-40쪽).

관 천안 군수 김병숙(金炳塾)이 ‘몇몇의 동학농민군이 스스로 군사 진영(陣營)이라 일컫고 포악하다’고 보고하자 특별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40-41쪽).

관 경리부영관(經理副領官) 겸 안성 군수 홍운섭에게 주력부대가 장차 성환·천안을 향해 출발한다고 알렸다. 또한 ‘본진(本陣)이 통솔하는 각 부대와 일본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몇 곳으로 파견하여 보내고 나면 이곳은 또 허술할 우려가 있으므로 20일 쯤 천안지역에 먼저 도착하여 상황에 따라서 응접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43-44쪽).

관 충청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적의 형세가 급박하고 엄하나 초겨울 날씨에 춥고 먹을 것이 적어서 길을 가다가 대부분 도망을 가니, 만약 지금 군대를 진군시키면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빨리 올 것을 청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44-45쪽).

관 이두황이 이끈 군대가 청산·영동 등지를 향해 출발하여 회인현(懷仁縣)에서 유숙하였다. 도집 유흥구, 윤경선, 접사 이승일, 우범선을 효수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5쪽, 98-99쪽).

관 부군관(副軍官) 겸 경리청 부영관 안성 군수 홍운섭이 읍에서 출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96쪽).

## 10월 17일 (양. 11월 14일)

전 17일 김개남은 남원 부사로 임명되어 내려오던 이용헌(李龍憲)을 전주에서 체포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이용헌은 남원에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성을 탈취하라 부추겼으며, 또한 운봉 박봉양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동서에서 협공하자고 밀계까지 꾸몄다. 김개남은 이런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극구 부인하였다. 그런데 옷깃에서 기밀문서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임금이 소모사에게 내리는 동학농민군 토벌 명령서였다. 분노한 김개남은 신임 남원 부사를 처단하고 말았다(『梧下記聞』 『叢書』 1, 257쪽).

- 경 영남소모사 정의목이 상주목의 공형과 수교에게 전령을 내려서 성내를 각별히 방수하고 영리한 교졸을 파견하여 비류의 소재를 정탐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상주 집강소에도 전령을 내려 붙잡은 비류는 이름을 들어 보고하고 처분은 소모사의 부부를 기다리도록 하였다(「召募事實」 『叢書』 11, 228-229쪽).
- 기 면주전(綿紬塵) 시민(市民)들이 엽전 400냥, 내어물전(內魚物塵) 시민들이 200냥, 외어물전 시민들이 200냥, 청포전(靑布塵) 시민들이 300냥, 전 부사(府使) 조진태(趙鎭泰)가 500냥, 전 군수 천일성(千一成)이 2000냥, 전 사과 이성로(李聖魯)가 200냥을 군수(軍需)에 보탬이 되도록 양호도순무영에 바쳤다(『承政院日記』).
- 관 일본 병사 200명이 미시 경에 과천현에 도착하여 숙박을 하고 난 뒤에 수원부로 향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49-50쪽).
- 관 안산에 순무영의 공고문 1통과 본진(本陣)의 공고문 1통의 관문(關文)이 신시에 도착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50-51쪽).
- 관 일본군사와 관병이 평택현에서 숙박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51쪽).
- 관 이두황이 이끈 군대가 충청도 감영의 구원 요청으로 회인현에서 출발하여 공주 부강점(美江店)에 이르러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65-66쪽).
- 관 순무선봉진이 천안읍에 도착하였고, 일본 병사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1쪽).
- 일 이노우에(井上馨) 공사, 인천병참감과 협의하여 동학농민군이 강원, 함경도 방면(러시아 접경지역)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서울수비대 가운데 1중대를 19대대의 동로분진대에 합류시켜 동학농민군을 서남으로 몰아 붙이는 작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방위연구소,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 全 暴民』).
- 일 군로조사대호위대[桑原부대. 이하, 군로조사대]가 용산을 출발하였다.
- 일 일본군 원산수비대 1개 소대가 함경도 함흥 정평 등지를 순찰하기 위해 출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77쪽).
- 일 제19대대 본대가 진위에서 천안·공주로 진군하였다.
- 일 하시다(橋田)부대[부산수비대]가 낙동에서 충청도 괴산·보은지방으로 1소대를 파견하였다.

## 10월 18일 (양. 11월 15일)

- 충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장위영 병대를 이끌고 연기 봉암에 머무를 때 죽산 포교가 순무영 전령을 가지고 왔는데, 이두황의 장위영 병대가 지체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군율을 엄히 시행한다면서 시급히 나아가 초멸토록 하라고 명령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52-53쪽).
- 기 경기도 광주에서 남대희 구태연 심상현 등이 부당하고 가혹한 조세에 반대하여 9월 이후 여러 차례 조세의 감면을 지방관에게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체포되었으나, 관아로 연행되는 도중 촌민들에 의해 탈취되었다. 10월 16일 광주에 들어온 일본군에 의해 18일 체포되었다. 일본 영사관측에서는 이들이 동학농민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4-179쪽).
- 관 선봉진이 술시 경에 병사를 거느리고 성환역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8-309쪽).
- 관 장위영 부영관 죽산도호부사(竹山都護府使) 겸 죽산진토포사 이두황이 연기의 봉암동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0-311쪽).
- 관 장위영 영관이 연기에서 유숙하면서 전진할지 말지 명령을 기다렸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62쪽).
- 관 주력 부대가 성환·천안의 등지로 출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1쪽).
- 관 모로원(毛老院)에 주둔하고 있는 성하영의 군대가 충청감영으로 갔다. 안성 군수 홍운섭이 금강진(錦江津)에 도착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3쪽).
- 관 순무선봉진에서 안성 군수 홍운섭과 영관 구상조(具相祖)에게 명령하여 경천점(敬川店)으로 가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3쪽).
- 관 별군관 최일환(崔日煥)이 직산의 동학농민군 김성범(金聖凡)·신일석(申日石) 및 해당현 마산(馬山)의 황성도(黃聖道) 3명을 체포하였다. 김성범·신일석을 포살하고 황성도는 수원의 중영(中營)으로 이송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5쪽).
- 일 이노우에(井上馨) 공사가 제 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쇼시로(南少四郎)에게 서울 수비대의 파견을 통지하고, 제 19대대의 각 분진부대에게 제 18대대가 쫓아갈 때까지 행진을 멈출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선군 교도중대에게도 경기도 양지에서 기다렸다가 제 18대대와 함께 행동할 것을 명령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455쪽).

일 일본군 1 지대(枝隊) 해당 대위가 거느리고 진위읍에서 안성으로 갔다. 황수옥이 일본 병사 87명, 소위 1명 및 서울 병정과 잡색(雜色) 43명은 거느리고 평택과 아산 등지로 갔다. 천안 땅에서 회동하였다가 출발하기로 약속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8쪽).

일 용산수비대[飯森부대]가 충청도 청천에서 동학농민군 2명을 죽이고 일부 가옥을 불태웠다.

### 10월 19일 (양. 11월 16일)

충 10월 19일 무렵 은진, 노성 사이에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분주하였고, 노성의 창고미를 경천으로 옮기는 것이 관군에게 발견되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62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81쪽).

관 충청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여 ‘남쪽 동학농민군의 우환이 급하여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일차로 침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산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여 우선 공주에 도착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53-54쪽).

관 아산현에서 15일 묘시 경에 발송하여 18일 오시 경에 도착한 순무영의 공고문과 진영(陣營)의 공고문을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베낀 뒤에 각 마을에 게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55-56쪽).

관 선봉진이 진시 경에 천안으로 갔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09쪽).

관 선봉진이 유시 경에 천안군에 도착하여 각 부대가 무사히 유숙하였다. 곧바로 출동하여 그 지방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나 안성에서 향해오는 일본 군대 대위(大尉)가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함으로 천안군에 머물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57-58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0쪽).

관 부군관 겸 경리청 부영관 안성 군수 홍운섭이 공주목에 도착하였다. 전 영관 성하영이 이끄는 1개 소대와 서로 교대하여 대신 통솔하고 잠시 공주목에 주둔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94쪽).

관 이두황이 감성(紺城) 입구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3쪽).

일 이노우에(井上馨) 공사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제18대대 가운데 1중대를 제

19대대의 동로분진대에 투입시킬 것을 결정하였다(방위연구소,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 全 暴民』).

- 일 서로군[赤松]부대의 1소대와 2분대가 아산 도착하였다.
- 일 부산수비대[藤田부대, 37명]가 충청도 청산 오리동 근처의 촌락을 불태웠다.
- 일 용산수비대[飯森·福富부대]가 충청도 보은 근처에서 동학농민군 14명을 죽였다.
- 일 가흥수비병[酒井정찰대]·제8대대일부[馬場부대]가 무극동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다.

### 10월 20일 (양. 11월 17일)

- 전 나주 목사 민중렬이 손화중 부대가 나주를 공격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성군에게 출전명령을 내렸다. 선봉장에 김창균, 우군 정석진, 중군 김성진 등이 이끄는 6백여 명의 포군이 침산 동남쪽 5리 지점인 석현리에 당도했다(『錦城正義錄』 『叢書』 7, 22쪽 ; 「蘭坡遺稿」 『叢書』 8, 121쪽).
- 전 남원에 살던 운봉의 전 군수였던 양한규(梁漢奎)가 10월 20일 사인(士人) 장안택(張安澤)과 정태주(鄭泰柱) 등과 공모하여 운봉 박봉양을 부추겨 김개남이 떠나고 없는 남원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24일에 민보군 2천 명을 동원하니 남원성은 거의 비어 있어 싸우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다.
- 충 충청병사 이장희가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감결을 보내서, 목천 세성산(細城山)에 둔취(屯聚)한 비도를 초멸하기 위해 내일 출진하고 진남영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니 약속해서 함께 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두황은 충청감영에 청주의 충청병영에서 지시한 세성산 비도의 초멸을 말하고, 경리청 병대가 공주성을 방수할 것이니 장위영 병대는 서울 가까운 적을 먼저 격파하고 남하할 것이라고 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59쪽).
- 기 소모관 지평 현감 맹영재가 죽산의 동학농민군 박성익(朴性益), 접사 최계팔(崔齊八), 이춘오(李春五), 장태성(張太成) 등 4명을 효수하였다(『承政院日記』).
- 강 20일경 영월, 평창, 제천, 청풍 지역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정선으로 몰려들었다. 정선군수는 도주하였고, 동학농민군들은 이방을 머리를 베고, 9월에 강릉에서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 강릉을 공격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정선 여량의 동학

농민군 지도자 지왈길과 이중집은 강릉과 임계 지역의 부자들을 잡아들여 재물을 약탈하였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59쪽).

\* 「동비토론(東匪討論)」에는 3천 명이 정선읍에, 1천 명이 평창 후평에 모여 있었다고 하였다(『叢書』 12, 146쪽).

관 유시 경에 안성을 향해 간 일본 병사를 대위가 통솔하여 도착하였다. 일본 병사 3분대를 금영에 파견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58쪽).

관 충청도 관찰사가 서산 군수 성하영이 감영에 도착하였고 안성 군수 홍운섭이 금강(錦江) 나루터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선봉진에서 안성 군수와 영관 구상조에게 명령하여 동학농민군들을 토벌하도록 요구하고 ‘공주의 경천점으로 가서 주둔하도록 명령하여 노성에서 운반해 오는 쌀을 빼앗아 군량미로 삼게 하라’고 요청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59-60쪽).

관 충청도 온양(溫陽)에 14일 술시에 보낸 관문과 공고문이 19일 인시(寅時, 오전 3-5시) 경에 도착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60-61쪽).

관 경리청 전 영관인 서산 군수가 18일에 공주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잠시 20리쯤 물러나 모로원에 머물렀다. 동학농민군이 공주·유성(維城)·대전(大田) 등의 지역과 청주의 관군이 패전한 곳에 또 수 천 명이 모여 있는데 장위영 영관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이 지역 근처로 전진하도록 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62쪽).

관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 이두황에게 연기에서 동학농민군이 출몰함으로 감성의 입구 등지로 옮겨 주둔하여 동학농민군들을 막고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지나쳐갈 우환을 끊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충청도 감영이 지원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68-69쪽).

관 출정한 이두황의 군대가 묘시에 도착한 청주병영의 감결 내용 “목천 세성산에 주둔해 있는 동학농민군을 빨리 토벌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시 경에 행군하여 청주 송정리(松亭里)에서 유숙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81-83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0-311쪽).

일 부산수비대[1소대]가 하동의 섬거역 부근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2명을 죽였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5명]가 하동의 남쪽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격퇴시켰다.

일 대구수비병[酒井정찰대, 17명]이 충청도 무극동에서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다.

일 대구수비병[馬場부대, 1대대]이 충청도 무극동에서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다.

일 용산수비대가 경기도 이천·곤지암 부근의 동학농민군 수명을 사로잡았다.

### 10월 21일 (양. 11월 18일)

전 광주 침산(砮山)에 진을 치고 나주공격을 노리고 있던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700여 명은 정오 무렵부터 나주 수성군의 공격을 받고 하오 2시경 본대가 있는 선암으로 후퇴하였다(『錦城正義錄』 『叢書』 7, 22-23쪽 ; 『蘭坡遺稿』 『叢書』 8, 122쪽).

충 죽산 부사 겸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 병대가 목천 세성산에 있는 동학농민군 주둔지를 기습해서 점령하고 허다한 무기와 군량 등을 빼앗았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71쪽).

충 충청감영에서 관문을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보내서, 충청병영에서 오인하여 장위영 병대를 세성산으로 진병(進兵)하게 하였는데 병영의 절제를 받는지 순무영의 절제를 받는지 책망하였다. 도내의 봉기 상황을 보면 목천과 같은 부류는 어디에나 있지만 전주를 함락한 전봉준이 최대이고 공주는 가장 중요한 대로의 요충이며 적지(敵地)가 백리 이내라서 하루 반이면 닫는 곳이라고 하였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69-70쪽).

경 영남소모사 정의목이 열읍(列邑)과 상주 각 면리에 방유문(榜諭文)을 보내서, 임금님의 뜻으로 순무영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동학농민군을 초토하고 있는데 영남에서 의려(義旅)를 규합하여 소탕의 책임을 맡은 것을 밝히고, 다음 9개 조목의 소모절목(召募節目)을 발표하였다. 1.소모사의 임무는 오로지 의려를 규합해서 비류(比類)를 소탕하는데 있는데 대소민인을 물론하고 비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모두 양민이니 마땅히 의려가 되어야 한다. 2.양민이 비류에 들어간 까닭은 하나가 아니지만 각기 들어간 연유를 말하고 명첩(名帖)과 염주 등을 가지고 본 군문에 와서 정의 대열에 들어오면 기왕의 잘못은 허물하지 않는다. 3.비류가 자만(滋蔓)한 것은 접주가 피란·면군역·질병 치료·내세 부귀 등으로 피였기 때문인데 귀화 이후 이에 연연하면 붙잡아 효수하고 그 집을 불태우고 전택(田宅) 재산을 몰입하며 그 이웃과 친척을 연루시킬 것이다. 4.귀화자가 접주가 숨은 곳을 알려거나 잡아오면 논상을 하겠다. 5.거괴를 잡아오면 중상(重賞)을 한다. 6.사족과 관속가담자들이 빨리 잘못을 고치면 능력에 따라 소모영에서 직임을 맡긴다. 7.귀화 이전에는 소탕이 급무이고 귀화 이후에는 비어(備禦)가 긴급하니 한가지로 군문의 절제를 받

아야 한다. 8.지난번 상주읍의 변란시에 망실한 무기를 가져오면 실심으로 귀화한 것이니 우려하지 말라. 9.본 군문과 각 읍 관속이 귀화한 사람에게 공갈하고 토색하면 군율로 다스린다(「召募事實」 『叢書』 11, 230-237쪽).

관 홍천과 가까이 있는 경기도 지평의 감역 맹영재가 포군을 이끌고 홍천의 동학농민군을 향해 진격해 왔다. 이에 맞서 동학농민군이 경기도에서 홍천으로 들어온 맹영재 부대와 장야평에서 접전을 벌였다. 동학농민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솔치재를 넘어 서석으로 후퇴하였다(「甲午實記」 『叢書』 6, 323쪽 ; 『承政院日記』).

관 윤영렬(尹英烈)의 아들 유학 윤치소(尹致昭), 출신 조중석(趙重錫)을 우선 본인의 별군관으로 차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0쪽).

관 천안에 동학농민군이 많이 출몰함으로 군관(軍官)과 병사를 파견해 보냈다. 또한 잘 기찰하고 정탐하여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낱알이 붙잡아 들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72쪽).

관 신창(新昌)에 순무영의 공고문·선봉진의 공고문 2통을 번역하여 각 마을에 게시하는 일에 대한 관문(關文)이 도착하였다. 신창현감이 공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국한문으로 베껴 배포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73-74쪽).

관 전의(全義)에 진영(陣營)의 관문이 도착하였다. 관문을 번역하여 베껴서 백성들에게 배포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74-75쪽).

관 진위 현령이 도착한 관문 내용에 의거하여 갇혀 있는 죄인 민공익·한홍유·김명수 등을 모두 각 관정(官庭)에서 엄하게 문초하였다. 한편 그들이 진술한 것을 그 행적과 비교해보면 체포된 3명은 사실대로 얘기 했을 뿐이고 고의적으로 중죄를 지은 자들은 아닌 듯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내(題內)에서는 빨리 자수를 하고 “만일 혹시라도 한결같이 도망만 다닌다면 더욱더 고의로 저지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여 자수를 독촉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75-80쪽).

관 출정한 이두황 군대가 묘시 경에 행군하여 목천 세성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동북쪽 토산(土山) 위에 진영(陣營)을 잠시 멈추고 병사를 쉬게 한 뒤에 차례로 전진하여 1개 소대는 세성산 동남 기슭에서부터 대포를 쏘면서 위로 향해가고, 2개 소대는 목천 세성산 북쪽 기슭 위에서 매복하였고, 1개 소대는 대응하여 접전할 목적으로 토산의 정상에 주둔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이 만나절을 대치하고 있다가 군대와 충돌을 하게 되자 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달아났다. 이때 군대는 동남쪽 기슭

에서 위로 올라간 자들이 먼저 성을 점령하였고 북쪽 기슭에 매복해 있던 자들이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서 몇 십리에 이르러서 혹은 사살하고 혹은 사로잡고 신시경에 크게 승리하였다. 김복용(金福用)을 생포하여 진영으로 압송하였다. 제내(題內)에서 김복용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81-83쪽, 107-112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0-311쪽).

관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가 김복용을 처단하였다. 동학농민군 진영의 중군(中軍) 김영호(金永祐)와 화포(火炮) 대장(大將) 원전옥(元全玉) 및 따라다니는 3명을 정탐하여 붙잡았다. 또한 소모관(召募官) 정기봉(鄭基鳳)이 잡아 압송한 2명과 함께 천안 군수가 붙잡아온 14명을 모두 처단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45-146쪽 ;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316쪽).

일 동로군이 충주에 진군하였다.

일 스키 부대[부산수비대, 15명]가 하동의 섬거역 부근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30명을 죽이고 7명을 포획하였다.

일 부산수비대[橋田부대]가 충청도 보은에서 동학농민군 2명을 총살하였다.

## 10월 22일 (양. 11월 19일)

전 하동 동학농민군이 지석영에게 대패(大敗)하여 동학농민군 대장 김인배와 류하덕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광양으로 퇴각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55쪽).

전 김개남 부대가 삼례를 출발하여 22일 선봉대가 고산을 거쳐 금산을 점령하였다(『各陣將卒成冊』 『叢書』 17, 478쪽).

강 장야촌전투에서 사상자를 낸 동학농민군들이 서석으로 후퇴하였으나 이들을 추격해 온 맹영재 군대와 서석에서 대규모 접전을 벌였다. 동학농민군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백기를 꽂은 채 진을 쳤다. 총을 쏘며 접전을 벌인 결과 총에 맞은 동학농민군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甲午實記』 『叢書』 6, 323쪽 ; 『承政院日記』 ; 『官報』). 이 전투로 흥천군 서석면 일대는 “인종(人種)이 영절(永絶)하얏더라”할 정도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4쪽).

충 목천 세성산에서 장위영 병대가 몰수한 무기류와 군량을 조사해서 성책(成冊)하였다. 주요한 군수물자는 “조총 140정, 창 288자루, 긴화살 3300개, 아기살 2000개,

- 청국탄환 36궤(22,500개), 철환 336,000개, 백미 266섬, 벼 367섬, 콩 12섬, 보리 8섬, 소금 3섬” 등이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73-76쪽).
- 충 천안의 동학 거두 김복용이 장위영 병대에게 사로잡히다(「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76쪽).
- 경 대구 관관 겸 토포사 지식영이 영남감영에 급보로서, 일본군이 철수하면 하동과 곤양 등지는 수비할 군대가 없어서 병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병을 주둔시켜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95쪽).
- 기 경기 소모관 정기봉이 10월 22일 목천의 동리로 행군하여 세성산 일대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 좌우도도금찰(左右道都禁察) 이희인과 한철영(韓喆永) 등 60여 명을 생포하여 12명을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다. 나머지 50여 명은 귀순하기를 원하자 석방하였다(『承政院日記』).
- 관 온양 군수(溫陽郡守)가 21일에 발송하여 22일 신시 경에 도착한 비밀 감결 내용에 따라 밀지(密紙)에 적힌 정석호(鄭錫好)·정제권(鄭濟權)·방구용(方九用)·방구현(方九鉉)·방성모(方聖謀)·편명철(片明鐵) 등을 각별히 기찰하고 염탐하였다. 이 중 호장(戶長) 정석호·이방(吏房) 방구현 등은 모두 공형이기 때문에 붙잡아서 온양군의 옥에 가두었다. 수형리(首刑吏) 정제권은 아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잡아 가둔 뒤 급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85-86쪽).
- 관 광주부(廣州府)에 관문이 도착하였다. 공고문 2통을 번역하여 베껴서 거리에 게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89-90쪽).
- 관 출정한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에게 순무영의 공고문과 선봉진의 공고문이 오시 경에 도착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90쪽).
- 관 안산 군수(安山郡守)가 순무영의 공고문과 본진(本陣)의 공고문을 번역하여 거리의 벽에 게시하였다. 안산읍 경내에 있는 동학농민군은 충청도로 도망갔다고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91쪽).
- 관 음죽현(陰竹縣)에서 2통의 공고문을 번역하여 각 마을에 게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91-92쪽).
- 관 충청도 관찰사가 진영에 머물고 있는 경리청 장병들이 움직이지 않고 선봉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장위영 병사는 죽산 부사가 대동하여 연기에 도착해서 또한 머물러 주둔하고 이동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93-94쪽).

관 위의 보고에 대하여 양호 순무영 선봉진은 일본 군대와 함께 주선하여 차례대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흥운섭이 통솔하는 각 부대는 공문에 의거하여 경천으로 나아가 방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두황이 통솔하는 각 부대는 유성 근처 감성의 입구로 이동하여 주둔하라고 명령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94-95쪽)

관 직산의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이천여 등을 붙잡았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5-326쪽).

일 서로군[본대, 森尾부대]이 천안에서 공주로 입성하여, 인천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일 서로군[赤松부대]이 충남 승전곡(勝戰谷)에서 동학농민군에 의해 배후가 차단되었다.

일 동로군[水原부대 1소대]이 괴산에 도착하였다.

일 부산수비대(9명)가 하동부근에서 동학농민군 1명을 죽였다.

일 부산수비대[藤田부대]가 충청도 미안(米安)에서 동학농민군 1명을 죽이고 일부 가옥을 불태웠다. 계속하여 1명을 총살하고 가옥 2호에 불태웠다.

## 10월 23일 (양. 11월 20일)

충 밤 논산의 동학농민군은 공주에서 남쪽으로 30리 지점에 있는 경천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북쪽에서 온 옥천포 동학농민군은 공주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대교(大橋)에 진을 치고 있었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14-115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쪽).

충 이인역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10월 23일 스즈키(鈴木)가 인솔하는 일본군 50명\*, 성하영의 경리청 1개소대 병력, 구완희가 이끄는 감영병력 4개 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취병산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음날 이인에서 물러났으며, 관군도 감영으로 후퇴하였다(『公山剿匪記』 『叢書』 2, 420쪽 ;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50쪽).

\* 관군측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공주감영에는 100명의 일본군이 있었다고 하였으나(『公山剿匪記』 『叢書』 2, 420쪽 ;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50쪽), 아직 서로분진대가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즈키(鈴木)가 거느리는 1개소대 병력 뿐이었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9).

경 경상도 각 군현의 군기와 각역의 말들을 동학농민군들에게 잃은 것이 적지 않은데 그중 용궁과 상주의 군기는 빼앗겼을 때 다행히 일본군이 토포하여 모두 버리

고 갔으나 일본군이 수습해서 태봉과 낙동으로 실어가 돌려달라고 해도 진중에 있는 물건은 돌려주는 법이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다. 유곡과 소촌의 역마를 잃은 것도 일본군이 병참부로 끌고 갔으나 돌려받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공사관에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別啓』).

관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 참령관 구상조가 전령의 내용에 의해 출진(出陣)하여 공주 경천점에 머물러 주둔하였다. 경천점은 노성현 논산과의 거리가 가까운데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논산에 모여 있어 약소한 병력으로 출진하지 못하였다. 금영에 부대를 머물게 하고 주력부대가 일제히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들을 깨끗이 소탕할 계획을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95-96쪽).

관 선봉진이 일본 군대와 함께 천안군에 주둔하였다. 새벽에 천안 광정참(廣亭站)을 향해 전진하였다. 진시 경에 각 소대를 거느리고 일본 군대와 함께 행군하였다. 유시 경에 일본 군대가 덕평(德平)의 주막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술시 경에 광정참에 도착하였다. 손시 경에 일본 군대와 함께 출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01-102쪽, 103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1쪽).

관 출정한 참모관 별군관에게 주력부대가 진시 경에 광정을 향해 가니 따라오도록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02쪽).

관 안성 군수가 인시 경에 충청도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뒤에서 원조하는 참령관 구상조, 참모관 이상덕(李相德)·이윤철(李潤徹)·신태식(申孝湜)·황승억, 대관 조병완(曹秉完)·이상덕 및 교장 김홍엽(金弘燁)·이봉춘(李鳳春)·이장혁(李章赫)·우기준(禹基竣)과 더불어 2개 소대 병사를 통솔하여 진영을 나가 공주목으로부터 남쪽으로 거리가 10리 되는 효포(孝浦)를 지키면서 사방을 정탐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14-11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쪽).

관 이인(利仁)에서 전투를 벌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35-136쪽).

일 일본군 제 18대대 괴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 청천, 순흥, 안동, 대구 지역으로 출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733쪽).

일 제18대대가 충청도 괴산에서 경상도 대구로 진군하였다.

일 서로군[赤松부대]이 조선병 34명을 동행하여 승전곡전투를 벌이나 1만 5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에게 패배하여 홍성으로 퇴각하였다가 또다시 면천으로 퇴각하였다.

일 중로군[본대+제3중대+교도중대]이 청주에 도착하였다.

일 동로군이 예천에서 낙동으로 진군하였다.

일 제2군이 여순구(旅順口) 공격을 개시하였다(「日淸戰爭主要年表」).

### 10월 24일 (양. 11월 21일)

전 박봉양은 창포군 2천 명을 뽑아 이끌고 남원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朴鳳陽經歷書」 『叢書』 7, 540쪽).

전 경천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효포에 도착하였다. 서산 군수 성하영이 이끄는 병정 일소대와 경리청 대관 백락완(白樂浣)이 이끄는 일소대가 웅치고개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전봉준은 효포 건너편의 산쪽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있다가 홍운섭이 이끄는 경리청군이 대교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려 간 사이에 효포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성하영, 백락완이 이끄는 관군이 이들을 공격하였으며, 24일 저녁에는 공주에 막 도착한 모리오 대위 인솔하의 일본군 100여 명과 이규태가 이끄는 관군이 가세하였다(「公山剿匪記」 『叢書』 2, 424-42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318쪽).

전 대교까지 진격하여 진을 치고 있던 북접 옥천포의 동학농민군이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의 공격을 받고 20여 명의 전사자와 6명의 생포자를 남긴 채 40, 50리 이상 퇴각하였다. 2개 소대 병력을 이끌고 효포에 주둔하며 지키고 있던 홍운섭이 23일 밤 논산으로부터 경천을 향해 4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 같자 24일 새벽에 효포의 병력을 철수하여 대교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것이었다(「公山剿匪記」 『叢書』 2, 424-426쪽 ;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14-115쪽 ; 「先鋒陣上巡撫使書」 『叢書』 16, 295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쪽).

충 동학농민군이 승전곡에서 일본군 후비보병 서로군의 소위 아카마츠(赤松國封)가 1개 소대와 2개 분대 그리고 한국병사 34명의 지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것을 산위에서 반격하고 서풍이 부는 것을 계기로 화공을 감행해서 면천으로 퇴각시켰다. 일본군은 배낭과 구두 등을 실은 소 5마리를 잃었는데 일본군이 잃은 유기물은 배낭 78개, 상하겨울내의 78벌, 유대식량 312식분, 일대(日袋) 78개, 군대수첩 78개, 구두 78켤레 등으로 확인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6-208쪽).

충 소모관 정기봉이 목천 갈전면(葛田面)에 모인 수백 명을 공격해서 총과 창 등을 100여 자루나 빼앗고 효유하였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 『官報』).

- 충 충청병사 이장회가 장계를 올려서, 아산·청산·연기 3읍의 군기견탈(軍器見奪)을 보고하고 해당 지방관들이 죄를 지니고 근무를 하도록 청하였다(『啓草存案』 『叢書』 17, 63쪽).
- 관 선봉진이 손시 경에 각 소대를 거느리고 일본 병사와 함께 출발하여 유시 경에 금영에 도착하여 그대로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1쪽).
- 관 선봉진이 신시 경에 금강 장기진(將旗津)에 이르렀다. 우금치·금학동·효포봉(孝浦峰)·납교후봉(蠟橋後峰) 및 동쪽 산성의 요해 각처에서 지켰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쪽).
- 관 출정한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에게 금영으로 급히 출발하라고 명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05-106쪽).
- 관 안성 군수 홍운섭이 효포에서 새벽에 진영을 25리 뒤로 물리고 대교 뒷길을 따라 20리를 진군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배후에서 먼저 숲에 있는 적들을 습격하고 포를 쏘면서 산을 내려가 넓은 들판에서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였다. 서로 포를 쏘면서 만나절을 대치하여 20여 명을 죽이고 6명을 사로잡았다. 그 후 해산하여 달아나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여 만나절을 서로 싸웠다. 방(榜)을 써 붙여서 백성을 안심시켰다. 곧 군대를 돌려 다시 수촌에 도착하였고 길에서 명령을 받고 돌아와 공주목에 부대를 머물게 하였다. 사로잡은 6명을 효수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14-11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쪽, 317-318쪽).
- 관 경리청 부영관 겸 안성 군수가 술시 경에 금영에 도착하고 대관 조병완과 더불어 1개 소대를 거느리고 금강 나무터를 지켰다. 참령관 구상조가 참모관 이상덕·이윤철·신효식·황승익, 대관 이상덕, 교장 김홍엽·이봉춘·이장혁·우기준·장대규(張大奎)와 함께 1개 소대를 거느리고 봉수현(烽燧峴)을 지켰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53-155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86-87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318쪽).
- 관 순무영이 정천(正川)의 동학농민군이 금영을 향하여 효포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1개 소대를 거느리고 경리청 대관 백락완이 거느린 1개 소대와 합세하여 능치현(陵峙峴) 위아래로 적이 지나가는 앞 길목에 주둔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35-136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86-87쪽).
- 관 순무영 별군관 겸 의병소(義兵所) 통령 윤영렬이 천안 남쪽 소거리(所巨里)에 사는 동학농민군 전 도사 김화성(金化城)·나채익(羅采益)·홍치엽(洪致燁)·이선일(李善一) 등 4명을 붙잡아 취조하였다. 취조후 모두 즉시 총살하였다. 김화성의

아들 중칠 3형제에 대하여서는 정탐하여 체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천안 원거리(院巨里)에 사는 김나귀(金羅貴)·김순경(金順京)·임만진(林萬鎭) 3명을 붙잡았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46-149쪽).

### 10월 25일 (양. 11월 22일)

충 능치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은 관군에 대항하며 일대 접전을 벌였다. 일본군과 관군은 세 갈래로 나누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대관 조병완은 휘하의 병정을 거느리고 북쪽에서 동학농민군의 오른쪽을, 참령관 구상조에게는 그의 휘하 장졸을 거느리고 일본 병사 30명과 함께 남쪽에서부터 동학농민군의 왼쪽을, 서산 군수 성하영은 전면을 향해 공격하였다. 전봉준은 가마를 타고 일산을 펴고 깃발을 날리며 나팔소리와 함께 동학농민군을 지휘하였다. 반 나절동안 치열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장교가 보기에도 병법을 아는 자가 있다 할 만큼 민첩하게 대응하며 항전하였으나, 해질 무렵 관군에 의해 동학농민군 70여 명이 전사하고 2명이 생포되었고 일부 군기도 뺏긴 동학농민군은 후퇴하여 들판 건너편의 시야산(時也山) 능선에 진을 쳤다. 관군과 일본군 역시 해는 이미 저물고 병정들도 피로하여 교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를 거두었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53-155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318쪽).

충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효포에서 곱티를 향해 공격해서 일본군·관군과 전투가 벌어졌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3쪽).

충 외무대신 김윤식이 이노우에 공사에게, 충청 감사 박제순의 첩보에 일본 육군 보병소위 스즈키가 공주에서 사병을 교련시키고 있으며 오래 공주에 머물러서 수비와 교련을 도와주도록 요청한 사실을 전하고, 스즈키 소위에게 서찰을 보내서 공주에 주재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69쪽).

경 경상 감영의 남영병 일대 70여 명이 초관 장교혁(張教赫)의 지휘 아래 김산의 김천시에 머물면서 11월 26일 남영으로 귀영할 때까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추풍령을 넘어서 경상도 김산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지켰다(「嶠南隨錄」 『叢書』 12, 454-477쪽).

관 선봉장 이규태가 통위영 군사 2개 소대를 거느리고 진격하여 공주의 효포봉과 남교봉으로 부대를 나누어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통위영의 대관 신창희(申昌熙)·오창성(吳昌成)이 동학농민군 5-60명을 사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쪽).

- 관 서산 군수 성하영이 대관 윤영성(尹泳成)·백락완·조병완·이상덕과 함께 동학농민군 70여 명을 사살하고 2명을 사로잡고 대포와 군기를 노획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쪽).
- 관 온양 역촌(驛村)에 사는 동학농민군 출신(出身) 윤성익(尹成宜)·이성일(李成日)·전복동(全福同)과 천안 신점(新店)에 사는 송완성(宋完成) 및 같은 군(郡) 지정리(知井里)에 사는 정학천(鄭學天) 등 5명을 붙잡았다. 5명을 모두 천안 관아에 압송하였다(『巡撫先鋒陣臚錄』 『叢書』 13, 168-169쪽).
- 일 서로군[森尾부대]이 능암산전투에서 동학농민군 6명을 죽였다.

### 10월 26일 (양. 11월 23일)

- 충 시야산에 옮겨 진을 치고 있던 효포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새벽 4시경 어두움을 타고 남쪽 30리쯤 되는 경천점으로 후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7-318쪽).
- 강 차기석과 연계하여 봉평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 윤태열·이창문(李昌文)·김대영(金大永)·김희열(金喜烈)·용하경(龍河京)·오순영(吳順永)·이화규(李和奎) 등 7명이 봉평의 강위서(姜渭西)에게 체포되었다(『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61-262쪽).
- 황 재령에서 동학농민군 2천여 명이 양곡 매입을 위해 파견되었던 일본군 이리에(入江) 소위 일행을 공격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54쪽, 303쪽).
- 정 갑오정권은 동학농민군의 재판 및 각종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아문내에 권설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各司臚錄』 63, 229쪽).
- 관 선봉진이 통솔하는 각 진영의 소대가 일본 군사와 함께 공주 각지의 험하고 좁은 길목에 주둔하여 전과 같이 방어하였다(『巡撫先鋒陣臚錄』 『叢書』 13, 131쪽).
- 관 천안 군수가 경내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정탐하여 체포하는 일은 계속하여 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사이에 동학농민군을 병정이 2명, 거주하는 백성이 3명, 본영(本營)의 별군관 최일환(崔一煥)이 1명을 붙잡았다. 또한 군관 이창식(李昌植)이 직산에서 동학농민군 5명을 붙잡아 보내고 별군관 조중석(趙重碩)과 의병 및 별군관 조두영(趙斗永)이 4명을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다. 나머지 동학농민군 14명은 목천 세성의 장위영 영관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보냈다(『巡撫先鋒陣臚錄』 『叢書』 13, 132-133쪽).

- 관 장위영 영관 이두환이 목천읍으로부터 병사 4개 소대를 거느리고 연기에 도착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50-151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6쪽).
- 관 교도중대가 청주진(淸州鎭)에서 자시(子時, 오후 11-오전 1시)에 휘하의 병정과 진남영의 병정 100명과 일본 주력부대가 함께 회덕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과 싸워 수십 명을 죽였다. 생포한 동학농민군 13명 중에 정복기(鄭福基) 등 6명은 본래 농민이어서 석방하였다. 박성엽(朴聖燁) 등 7명은 문의(文義) 남쪽 장터에서 죽었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86-187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2쪽).
- 관 순무선봉진에 주둔한 경리청의 2개 부대가 판치(板峙)에 가서 주둔하였다. 또한 판치에 주둔하고 있는 경리청의 2개 부대는 이인으로 가서 주둔하고 이인에 주둔한 통위영의 2개 부대는 본영으로 돌아와 주둔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4쪽).
- 관 오시 경에 경리청의 병정 12명이 동학농민군을 엄습하여 회선포를 빼앗았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8쪽).
- 일 서로군[赤松부대]이 예산 역리 도착하여 인천에 보병 1대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일 중로군[본대+청주병]이 지명강 전투를 벌였다. 1만 2·3천 명의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 7명을 죽이고 7명을 체포하였으며, 일본 병사 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좌측지대는 퇴각하는 동학농민군의 뒤를 쫓아 증약으로 진군하였다.
- 일 제18대대와 동로분진대가 충청도에서 강원도 영월로 진군하였다.

## 10월 27일 (양. 11월 24일)

- 전 유복만, 김경률, 남응삼, 김홍기, 김우척, 이춘종(李春宗), 김원석(金元錫) 등이 동학농민군 수천 명을 이끌고 남원으로 돌아왔다. 담양의 남응삼은 전량관(典糧官)의 소임을 위해 9월 30일에 병력을 이끌고 남원을 떠나 10월 1일에 담양에 이르러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조달하였으며, 10월 14일에 김개남 대군이 남원을 떠나자 담양에 있던 남응삼은 10월 24일에 남원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남원으로 직행하지 않고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태인 오공리(五公里) 김삼묵(金三默)에게 들러 수천 명의 병력을 합류시켰으며, 25일에는 임실로 내려와 다시 증원한 다음 남원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27일에 남원성에 들어 왔다(「甲午略歷」 『叢書』 5, 420쪽). 남원을 점령해 3일간에 머무르며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동학농민군의 군량 등을 빼앗았던 박봉양은 유복만이 남원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곡은 동학농민군을 토민(土民)과 관리들에게 맡기고 운봉으로 달아났다(「朴鳳陽經歷書」 『叢書』 7, 540쪽).

충 이노우에 공사가 이토 병참사령관에게, 공주에 있는 보병소위 스즈키를 당분간 감영에 주재시켜 주도록 희망한다는 충청 감사의 요청을 전하고, 충청도 내포(內浦)의 적괴 이창구(李昌九)가 송학산(崇鶴山)에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다는 수원유수(水原留守)의 보고문 사본을 첨부해서 진압을 고려하라고 전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鈴木少尉의 公州駐在에 관한 건」 168쪽).

황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풍천부(豊川府) 관아에 돌입하여 군기고를 파괴하고 병기를 탈취하였으며, 풍천부의 각 관청을 둔소(屯所)로 삼고 기거하였다. 관속과 소리(小吏)들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거나 도주하였다. 당시 동학농민군 수령은 풍천부 마부(馬夫)인 안노랑(安老郎)과 임량순(林良純)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55-256쪽).

정 양호도순무영 계언(啓言)에 따라 300명을 소모해서 선봉진 이규태에게 온 천안의 전 감찰 운영렬과 아산의 출신 조중석을 별군관에 차하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관 선봉진이 각 진영의 소대를 지휘하여 일본 군대와 함께 공주에 주둔하여 각지의 좁고 험한 길목을 방어 하였으며, 장위영 영관 이두황이 유시 경에 공주목에 도착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50-151쪽).

관 별군관 겸 의병소 통령이 천안읍에서 동학농민군이 홍주의 경계로부터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군사를 통솔하여 신창읍 곡교(曲橋)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을 감시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오후에 일제히 '대흥·예산 등으로 향해 갔다'고 하여 동정을 살펴보고 군사들을 통솔하여 아산 땅으로 돌아갔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69-170쪽).

관 순무선봉진에서 이두황에게 함덕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막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4쪽).

일 중로군[지대 : 2소대]이 양주·금산·진산·청주로 진군하였다.

일 중로군[본대+잔여 부대]이 충청도 연기·공주로 진군하였다.

일 봉산수비대[鳥川 군조 인솔, 25명]가 재령에서 동학농민군 2천여 명과 싸웠다.

일 어은동수비대 6명을 장연에 파견하였다.

■ 10월 28일 (양. 11월 25일)

강 봉평에서 체포되었던 윤태열과 이창문, 김대영, 김희열, 용하경, 오순영, 이화규 등이

강릉부 민포군 중군 이진석과 영수(領首) 이영찬(李永瓚)에게 포살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144쪽).

강 이 무렵 9월 7일 강릉부에서 동학농민군을 공격할 때 중군을 맡았던 김상연이 그의 집이 영서에 있었기 때문에 봉평의 안영보 안영달 형제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에게 잡혀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생매장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144, 146쪽).

강 원주의 비괴(匪魁) 김화보와 이천 접주 이정오가 소모관 맹영재에게 잡혀 처형되었다(「甲午實記」 『叢書』 6, 321쪽).

황 28일 밤 일본군의 군량을 사 모으기 위해 재령에 온 일본 상인 5-6명을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급습하여 2명은 살해되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이것은 황해도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방해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당시 재령(載寧)에는 성만기(成萬基) 휘하 동학농민군 2, 3천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탐학한 관리를 제거하고 인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악으로 갈 계획이며, 일본인에게는 적의가 없다고 하였으며 다음날 해산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본인을 죽인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산곡조(山谷組)라고 하며, 일본인이 있던 재령관아를 공격하는 도중 산곡조 동학농민군 13명도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또 산곡조는 신천과 해주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해주성을 습격하였다고 하였다(『日案』 3, 163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06쪽).

정 나주 목사 민종렬을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로 임명하여 호남우도(湖南右道) 연안의 각 고을을 지휘하도록 하여 비도를 소탕하도록 하였다(『日省錄』).

관 10월 28일자로 호남초토사로 임명받은 민종렬은 일본군과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토영을 설치하는 한편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수성별초 박봉년(朴琫年) 등을 시켜 향교에 통문을 보내어 의병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은 동학농민군의 보복이 두려워 “관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였다. 유림 이병수 등은 “방금 임금의 격노하여 관군을 출동시켜 빠른 시일 내에 도둑을 쳐 없애라고 명령하였으니(우리가 일어나 공을 세우면) 임금님이 힘써 이룬 공을 탐하는 것이 되어 도리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차라리 때를 기다리며 예기를 다듬었다가 시기를 보아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였다(「錦城正義錄」 『叢書』 7, 24쪽).

관 선봉진이 각 진영(陣營)의 소대를 통솔하여 일본 군사와 함께 공주에 주둔하여 방어하였다. 한편 별군관이 “직산 일서면(一西面) 마산리(馬山里)의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 황치교(黃致教)를 붙잡아서 그의 집을 몰수하였고 이남(二南)의 서쪽 건너에 있는 신성보(申成甫)도 붙잡았다”고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55-156쪽).

관 천안 군수가 동학농민군 4명을 붙잡고 그들을 천안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인 12명이 오시 경에 공주로 출발할 때에 함께 압송해 갔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64쪽).

일 서로군[赤松부대]가 홍주전투를 1일째 벌였다.

일 중로군[본대]이 연기로 진군하였다.

일 군로조사대가 문의에 도착하였다.

일 부산수비병이 부산에 돌아갔다.

일 금천수비병(11명)이 평산에 파견되었다.

#### ■ 10월 28일 - 29일 (양. 11월 25일-26일)

충 동학농민군 약 3만 명이 덕산 가도에서 진군해 와서 28일 오후 4시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호연초토사 이승우가 이끄는 수성군과 승전곡에서 후퇴한 일본군 서로군 중대의 아카마츠 소위 지대가 성벽에 의지해서 막았다. 동학농민군은 적현(赤峴)에 이르러서 2대로 나누어 1대는 간동(諫洞)을 향하고 1대는 서문을 향했는데 일본군 30명이 서문 밖 빙고현(氷庫峴)에 매복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동문 밖 민가에 불을 지르고 대포를 설치하고 쏘기도 했지만 결국 20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갈산(葛山)을 거쳐 해미방면으로 퇴각하였다(『洪陽紀事』 『叢書』 9, 154-15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11-212쪽).

#### ■ 10월 29일 (양. 11월 26일)

충 동학농민군 약 1만 명 이상이 옥천군 증약에서 일본군 후비보병 제18대대 중로군 지대의 17명과 관군 교도중대 1개 소대와 전투를 벌였다. 동학농민군은 3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지명(至明)을 건너 문의로 후퇴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12-213쪽).

충 동학농민군 한 부대가 연기로 가는 길을 막고 한 부대는 청주를 공격하였는데 문의에 있던 약 30명의 진남병과 증약에 있던 일본군 중로군 지대 및 교도중대가 청주성으로 급히 가서 남문 밖에 있던 접주 이하 16명을 붙잡았다(『駐韓日本公使

館記錄』 1, 212-213쪽).

- 관 관군이 예산 신례원(新禮院)에 모여 주둔한 동학농민군과 싸워 패하였고 동학농민군들이 예산읍에 들어갔다. 따라서 선봉진이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명령하여 휘하의 병정 4개 소대를 거느리고 급히 가서 지원하게 하였다. 이두황이 진시 경에 파견했고 광정에서 출발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68-169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9쪽).
- 관 선봉진이 각 진영(陣營)의 소대를 통솔하여 일본 군대와 함께 공주에 주둔하여 방어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70-171쪽).
- 관 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 토포사가 해시(亥時, 오후 9-11시)에 발송한 전령에 따라 온양을 향해 출발하였다. 대관 박영호는 관할하는 곳에 머물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74-175쪽).
- 관 장위영 부대에 명하여 합덕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게 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76쪽).
- 관 교도중대가 공주에 가서 병사를 합세하기 위해 행군하여 부강(芙江) 신대(新垆)에 도착하였다. 동학농민군이 '회덕에서 기세가 크다'는 소식을 듣고 읍으로 군대를 돌려서 토벌하여 섬멸할 것을 도모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3, 186-187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2-323쪽).
- 관 14일에 잡은 동학농민군 중 김춘일(金春日), 김치희(金致喜), 진천의 박명숙(朴明叔), 직산의 서성만(徐成萬) 등 4명을 신시에 목을 베었다. 직산의 비류 신성보를 천안군에 가두었다. 목천 동학농민군 최창규(崔昌奎), 김병헌(金炳憲)을 붙잡아 군관이창직(李昌植)의 진영으로 압송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5-326쪽).
- 일 이노우에 공사가 공주의 스즈키 소위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공주 감영에서 지방 병을 교련시켜달라고 하는 충청 감사와 외무대신의 신청과 의뢰를 전하고, 이토 인천병참사령관도 적도를 초멸하기까지 공주에 주류(駐留)하라고 했다는 명령을 전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0쪽).
- 일 서로군[赤松부대]가 홍주전투를 2일째 벌였다.
- 일 중로군[좌측지대 : 제18대대의 18명]이 증약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 15명을 죽이고 23명을 체포하였다.
- 일 군로조사대의 일부가 문의에서 서울로 진군하였다. 구와하라(桑原)부대는 낙동으로

진군하였다.

## ■ 10월 말경

강 재기포시에 원주에서 이화경·임순화, 횡성에서 윤면호, 홍천에서 차기석·심상현, 오창섭 등이 기포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2-463쪽).

강 홍천의 차기석은 최시형의 동원령에 따라 동학농민군들을 이끌고 보은으로 향하였으나 맹영재가 이끄는 민포군에 막혀 다시 강원도로 돌아갔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4쪽).

기 경기도에서 편의장 이종훈, 편 의사 이용구 외에 안성에서 임명준·정경수, 양지에서 고재당, 여주에서 홍병기·신수집·임학선, 이천에서 김규석·전일진·이근풍, 양군에서 신재준, 지평에서 김태열·이재연, 광주에서 염세환이 기포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2쪽).

기 죽산 부사가 귀순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기로 하였으나, 민보군 맹영재가 함부로 죄 없는 양민을 살해하고 토지문서 등을 약탈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2쪽).

평 평안도 강서, 용강 등지에서 기포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6쪽).

황 황해도 강령·문화·재령·해주·장연에서 임종현, 김유영, 원용일, 한화석, 오영창, 최유현, 오웅선, 김응중, 성재호, 방찬두, 정량 등이 기포하였다(『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466쪽).

## 1894년(甲午年) 11월

### 11월 1일 (양. 11월 27일)

- 경** 경상 감영의 남영병 일대 70여 명이 초관 이완근(李完根)의 지휘 아래 지레에서 주둔하여 12월 6일 남영으로 귀영할 때까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추풍령을 넘어서 경상도 지레로 내려오는 길목을 지켰다(『嶠南隨錄』 『叢書』 12, 478-512쪽).
- 황** 동학농민군이 재령부근에서 황주병참감에서 파견된 반(半)소대와 접전하여 1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생포되었으며, 화승총 100정, 탄약 6상자, 대기 1개 궁시 400개 등을 빼앗겼다. 일본군이 재령을 점령함에 따라 6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흩어졌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2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08쪽).
- 관** 온양 군수가 온양군 장재동(長在洞)에 사는 한상오(韓相五)를 붙잡아 군(郡)의 옥에 가두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72쪽).
- 관** 천안 군수가 보고하기를 홍주 군사와 동학농민군이 접전하였는데 군관이 패배했는데 이에 천안에 있는 병정 20명과 의병에게 모두 지시하여 교장이 주둔하고 있는 아산으로 보냈다고 한다. 또한 일본 군대와 선봉진의 병정 중에 넉넉한 숫자를 나누어 보내서 홍주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경병과 의병을 보내고 지원군을 보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73-174쪽).
- 관** 선봉진이 각 진영(陣營)의 소대를 통솔하여 일본 군대와 함께 공주에 주둔하여 방어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74쪽).
- 일** 서로군[赤松부대]가 홍주전투를 3일째 벌였다.
- 일** 중로군[본대 : 용포·연기 부근]과 좌측지대[제18대대의 18명]가 청주전투를 벌였다.
- 일** 황주수비병[福田부대, 22명]이 재령부근에서 동학농민군 600여 명과 싸워 동학농민군 15명을 죽이고 5명을 사로잡고 재령을 점령하였다.

### 11월 2일 (양. 11월 28일)

- 충** 공주 삼기면(三岐面) 입석리(立石里)에 사는 유학 유석홍(柳錫洪)이 마을의 군인

30명을 거느리고 동학농민군의 접주 설장률(薛長律)을 붙잡았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78-179쪽).

강 봉평에서 동학농민군 정해창과 안영보 김순복이 민포군에게 체포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145쪽).

관 선봉진이 각 진영(陣營)의 소대를 통솔하여 일본 군대와 함께 공주에 주둔하여 방어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78쪽).

일 인천병참사령관 이토 중좌가 이노우에 공사에게 충청도 공주에 있던 스키 소위가 부하를 이끌고 26일 용산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하고, 명령 전달이 늦어져서 이노우에 공사의 의견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3쪽)

일 서로군[赤松부대, 45명] 홍주전투 마지막 날로, 동학농민군 200여 명을 죽이고 갈산으로 진군하였다.

일 황주수비병[福田부대, 22명]이 황해도 안악에서 동학농민군 1명을 사로잡았다.

### ■ 11월 3일 (양. 11월 29일)

전 강진병영 무사와 이노(吏奴)들이 모여 병영에 사는 동학농민군의 집을 파괴하고 수성별장 방관숙이 동학교도인 선달 김응일을 포살하였다(『日史』 『叢書』 7, 488쪽).

충 효포 전투에서 물러난 동학농민군이 노성, 논산, 초포(草浦) 등지에 모여 진을 치고 있었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85쪽, 190쪽).

강 경군이 대화면에 도착하여, 강릉부 민포군 800여 명과 합류하여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섰으며, 일본군 2개 중대도 내려 왔다(『東匪討論』 『叢書』 12, 158쪽).

황 풍천의 동학농민군이 풍천부로 무탄(貿炭)하러 온 일본인을 살해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56쪽).

관 선봉진이 각 진영(陣營)의 소대를 통솔하여 일본 군대와 함께 공주에 주둔하여 방어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83쪽).

- 관 선봉진에서 동학농민군이 노성·논산·초포 등지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를 강화하였다. 즉 경리청의 2개 소대를 이인의 길에 파견하고, 통위영의 2개 소대를 판치에 파견하여 적의 형세를 살펴보았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85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1쪽).
- 관 정산에 동학농민군을 귀화시키는 공고문과 공문이 도착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89쪽).
- 관 부여에 동학농민군을 귀화시키는 공고문과 공문이 도착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90쪽).
- 관 출정한 경리청 영관이 유시 경에 행군하여 이인역에 도착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실정을 정탐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90-191쪽).
- 관 동학농민군 5-6만 명이 옥천에 모여 있어, 일본 군대 2소대 및 교도병(教導兵)이 증약역(增若驛)에 머물러 주둔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95-196쪽).
- 관 순무선봉진에서 1대의 병력을 파견하여 효포봉에 나가 주둔하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5쪽).
- 관 순무선봉진에서 경리청 대관 백락완에게 효포봉에 나가 주둔하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5쪽).
- 관 공주의 전 오위장 본진의 별군관 이상만(李象萬)이 원당(元塘)·당평(丹坪)의 두 마을 장정들을 거느리고 동학농민군 장준환을 체포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8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4쪽).
- 일 낙동수비병[益田부대]가 전라도 금산·지례로 진군하였다.

#### 11월 4일 (양. 11월 30일)

-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이 장계로서, 군기를 빼앗기고 나라의 재산을 잃은 죄 등으로 임천 군수 한진태(韓鎭泰), 황간 현감 송창로(宋昌老), 평택 현감 이종욱(李鍾郁), 서천 군수 김인수(金麟洙)를 파출하였음을 보고하였다(『日省錄』; 『官報』).
- 경 대구 판관 겸 토포사 지식영이 의정부에 보고하여, 진주와 하동 등지의 비류를 누차 토벌하여 도주했으나 다시 모여들고 있다고 전하고, 영병 100명이 하동에서 주둔하고 있으나 지쳐있기 때문에 일본군을 빌어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외무아문

- 에서 일본공사와 상의하여 일본군의 파견을 청하도록 요청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95쪽).
- 강 봉평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포군대장 강위서가 토벌군을 이끌고 내면에 들어오자, 동학농민군 대장 차기석이 기린과 양양 간성 등지에 통문을 보내 봉평을 치자며 무리를 불러 모았다(「東匪討論」 『叢書』 12, 160쪽).
- 황 황해감사 정현석의 아들 정현시가 황해도 각 읍으로 해주 감영이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되어 있으니 관군과 산포수 등을 동원하여 가까운 읍은 10일까지, 멀리 있는 읍은 12일까지 와서 감영과 자기 아버지를 구출해줄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1-273쪽).
- 정 조정에서 황해감사 정현석과 판관 이동화를 파직하고 관서 선유사 조희일을 감사로, 연안부사 이계하를 판관으로 임명하였다(『高宗實錄』).
- 정 국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칙에서는 “일본국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도와 난을 평정하고 정치를 고치고 백성을 편안케 하여 이웃의 화목을 돈독히 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여, 일본을 우방으로 간주하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부정하고 동학농민군 토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官報』).
- 관 서산 군수 성하영에게 전령을 보내 출정하여 주둔하고 있는 각 진영은 형세상 장차 교대해야 하므로 경리청 좌 2 소대를 통솔하여 내일 아침에 판차·수유(水踰) 두 마을 사이에 나가 주둔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통위영의 2개 부대는 이인에 옮겨 주둔하라고 명하였다. 진영에 머물러 주둔하고 있는 경리청 2대(隊)는 이인에 머물고 있는 경리청의 2개 부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또한 즉시 출발하도록 하고 아울러 통솔하는 좌 2소대와 합세하여 주둔하라'고 명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88-189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88쪽).
- 관 경리청 영관 구상조에게 전령을 보내 통위영의 두 소대가 진군하여 주둔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즉시 진영에 있는 유진소로 가라고 명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89쪽).
- 관 경리청 영관 구상조가 유시경에 행군하여 이인역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1쪽).
- 일 군로조사대가 낙동에 도착하였다.
- 일 봉산수비병이 해주로 행군하였다.

일 용산수비대가 개성에 도착하였다.

일 전신기수가 평산 부근에서 동학농민군 300여 명에게 피습 당하였다.

### 11월 5일 (양. 12월 1일)

충 동학농민군 100여 명이 청산에서 10리 거리의 석성촌(石城村)에서 일본군 시라키(白木誠太郎)가 지휘하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전사자 3명을 남기고 후퇴하였다. 이 일본군은 중로군 3중대의 지대로서 2개 분대와 교도중대 1개 소대로 구성되어 증약에서 출발하여 청산으로 가던 중 동학농민군을 만나 조우한 것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26쪽).

강 평창 후평 등지에서 이시모리(石森) 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2개 중대 및 관군과 동학농민군 1만여 명 사이에 2시간 넘게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접주 이문보를 비롯하여 동학농민군 백여 명이 전사하였다(『東匪討論』 『叢書』 12, 185쪽).

황 동학농민군이 평산부근에서 금천(金川)병참감에서 총유(葱莠) 병참감으로 가는 양곡을 탈취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84쪽).

관 선봉진이 각 부대 및 이인·판치 양쪽으로 파견되어 지키고 있는 각 소대를 통솔하여 숙박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구상조에게 전령을 보내 방어하고 있는 두 부대가 연일 머물러 주둔에 불편한 바가 있기 때문에 판치에 주둔하고 있는 통위영 2개 부대를 이인으로 이송시키고, 이인에 주둔하고 있는 경리청의 2개 소대는 금영으로 들어가 주둔하게 하고, 금영에 주둔하고 있던 경리청의 2개 소대는 판치로 나가 주둔하게 하여 서로 바뀌가며 쉬도록 하게함을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92-193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89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3쪽).

관 직산현의 경내에 있는 동학농민군의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고 조사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94쪽).

관 옥천으로 가는 교도 중대장(教導 中隊長) 이진호에게 동학농민군을 반드시 섬멸하고 곧바로 연산 등지로 향하여 합세하게 지시하였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3, 195-196).

관 대관 이겸제(李謙濟)가 청산 석성리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여 40여 명을 죽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관 대관 이겸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 병사와 함께 청산으로부터 옥천 등지로 향하며 3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사살하고 50여 명을 체포하였다. 그중 우두머리 서도필(徐道弼) 등 9명을 사살하고 접사 이만영(李晩榮) 등 3명을 본진에 가두었다(「先鋒陣日記」 『叢書』 16, 103쪽).

일 중로군[본대]가 옥천에 진군하여, 1지대는 증약 부근에서 동학농민군 8명을 죽이고 24명을 체포한 후에 금산·진산으로 진군하였다.

일 제18대대 1중대가 강원도 평창에서 약 3,0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70여 명을 죽이고 10여 명을 사로잡아 총살하였다.

일 황해도 황주수비병 8명과 전신기수가 평산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이 부상당하고, 동학농민군 20여 명을 죽였다.

#### 11월 6일 (양. 12월 2일)

전 동학농민군의 침탈을 받던 전라좌수사가 강진병영에 구원을 요청하자 병영수성군이 해남현 별진역(別鎭驛)에까지 진출하여 동학농민군 5명을 체포하고 대완포 1좌와 조총 20자루, 창 수십 자루 등을 탈취하여 왔다(「日史」 『叢書』 7, 488쪽).

충 일본군 보병소위 구와하라(桑原榮次郎)가 이끄는 군로조사호위대가 청산현 문암에서 최법현의 집을 덮쳐 서류를 빼앗아갔다. 이 군로조사호위대는 낙동을 출발해서 상주를 거쳐 청산에 들어왔는데 상주 목사 이만윤(李晩胤)에게 최시형의 거처가 청산 문암이라는 정보를 듣고 청산에 들어와 1개 분대로 문암을 기습해서 서류를 빼앗아 온 것이었다. 최시형은 이날 12시에 피신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6쪽, 245쪽).

강 봉평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지도자급 인물 7명을 체포하여 효수한 양양의 소모사 종사관 유학 이석범이 정선, 평창 등지에 동학농민군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민포군 300명을 이끌고 평창, 정선 등지로 갔다(「東匪討論」 『叢書』 12, 157-58쪽).

강 정선·여량의 동학농민군들이 강릉의 중군 이진석이 이끄는 토벌군과 접전하여 10여명이 포살되고 이중집 등 5명이 체포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09쪽).

황 해주 감영을 점령하고 감사 행세를 하였던 임중현이 감사 정현석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서로 나누어 해주성에서 철수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3쪽).

- 정 충청 감영의 중군 임기준 후임으로 친군경리청(親軍經理廳) 대관(隊官) 백락완을 3품으로 올려 차하하였다(『承政院日記』).
- 정 경기 소모관 정기봉(鄭基鳳)이 목천에서 비적의 괴수를 잡아 죽이고 적의 소굴을 소탕한 공으로 특별히 목천 현감으로 차하하고 호서소모관(湖西召募官)을 겸임시켰다(『承政院日記』).
- 일 중로군[본대]이 옥천에 체재하였다. 1지대는 충청도 청산에서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다.
- 일 군로조사대가 낙동→상주→청산으로 진군하였다.
- 일 삼랑진수비병[1분대]가 대구에 파견되었다.
- 일 교도중대가 충청도 청산에서 양산으로 진군하였다.
- 일 교도중대와 제19대대의 2분대가 충청도 영동에 진군하였다.
- 일 용산수비대[飯森부대]가 평산에 행군하여 동학농민군과 싸워 10여 명을 죽였다.
- 일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청국의 강화조건 공개요구에 대해 거부한다고 회답하였다(「日淸戰爭主要年表」).

### 11월 7일 (양. 12월 3일)

- 경 인동 부사(仁同府使) 조응현(趙應顯)을 토포사로 차하하고, 하동 부사(河東府使) 홍택후(洪澤厚)를 조방장으로 차하하였다(『承政院日記』).
- 기 지평의 진사 서병승(徐丙升)과 유학 유덕준(兪德濬)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신재규(辛載奎)와 정사원(鄭士元)을 체포하였고, 양근의 민포군이 양근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풍구(李豐求)와 윤창근(尹昌根), 윤복성(尹福星)을, 여주의 민포군이 한석룡(韓錫龍)을 체포하여 맹영재에게 압송해오자 맹영재가 모두 처형하였다(『承政院日記』).
- 강 이 무렵 평창 후평의 전투소식이 전해지자 정선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이 삼척방면으로 도주하였으며, 삼척 도상면 유천동의 동학농민군과 정선 대전과 궁전곡의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정선과 삼척 경계지역에 모여 있었다. 정선의 동학농민군은 성두환과 유도원이 이끌었다(「東匪討論」 『叢書』 12, 184쪽).

강 이날 밤 내면 1리 창촌에서 민포군 대장 강위서가 산중에 매복해 있던 차기석 정운 심 부대의 공격을 받고 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東匪討論』 『叢書』 12, 162-163쪽).\*

\*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에는 11월 6일로 기록되어 있다(『叢書』 12, 261쪽).

황 11월 5일 평산에서 낭천(狼川)으로 도주하였던 동학농민군이 다시 낭천에서 집합하여 평산을 공격, 스즈키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1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27-22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15쪽).

관 동학농민군이 해미읍 옛 산성에 모여 있어서 이두황이 2개 소대를 파견하였다. 대관 윤희영(尹喜永), 별군관 조편(趙翩)·윤지영(尹摯榮), 교장 추광엽(秋光燁)·□성희(□聖熙)·장세복(張世福)·오순영(吳順永)·이경진(李景振)이 병사를 이끌고 돌격해 올라가게 해서 성을 깨트리고 적을 쫓아냈다. 별군관 이겸래(李謙來), 교장 김대유(金大有)·최기성(崔基成)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많은 수를 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9-330쪽).

일 대구 판관 지식영이 당국에 몇 통의 전보로서 일본군의 주둔을 요청한 것을 부산 일등영사 가토(加藤增雄)가 탐지하고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친전을 보내서, 일본군을 병참선로 외에 장기간 주둔시킬 수 있으면 조선의 내치에 간섭할 권리를 사실상 각국에게 시인시킬 좋은 단서가 될 것이라고 하고, 둔전병처럼 주둔 경비를 마련하며 지방 경찰사무까지 겸하면 싼 값으로 조선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93쪽).

## 11월 8일 (양. 12월 4일)

충 전봉준은 논산일대에서 다시 결집한 동학농민군이 2만여 명에 이르자 노성과 경천으로 다시 진출하여 군량을 나르고 포대를 설치하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감영에서는 일본군과 관군이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두 부대는 판치와 이인으로 나가 주둔하고 하나는 감영에 남아 있는 방식으로 서로 순환하며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전투는 11월 8일 오후 2시쯤 시작되었다. 동학농민군은 두 갈래로 나누어 하나는 논산에서 곤장 고개를 넘어 오실산(梧室山) 옆길을 따라 이인을 향하여 공격해왔고, 다른 부대는 노성현 뒷산과 경천 쪽에서 판치와 효포를 공격

하였다. 경천에서 판치로 진격한 동학농민군은 판치를 지키고 있던 구상조의 경리청병을 공주쪽 산위로 밀어붙이고 효포, 능치 일대의 산위로 올라가 깃발을 꽂고 진세를 과시하며 관군과 대치하였다. 이인으로 진격한 동학농민군은 이인에 주둔하고 있던 성하영의 경리청군을 우금치(牛禁峙)까지 후퇴시키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모리오 대위가 일본군을 이끌고 와서 지원하며 맞섰으며, 성하영과 함께 이인에 나가 진을 치고 있던 백락완은 동학농민군에 포위되었다가 저녁 늦게 포위망을 뚫고 감영으로 돌아왔다. 우금치가 위급해지자 11월 8일밤 모리오 대위는 우금치 옆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진을 쳤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14-115쪽, 153-162쪽, 256-264쪽; 『先鋒陣日記』 『叢書』 16, 85-90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321쪽, 326-329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6-248쪽).

충 동학농민군 대군이 우금치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駐韓日本軍公使館記錄』 1, 246-248쪽).

관 선봉장 이규태가 동학농민군이 고개를 넘어와서 포위하여서 병사 2개 소대와 일본 병사와 함께 적의 복부와 배후의 부대를 격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0쪽).

관 경리청 참령관 구상조가 미시 경에 동학농민군 몇 만 명이 경천점에서 올라오고 혹은 노성현의 뒷산에서부터 산으로 올라와서 포위함으로 효포·웅치 등지의 요새에 진을 쳤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0-91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6쪽).

관 서산 군수 성하영이 동학농민군 논산의 직행로에서 고개를 넘어 공격해 오고 또 오실산 길을 포위함으로 일본 사관(士官)에게 보고하여 군사를 동원하게 하고 부대에 머문 통위영의 군사 2개 소대를 파견하게 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1-92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관 이인에 주둔한 부대가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여 격퇴시키고 우금치에 머물렀다. 밤이 깊어 우금치에 진을 쳤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관 서산 군수 성하영과 경리청 대관 윤영성 백락완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몇 만의 동학농민군을 사살하고 격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관 일본 병사의 사관 육군 보병 대위가 군사를 거느리고 우금치에서 머물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관 이두황이 참령관 원세록(元世祿) 휘하의 부대를 나누어 대관 윤희영·이규식, 교장 이경진·양기영·최기성·홍선경·김인선과 별군관 윤지영·김광수에게 각기 1

개 중대 병력을 거느리고 서산 땅으로 나와 순라를 들고 보초를 서게 하였다. 서산의 매현(梅峴)에 동학농민군이 있음을 확인하고 날이 저물어 서산읍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동학농민군에게 가서 불시에 에워싸고 총포를 쏜다. 도망가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고 버린 기계를 수습하고 서산읍으로 돌아왔다. 해미성으로 돌아왔다. 사로잡은 동학농민군 23명을 총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9-330쪽).

- ┌ 일 서로군[赤松부대]이 공주로 진군하여,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 ┌ 일 중로군이 옥천군 증약역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40여 명을 살해하였다. 일병 1명 사망하였다.
- ┌ 일 군로조사대가 충청도 청산에 도착하여, 1분대는 한밤 중에 문암읍을 기습하여 “싸움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문암읍 약 80여 호에 방화하였다. 동학농민군 3명을 체포하였다.
- ┌ 일 후비보병 제 17대대 상등병 이하 100명을 서울-부산 간 수비대보충병으로 파견하였다(『천대전 사료 77』 1894.12.4).
- ┌ 일 교도중대가 충청도 양산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여 40명을 죽였다.

## 11월 9일 (양. 12월 5일)

- ┌ 충 11월 9일 아침 동학농민군은 동쪽으로 판치(板峙) 뒷산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봉황산(鳳凰山) 뒤 기슭까지 3, 40리에 걸쳐 마치 병풍을 펴놓은 듯한 진세를 펼치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군은 금학동(金鶴洞)에 통위영 대관 오창성(吳昌成)과 교장(敎長) 박상길(朴尙吉)을, 능치(陵峙)에는 경리청 영관 홍운섭(洪運燮), 구상조(具相祖), 대관 조병완(曹秉完), 이상덕(李相德) 등을, 효포 봉수대(孝浦烽燧臺)에는 통위영 영관 장용진, 대관 신창희 등을, 우금치에는 성하영, 우금치 견준봉에는 8일 이인에서 동학농민군의 포위망을 되어 있다가 탈출해온 백락완을, 주봉에는 영장 이기동 등을 배치하였다. 동학농민군은 11월 9일 오전 10시쯤 이인에서 우금치 방향과 오실 뒷산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오후 8시경까지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4, 50차례나 펼쳤다. 결과는 동학농민군의 패배였다. 동학농민군은 많은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9-210쪽, 246-248쪽; 『公山剿匪記』 『叢書』 2, 420쪽;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14-115쪽, 153-162쪽, 256-264쪽; 『先鋒陣日記』 『叢書』 16, 85-93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321쪽, 326-329쪽).

- 관 우금치의 서쪽과 남쪽 2곳의 동학농민군이 공격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서산 군수 성하영·경리청 영관 윤영성·백락완이 일본 병사와 함께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였다. 사시경에 교전이 시작되었다. 미시 경이 되어도 동학농민군을 격퇴시키지 못하였다. 참모관 전 도사(前都事) 권중석(權鍾奭)과 참모사 전 주서(前注書) 이규백(李圭白), 유학(幼學) 정도영(鄭道永) 등이 동학농민군 진영으로 전진하였다. 별군관(別軍官) 이달영(李達榮)·송흥국(宋欽國), 전 만호(前萬戶) 이지효(李志孝), 전 감찰(前監察) 이재화(李在華), 전 중군(前中軍) 이종진(李宗珍), 전 수문장(前守門將) 유석용(柳錫用), 전 부장(前部長) 박정환(朴晶煥), 사과(司果) 이흥교(李興教), 군관 전 오위장(前五衛將) 황범수(黃凡殊), 유학(幼學) 이주서(李周瑞), 사과(司果) 이선(李璿), 경리청 교장 김명환(金命煥)·정재원(鄭在元)·장대규(張大奎)·정인갑(鄭寅甲) 등이 많은 동학농민군을 사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 관 동학농민군의 높은 봉우리를 탈환 점거하고 병기와 대포 및 깃발 6·70개를 탈취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 관 일본군 대위를 비롯하여 일본 병사들과 함께 중로를 따라 남으로 향하면서 동학농민군을 뒤쫓았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 관 공주 영장(營長) 이기동(李基東)이 수교(首校) 박준식(朴準植)과 병교(兵校) 박춘식(朴春植)·안재후(安在厚), 집사(執事) 김백현(金伯鉉)·양원길(梁元吉), 천총(千摠) 박순달(朴順達), 좌별장(左別將) 박춘명(朴春明), 우별장(右別將) 조광승(曹光承), 파총(把摠) 송시원(宋始元), 장무군관(掌務軍官) 정평오(丁平吾) 등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봉황산 뒤 원봉(圓峯)의 능선을 지키고 북쪽에서부터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진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 관 경리대관 조병완·이상덕, 참모관 황승억 등이 웅치의 봉우리를 방어하였다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의 길에서부터 왼쪽을 따라 돌격하여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7-328쪽).
- 관 경리대관 윤영성과 백락완 등이 우금치의 동쪽 최고봉을 방어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사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2-94쪽).
- 관 출전한 장위영 영관 겸 죽산 도호부사 이두황이 해미(海美)를 떠나 홍주에 도착하여 주둔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4-95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9-330쪽).

- ┌ 일 서로군[제2중대] 공주전투 2일째, 동학농민군 2만여 명과 전투하여 37명을 살해하였다.
- ┌ 일 군로조사대[2개분대] 문암읍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100여 명과 싸워 문암읍을 불태웠다. 동학농민군과 일반 조선인의 사상자는 불명.
- ┌ 일 용산수비대[鈴木부대]가 황해도 평산 낭천의 각 촌락을 수색하였다.

### 11월 10일 (양. 12월 6일)

- ┌ 전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 등이 재차 나주 공격을 위해 동학농민군을 나주 인근으로 집결시키자 민중렬은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11월 10일에 병력을 출동시켜 선제 공격을 감행하도록 하였다(「蘭坡遺稿」『叢書』 8, 111쪽, 150쪽).
- ┌ 황 11월 10일경 일본군 스즈키 소대가 이끄는 일본군 70명이 금천과 신천을 거쳐 해주에 들어왔다. 스즈키가 관관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해주 부근의 인민은 모두 동학농민군이며 남으로는 녹산 송림주변에서 강령까지, 서로는 웅진·장연·죽산 등지에서, 북으로는 송화·신천·문화 등지에서 발호하고 있으며, 도저히 조선 병력으로는 진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황해도의 2/3은 동학농민군이라고 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叢書』 12, 271쪽 ; 「東學黨征討略記」『叢書』 12, 290쪽).
- ┌ 관 출전한 장위영 영관 겸 죽산 도호부사 이두황이 대홍읍에 주둔하고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처단하였다(「先鋒陣日記」『叢書』 16, 94-95쪽; 「巡撫使呈報牒」『叢書』 16, 333쪽).
- ┌ 관 대관 이겸제가 금산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수만 명과 혼전하여 50여 명을 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叢書』 16, 341쪽).
- ┌ 일 중로군[본대]이 금산에 도착하였다.

### 11월 11일 (양. 12월 7일)

- ┌ 전 11일, 12일 경에는 능치 등 공주 부근 산봉우리에 남아있던 동학농민군마저 관군에 쫓겨 계룡산 등지로 후퇴함으로써 20여 일에 걸친 공주공방전은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9-210쪽, 246-248쪽; 「公山剿匪記」『叢書』 2, 420쪽 ; 「巡撫先鋒陣膽錄」『叢書』 13, 114-115쪽, 153-162쪽,

256-264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85-93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2-321쪽, 326-329쪽).

충 국왕이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 이승우의 첩보를 보고, 홍주성만 포위된 뒤에도 분발하여 싸운 결과 적의 기세를 꺾어 버렸으니 가상하였다고 하고, 비적의 병화(兵火)를 혹독하게 입은 성 부근 수백 호의 백성들에게 도내(道內)의 공금 가운데 1만 냥을 획하(劃下)하여 나누어 주고, 사태가 다소 진정된 다음에 감영과 고을에서 돌보아 주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강 내면 자운의 동학농민군들은 보래령을 넘어온 봉평 포군대장 강위서와 60여 명의 토벌군을 이끌고 합세한 홍천 사인 허경의 침입을 받아 접주 위승국 형제와 접사 심성숙, 박군오, 정창호 등 17명이 포살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04-205쪽).

황 동학농민군이 강령을 공격하여 군기를 빼앗고, 관아를 파괴하였으며, 각종 문서를 불태웠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황 연안과 해주 사이에 동학농민군 4-5백 명이 모여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29쪽).

관 순무선봉진에서 통위영관 장용진에게 전령을 보내 병사들을 쉬게 하기 위해 경리청의 각 부대로 교체하도록 올려 보내고 파견하여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철수시켜 휴식시킬 것을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9쪽).

관 순무선봉진에서 경리영관에게 전령을 보내 봉수(烽燧)·웅치(熊峙)·금학(金鶴)·효포(孝浦) 등지의 병사들을 쉬게 하기 위해 경리청의 각 부대로 교체하도록 올려 보내고 철수시켜 휴식시킬 것을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9쪽).

관 순무선봉진에서 장위영관 이두황에게 전령을 보내 정산(定山)을 향하여 차차 진군할 것을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9쪽).

관 출전한 장위영 영관 겸 죽산 도호부사 이두황이 공주의 유구(維鳩)에 주둔하였다. 의병 진영에서 동학농민군 9명을 체포하였다. 군사를 동원하여 동학농민군 천여 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최한규(崔漢圭) 등 27명을 조사하였다. 대홍읍에서 동학농민군 19명을 체포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4-95쪽, 96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3-334쪽).

일 일본군 보병소위 구와하라(桑原榮次郎)가 이끄는 군로조사호위대가 증약을 출발

문의를 향해 갈 때 문의에서 8km 거리의 지면촌(智面村) 입구에 있는 고지에서 동학농민군 150-160명이 침병을 향해 사격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일본군이 침병에 1개 분대가 가세해 맞서자 동학농민군들이 전사자 1명을 남기고 서남방향을 퇴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9쪽).

일 중로군[본대], 충청도 금산에서 진산으로 진군하였다.

일 중로군[1개지대], 고산으로 진군하였다.

일 용산수비대[鈴木부대]가 해주로 행군하여 동학농민군과 싸워 11명을 죽이고 2명을 공사관으로 이송하였다.

### 11월 12일 (양. 12월 8일)

전 나주 수성군이 나주에서 북쪽으로 40리 떨어진 북창(北倉) 등지에 이르렀을 때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광주 두동에 주둔하고 있으며 나주성을 압박하였다(『錦城正義錄』 『叢書』 7, 27쪽 ; 『蘭坡遺稿』 『叢書』 8, 112쪽).

충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능치 일대의 험한 요충지를 점거하고 있자, 이날 한낮에 교장 이봉춘이 별도로 정예 병사 10명을 거느리고 군복을 모두 벗고 동학농민군으로 위장한 채 접근하여 동학농민군 앞에까지 가서 일제히 총포를 쏘아 4-5명이 전사하였고,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1쪽).

충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은 13일 용수막을 거쳐 오후에 노성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노성 봉화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2,500여 명이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3쪽). 동학농민군들은 노성에 머물면서 다시 진영을 수습하려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의 이름으로 11월 12일 경군(京軍)과 영병(營兵), 이교(吏校) 및 시민(市民)에게 알리는 글을 순한글로 고시문을 내걸어 척왜(斥倭)와 척화(斥化)를 위해 동심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膽書』 『叢書』 10, 333-334쪽).\*

\* 글 가운데 “개화간당이 왜국을 체결하여 승야입경하여 군부를 폄박하고 국권을 천자한” 사건은 문맥상 1894년 6월 21일 새벽에 일어난 일본군의 경북공강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에는 ‘금년시월’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금년십월’은 ‘금년늑월’의 오키임이 밝혀졌다(배항섭, 앞의 논문, 1999).

- 충 같은 날 창의소(倡義所) 명의를 한문으로 된 고시문(示京軍營兵)도 제시되었다. 그 요체는 양차에 걸친 공주전투에 대해 후회막급임을 밝히는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싸우거나 죽이지 말고 힘을 합하여 보국안민하자는 것이었다(「先鋒陣呈報牒」 『叢書』 16, 199쪽).
- 경 영남소모사 정의목이 사족 중 병서에 조예가 있는 김석중(金奭中)이 유격(遊擊)의 직임을 맡아 병대의 지휘를 청하자 즉각 수락하고 유격장에 임명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54-455쪽)
- 강 내면 원당리에서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등 5읍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저항하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차기석(車箕錫)이 운두령을 넘어온 강릉의 박동익과 양양의 이석범이 이끄는 토벌군의 협공을 받아 생포되었으며, 성찰 오덕현, 집강 박석원, 지덕화 등 3명은 포살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07쪽 ; 「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62쪽).
- 황 강령(康翎) 남쪽 0.5리 지점에 있는 고현장에 동학농민군 5, 6백 명이 모여 강령을 공격하려 하자 일본군이 공격하였으며, 1시간의 격전 끝에 퇴각하였다. 이때 강령에서는 현감이 양민과 동학농민군을 구별하기 위해 양민에게는 날인한 문서를 지급하였으며, 양민들은 이를 모자 속에 넣고 다녔다. 이때 체포된 동학농민군들도 이 사실을 알고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다녔다(「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292쪽).
- 관 순무 선봉진에서 교도소 중대장 이진호에게 전령을 보내 연산 등지로 진군하고 유성과 진잠(鎭岑) 사이에 군사를 주둔시켜 동학농민군이 오면 섬멸하도록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9쪽).
- 관 교도소 중대장 이진호가 금산읍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 일 제19대대 서로군[제2중대 : 森尾부대, 이하 서로군] 용산을 출발하였다.
- 일 제19대대 중로군[제3중대 : 石黑부대, 이하 중로군] 용산을 출발하였다.
- 일 제19대대 동로군[제1중대 : 松本부대, 이하 동로군] 용산을 출발하였다.
- 일 충주수비병[福富부대] 충청도 괴산·보은·성주의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격퇴시켰다.
- 일 인천수비대[原田부대]·용산수비대[山本부대]·충주수비병[福富부대] 충청도 괴산→오리동(五里洞)으로 진군하면서 동학농민군 10명을 사로잡고, 6명을 타살하였다.

일 용산수비대[山村·飯森부대] 충청도 괴산부근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6명을 죽이고 4명을 사로잡았다

일 인천수비대[齊藤부대] 충청도 서산·태안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수백 명을 사로잡아, 2명을 참수하고 48명을 총구로 타살하였다.

### 11월 13일 (양. 12월 9일)

전 용진산 일대에서 나주 수성군과 순화중 부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결국 동학농민군은 장성 쪽으로 철수하였다(『錦城正義錄』; 『蘭坡遺稿』).

충 일본군 보병소위 구와하라(桑原榮次郎)가 이끄는 군로조사호위대가 문의를 출발해서 12일 청주에 도착하자 오후 8시에 충청병사 이장희가 구와하라 소위를 찾아와서 동학농민군 대부대가 청주로 오고 있다고 전하며 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13일 오전 6시 40분에 일본군 척후 보고에 의하면, 신탄(新灘)방향에서 1만 5-6천명이 문의 방향에서 오는 약 1만여 명과 합세해서 청주로 향하였다. 500m 떨어진 곳에 왔을 때 청주성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으나 일본군이 남문 앞 고지에 잠복해서 측면에서 기습사격을 받고 2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긴 후 신탄 방면으로 패주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9-250쪽).

강 내면 청두리에서 홍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권성오·권수청 등 12명이 포살당했다(『東匪討論』 『叢書』 12, 207쪽; 『臨瀛討匪小錄』 『叢書』, 262쪽).

황 13일경 송림과 녹산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취야장으로 와서 해주를 공격하려 하자 오전 6시경 일본군이 선제공격을 시작하여 2시간 정도의 전투 끝에 동학농민군이 퇴각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으로부터 10월 16일 전봉준이 충청 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글, 10월 15일 이유상이 박제순에게 올린 글, 9월 11일 <호주대의소(湖州大義所)>에서 <공주호서구접주(公州湖西九接主)>에게 보낸 글 등을 빼앗았다(『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294-295쪽, 355-361쪽).

황 취야장에서 빼앗은 동학농민군의 서찰에 따르면 평산 배천 연안 등지에 동학농민군이 모여 해주성을 동서 양면으로 공격하려 하였다. 또 취야장 직후 배천 연안 등지에 동학농민군이 모여 있었으나, 판관 이계하의 설득으로 해산하였다(『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295-296쪽).

황 신천의 동학농민군이 신천까지 진출한 평양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및 의병장인

신천 진사 안태훈과 전투를 벌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6, 274쪽).

황 이 무렵 강령성에는 많은 동학농민군이 주둔해 있었고, 동학농민군은 문화현(文化縣), 송화현(松化縣), 평산부(平山府), 조니진(助泥鎭), 오우진(吾又鎭), 용매진(龍煤鎭) 등을 함락시켰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6, 274쪽).

정 의정부에서 “김산은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전 승지 조시영(曹始永)을 소모사로 차하하고, 김산 군수 박준빈(朴駿彬)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차하하여 나누어 방비하도록 하였다. 조시영은 전 임 흥양현감(興陽縣監)으로 있으면서 불과 2달 전 관청을 비웠을 때 군기(軍器)를 잃어버린 일로 나문(拿問)하고 있는 중이나 특별히 용서하였다(『承政院日記』).

정 갑신정변에 관계된 죄인들의 죄명을 말소하고 금릉위 박영효를 사면하여 서용하도록 하였다(『日省錄』).

관 순무 선봉진이 김개남 포 5000여 명이 진잠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리 부영관 홍운섭에게 전령을 보내 ‘연기 등지에서 본영의 좌2대와 우1대, 2개의 소대를 빼내어서 출발하게 하였으므로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단속하여 거느리고 출발하여 행하라’고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89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2쪽).

관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이 신시경에 순무 선봉진의 지시에 따라 대관 조병완(曹秉完)·김명환(金命煥), 참모관 황승억(黃昇億), 교장 김홍엽(金弘燁)·정재원(鄭在元)·우기준(禹基峻)·고진용(高振龍)과 함께 2개 소대를 거느리고 일본 병사와 함께 곧바로 출발하였다. 대교(大橋, 현 도교리)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2쪽).

관 일본군 대대장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郎)가 대대를 거느리고 진산(珍山)으로 향하였다. 교도소 병정은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일 서로군이 옥천→진산→연산→노성으로 진군하였다.

일 중로군[본대]이 연산에 도착하여, 전봉준 부대와 전투를 벌여 1명이 전사하였다.

일 군로조사대가 김개남 부대와 청주전투를 벌여 20여 명을 죽였다.

### 11월 14일 (양. 12월 10일)

- 전 일본병과 교도병이 용담에서 동학농민군 수천 명과 싸워 30명 사살하고 20명을 생포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6-7쪽).
- 전 운봉의 박봉양군이 이끄는 민보군이 담양의 남응삼, 남원 관노 김원석과 남원 접주 김흥기, 임실 접주 최승우 등을 중심으로 남원 부동촌(釜洞村)에 둔취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방아채를 중심으로 14일 새벽 4시경부터 15일 아침 8시까지 서로 싸웠으며, 관군 30여명이 전사하였고, 소떼를 앞세우고 공격한 동학농민군들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梧下記聞」 『叢書』 1, 262쪽 ; 「朴鳳陽經歷書」 『叢書』 7, 540쪽).
- 충 노성 봉화산에 주둔해 있던 전봉준 부대는 14일 오후 논산으로 이동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2쪽).
- 충 11월 13일 청주전투에서 패배한 후 진잠을 거쳐 14일 연산에서 다시 집결하여 오전 11시경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오후 4시쯤 노성과 논산 쪽으로 후퇴하였다. 김개남과 전봉준은 11월 14일 밤 논산에서 합류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2쪽; 「梧下記聞」 『叢書』 1, 268쪽; 「李圭泰往腹書並墓誌銘」 『叢書』 16, 403쪽; 배향섭, 앞의 논문, 1999).
- 경 동학농민군을 환대했다고 부산의 일본총영사가 처벌을 요구해왔던 동래 부사 민영돈이 신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여 허락받았다(『承政院日記』).
- 경 상주 소모영의 유격장 김석중이 별포 20명과 참모 및 초장 등과 함께 모동으로 향해서 용호리(龍湖里)에서 접주 남진갑(南進甲)·이화춘(李化春), 모서(牟西) 사제(社堤)에서 접사 구팔선(具八善)·김군중(金君仲) 및 상주 관아의 군기탈취에 앞장선 유학언(劉學彦)을 체포하여 중모시(中牟市)에서 문초한 후에 포살하였다. 남진갑은 접주로서 수천 명을 거느렸고, 상주성에서 물러난 후 몰래 무리와 기약해서 기포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김군중과 구팔선은 11월에 거사하려는 기포 통문을 만들었다. 남진갑은 야반에 도주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56-458쪽).
- 강 홍천 약수포로 퇴각해 있던 5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청두리 쪽에서 추격한 동학농민군과 신배령을 넘어온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 응봉령을 넘어온 이석범의 부종 김익제의 토벌군에게 세 방향에서 협공을 당하여 접주 이치실 등 11명이 포살당하고 접사 박학조가 생포되었다. 자운·홍정·신흥 등의 동학농민군도 강위서가 이끄는 토벌군의 공격을 받고 임정호 등 38명이 포살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05쪽 ; 「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62쪽).

- 황 황해도 장연부 신천군 장수산성 수양산성이 모두 동학농민군에게 함락되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 황 신천군 산포수(山砲手) 노제석(盧濟石)이 병사 70여 명을 모아 동학농민군 18명을 포살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 관 이두황의 군대가 이인에서 주둔하고 머물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6-338쪽).
- 관 순무 선봉진에서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과 통위대관 오창성에게 전령을 보내 “주력 부대가 지금 용수막(龍水幕)에 도착하여 유숙하므로 새벽에 경천(敬川) 등지로 출동하여 일본 병사와 합세토록 하고 나아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라”고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0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6-338쪽).
- 관 진시 경에 선봉의 주력부대가 동시에 출발하였다. 참모관 권종석(權鍾奭)·별군관 유석용(柳錫用)·이지효(李志孝)·황범수(黃凡秀)·이주서(李周瑞) 등이 유시 경에 용수막에 도착하여 숙박하고 선봉진은 공주로 돌아와 주둔하였고 일본 군대 대위가 거느리는 부대와 더불어 각각 배치하였다. 해시 경에 일본군 대위의 지시에 의하여 참모관 권종석·별군관 유석용 등을 이인(利仁)에 보내어 장위영의 부대에 머물게 하고 노성읍의 서쪽 길로 들어가게 하였다. 일본군 대위의 부대는 노성의 봉수봉 뒷길을 따르게 하고 본진은 노성의 동쪽 길로 들어갔다. 자시경에 출발하였다. 상지(相池)로 간 좌 3소대의 군사가 도착하여 노성의 동학농민군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노성읍으로 진군하여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사살하였다. 동학농민군을 추적하고 동학농민군이 있는 곳을 탈취 점거하였다. 봉수봉과 고봉에서 일본 병사와 함께 진격하고 장위영 대대와 함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많은 수를 죽였다. 논산 등지로 돌아가 주둔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9-101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5-339쪽).
- 관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 부대가 연기현(燕岐縣)에서 점심을 먹고 부강(美江)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23쪽).
- 관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한 교도소 병정이 용담(龍潭)위의 조림(照林) 장터에 도착하였다.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여 동학농민군 30여 명을 사살하였다. 생포한 동학농민군 20명 중에 서도필(徐道弼)·박만호(朴萬浩)·이만실(李萬實)·조운삼(趙允三)·박치팔(朴治八)·김윤일(金允一) 등 6명을 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 일 동로군[松本부대]가 강원도 평창에 도착하였다.

- ┌ 일 인천수비대[山村부대]가 충청도 해미에서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사로잡아 홍주로 호송하였다.
- ┌ 일 인천수비대[山村부대, 11명]이 해미 민병 22명과 함께 서산으로 진군하였다.
- ┌ 일 제18대대[일부]가 충청도 농산근처에서 약 6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동학농민군 13명을 죽였다.
- ┌ 일 제18대대[1중대]가 강원도 평창에 머물러 있었다.
- ┌ 일 용산수비대[鈴木부대]가 웅진으로 행군하여 동학농민군 700여 명을 격퇴시켰다.

### ■ 11월 15일 (양. 12월 11일)

┌ 충 이 날 오후 2시경 논산으로 후퇴하여 대촌 후원의 봉우리[소토산]에 진을 치고 있던 전봉준과 김개남 휘하의 동학농민군 3천여 명은\* 추격해온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고 오후 3시 30분경 은진의 황화대(黃華臺)로 후퇴하였다. 황화대는 범연히 커다란 들판 중앙에 우뚝 서있어서 천연의 성벽과 같았다. 일본군과 통위영병은 동쪽에서, 장위영병 1소대는 북쪽에서, 장위영병 나머지 부대는 동남쪽에서 공격하자 오후 4시 10분경 전주 쪽으로 퇴각하였다. 이 날 밤 노성으로 회군하던 관군은 은진 묵동(墨洞)을 수색하여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제조하던 곳을 수색하여 제약 기구들을 파괴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수백명이 전사하였고 목인(木印)과 대장기도 빼앗겼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323쪽, 339-355쪽 ; 「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38-143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98-101쪽 ;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00-201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7-33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4쪽).

\* 관군 측에서는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를 1만여 명이라 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5쪽).

┌ 경 지례에 주둔하고 있던 초관 장교혁이 지휘하는 남영병은 충청도에서 남하하는 동학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해 지례의 읍내와 외촌의 장정 3천66명을 모집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흑대(黑帶)를 두르게 해서 백의의 농민들과 구분이 되게 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454-477쪽).

┌ 경 경상 감영의 남영병 30여 명을 병방 박항래가 이끌고 안의에 도착하여 23일까지 충청도에서 남하하는 동학농민군을 막기 위해 주둔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513-519쪽).

- 경 상주 소모영의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공성면 왕곡(旺谷)에서 편의장 조왈경(趙曰京)을 사로잡았다. 다음날 판계점(板溪店) 앞에서 조왈경을 포살하였다. 소모영에서 별포 30명을 더 보냈다(「討匪大略」 『叢書』 11, 458-459쪽).
- 황 동학농민군이 웅진수영(瓮津水營)을 급습하였다. 수사(水使)가 중상을 입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 황 강령에서 동학농민군이 감영의 막객 박봉원이 거느리고 온 교졸과 일병과 접전하였으나, 동학농민군 1명이 전사하고, 13명이 포로로 잡혔다. 포로 가운데 2명은 스즈키 소위가 서울로 압송하였고 나머지 11명과 영교가 잡은 또 다른 1명은 효수되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 관 순무 선봉진에서 통위영과 장위영 영관 및 대관에게 전령을 보내 “부대를 합동하여 진격하고 일본 부대와 함께 진군하라”고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0쪽).
- 관 선봉진에서 동학농민군이 노성현(魯城縣)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공격하기 위해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에게 명하여 이인로(利仁路)에서 출발하고, 경리청 2개 소대에게 명하여 공주부에서 머물러 주둔하게 하였다. 선봉진은 통위영 병정 2개 소대를 거느리고 일본 대위와 병정과 함께 오실로(梧室路)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공주부 남쪽 30리 용수막(龍水幕)에서 회동하고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4-335쪽).
- 관 출진(出陣)한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 18일 전령에 따라 노성에서 출발하여 20리를 논산 황화대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쪽).
- 관 장위영이 일본 병사와 함께 노성의 봉수봉 아래에서 동학농민군을 사살하고 논산의 대촌(大村)과 고봉(高峰)으로 진격하여 많은 동학농민군을 사살하고 진지를 탈취하였다. 또한 장위영 영관 이두황이 노성(魯城)에 진군하여 은진의 황화대에 주둔한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여 300여 명을 사살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8-99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5-339쪽).
- 관 공주영장(公州營將) 이기동(李基東)이 일본군 대위 진영에서 출진하며 ‘통위영 병정과 함께 경천에서 합류하자.’고 하여 경천으로 출발하였다. 노성읍 총포로 동학농민군 10여 명을 쏘아죽였다. 동학농민군 만여 명이 논산으로 달아났다. 공주영장(營將)이 부대를 나누어 되돌아가는 길에 노성(魯城)의 누동면(樓洞面) 칠동(漆洞)으로 들어가 동학농민군의 쌀 51석을 압류하고 경천으로 향하였다. 청산(靑山)에서 돌아오는 일본군 대위와 병사 100여 명을 논산으로 전진하게 하고 경천 비

류의 도회소(都會所)로 진입하여 다시 쌓아둔 쌀 127석을 압류하였다. 도진영(都鎭營)으로 가는 길에 창을 든 동학농민군 4명을 포살하였다. 진두면(辰頭面) 봉양동(鳳陽洞)에서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4-335쪽).

일 인천수비대[山村부대]가 충청도 태안에서 동학농민군 백여 명을 사로잡았다.

일 인천수비대[山村부대, 11명]이 해미 민병 22명과 서산에서 동학농민군 84명을 사로잡아 태안으로 호송하였다.

일 용산수비대 8명이 경기도 용인에서 동학농민군 8명을 사로잡았다.

### 11월 16일 (양. 12월 12일)

관 순무 선봉진에서 서산 군수 성하영에게 전령을 보내 임천(林川)·한산(韓山)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경리청 좌 1소대와 중 2소대의 두 군사와 영관 구상조(具相祖)와 함께 진군하여 섬멸하고 서산·태안 등지로 가게 하였다. 그 후 좌 1소대는 한산읍에 도착하게 하고 정당한 데로 돌리고 영관 구상조가 그들을 거느리고 공주 감영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4쪽).

관 일본군 대위의 지휘로 경천점의 앞길에 주둔하여 경비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9-101쪽)

관 동학농민군이 호남의 경계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각 부대가 노성읍으로 돌아와 주둔하였다. 강촌(江村)에 도착하여 화약을 제조했다는 곳과 접(接)을 설치한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화약을 제조하는 기구들을 모두 파쇄하였고 남겨진 여러 깃발과 잡물 짚신의 등속들도 파괴하였다. 일본군 대위의 지휘에 따라 경천점의 앞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수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5-339쪽).

관 이두황의 군대가 모리오(森尾)의 통지에 따라 노성(魯城)으로 회군하여 주둔하였다. 회군하는 길에 은진(恩津)의 묵동(墨洞)을 수색하고 참령관 원세록의 휘하 병정을 나누어 묵동으로 들어가게 하여 엄습하고 체포하여 동학농민군 7명을 사살하였다. 제약 기구(製藥器具)는 모두 파쇄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5-339쪽).

관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한 교도소 병정이 진안읍(鎭安邑)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과 접전하고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 11월 17일 (양. 12월 13일)

전 17일 오후 3시경 일본병과 교도병이 고산(高山) 산천리에서 동학농민군 수백 명과 싸워 30명 사살하였고, 고산 속곡(高山 粟谷)의 동학농민군 화약 제조소를 파괴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6-7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5-256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대구감영으로 감사 조병호를 만나서 군무와 소모사의 관할지역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1, 170-171쪽).

황 동학농민군이 연안부(延安府)를 급습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황 17일 현재 동학농민군들에게 빼앗겼다가 관군이 다시 찾은 무기는 조총 481자루, 화약 540근, 연환(鉛丸) 2,300개 등이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정 영남에서 비적의 소란이 아직 그치지 않자 의정부에서, 인동부사 조응현(趙應顯)을 토포사(討捕使)로 차하하고, 하동부사 홍택후(洪澤厚)를 조방장(助防將)으로 차하하여 토벌에 전심하게 하였다(『承政院日記』).

관 순무선봉진에서 안성 군수 홍운섭·서산 군수 성하영에게 전령을 보내 “영관 홍운섭이 거느린 군사를 서산 군수 성하영에게 이동시켜 소속시킨 뒤에 홍운섭은 곧 본관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7쪽).

관 순무선봉진에서 장위영 영관 이두황에게 전령을 보내 읍저(邑底)나 논산에 주둔하도록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7쪽).

관 순무선봉진에서 통위영관 장용진에게 전령을 보내 본진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97쪽).

관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한 교도소 병정이 고산읍(高山邑) 산천리(山川里)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수백 명과 접전하고 30여 명을 죽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 11월 18일 (양. 12월 14일)

전 고산 동학농민군 화약제조소를 습격한 일본군은 고산으로 전진, 동학농민군 5, 6백 명과 접전, 16명의 전사자를 낸 동학농민군은 여산 방면으로 퇴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5-256쪽).\*

\* 관군 측 기록에는 동학농민군 수만 명과 싸워 수백 명을 사살하였으며, 30명을 생포하였다고 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6-7쪽)

전 나주 공격을 위해 나주 인근 고막원(文平面 山湖里, 現 古幕院驛) 동쪽 청림산(靑林山, 多侍面 文洞里) 일대와 호장산(虎壯山, 多侍面 松村里), 그리고 진등참(多侍面 동곡리 文洞里)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11월 18일 아침 나주 수성군 부통장이 이끄는 병력과 전투를 벌였다. 이때 패퇴하던 동학농민군들이 고막교를 건너던 중 밀물이 들어와 빠져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錦城正義錄」; 「蘭坡遺稿」).

경 안의현감 조원식이 올린 경상 감사 조병호에게 첩보에서, 동학농민군 ‘수만’이 장수현을 불태우고 안의와 거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1, 171쪽).

경 동학농민군 수 만명이 거창으로 향한다는 첩보에 따라, 경상 감사 조병호가 영관 최처규에게 남영병 100여 명을 인솔하고 고령(19일)·합천(20일)·거창(21-23일)·고령(24일)을 순회하도록 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520- 526쪽).

경 상주 소모영의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화서면 대곡(垆谷, 터골)에서 청주대접주 김자선(金子先)·접사 서치대(徐致大)·접주 정항여(鄭項汝)를 체포해서 다음날 화령시(化寧市)에서 포살하였다. 김자선은 본래 보은 장내리에 거주하는 대접주이고, 정항여와 서치대는 사대부를 결박해서 구타하고 재물을 약탈했으며 군기(軍器)를 탈취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를 묻은 것이었다(「討匪大略」 『叢書』 11, 461-462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묵이 경상 감사 조병호를 만나서 소모사 토포사의 관할 분장문제와 함께 상주·선산·예천의 이서(吏胥)들이 집강소를 만들어서 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사실을 말하고 감영에서 경계한 후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1, 171-172쪽).

관 신시경에 일본군 대위가 호남 등지로 향하기 위해 노성(魯城)으로 출발하였다. 경천에 주둔하고 있는 통위영의 두 소대가 유시 경에 공주로 되돌아와서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39쪽).

관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한 교도소 병정이 고산읍(高山邑)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수만 명과 접전하고 수백 명을 죽였다. 생포한 동학농민군 30명 가운데 접사(接司)인 고산에 사는 이만학(李晩學)·여관서(呂寬西)와 진

안(鎭安)에 사는 김치서(金致西) 세 명은 잡아 가두었고 김성도(金聖道)·임성원(林聖元)·김중이(金仲伊) 등 3명은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관 경리청 부영관 안성 군수 홍운섭(洪運燮)이 은진(恩津) 성응리(成應里)에 도착하고 동학농민군의 정형을 정탐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3쪽).

일 인천수비대[山村부대]가 덕산에서 인천으로 되돌아갔다.

### 11월 19일 (양. 12월 15일)

전 전봉준이 11월 19일 전주로 들어갔다(「札移電存案」 『各司謄錄』 63, 288쪽).

경 상주 소모영의 유격병이 야반에 장내후동(帳內後洞)에 가서 거괴 김민이(金民伊)와 원성팔(元性八)을 붙잡아와서 다음날 포살하였다. 김민이는 거괴로서 사대부의 결박하여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이 부지기수이고, 원성팔은 손으로 사족을 때려서 이빨 두 개를 부러뜨렸으며 양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 무리와 같이 재물을 약취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62-463쪽).

기 송과진 부근에 500명의 동학농민군이 총과 창, 칼로 무장하고 모여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2쪽).

황 영문(營門)에서 차임한 의려장(義旅長)인 신천군 진사(進士) 안태훈(安泰勳)이 모집한 포군(砲軍) 70명과 촌정(村丁) 100명에게 동학농민군 영장(領將) 3명이 포살당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황 동학농민군이 은율을 공격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4쪽).

관 이두황이 일본인 사관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郎)의 통지에 따라 황화대를 떠나 은진 한국에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346쪽).

관 성하영이 홍산(鴻山)을 향해 출발하여 부여(扶餘) 근방에 이르러 정탐하니 바로 그곳 마을이 동학농민군이 포(包)를 일으킨 곳이라 하여 대관 운영성, 교장 장대규(張大奎)·정인갑(鄭仁甲)에게 1대 병력을 거느려서 그 마을을 포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시켜 동학농민군을 찾아내고 우두머리를 바치게 하였다. 김이운(金伊運)·강공진(姜公鎭)·강원형(姜元亨)·강팔복(姜八福)·이명옥(李明玉) 등 다섯 명을 포살하였다. 동학농민군 최상윤(崔尙允)·전묵진 역시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7-348쪽).

### 11월 20일 (양. 12월 16일)

전 김인배가 이끄는 동학농민군 천여 명이 좌수영을 공격하기 위해 덕양역에 이르렀다. 이들은 좌수영 뒷산인 종고산에 올라 정탐을 하는 한편 좌수영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집안이 망할 일이니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해 이류(異流)의 발호를 막자”는 고시문을 보냈다. 좌수사는 이를 거절하고 이날 저녁 동학농민군을 기습 공격하였다. 24시간 계속된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패하여 60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순천으로 퇴각하였다(『國民新報』 明治 28年 1月 10日, 1月 16日 ; 『時事新報』 明治 28年 1月 8日).

황 최서옥(崔瑞玉) 휘하 동학농민군 5천 명이 해주 죽천(竹川)에 웅거하다가 김리현(金履鉉)에게 설유(設諭)되어 귀화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황 황해 수사 구연팔(具然八)의 장계에 따르면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본영에 모여 성문을 쳐부수고 본영 안으로 난입하여 활과 총을 마구 쏘아대었고, 이어 군고(軍庫)를 부수어 그곳에 있던 총과 창 등의 군수물을 모두 탈취하였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황 감영 포군에 응모한 자가 200명에 이르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관 이규태가 나주읍이 동학농민군 수만 명에게 포위되어 형세가 몹시 위급하여 성이 곧 함락될 지경에 있으므로 두 소대를 출동시켜서, 일본군 진영에 통지하여 일본 병사 100여 명과 함께 선봉진이 거느리고 진시 경에 금구(金溝) 등지로 출발하였다.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 및 교도소 중대장 이진호(李軫鎬)는 각기 부하를 거느리고 전주부에 주둔하면서 출동을 기다리게 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7쪽).

관 서산 군수 성하영이 오시 경에 한산읍에 이르렀다. 동학농민군의 정형을 정탐하고 한산 수성장(韓山守城將) 김련(金鍊), 호장(戶長) 김하은(金夏殷)에게 별도로 수성군(守城軍) 및 읍에 소속된 사람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길을 인도하게 하였다. 대관 윤영성, 별군관 유석용(柳錫用), 참모 신효식(申孝湜), 교장 장대규(張大奎)·정인갑(鄭仁甲)이 1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북쪽 산길을 따라 교전하면서 나누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대관 이상덕(李相德), 참모관 권중석(權鍾奭), 교장 이봉춘(李鳳春)·이장혁(李章赫)은 1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협공하게 하였다. 동학농민군을 대파하고 몇 백을 포살하였다. 날이 어두워져 회군하여 한산 역촌(韓山驛村)에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7-348쪽).

일 후비보병 제15연대 제1대대의 일부(명수 불명)를 서울-부산 간 수비대 보충병으로 파견하였다(『남부병참감부 일지』 12.16).

## 11월 21일 (양. 12월 17일)

전 여수의 동학농민군이 종고산에 거점을 두고 다시 좌수영을 공격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31쪽).

경 예천 집강소에 북부 적성동의 통수가 급보해서 관동 수집주 최맹순이 충주 독기(篤基) 등지에 있다는 것을 알려오자 즉각 민보군을 파견하여 벌천(伐川)에서 최맹순부자와 접사 장복극(張卜極)을 붙잡아왔다(『甲午斥邪錄』 『叢書』 11, 105-106쪽).

황 동학농민군이 백천군(白川郡)과 강령현(康翎縣)을 점령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황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백신배, 접주 조해증 등이 효수당하였다(『고종시대사』 3, 680쪽; 『官報』).

황 동학농민군이 강령현을 공격하여 민가 4백 호를 태우고 돈과 곡식을 탈취하여 갔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정 새로이 반포할 칙령(勅令)과 신식(新式)을 품재(稟裁)받기 위하여 고종과 대신들이 함화당에 모여 회의를 열고 칙령 1호 공문식을 반포했다(『日省錄』).

관 선봉진이 각 소대를 거느리고 진시 경에 호남으로 가기 위하여 노성 등지로 출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1쪽).

관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이 2개 소대를 영솔하고 연기에서 문의(文義)·연산(連山)·은진(恩津) 등의 읍을 거쳐 갔다. 은진읍에 도착하여 일본군 대위의 통지에 따라 1개 소대 병정 50명을 교장 우기준(禹基峻)에게 영솔하게 하여 일본 병정 100명과 함께 고산(高山)·용안(龍安) 등지로 나가게 하였다. 금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판치(板峙)의 앞길에서 만나 금영에서 주둔하고 유시 경에 노성현에서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2쪽).

관 이두황이 일본인 사관의 통지에 따라 진영 안에 잡아 가둔 동학농민군 유구(維鳩)의 도집병(都執兵)인 오정선(吳鼎善) 및 그 나머지 동학농민군 열두 명을 일본인 사관의 진영으로 압송하였다. 또한 일본인 사관 미나미 쇼시로(美南 昌代)의 통지에

따라 병사 100명을 일본인 사관 아카마츠 고쿠보(赤松國封)에게 나누어 주고는 석성(石城)에서 보령(保寧)까지 이동하였다. 참령관 원세록(元世祿)의 거느린 부대 가운데 병사 180명을 머물게하였다. 이두황이 2개 소대를 거느리고 용안(龍安)으로부터 함열(咸悅)을 거쳐 익산읍·삼례역 등에 도착하였다 일본병사와 회합하기 위해 용안현을 향해 출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346쪽).

관 성하영이 묘시경에 내산(內山)·외산(外山)·길산(吉山) 등지를 거쳐 행군하여 서천 지역에 이르렀다. 동학농민군 김제(金堤)에 사는 강명선(姜明善) 등 7명과 대기수(大旗手) 4명을 체포하여 포살하였다. 한산읍의 신아포(新牙浦)로 가다가 강을 건너 도주하는 임피(臨陂)에 사는 동학농민군 김해룡(金海龍) 등 7명을 잡아 죽였다. 날이 저물어 신아포에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7-348쪽).

#### 11월 22일 (양. 12월 18일)

전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1월 22일부터 나주공격을 다시 시도하였다(「錦城正義錄」 ; 「蘭坡遺稿」).

경 예천 집강소에서 군수가 임석한 자리에서 관동 수집주 최맹순과 접사 장복극을 심문하여 최맹순은 효수하고, 아들 최한걸과 접사 장복극은 포살하여 모래밭에 묻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106-109쪽).

경 예천 일대에서 활약하던 최맹순이 피신하였던 평창집에서 100여 명의 지원을 받아 11월 17일경 예천으로 돌아와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였던 예천 적성리에서 민가에 방화하고 재물을 약탈하다가 충주 독기령 등지로 갔다가 체포되어 그의 아들 최한걸, 접사 장복극과 함께 처형되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106-109쪽).

강 관군에게 생포되었던 내면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차기석과 박학조 등이 강릉으로 이송되어 강릉 관아 사대(射臺) 앞에서 효수되었고, 여량 접주 이중집, 임순철, 김윤언 등 7명이 포살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09쪽 ; 「臨瀛討匪小錄」 『叢書』 12, 263쪽).

관 선봉진에서 통위영의 2개 소대와 일본 병사 100여 명과 함께 진시경에 금구 등지를 출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104쪽).

관 이규태가 손시(巽時)경에 노성에서 출발하여 행군하여 갔다. 신시 경에 논산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3-344쪽).

관 원세록이 일본군 대대장의 지휘에 따라 삼례에서 행진(行陣)하였다. 대관 윤희영(尹喜永)은 병정 100 명을 거느리고 먼저 만마관현(萬馬館峴)으로 나아가서 방수하고, 대관 김진풍(金振豐)은 병정 100명을 거느리고 용두현(龍頭峴)으로 행진하여 방수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346쪽).

관 성하영이 묘시 경 행군하면서 연포(沿浦)를 더욱 엄하게 방수하게 하고 와초포(瓦草浦)를 거쳐 돌아 활동리(活洞里)로 갔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7-348쪽).

일 중로군[본대, 3소대]이 전라도 삼례로 진군하였다.

일 인천수비대(山村부대)가 태안에서 전날 사로잡은 84명의 동학농민군 가운데 34명을 총구로 타살하였다.

## 11월 23일 (양. 12월 19일)

전 전주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전주에서 금구 원평으로 후퇴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44-45쪽 ;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6쪽 ; 「各司膽錄」 63, 「札移電存案」 288쪽)\*.

\* 전주에서 후퇴할 때 동학농민군은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전봉준은 고부 태인 방향으로, 김개남은 남원방향으로 간 것 같으며, 전봉준이 이끄는 부대는 적어도 6-7,000명 정도는 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45쪽). 관군 측에서는 23일 금구원평으로 간 동학농민군이 수삼천(數三千)명, 25일 원평에 집결해 있는 동학농민군의 수가 1만여 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44-45쪽 ;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09-210쪽).

전 순천의 김인배가 재차 좌수영을 공격하였다. 순천을 출발하여 광양의 동학농민군과 합류하여 좌수영 공격에 나섰으나, 일본군이 합류하면서 26일까지 거둬들이고 공방전을 벌인 뒤 순천으로 물러났다(『國民新報』 明治 28年 1月 10日, 1月 16日 ; 「時事新報」 明治 28年 1月 8日).

전 손화중과 최경선, 오권선 등은 5-6개 고을의 도움을 얻어 1천 5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11월 23일에 나주에서 북쪽 10리 거리인 노안면 금안리와 남산리 일대로 진출하였으나 몹시 추웠고 밤이 되자 강추위가 더욱 몰아쳐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공격을 단념하고 남산촌으로 돌아왔다(「梧下記聞」 『叢書』 1, 279쪽 ; 「錦城正義錄」 『叢書』 7, 31쪽 ; 「蘭坡遺稿」).

황 해주안악수접주(海州安岳首接主)가 '창의소' 명의로 평산수접주(平山首接主)를 비롯한 각 읍의 수접주(首接主)에게 통문을 보내어 창의기포(倡義起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글에는 “우리 동학농민군은 충군효친과 광제창생”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점, “황해감사 부자가 왜(倭)와 동모하여 해주 강령 지역 동학교도 10여 명을 살해하였다”는 점, “황해 서부 10여 읍에서 5-6만명이 취야장에 모여있다”는 점, “청군 1백만 명이 왜구를 구축하기 위해 강계 의주 북쪽에 주둔해 있다”는 점, “감사 부자의 수급을 베어 청나라 군진에 보내자”는 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362-364쪽).

황 23일 새벽 해주 서쪽 취야장에서 일본군 50명 관군 100여 명이 동학농민군 약 2천 명과 전투를 벌였다. 동학농민군 12명이 전사하고 포로 9명, 말 33필, 소 4두, 조총 5자루, 화약 3상자(500여근), 연환 5천개 등을 빼앗겼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30쪽 ; 「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관 홍운섭이 안성(安城)을 향해 우1소대 2분대를 거느리고 출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3쪽).

관 이규태가 사시 경에 출발하여 미시 경에 강경포(江鏡浦)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3-344쪽).

관 원세록이 동학농민군의 정황을 염탐하니 동학농민군 2~3천 명이 전주성으로부터 도망하여 금구(金溝)·원평(阮坪) 등지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일본의 주력부대를 기다렸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346쪽).

일 부산수비대가 진주·하동·순천으로 탐정을 파견하였다.

일 용산수비대[山村부대]가 충청도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였다.

일 사이토(齊藤)부대가 충청도 한산에 진군하였다.

일 용산수비대[鈴木부대]가 해주부근 취야장에서 동학농민군 2천여 명과 싸워 동학농민군 12명을 죽이고 9명을 사로잡았다.

## 11월 24일 (양. 12월 20일)

전 오후 1시경 나주의 수성군이 남산촌에 주둔해 있던 손화중 등의 동학농민군을 기습하여 많은 동학농민군이 전사하거나 체포되었다.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일

단 광주로 후퇴하였다(「梧下記聞」; 「錦城正義錄」 『叢書』 7, 31쪽; 「蘭坡遺稿」).

황 일본군이 해주를 떠나 연안으로 갔다. 일본군이 감영을 떠나는 틈을 타서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해주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안현에 모여들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관 은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병력과 장위영 병력이 일진(一陣)은 내포(內浦)로, 일진은 용안(龍安)·고산(高山) 등지로 향하고, 일진은 여산(礪山)으로 향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3-344쪽).

관 미시 경에 대관 최영학(崔永學)이 교도병 1대 및 일본군 병력 1대를 거느리고 진군하여 금구읍에 이르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4-345쪽).

관 이규태가 신시 경에 여산읍(礪山邑)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쪽).

관 원세록이 진시 경에 전주성으로 들어가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346쪽).

### 11월 25일 (양. 12월 21일)

전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25일 원평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품(品)자를 만들어 진을 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및 관군의 전투는 오전 9시경에 시작되어 오후 4시경에 끝났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37명의 전사자를 내었으며, 관군과 일본군은 회룡총(回龍銃) 10정, 조총 60정, 연환(鉛丸) 7석(7石), 화약 5괘(5櫃), 자포(子砲) 10좌(坐), 도창 200자루, 미(米) 500석(石), 전(錢) 3,000냥, 목(木) 10동(同). 소 2마리, 말 11필, 우피(牛皮) 10장, 호피(虎皮) 1령(令), 문서(文書) 2롱(籠) 등을 노획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45-46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4-345쪽).

전 장흥 대흥면(지금의 대덕면)에서 접주 이인환이 기포하였으며(「日史」 『叢書』 7, 490-491쪽), 여기에 웅치 동학농민군이 합류하여 1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고읍(古邑)으로 직향하여 관군을 협박하고 남면을 거쳐 회령(會寧)으로 진격하였다.

강 강릉부를 점령하는 데 참가했던 정선·여량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지왈길이 잡혀 효수당하였다(「東匪討論」 『叢書』 12, 211쪽).\*

\*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에는 11월 23로 되어 있다(『叢書』 12, 263쪽).

강 삼척 상하장면 등지에 동학농민군 여당이 다시 모여들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11쪽).

황 이날 새벽 해주성의 포군 200명이 안현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동학농민군 2명을 생포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관 경리청 부영관 안성 군수 홍운섭(洪運燮)이 은진의 육곡(六谷)에 사는 신현기(申鉉基)가 자신을 대장이라 하고 무리 5-600명을 모아 금산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재 자기 집에 있다고 하여 새벽에 1개 소대를 조발하여 대관 김명환(金命煥)·교장 정재원(鄭在元)에게 가서 습격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신현기는 아직 귀가하지 않아 그 아비 신응균(申應均)·숙부 신낙균(申洛均)·종형 신현구(申鉉九) 및 옥천포(沃川包)의 잔당 원준상(元準常) 등 4명을 붙잡았다. 쌀과 벼와 화약·납탄·조총·곤장 등의 물건을 무수히 쌓아두었기에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물에 빠트리 버릴 수 있는 것은 물속에 집어넣었고 곡물의 경우는 모두 운반하여 왔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3쪽).

관 이규태가 진시 경에 출발하여 진시 경에 삼례역(參禮驛)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쪽).

일 서로군[森尾부대의 지대, 1소대]가 남원으로 진군하였다.

일 서로군[森尾부대, 2중대]가 태인전투에서 전봉준부대를 격퇴시킨 후에 태인·흥덕·영광으로 진군하였다.

일 중로군[南四郎부대]가 만마관(萬馬關)·남원으로 진군하였다.

일 츠쿠바함대의 육전대 87명이 좌수영에 상륙하였다.

## ■ 11월 26일 (양. 12월 22일)

경 경상 감사 조병호는 소모사와 토포사의 관할 지역을 5개로 나누고 각 군현에 이문(移文)으로 알렸다. 상주소모사(尙州召募使) 정의묵(鄭宜默) : 상주·함창·문경·의성·용궁·예천·예안·안동·풍기·봉화·순흥·영천·청송·진보·영양 15읍. 대구토포사(大邱討捕使) 지석영(池錫永) : 대구·경산·자인·현풍·하양·신령·창녕·영천·청도·영산·초계·경주 12읍. 인동토포사(仁同討捕使) 조응현(趙應顯) : 인동·

칠곡·선산·개령·김산·군위·비안·성주·고령 9읍. 거창소모사(居昌召募使) 정관섭(丁觀燮) : 거창·안의·함양·산청·단성·삼가·합천·지례·진주·하동·의령·남해 12읍. 창원소모사(昌原召募使) 이종서(李鍾緒) : 창원·칠원·함안·웅천·김해·밀양·양산·진해·고성·사천·거제·울산 12읍(「召募日記」 『叢書』 11, 176-177쪽)

황 신임 황해감사가 평양에서 부임차 내려오던 도중 재령 부근에서 동학농민군에게 붙잡혔으나, 백방으로 설유하여 석방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30쪽; 「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299쪽).

관 이규태가 진시 경에 행군하여 전주부(全州府)를 향해 갔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5쪽).

관 이규태가 각 소대를 거느리고 유시 경에 전주부(全州府)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2쪽).

관 좌부영관(左副領官) 이두황의 통지에 의거하여 대관 윤희영(尹喜永)·이규식(李圭植), 교장 오순영(吳順永)·장세복(張世福)·양기영(梁基英)·이경진(李景振)·홍선경(洪善敬) 이 병정 230명과 일본 병사 40명을 거느리고 전주감영을 출발하여 금구읍(金溝邑)의 숙소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0쪽).

일 일본군 병사 105명(소속부대 불명)이 서울-부산간의 수비대 보충으로 파견되었다(『남부병참감부 일지』 12.22).

일 츠쿠바함대의 육전대 31명이 좌수영병 250명과 함께 좌수영을 수색한 후에, 순천부 덕양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2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 덕양의 비봉산에서 또 다시 동학농민군과 싸워 약 50명을 죽였다.

일 용산수비대[鈴木부대] 해주부근에서 2천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12명을 죽이고 9명을 사로잡았다.

## 11월 27일 (양. 12월 23일)

전 원평에서 물러나 태인으로 간 동학농민군 8천여 명은 전봉준, 김문행(金文行), 유공만(劉孔萬), 문행민(文行敏) 등의 지휘하에 태인의 주산인 성황산, 한가산, 도리산 등 3개 산 9개 봉우리에 진을 쳤다. 태인까지 추격해온 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동학농민군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4-50명이 생포되고 3-40명이 전사하였으며, 회룡포 15정, 조총 200여 정과 다수의 탄약, 죽창, 말 6필 등이 노획되는 참패를 당하고 고부와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는 8,000여 명이었으며, 경군은 230명, 일본군은 40명이었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87-90쪽 ; 「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59-162쪽). 일본군은 태인전투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44-45쪽). 관군 측에서는 8,000명, 혹은 6,000으로 추산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87쪽 ; 「兩湖右先鋒日記」 『叢書』 15, 161쪽).

전 전봉준은 태인 전투에서 패한 후 동학농민군을 다시 결집하였으나, 이미 더 이상 전투에 임할 대오조차 갖출 수 없었다. 전봉준은 여기서 동학농민군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全琿準供草」 『叢書』 18, 21쪽).

전 손화중과 최경선이 다시 광주를 점령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102쪽 ;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15쪽).

충 상주소모영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충청도 청산에 들어와 최시형이 왕래하며 머무르던 청산 대사동(大寺洞), 보은 점동(店洞) 마로(馬老) 등지를 기습했으나 붙잡지 못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66-467쪽).

경 상주 소모영의 유격병은 별포 80명이 합류해서 130명의 병대가 되어 소모사 정의 목의 진군초멸영(進軍剿滅令)에 따라 4대로 분군(分軍)해서 청산과 보은 4개동으로 진군하여 동학 교주 최시형이 왕래하며 머무르던 곳을 수색하였다. 이때 탐문한 최시형의 은신처는 청산 대사동 원가의 집, 월남 박해수의 집, 보은 점동의 이가의 집, 마로 현면상의 집이다. 중모시에서 도주한 남진갑을 다시 붙잡아 다음날 포살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66-467쪽).

황 해주성 남쪽과 서쪽에서 산포수를 앞세운 동학농민군과 연안에 급히 해주로 돌아온 일본군 및 관군 사이에 싸움이 전개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 병력은 재령·신천·문화·장연·옹진·강령 등의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3만 명에 이르렀고 일본군은 60명 관군은 포군 200명과 관속배 등이었다. 전투는 5시간에 걸쳐 벌여졌으며 오후 2경에 끝났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20명이 전사하고 15명이 포로가 되었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쪽 ; 「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29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30쪽).\*

\* 『백범일지』에 따르면 이때 동학농민군은 선발대로 해주성 남문을 급습하여 수성군을 유인한 다음, 주력부대는 서문을 총공격하는 전략을 세워 공격하였다(『백범일지』, 39쪽). 연안으로 향하던 일본군대가 해주의 적을 정탐하라는 복원(福原)병참부의 명령을 받고 급히 해주로 돌아오에 따라 남문 동학농민군들이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총사령부에서는 퇴각명령을 내렸다.

황 해주전투 때 사로잡은 동학농민군 수중에서 도록(都錄)이 발견되었다. 동학농민군 수령인 임종현(林宗鉉)이 자신을 감사(監司)의 위치에 올려놓고 성재식(成載植)을 강령 현감(康翎縣監), 이용선(李容善)을 안악 현감(安岳縣監)으로 삼는 등, 휘하 동학농민군의 각 부군현(府郡縣)의 장(長)을 그 지역의 지방관인 부사(府使)·군수(郡守) 등으로 임명하였다(『甲午海營匪擾顛末』 『叢書』 12, 275-276쪽; 『東學黨征討略記』 『叢書』 12, 309쪽).

관 윤희영 등이 새벽에 행군하여 사시에 태인(泰仁)의 경계에 이르렀다. 동학농민군의 정형을 정탐하니 동학농민군의 거괴 전봉준(全琫準)·김문행(金文行)·유공만(劉孔萬)·문행민(文行敏) 등 네 명의 접주가 8,000여 명을 이끌고 태인읍의 주산인 성황산(城隍山)·한가산(閒加山)·도리산(道理山, 또는 道伊山)에 모여 진을 치고 있어서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대관 윤희영(尹喜永), 교장 이경진(李景振)·홍선경(洪善敬)이 거느린 병정 90명은 일본 병사 20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이 있는 산서쪽 길에서부터 공격하고, 대관 이규식(李圭植), 교장 오순영(吳順永)·장세복(張世福)·양기영(梁基英)이 거느린 병정 140명은 일본 병사 20명과 함께 동쪽 길을 따라 호응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진을 쳤던 산을 탈환하였다. 네 길목에 있던 병사들이 동학농민군을 쫓아갔다. 동학농민군 50여 명을 생포하고 총으로 40여 명을 죽였다. 많은 군물(軍物)을 노획하였다. 저녁에 태인읍에서 군대를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0-351쪽).

## 11월 28일 (양. 12월 24일)

전 운봉에서 병력을 재정비한 박봉양은 11월 28일에 재차 남원으로 출동하였다. 남원 성에는 화산당(花山堂) 접주 이문경(李文卿)과 오수 접주 김흥기, 임실 접주 최승우가 지키고 있었다. 성 위에서 완강하게 방어하자 운봉 수성군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오하기문』에는 민보군의 병력은 4천여 명, 동학농민군은 8백여 명이라 하였다. 운봉 수성군은 오후 4시경에 성문 아래 민가에 불을 지르고 남 서 두 문에 나무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다. 동학농민군은 서문과 남문이 불 타

버리자 밀려드는 민보군을 막을 길이 없어 중과부적으로 북문으로 빠져나갔다. 『박봉양경력서』에는 동학농민군 사살자는 30여 명이고 생포자는 백여 명이라고 하였다. 민보군도 사살자 5명, 부상자 84명이라 하였다. 성안으로 들어간 박봉양군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281쪽 ; 「朴鳳陽經歷書」 『叢書』 7, 542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전 원평에서 일본군과 경군의 공격을 받고 전봉준과 같이 싸우던 손병희는 태인으로 후퇴, 전봉준과 헤어진 다음 내장산 갈재를 넘어 순창 복흥을 거쳐 28일에 임실 갈담으로 왔다. 청운면 새목터 허선(許善)의 집에 있던 최시형과 함께 장수, 무주를 거쳐 북상하였다(표영삼,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 『동학연구』 5, 1999).

관 이규태가 금구현(金溝縣)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院坪) 거리(巨里)에 도착하였다. 행군하여 태인(泰仁)의 석현점(石峴店)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8-349쪽).

관 장위영 대관 윤희영(尹喜永)·이규식(李圭植)이 소대를 이끌고 원평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려오다가 태인읍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몇 천 명을 토벌하였다. 많은 동학농민군을 포살하고 생포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8-349쪽).

일 츠쿠바함대의 육전대 87명이 순천부 덕양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2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

## 11월 29일 (양. 12월 25일)

전 이날 밤 전봉준이 입암산성으로 피신하여 하루를 유숙하였다(「先鋒陣上巡撫使書」 『叢書』 16, 276쪽, 287쪽 ; 「日本士官函牒」 『叢書』 16, 381쪽).

충 상주소모영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충청도 청산에서 운량도총관 배학수(裴學秀), 팔로도집강 김경연(金景淵)을 붙잡았는데 청산 현감 조만희(趙萬熙)가 유격장 김석중에게 구명을 요청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68-469쪽).

충 문석봉(文錫鳳)을 소모사로 차하하였다(「義山遺稿」 『叢書』 9, 390쪽).

경 산청(山淸) 현감 정복원(鄭必原)이 경상 감사 조병호에게 보낸 첩정에서, 산청에서 체포한 동학농민군 이원극(李元極), 조천수(趙千守)는 평민을 침책하여 전국과 조충

마필을 약탈한 죄를 자복하여 이원극은 11월 29일 처형하고, 조천수는 12월 3일에 처형했다고 보고하였다(『別啓』, 「甲午十二月二十八日 別報」).

관 이규태가 동학농민군이 진을 치고 정읍(井邑) 등지로 전진한다는 말을 듣고서 진시정에 일본군 각 부대와 함께 동시에 발행하였다. 정읍현 중흥리(中興里)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일본군 병사는 천원참(川原站)에서 나누어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9쪽).

관 전(前) 경리청 참령관 구상조(具相祖)가 금영의 통지에 따라 대관 김명환(金命煥)에게 병정 반개 소대를 거느리고 참령관 이윤철(李潤徹), 교장 고진룡(高振龍), 금영 군관 장윤국(張允國)과 함께 연산읍(連山邑)으로 출진(出陣)하게 하였다. 관동(官洞)의 포수(包首) 정관손(鄭判孫), 그 곳의 접주(接主) 김현구(金鉉龜), 노성(魯城) 대명(大明)의 포(包) 접주 박만은(朴萬殷), 전봉준의 수하(手下)로 이른바 오영도순찰(五營都巡察)이라는 명색의 이현석(李鉉石) 등 네 사람을 체포하여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0-361쪽).

일 사이토(齊藤)부대가 충청도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고 인천에 도착하였다.

### 11월 30일 (양. 12월 26일)

전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郎)가 이끄는 일본 부대가 전봉준이 입암(笠巖) 산성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군관, 경병과 함께 갔으나 전봉준은 이미 알고 백양사로 피신하였다(「日本士官函牒」 『叢書』 16, 381-382쪽).

충 상주소모영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팔로도성찰 강경중(姜敬重)과 부성찰 허용(許用)을 체포해서 청산 동시(東市)에서 포살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69-470쪽).

황 30일밤 10시경 은율지역 동학농민군이 장연 관아를 습격하여 관아를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57쪽).

황 밤중에 동학농민군 4-5백명이 총을 쏘며 은율의 관아에 돌입하여 군기고를 부수고 총 340정, 쇠창 300자루, 탄환 2만개, 화약 1,500근 등 무기와 집기들을 탈취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57쪽).

관 순무선봉진 본 부대가 천원역(川原驛)에 주둔하고 전봉준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103쪽).

## ■ 11월 말

황 15명의 접주를 위시한 여러 두목들이 회의를 통해 거사를 결정하였다. 제1회 총소집의 위치를 해주 죽천장(竹川場)으로 정하고 각처 도인(道人)들에게 경통(敬通) 발하였다(『백범일지』, 38쪽).

황 김창수가 팔봉도소(八峰都所) 세워서 산포수를 모아 군대를 편제하였다(『백범일지』, 38쪽).

황 평산 북쪽 10리 지점에서 공사중이던 일본인들이 동학농민군 300여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금품을 약탈당했다(『일청전쟁실기』 14쪽 ; 한우근,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한국사론』 4, 서울대학교, 1978, 주 62 참조).

## 1894년(甲午年) 12월

### 12월 1일 (양. 12월 27일)

- 전 광주를 다시 점령해 있던 손화중이 오전 10시경 휘하의 동학농민군을 해산하고 떠났으며, 최경선은 귀화한다는 방문을 내걸고 떠났다. 광주목사는 동학접주 주윤철(朱允哲) 등 5명을 곤장을 쳐 물고시키고 광주 접주 박사집(朴士執), 나주접주 전유창(全由昌)은 초토영으로 압송하였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102쪽;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15쪽).
- 전 김개남이 11월 23일 전주에서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가, 12월 1일 태인 산내면 종송리(山內面 種松里)에서 11월 30일부터 추적해온 강화병 병방 황헌주와 전초대관(前哨隊官) 박승규가 이끄는 관군 80명과 포교 3명에게 체포되었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120쪽;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23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2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7쪽).
- 전 장흥 인근의 동학농민군이 보성에서 들어와 장흥 사창에 주둔하였다. 대접은 만여명, 소접은 2-3천여 명으로 금구의 거괴 김방서, 화순의 괴수 김수근(金秀根), 능주 거괴 조종순(趙鍾純) 등이 모두 동학농민군을 거느리고 도착하였다. 이때 이방언은 급히 군사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장차 나주와 강진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六有齋遺稿』 『叢書』 8, 246쪽; 『永懷記』 『叢書』 8, 341쪽).
- 관 이규태가 진시 경에 각 소대와 일본 병사를 거느리고 출발하여 노령(蘆嶺)에 도착하였다. 유시 경에 장성읍(長城邑)에 이르러 주둔하였다. 미시 경에 일본군 대위 모리오가이찌(森眉雅一)가 대관 신창희(申昌熙)·오창성(吳昌成)·별군관 이지효(李志孝)·황범수(黃凡秀)·이주서(李周瑞)·교장 박상길(朴相吉)·황수옥(黃水玉)·병정 150명을 거느리고 일본 병사와 함께 담양(潭陽)에 둔취하고 있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49-350쪽).
- 일 중로군[본대]가 전라도 임실에서 동학농민군 13명을 포획하여, 그 중 6명을 본보기로 살해하였다.
- 일 동로군이 경상도 함양 → 전라도 운봉 → 남원에 도착하였다.

### 12월 2일 (양. 12월 28일)

전 전봉준이 김개남과 만나기 위해 순창 피로리로 잠입하였다가 12월 2일 밤 사인(士人) 한신현(韓信賢), 김영철(金永徹), 정창욱(丁昌昱)이 끌고 온 민정들에게 체포되었다. 전봉준은 순창에 수감되었다가 7일 일본군에게 인도되어 나주로 압송되었다(「巡撫先鋒陣營錄」 『叢書』 14, 107-108쪽, 120-121쪽, 197-198쪽 ; 「先鋒陣日記」 『叢書』 16, 104-105쪽 ;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叢書』 16, 116쪽 ;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16-217쪽).\*

\* 전봉준 스스로는 상경하여 서울의 정국을 상세히 탐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가 체포되었다고 하였다(「全琿準供草」 『叢書』 18, 22쪽).

전 심영의 중군 황헌주가 김개남을 포박하여 12월 2일 전주로 이송하였다.

충 상주소모영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대장 서오덕(徐五德)을 체포해서 이틀전에 잡은 팔로도집강 김경연과 함께 소사동(小巳洞)에서 포살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71-472쪽).

관 서산 군수 성하영이 부임하려 경리청 병정을 거느리고 비인(庇仁)·남포(藍浦)로 가고 참모관·별군관은 선봉의 본진으로 부임하려 서천(舒川)·송동(松洞)으로 길을 나누어 출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8-359쪽).

### 12월 3일 (양. 12월 29일)

전 이도재는 전주 인근에 아직 동학농민군들이 다수 둔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송도중에 탈취당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월 3일 오후 4시경 서교장에서 참수하고, 수급만 서울로 보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7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2-4쪽, 8쪽).\*

\* 황헌은 감사 이도재가 김개남을 신문하자 “우리들이 한일은 모두 대원군의 은밀한 지시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일이 실패한 것은 또한 하늘의 뜻일 뿐인데 어찌 국문한다고 야단이나”고 하였기 때문에 김개남을 살려두었다가는 혹여 난을 불러올까 두려워 서울로 이송하지 않고 전주에서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하였다(「梧下記聞」 『叢書』 1, 302-303쪽 ; 「嶺上日記」 『叢書』 2, 294쪽).

- 전 12월 1일에 광주를 떠난 최경선은 남평에 들러 식량 등을 거두어 가지고 약 2백여 명을 이끌고 동북으로 내려갔다. 12월 3일 새벽 외남면 벽사(碧松)와 차평(沙坪)이란 큰 마을에 이르게 되어 유숙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위장을 지낸바 있는 오윤술(吳潤述)이 이교(吏校)와 민포군 300여 명에 의해 220명의 동학농민군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 가운데 157명은 사살되었으며, 나머지는 생포되었고 최경선은 순창에 수감되었다가 일본군에게 인도되어 7일에 나주로 압송되었다(「全羅道所獲東徒成冊」 『叢書』 8, 36쪽; 「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198-199쪽).
- 경 상주 소모영 유격장 김석증에게 소모영 탐세인(探細人) 박정호(朴貞浩)가 야간에 와서 최시형이 5, 6일전에 옥천 고관(高寬) 등지에서 은신해 있던 것을 밀고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73쪽).
- 관 대관 오창성(吳昌成)이 유시 경 담양부에서 일본군 대위와 함께 선봉진으로 돌아왔다. 대관 신창희를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를 토벌하기 위하여 담양부에 나누어 주둔시켰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1쪽).
- 관 한산의 부보상(負祿商) 및 옹포 주민이 힘을 합쳐 최득용(崔得用)을 잡아 서산 군수 성하영에게 바쳤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8-359쪽).
- 관 일본 대대가 담양부로 들어올 때에 순창의 소모 중군(召募中軍) 신기찬 및 군관 임민학(林敏鶴)이 그곳 병정 150명과 옥과(玉果)에서 온 의병군 100명을 거느리고 약속한 기일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별군관 황범수(黃凡秀)·이지효(李志孝)·이선(李璿) 및 담양부 의병장 구상순(具相淳), 수성군 통령(守城軍統領) 박동진(朴東眞)·국치열(鞠致烈), 작대별장(作隊別將) 국희열(鞠羲烈) 등이 함께 작전을 짜고 힘을 합쳐 담양부 수성군 가운데 300명을 징발하였다. 이 군대에서 부교(府校)와 통령(統領)을 정하고 동학농민군을 쫓아가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이장태를 체포하였다. 같이 체포한 죄인 중에 국문보(鞠文甫)·김희완(金喜完) 두 명을 진중(陣中)으로 압송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1쪽).
- 일 중로군[본대]이 전라도 남원에 도착하였다.
- 일 동로군[白木지대·水原지대]가 전라도 무주 → 장수 → 남원에 도착하였다.
- 일 용산수비대[中山인솔, 69명]가 황해도 해주로 행군하였다.

### 12월 4일 (양. 12월 30일)

- 전 오전 8시경 장흥 사창 등지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장흥 벽사역(碧沙驛)을 공격하여 관아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장흥부로 갔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6, 112쪽, 127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3-354쪽).
- 전 12월 3일 이규태가 인솔한 관군이 담양에 들어오자 순창 소모(召募) 중군 신기환과 군관 임민학이 150명의 병졸을 이끌고 왔으며, 옥과에서도 부의군(赴義軍) 100명을 이끌고 왔다. 이에 앞서 온 별관 황범수, 이지효, 이선이 담양 민보군 대장 구상순, 수성군 통령 박동진, 국치열, 작대(作隊) 별장 국의열 등이 수성군 중 300명을 출동시켜 동학농민군 체포에 나서 12월 4일 거피 이장태 등을 체포하였다. 그 중 이문수, 채대로미(蔡大老未), 장대진(張大辰), 임송도(林松都)는 포살하고 국문보, 금희완(金喜完)은 경군소(京軍所)로 압송하고 접주 이장태는 일본군에 넘겨져 포살되었고, 나머지 15명은 담양옥에 가두었다가 경중을 가려 처벌했다. 이때 노획한 조총 10정도 담양과 순창 수성군이 5정씩 나누어 가졌다 한다. 또 읍내에 동학농민군이 군량미로 비축해 두었던 조(租) 26석과 용귀동 대곡(大谷)에 비축해 두었던 군량미 80석도 몰수하여 담양과 순창 수성군이 나누어 먹었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149-151쪽).
- 충 상주소모영 유격장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이 영동 고관리(高寬里)를 기습하여 비괴(匪魁) 대장 정운서(鄭允瑞)를 붙잡았다. 정운서는 한 달 전 금산 읍내를 점거할 때 참판 정숙조(鄭肅朝) 살해에 가담하고 양산에서 일병과 접전하였다가 패주한 인물이다(「討匪大略」 『叢書』 11, 473쪽).
- 충 충청도 공주·청풍·서천 등지에서 비요(匪擾)로 피해를 입어 집이 불탄 민호(民戶)에게 홀전(恤典)을 내리게 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 경 상주 소모영 유격병이 새벽에 60리를 조용히 행군하여 옥천 황지(璜池) 고관리에서 대장 정운서(鄭允瑞)를 체포하였다. 정운서는 자칭 옥의포(沃義包) 대장으로 금산 점거에 가담하고 양산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패주하여 고관리에서 은신하던 중이었으며, 다음날 포살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73쪽).
- 강 신배령에서 활동하던 손장업(孫長業)·김창수(金昌守)·이관구(李寬九)·오주실(吳周實)·이동익(李東益)·고준성(高俊成) 등이 체포되었다. 이동익·고준성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귀화하여 석방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22-223쪽).

- 관 이규태가 장성부에 주둔하였다. 정읍의 동학농민군 우두머리인 손덕수(孫德秀)를 마을주민이 잡았다. 손화중과 곤장수(棍杖手) 정정칠(丁正七) 및 장성부 아곡에서 잡아들인 우두머리 이춘학(李春學) 세 명을 오시 경에 군민(軍民)을 장대(將臺)에 크게 모여 놓고 목을 베었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1-352쪽).
- 관 대관 신창희가 신시경에 담양부에서 선봉진으로 돌아왔다. 담양의 접주 두 명을 잡아왔다. 오시 경에 일본군 대위의 통지에 따라 병정 20명을 흥덕현(興德縣)으로, 병정 30명을 일본 병사 20명과 함께 고창현(高敞縣)으로 파송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1-352쪽).
- 관 서산 군수가 상와촌(上瓦村)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붙잡았다. 천귀돌(千貴鬚)을 처단하였다. 익산(益山)의 경계에 이르러 최정선(崔定仙) 등 네 명을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8-359쪽).
- 일 부산수비대의 일부가 부산 → 하동으로 진군하였다(육로 행군).

## 12월 5일 (양. 12월 31일)

- 전 새벽 이방언(李方彦)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장흥을 함락하고 부사 박헌양을 죽였다. 이방언이 끄는 동학농민군이 12월 4일 벽사역에 불을 지르자 찰방 김일원은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장흥에 둔 다음 병영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동학농민군이 장흥을 침범하였다. 부사 박헌양과 장흥 아전 주두옥(周斗玉), 임창남(任祚南), 주열우(周烈佑), 김창조(金昌祚), 김찰방(金察訪)의 아들 등이 모두 죽었고 병사와 백성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400-500명이나 되었다. 동학농민군은 장흥의 관아와 민가 3,700여호를 불태워버렸다(「梧下記聞」 『叢書』 1, 283쪽; 「六有齋遺稿」 『叢書』 8, 248쪽;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118쪽, 127쪽, 170쪽, 229쪽, 368쪽; 「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3-354쪽, 356-35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7쪽).
- 전 영광군의 흥농면에 사는 이현숙(李賢淑)이 민포군을 이끌고 접주 송문수를 잡아 처형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97쪽, 225쪽).
- 전 함평현의 동학농민군 대접주 이화진(李化辰)과 접주 김경오(金京五), 이춘익(李春益), 이재면(李在冕), 이곤진(李坤辰), 김성필(金成必), 김인오(金仁五), 김성서(金成西), 노덕휘(魯德輝) 등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105쪽, 129쪽, 179쪽).

경 상주 소모영 유격병은 무주에서 10리 거리인 하고관리(下高寬里)에 이르렀을 때 동학농민군 7,000여 명이 무주읍을 함락시키고 영동·상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상주로 회군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73-475쪽).

관 호남 각 읍에 감결을 보내 동학농민군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다(「先鋒陣日記」 『叢書』 16, 104쪽).

관 함평 현감(咸平縣監)이 병정을 모집하여 성을 지키고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다.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이화진(李化辰) 및 접주 김경오(金京五)·이춘익(李春益)·노덕휘(魯德輝)·이자면(李滋冕)·이곤진(李坤辰)·김성필(金成必)·김인오(金仁五)·김성서(金成西) 등 9명을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9-360쪽).

일 중로군[본대]이 남원 → 담양으로 진군하였다.

일 동로군이 남원 → 곡성 · 옥과 · 동복으로 진군하였다.

## 12월 6일 (양. 1월 1일)

전 12월 6일\* 새벽 영호대접주 김인배와 접주 유하덕이 순천의 아전 성용희(成庸熙), 이영주(李榮柱), 장교 이종갑(李宗甲), 김언찬(金彦燦), 출신(出身) 천사성(千士成), 윤성섭(尹成涉) 등이 이끄는 민포군에 체포되어 효수되었다. 김인배의 머리는 객사의 중간에 걸렸다. 이날 체포된 동학농민군은 도집강소 접주 접사 성찰 등을 포함하여 수백명에 이르렀으며, 200여 명이 포살되었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297-299쪽, 354-357쪽 ; 「二六新報」 『叢書』 22, 26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4-5쪽).

\*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上 656쪽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5쪽에는 12월 7일로 되어 있다.

충 충청 병사 이장회(李長會)가 장계로 공주 한밭에서 변란을 일으킨 비류(匪類) 이천악(李千岳) 등 7사람과 접사(接司) 김응구(金應九) 등을 대대적으로 군민(軍民)을 모아 놓고 효수한 것을 보고하였다(『承政院日記』).

경 단성 현감 윤태일(尹泰駟)이 경상 감사 조병호에게 보낸 첩정에서, 단성에서 체포한 동학농민군 권인택(權仁宅)은 말을 타고 읍촌에서 횡행하던 실상이 드러났으며, 강

순서(姜順瑞)는 양반을 위협해서 벼를 탈취하였고, 이재석(李在石)은 노비로서 동학 농민군에 들어가 상전을 위협했으며, 김준이(金俊伊)는 마을에서 자의대로 토색을 하였고, 김재수(金在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혹해서 강제로 도당에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12월 6일 처형한 것을 보고하였다(『別啓』, 「甲午十二月二十八日 別報」).

관 서산 군수 성하영이 미시 경에 완영에 도착하여 주둔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8-359쪽).

관 함평 현감(咸平縣監)이 접주 김치오(金治五)·정원오(鄭元五)·김경선(金京先)·윤경욱(尹景郁)·정근서(鄭坤西) 등 5명을 체포하고 포살하였다. 또한 이화진의 수종자(隨從者)인 조병묵(曹丙默)·서우순(徐佑順)·김문조(金文祚)·이응모(李應模)·김봉규(金奉圭)·박준상(朴俊尙) 등 6명을 모두 붙잡아 가두었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9-360쪽).

## 12월 7일 (양. 1월 2일)

전 전봉준은 순창관아에 수감되어 있다가 12월 7일 양회(혜)일, 최경선과 함께 일본 군에 인계되어 초토영이 설치되어 있던 나주로 이송되었다. 전봉준이 담양을 거쳐 나주로 압송되는데는 7-8일이나 걸렸으며, 이 때문에 부상당한 자리가 썩어들어 갔으며, 정신도 몹시 쇠약해져서 묻는 말에 대답조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전봉준은 최경선과 함께 임시로 설치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손화중도 전봉준, 최경선과 같이 나주에 수감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梧下記聞」 『叢書』 1, 309쪽; 「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197-198쪽; 「先鋒陣呈報牒」 『叢書』 16, 22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52쪽).

전 오전 장흥을 함락한 뒤 6일 오전 10시 경에 벽사역(碧沙驛) 뒤 고개로 이동하였다가 오후 2시경에 다시 장흥과 강진의 접경지인 사인점(舍人店)으로 이동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이날 오전 민포군을 물리치고 강진현을 함락시키고 장리(將吏) 별초(別抄) 수성군(別抄 守城軍) 등을 총살하였다. 관아와 민가 1,00여호가 불탔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134쪽, 142쪽, 170쪽, 36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7쪽).

충 충청 감사 박제순의 장계에 따라, 공주에서 비적(匪賊)을 토벌할 때에 공로를 세운 무관과 군교들에게 포장(褒獎)을 베풀었다. 공주 영장 이기동(李基東)은 몇 달 동안 군사들을 훈련시켜 요해처를 방어한 공으로 변지 첨사(邊地僉使)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대솔 군관(帶率軍官) 구완희(具完喜)는 여러 차례 토벌에 참가한 공이

있고, 최규덕(崔圭德), 이희준(李羲俊), 현영운(玄映運), 윤노선(尹魯善), 정창조(鄭昌朝)와 영하(營下)의 전 부사(前 府使) 이종헌(李鍾憲)은 총탄을 무릅쓰고 싸운 공이 있으므로 최규덕과 이종헌은 가자(加資)하고, 이희준과 현영운은 승서(陞敘)하여 조용(調用)하고, 구완희·윤노선·정창조는 당하관(堂下官)의 품계를 주며, 그 외의 군교는 모두 상(賞)으로 가자하고, 병졸들도 시상을 하였다(『承政院日記』).

강 진부면 소모군 종사관 박동의에게 동학농민군 성찰겸 초장(哨長) 김성칠(金成七)이 잡혀 포살되었다(『東匪討論』 『叢書』 12, 225쪽).

정 정부 각 아문 대신과 협판 등이 수정전에 모여 각 아문의 주본(奏本)을 올리는 행사를 갖고 새로이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續陰晴史』 上, 348쪽 ; 『朴定陽全集』 3, 186쪽).

관 함평 현감(咸平縣監)이 동학농민군 접주 이두연(李斗連)·김정필(金定必)·이관섭(李觀燮)·이창규(李昌奎)·공명오(孔明五) 등 5명을 포획하고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9-360쪽).

일 후비보병 제17대대[하사 이하 10명]를 서울-부산간 수비대 보충병으로 파견하였다(『천대전사료 77』 1895년 1월 2일조).

## 12월 8일 (양. 1월 3일)

전 8일에 무안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대월촌(對月村) 앞에 모였다가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조금씩 해산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216쪽).

전 8일 정오 무렵 진안 고산·진산·금산 등지의 동학농민군이 무주 접주 이응백(李應伯) 삼부자의 지휘하에 용담현을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관아 44칸과 민가 470호를 불태웠으며, 인명 17명을 죽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255쪽).

관 심영에서 파견한 병정들이 태인 종송리(種松里)에서 김개남(金介男)을 붙잡았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2쪽).

관 함평 현감(咸平縣監)이 동학농민군 접주 이재복(李在卜)·김원숙(金元叔) 2명을 붙잡아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9-360쪽).

관 금영 순찰사 지휘에 따라 대관 김명환(金命煥)과 참모관 이윤철(李潤徹), 교장 정

재원(鄭在元)이 병정 70명을 거느리고 동학농민군 우두머리를 토벌하고 체포하게 하려고 보은(報恩)·청산(靑山) 등지로 출발시켜 보냈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2쪽).

일 군로조사대가 충청도 금산에서 황간으로 진군하였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하동 섬진강 좌안의 산과 가옥을 불태웠다.

### 12월 9일 (양. 1월 4일)

전 순천부 사항리 산 위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및 관군이 전투를 벌였으며, 동학농민군 41명이 처형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4쪽).

충 동학 교주 최시형과 통령 손병희가 동학농민군 약 1만 명을 이끌고 전라도 무주에서 북상해서 황간 서수원에 머물다가 영동과 황간 읍내에 들어가 관아를 점거하고 무기를 탈취해서 영동 용산시(龍山市)에 들어가 주둔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7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8쪽).

정 전라 감사 이도재(李道宰)가 “이달 9일에 전봉준(全琫準)을 생포해서 압상(押上)하였다”고 전보하였다(『日省錄』).

관 이규태가 진시 경에 나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2쪽).

관 함평 현감(咸平縣監)이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윤정보·장경삼, 대접주 박춘서·정평오·김시환·윤찬진·김경문·박경중 8명을 붙잡아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9-360쪽).

관 대관 김명환이 이끈 부대가 회덕에서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2쪽).

### 12월 10일 (양. 1월 5일)

전 새벽 2시부터 장흥의 동학농민군이 강진병영성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병영을 둘러싼 세 개의 산 봉우리를 점거하고 일제히 대포를 쏘았다. 포화는 성을 향해 쏟아지고 화약연기는 하늘을 가렸다. 동학농민군이 목책(木柵)을 불지르고 성가퀴를 올라가자 병사가 피신해버렸다는 소문까지 들은 수성군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오후 정규찬, 감관 김두흡, 군교 백종진, 전 도정 박창현 등

이 저항하였다 전사하였다. 병사 서병무는 두루마기 차림에 패랭이를 쓰고서 피난하는 사람 틈에 섞여 영암 쪽으로 달아났다(「梧下記聞」 『叢書』 1, 285-287쪽).

경 김산소모사 조시영이 상주소모사 정의묵에게 이문(移文)을 보내서 무주의 비류가 영남으로 올 때 상주소모영에서 정예포군 200명을 보내서 추풍령을 방어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다. 정의묵은 중화(中化)가 상주소모영의 요충지라서 병력을 보내줄 수 없고 추풍령은 김산소모영에서 방어하도록 하자고 회신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1, 185쪽).

경 영동 청산의 향리가 상주 유격병에게 호남에서 오는 비류 ‘수만’이 황간과 영동 등지로 온다고 전하고 급히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1, 185-186쪽).

관 이규태가 진시 경에 출발하여 신시 경에 나주목(羅州牧)에 이르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6쪽).

관 대관 김명환이 이끈 부대가 옥천에서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2쪽).

일 이규태가 강진병영의 보고문과 공문을 일본 진영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미나미 쇼시로로(南小四郎)의 통지에 따라 세 갈래로 병사를 조발(調發)하여 이시구로 고세이(石黒光正)가 그 휘하 1개 소대 및 2개 분대와 교도중대 2개 분대를 거느리고 영암 땅으로 출발하고 제1중대 1소대 및 통위영 병사 30명은 능주(綾州) 땅으로 출발하고 히라기(白木) 중위는 그 휘하 병사 및 교도대의 남은 병사를 거느리고 장흥으로 출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6-358쪽).

일 서로군이 전라도 함평에 도착하였다.

일 중로군[본대]가 전라도 나주에 도착하여, 좌우중의 지대를 편성하여, 장흥에 파견하였다.

일 동로군이 능주에 도착하였다.

일 군로조사대[일부]가 황간으로 진군하였다.

일 부산수비대[藤阪부대]가 좌수영병 70과 함께 섬진강 고포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격퇴시켰다.

일 부산수비대 1중대가 관군 100명과 함께 광양현의 동학농민군을 격퇴시켰다.

일 봉산수비병 10명이 사리원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일 김수수비병 15명이 서흥에서 300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2명을 죽이고 3명을 사로잡았다.

일 봉산수비병 9명이 사리원에 파견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은 당세포, 해창으로 도주하였다.

### 12월 11일 (양. 1월 6일)

전 고창으로 잠입한 순화증이 10여일 후인 12월 11일 고창에서 사민 이봉우(李鳳宇) 등에게 체포되어 고창현에 갇혀 있다가 일본군에게 넘겨졌다(『承政院日記』).

경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예천에 비감(秘甘)을 보내서, 비류 4-5천명이 무주에서 청산을 지나 영남을 향했다면서 상주읍에 있는 병정은 2-3백명으로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정예 포군 600명을 14일까지 보내라고 군령을 전하였다(『召募事實』 『叢書』 11, 325-326쪽).

황 이날 오후 약 300여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서흥지방에서 일본군 검수(劍水)수비대와 접전 끝에 퇴각하였다. 이들은 사리원에 주둔 중이던 동학농민군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지도자는 박, 노, 신 등 3명이었으며, 모두 봉산에 사는 자들로 봉산군수에게 호소할 일이 있어서 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화승 총 92정, 화살 141개 등을 빼앗겼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1쪽).

황 약 5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정방산성의 무기를 사리원으로 운반해갔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2쪽).

관 이규태가 유시 경에 무안읍(務安邑)에 이르렀다. 수성군(守城軍)을 조직하여 각 면의 민간 장정들과 협동하여 접주 70여 명을 잡아 가두었다. 민원(民願)에 따라 30명을 처단하였고 40여 명을 가두었다. 그 중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배상옥은 법망을 빠져나가 도주하였고 배규찬은 체포하여 목을 베고 9명을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0쪽)

관 대관 김명환이 이끈 부대가 동학농민군이 영동 용산(龍山) 장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산으로 군대를 행군해 갔다. 가는 도중 청주 병사 180명을 청산 땅에서 상봉하여 진영을 합하고 청산읍에서 유숙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2-363쪽).

일 부산수비대(237명)가 섬거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6명을 죽였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배양거(襄陽居)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3명을 죽이고, 광양으로 진군하여 동학농민군 91명을 처형하였다.

### 12월 11일 - 12일 (양. 1월 6일-7일)

충 동학 교주 최시형과 통령 손병희가 이끄는 약 1만명의 동학농민군이 충청병영에서 파견한 진남영병 박정빈(朴正彬)이 인솔한 옥천 민보군 김석중이 지휘하는 상주소모영 유격병이 영동 용산시(龍山市)에서 전투를 벌였다(『均菴丈 林東豪氏 略歷』; 『討匪大略』 『叢書』 11, 478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8쪽).

### 12월 12일 (양. 1월 7일)

경 김산소모사 조시영의 구원 요청에 따라 추풍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관 최처규가 남영병 160여 명을 인솔하고 출발하였다. 이 남영병은 칠곡(13일)·김산(14-16일)·황간(17-19일)·청산(20-21일)·황간(22일)·김산(23일)을 순회하고 24일 남영에 귀영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527-535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경상감영과 인동토포사에게 급보를 전하며, 무주에서 오는 비류가 청산을 함락하고 황간에 있는데, 황간과 인접한 상주가 방어에 가장 급한 곳이므로 영병 300명을 화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招募事實』 『叢書』 11, 329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관찰하는 군현에 감결을 보내서, 무주에서 오는 비류를 막기 위해 각 읍의 정예포군을 선발하여 5일분 식량을 가지고 급히 상주로 오도록 군령을 전하였다. 각 군현에 병력 수를 지정했는데 안동은 300명을 16일까지 좌익장 권수종이 영솔해서 오도록 했고, 의성군은 300명, 문경군은 200명, 함창군은 20명, 용궁군은 20명을 보내도록 했다(『招募事實』 『叢書』 11, 329-330쪽).

황 동학농민군 30명이 정방산의 무기들을 운반해 성문 밖으로 나왔다가 일본군과 접전하여 5명이 전사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2쪽).

정 국왕은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신료를 인솔하고 종묘에 나가 홍범(洪範) 14조를 포함한 독립의 서고문을 바치게 하였다(『官報』 ; 『日省錄』).

관 대관 김명환이 군대를 출동하여 영동 용산 장터로 출발해 갔다. 동학농민군과 접전을 하여 동학농민군 5, 60명을 포살하였다. 탄환이 떨어지고 참모관 등이 죽어

청산읍으로 회군하였다. 청산읍이 동학농민군의 집결지여서 보은으로 회군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2-363쪽)

일 중로군[우측지대]이 강진전투를 벌였다.

일 중로군[좌측·중앙지대], 장흥전투 1일째.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광양현에서 99명을 처형하였다.

일 황주수비병 20명이 정방산성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5명을 죽였다.

### 12월 13일 (양. 1월 8일)

경 상주소모사 정의목의 구원병 요청에 따라 남영병 50여 명을 초관 김태인(金台仁)이 인솔해서 상주로 출발하였다. 23일 대구로 돌아오기까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주에 주둔하였다(「嶠南隨錄」 『叢書』 12, 536-548쪽).

황 1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12월 10일 사리원에 와서 우마 300두를 약탈하고, 정방산성으로 가서 총기와 탄약, 궁시(弓矢)를 신고 13일 은파로 향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2쪽).

황 동학농민군 20명이 은파 일대에서 일본군에게 격퇴되었고, 흥곡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순서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2쪽).

황 오후 2시경 은파에서 25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추격해온 일본군 사카다 부대와 20여분간 교전을 벌였다. 동학농민군은 3명당 1명꼴로 총을 휴대하였고, 나머지는 창과 칼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2쪽).

정 오랜 폐단을 바로잡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중외의 신민에게 포고한 윤음을 반포하였다(『日省錄』).

관 별군관 이창식이 동학농민군 유규희(兪圭熙)·최성서(崔聖西)·최성일(崔聖一)·안순칠(安順七)·피만석(皮萬石) 등 다섯 명을 잡아서 상부로 압송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55쪽).

관 이규태가 유시 경에 목포진(木浦鎭)에 도착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2쪽).

일 중로군[좌측·중앙지대, 3중대] 장흥전투 2일째.

-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전라도 낙안에 도착하였다.
- ┌ 일 원산수비대가 함경도 원산에서 동학농민군 1명을 총살하였다.
- ┌ 일 황주병참부 수비병 20명이 원산방촌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20여 명을 격퇴하였다.
- ┌ 일 황주수비병[山中부대]이 은파에서 동학농민군 200여명과 싸워 7명을 죽였다.

### ■ 12월 14일 (양. 1월 9일)

- ┌ 일 중로군[좌측·중앙지대, 3중대]이 장흥전투 3일째로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 ┌ 일 수비병[伊勢川군조부대, 1분대]가 충청도 황간·영동에 구와하라(森原)부대를 응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 ■ 12월 15일 (양. 1월 10일)

- ┌ 전 장흥 석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방언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수만명과 교도병 일 본병 장흥 민포군이 격전을 벌여 동학농민군 200여 명이 죽었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228-229쪽).
- ┌ 경 경상 감사 조병호가 모두 군무를 맡는 토포사·소모사·조방장이 모두 평등한 위계라고 의정부에서 받은 지침을 상주소모영을 비롯한 각 군문에 전달하였다. 종래 상하관계가 명백하지 않아 공문 왕래 등이 불편하자 이 문제를 의정부에 질의해서 동등한 지위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라는 방침을 전달받고 서로 협의하여 군무에 임하라고 하였다(「召募事實」 『叢書』 11, 356쪽).
- ┌ 경 충청 감사 박제순이 의정부에 전보로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명하기를, 상주 유격이 청산에 와서 평민을 침학한다면서 유격장은 어떤 명색인지 알지 못한다며 월경하여 침학하는 것을 조사하여 전보로 보고하도록 하였다(「召募事實」 『叢書』 11, 363쪽).
- ┌ 경 상주소모사의 정예포군 파견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의성 포군 300명이 도착하였고, 저녁에 용궁 포군 20명과 함창 포군 19명이 도착하였다. 용궁과 함창 포군은 충청도에서 활동 중인 유격병을 지원하도록 파병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2, 200쪽).

관 행담양도호부사(行潭陽都護府使) 동학농민군의 접주 이장태, 국문보를 체포한 것을 보고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61쪽).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관군 50명과 함께 보성에서 동학농민군 11명을 죽이고 76명을 포획하였다.

일 군로조사대가 충청도 종곡전투를 벌였다. 충청도 청산에서 대구수비대 1분대와 합류하여 밤 10시 30분경에 종곡의 동학농민군을 대대적으로 기습하였으나 동학농민군에게 포위당하였다.

### 12월 16일 (양. 1월 11일)

충 동학 교주 최시형과 통령 손병희가 이끄는 약 1만명의 동학농민군이 보은 읍내로 들어가서 관아 건물을 방화해서 파괴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490-500쪽).

경 경상 감영에서 파병한 초관 김태인이 지휘하는 남영병 50여 명이 도착하였고, 개령병 100명도 이어 도착하였다. 소모사 정의묵과 상주 목사 이만윤 그리고 진영장 유인형이 상의해서 군량을 공전(公錢)과 의량(義糧)에서 조달하도록 하였다(「召募日記」 『叢書』 11, 201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묵의 지시에 따라 예천집강소의 민보군 600명을 선발하여 상주로 출발하였다. 집강 장문건 황송해는 도총(都總), 황돈일, 김시규는 좌우총독, 배영진(裴永鎭)은 군향도감(軍餉都監), 황세하(黃世河), 황돈해(黃敦海)는 참모가 되고, 좌수 박의진(朴義鎭) 및 사인(士人) 박승덕(朴承德), 김개근(金蓋根), 반재원(潘在元)은 별견유생(別遣儒生)이 되었다(「甲午斥邪錄」 『叢書』 11, 114쪽).

### 12월 17일 (양. 1월 12일)

전 장흥 죽산시(竹山市)에서 15일 장흥 석대에서 후퇴한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격전을 벌여 동학농민군이 패퇴하였다. 전사한 동학농민군이 100여 명이고 생포된 동학농민군이 20여 명이었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228-231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묵의 지시에 따라 안동병 300명이 참봉 권수종과 서기 권재중(權在重)의 인솔 아래 도착하였는데 100명은 포군이고 200명은 창군(槍軍)이다(「召募日記」 『叢書』 11, 202쪽).

정 국왕의 칭호가 주상전하(主上殿下)에서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로 격상되는 왕실존칭이 이루어졌다(『日省錄』).

일 군로조사대[桑原부대, 14명]이 종곡전투에서 대구수비병 1분대와 낙동 수비병 1분대, 그리고 상주병 240명과 연합하여 동학농민군 300여 명을 살해하였다.

### 12월 18일 (양. 1월 13일)

경 상주소모사 정의묵의 지시에 따라 예천에서 파견한 포군 500여 명이 총을 쏘며 북문으로 성내에 들어왔다. 영동과 보은에서 벌어진 전투와 행군 상황을 파악한 소모사 정의묵은 내일 예천으로 회진(回陣)할 것을 명하였다(「甲午斥邪錄」; 『召募日記』 『叢書』 11, 203쪽;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叢書』 11, 437-447쪽).

경 선무사 이중하가 내무협판으로 임명되어 가는 길에 상주소모영에 방문하자 정의묵이 소모 전말을 말하면서 유격장 김석중이 북곡(北谷)에서 세운 전공이 과오를 족히 덮을 만하다고 설명하였다. 야간에 유격병대가 보은 종곡에 들어갔는데 포성이 크게 나고 적도와 전투를 벌여서 북쪽으로 쫓아냈다는 소식을 소모사 정의묵이 들었다(「召募日記」 『叢書』 11, 203-204쪽).

강 관동대접주 이원팔이 보은 북실전투에서 전사하였다(「討匪大略」 『叢書』 11, 505쪽).

일 중로군[제1·2지대]가 제18대대소속의 조선군 교도중대와 함께 장흥 남쪽으로 진군하였다.

일 중로군[제1지대의 일부]가 진도로 진군하였다.

일 부산수비대[庄野부대]가 보성군 부춘동(富春洞)에서 동학농민군 14명을 사로잡았다.

일 부산수비대[藤阪부대]가 대가촌(代加村)에 진군하였다.

일 가흥수비병이 충청도 장호원과 음죽 사이에 정찰대를 파견하였다.

일 교도중대와 중로군 제1·2중대의 연합군이 장흥전투를 벌였다.

### 12월 19일 (양. 1월 14일)

경 상주소모사 정의묵은 유격장 김석중이 보은 종곡에서 패산한 동학농민군들이 문경

으로 향했다는 급보를 받고, 문경에 감결을 보내서 패망한 동학농민군의 여당이 문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각 면리에서 요충지를 엄히 방수하도록 영을 내렸다(「召募事實」『叢書』11, 377-378쪽).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보성군 해창산(海倉山)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1명을 사로잡았다.

### 12월 18일 - 19일 (양. 1월 13일 - 14일)

충 동학 교주 최시형과 통령 손병희가 이끄는 약 1만명의 동학농민군이 보은 북실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 추격해온 상주소모영 유격병·용궁 민보군·함창 민보군·일본군 270명이 기습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다음날 아침 북실의 북쪽 고지에 올라가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퇴각하였다. 전사자의 수는 기록마다 다른데 일본군 전투보고는 300여명, 「소모일기(召募日記)」는 395명, 「토비대략(討匪大略)」은 야간 전투에서 살해된 수는 393명이고 총으로 죽임을 당한 수가 2천2백여 명이라고 하였다(『均菴丈 林東豪氏 略歷』; 「討匪大略」『叢書』11, 500-50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68쪽).

### 12월 20일 (양. 1월 15일)

전 해남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성 밖에 모여 있다가 통위영병의 공격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전투에서 8-9명이 전사하고 모사(謀士) 전유희(全由禧)와 남리역(南里驛)의 접주 김신영(金信榮) 등 2명이 체포되었다(「巡撫先鋒陣騰錄」『叢書』14, 217쪽).

경 상주소모사 정의목과 상주 목사 이만윤 그리고 진장 유인형이 보은 종곡에서 회군하는 유격병을 맞아 태평루에서 잔치를 벌였다. 남영 초관 김태인도 남영병 50명을 인솔하고 성내에서 들어왔다. 인동토포사 조응현이 군대를 이끌고 선산에 도착했다는 노문(路文)을 보내와서 적을 격파한 후이기 때문에 중지하라고 서한을 보냈다(「召募日記」『叢書』11, 209쪽).

관 전의 현감(全義縣監)이 교졸(校卒)을 출동시켜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25인을 잡았다. 위령(威靈)에 의거하여 모두 포살하였다(「巡撫使呈報牒」『叢書』16, 354-355쪽).

정 충청 감사의 사계(查啓)에 따라 전 서산 군수 박정기(朴鎡基)를 군무참의(軍務參議)에, 서산 수리(首吏) 송병훈(宋秉勳)을 군무주사(軍務主事)에, 전 태안부사 신백희(申百熙)를 군무협관(軍務協辦)에 특별히 추증하였다(『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일 서로군[제2중대의 지대]이 능주 → 강진 · 해남 · 영암으로 진군하였다.

일 중로군[제3중대]가 강진으로 진군하였다.

일 대구수비병[1분대, 三宅부대]과 낙동수비병[1분대, 伊世川부대]가 낙동으로 돌아갔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장흥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의 뒤를 아 보성군에 머무르면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싸워 51명을 사로잡았다.

일 츠쿠바합대의 육전대가 광양 하포(下浦)에 상륙하였다.

일 낙동 · 대구수비병 · 군로측정호위대가 충청도 청산과 보은 근처에서 동학농민군 수령 정대춘(鄭大春)과 임규호(任圭浩) 등 300여 명을 살육하였다.

#### ■ 12월 21일 (양. 1월 16일)

일 군로조사대[柔原부대]가 황간에 진군하였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이주희가 이끄는 관군으로 하여금 보성군 주변의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22명을 처형하고 7명을 사로잡았다.

#### ■ 12월 22일 (양. 1월 17일)

정 상주소모사 정의목과 상주 목사 이만윤이 함께 상주 경내에서 체포한 비류들을 처형하였다. 박효식(朴孝植)은 비류 세작으로 상주 진영에서 붙잡아서 취초하여 실상을 알려왔으며, 충청도 영동의 김흥업(金興業) 김경학(金慶學), 청산의 안소두겁(安小斗劫) 김유성(金有成) 박기준(朴基俊) 지상록(池相象), 황간의 김사문(金士文) 이상신(李尙信) 신윤석(申允石) 등 9명은 거괴로서 장차 기포하려고 상주 각 면에 몰래 들어와 있다가 잡히다. 상주 내서면 전오복(全五福), 갈곡 이규삼(李圭三), 화령장터의 이태평(李太平) 등 3명은 모두 비류로서 전오복은 몰래 정탐해오던 자이고, 이규삼은 30년 동학 적괴이며, 이태평은 비류에 들어가 노비로서 주인을 구타하고 또 정탐차 몰래 들어온 자였다(「招募事實」 『叢書』 11, 398-400쪽).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군조 7명으로 하여 보성군 주변의 동학농민군을 수색하게 하여 12명을 사로잡았다.

일 제18대대와 가흥 정찰대가 장호원과 음죽 사이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수십 명을 죽이고, 일본군 1명이 부상을 입었다.

### 12월 23일 (양. 1월 18일)

정 비적의 괴수 안교선(安敎善), 성재식(成在植), 최재호(崔在浩)를 순무영(巡撫營)에 내주어 즉시 효시하여 경계시키고, 벤 김개남(金介男)의 머리를 조사하는 일도 거행하도록 하였다(『日省錄』).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보성군 주변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10명을 포살하고 1명을 사로잡았다.

일 후지사카(藤阪)부대[부산수비대, 1소대]가 동학농민군 1명을 사로잡고, 오후에 동학농민군 10명을 포살하였다.

### 12월 24일 (양. 1월 19일)

전 무안의 거괴 배규인(배상옥)이 체포되어 포살되었다(『日本士官函牘』 『叢書』 16, 377쪽).

황 황해도 동학농민군이 충유 동남쪽에 있는 누천동에 와서 격문을 게시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9).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2소대]가 장흥으로 진군하였다.

일 후지사카(藤阪)부대[부산수비대, 1소대]가 보성에 잔류하였다.

### 12월 25일 (양. 1월 20일)

전 동학농민군 대접주 이방언이 장흥에서 우선봉 이두황군에게 잡혀 나주로 압송되었다(『巡撫先鋒陣騰錄』 『叢書』 14, 279쪽, 294쪽).

일 중로군[본대]가 나주에 진군하였다.

일 종로군[제3지대]이 나주 → 장흥으로 진군하였다.

일 봉산수비병이 송화에서 동학농민군 500여 명을 격퇴하였다.

일 평산수비병 10명을 평산부에 파견하였다.

일 용산수비대 제2대대를 개성에 파견하였다.

### 12월 26일 (양. 1월 21일)

일 후지사카(藤阪)부대[부산수비대, 1분대]가 보성에 잔류하였다.

일 후지사카(藤阪)부대[부산수비대, 3분대]가 홍양으로 진군하였다.

일 츠쿠바함대 육전대[1지대]가 진도로 진군하여 도서로 도주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일 일본군[1중대, 소속불명]를 충청도 홍주에 파견하였다.

### 12월 27일 (양. 1월 22일)

경 영남 위무사 이중하가 장계에서 관리들의 공과를 논하였다. 전 경상 감사 이용직(李容直)은 장전(贓錢)이 47만 6356냥 6전 9푼이고, 전 통제사 민형식(閔炯植)은 삼도(三道)에서 약탈한 장전이 72만 1277냥이었으나 위리안치(圍籬安置)의 명이 내려진 뒤에도 아직 배소(配所)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 진주병사 민준호(閔俊鎬)는 비류(匪類)를 후하게 대하면서 하동에서 위급할 때 군병을 보내지 않았다. 전 성주 목사 오석영은 도피하여 성을 비워서 넘겨주었다. 문경부사 김정근(金禎根)은 군병을 훈련시키고 자치 규약을 만들어 간사한 무리들이 숨어버렸으니 수사(水使)의 이력을 허용하고, 거창부사 정관섭은 자기 녹봉을 군량에 보태고 여러 번 이웃 고을의 적을 토벌하였으며, 안의현감 조원식은 요사스러운 적을 소탕하였으니, 모두 가자(加資)하고, 인동부사 조응현은 비적을 잡고, 예천군수 조원하는 적을 쳐서 열읍(列邑)의 사기를 높였으며, 창녕현감 조병길(趙秉吉)은 과다한 세금 징수를 철저히 고쳐 은혜를 베풀었으며, 초계군수(草溪郡守) 이찬희(李贊熙)는 대오(隊伍)를 만들어 비적을 잡았으니 모두 표리(表裏) 1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경상중군 박항래는 군무(軍務)를 정리하고 적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니 방어사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 칙령으로 순무영을 차례로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巡撫使呈報牒』 『叢書』 16, 105쪽).

### ■ 12월 28일 (양. 1월 23일)

일 일본군(소속불명)이 조선의 민병과 함께 강진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 100여 명을 죽였다.

### ■ 12월 30일 (양. 1월 25일)

일 서로군이 우수영으로 진군하였다.

일 후지사카(藤阪)부대[부산수비대, 1분대] 보성 → 장흥의 잔여 동학농민군 탄압을 위해 출발하였다.

### ■ 12월 말

전 강진 해남 일대로 내몰렸던 동학농민군이 제주도와 진도로 도주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7).

## 1895년(乙未年) 1월

### 1월 초순

황 농민들이 서흥 남쪽 50리에 있는 대석교동에 모여 서흥을 습격하려고 하여 일본 군들과 싸움이 벌어졌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8쪽).

### 1월 1일 (양. 1월 26일)

전 태인현 수성군이 원평(院坪)에 도소(都所)를 열었던 금구 용계동(龍溪洞)의 김덕명(金德明)을 체포하였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4, 329쪽).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장흥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13명을 사로잡은 후에, 보성으로 되돌아 가, 잔여동학농민군 수색과 탄압에 진력하여 동학농민군 13명을 사로잡았다.

### 1월 2일 (양. 1월 27일)

일 용산수비대[中山부대]가 장연으로 행군하였다.

일 황주수비병[山中부대, 20명]과 봉산수비병 2분대가 은율, 송화로 행군하였다.

### 1월 4일 (양. 1월 29일)

충 최시형이 손병희·임학선·이중훈 등과 함께 충주 외서촌 무극리를 지나다가 일본군 가흥병참부에서 파견한 정찰대와 제16대대 이시모리(石林) 중대의 지대를 만나서 공격했으나 반격을 받아서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흩어졌다(『均菴丈 林東豪氏 略歷』;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6-17쪽).

### 1월 5일 (양. 1월 30일)

황 은율에서 동학농민군 수령급 4명이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東徒討伐の報告』, 『日清交戰錄』 31호, 飛電).

- ┌ 일 군로조사대가 충청도 영동으로 출발하였다.
- ┌ 일 후지사카(藤阪)부대[부산수비대]가 홍양과 낙안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8명을 죽이고 5명을 사로잡은 후에, 보성에서 스즈키(鈴木)부대와 합류하였다. 같은 날, 부산에 돌아갔다.
-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보성에서 사로잡은 동학농민군 가운데 8명을 처형하였다
- ┌ 일 봉산수비병이 은율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4명을 사로잡았다.

### ■ 1월 7일 (양. 2월 1일)

- ┌ 일 후지보병 제17대대 소속 37명이 서울-부산 간 수비대 보충병으로 파견되었다(『천대전사료』 77, 1895.2.1).

### ■ 1월 11일 (양. 2월 5일)

- ┌ 일 중로군[제19대대 본대]이 전라도 나주에 입성하여 포획한 동학농민군을 재판할 임시재판소를 개설하였다.
- ┌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동학농민군이 진정되어 내일 귀부한다”고 보고하였다.

### ■ 1월 13일 (양. 2월 7일)

- ┌ 일 낙동·대봉수비병(25명)을 가흥부근에 파견하였다.
- ┌ 일 가흥수비병이 여주부근에서 약 5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10명을 죽였다.
- ┌ 일 봉산수비병 6명을 봉산부근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 13명을 사로잡아 그 가운데 7명을 죽였다.

### ■ 1월 14일 (양. 2월 8일)

- ┌ 일 가흥수비병(岡崎부대)가 경기도 여주에서 약 500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동학농민군 사상자수가 10여 명에 이르렀다.

일 용산수비대(8명)를 여주부근에 파견하였다.

### ■ 1월 15일 (양. 2월 9일)

일 일본군(소속불명) : 경기도 곤지암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이 죽었다.

일 송파진(9명) · 곤지암(9명) · 이천(16명) · 장호원(8명) · 가흥(19명) · 대봉(8명) · 낙동(17명) 수비병을 경기도 가흥에 파견하였다.

일 일본군 정찰대(소속불명) 20명을 여주부근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일 대구수비병(1소대)을 가흥부근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과 격전하였다.

### ■ 1월 16일 (양. 2월 10일)

일 군로조사대가 경상도 문경을 출발하였다.

### ■ 1월 23일 (양. 2월 17일)

일 중로군[무내(武內)부대, 3분대]가 원영 병사 31명과 함께 전라도 대둔산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 1중대]가 부산에 되돌아갔다.

일 서흥수비병 7명과 개성수비병이 서흥부근 교동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1명을 죽였다.

### ■ 1월 24일 (양. 2월 18일)

전 전봉준은 최경선(崔慶善), 김덕명(金德明), 손화중(孫化中) 등과 같이 서울주재 일본영사관에 인도되었다(『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東學黨大巨魁生擒 『叢書』 22, 365-366쪽).

전 대둔산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일본군 및 관군과 70여 일을 항전하던 동학농민군 가운데 어린 아이 하나만 제외한 25명이 일본군과 관군이 공격을 받고 대부분이 전사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19-20쪽, 71-73쪽).

황 서흥(瑞興) 지방에서 남쪽으로 약 50리 거리에 있는 대석교동(大石橋洞)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서흥병참부와 개성에서 파견된 산도조장(山道曹長)의 군대와 접전하였다가 서남쪽으로 도주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8-249쪽).

#### ■ 1월 25일 (양. 2월 19일)

정 전봉준에 대한 1차 심문은 일본영사관에서 법무아문 참의 이재정(李在正)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동학과의 관련성, 2차 봉기의 목적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2日 東學黨大巨魁生擒 『叢書』 23, 167-168쪽).

#### ■ 1월 26일 (양. 2월 20일)

정 전봉준에 대한 2차 심문에서는 주로 봉기의 정치적 의도를 밝히려고 하였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9日 全祿斗 『叢書』 23, 175쪽).

일 스즈키(鈴木)부대[부산수비대]가 장흥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13명을 사로잡은 후에, 보성으로 되돌아 가, 잔여동학농민군 수색과 탄압에 진력하여 동학농민군 13명을 사로잡았다.

#### ■ 1월 27일 (양. 2월 21일)

일 군로조사대가 인천에 도착하였다.

## 1895년(乙未年) 2월

### 2월 3일 (양. 2월 27일)

정 전봉준이 법무아문으로 인도되었다(「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叢書』 22, 366쪽).

### 2월 4일 (양. 2월 28일)

일 서로군·중로군·동로군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 2월 9일 (양. 3월 5일)

정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개정된 전봉준에 대한 재판은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반일민족운동 및 대원군과의 관련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全琿準供草」 『叢書』 18, 3-80쪽).

### 2월 13일 (양. 3월 9일)

황 문화 구월산에 결집하여 있던 동학농민군 세력 중 1,000여명이 신천읍에 내려와서 공격하였다(「첩보존안」, 2월 15일, 17일).

### 2월 23일 (양. 3월 19일)

황 수천여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장연군과 문화읍을 공격하였다. 이에 감영에서는 다급하게 일병의 파견을 요구하였다(「첩보존안」 3월 26일 ; 「報告海府」 『문화비요대개』 ; 송찬섭, 「황해도지방 동학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1995).

■ 2월 24일 (양. 3월 20일)

일 시모노세키(下關) 강화회의(~4월 17일)(「日清戰爭主要年表」)

■ 2월 28일 (양. 3월 24일)

일 인천후비대(山村대위), 구월산에서 동학농민군 수명을 사로잡았다.

■ 2월 29일 (양. 3월 25일)

정 법무대신 김학우(金鶴羽)의 암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현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쿠데타 음모가 포착되었고, 이들 세력이 동학농민군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大阪朝日新聞」明治 28年 4月 9日 金鶴羽刺客の白狀 大陰謀の發露 『叢書』 23, 183-186쪽).

## 1895년(乙未年) 3월

### 3월 1일 (양. 3월 26일)

일 인천수비대[齊藤부대]가 은과병참부에서 1천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45-50명을 살상하였다.

### 3월 5일 (양. 3월 30일)

일 송화, 장연의 예비대+문화, 신주 수비병+인천수비대 : 잔여 동학농민군 탄압을 위하여 강령, 웅진으로 파견하였다.

### 3월 6일 (양. 3월 31일)

일 인천수비대[齊藤부대] 등이 해주부근의 묘운사에서 1천 5백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싸워 40여 명을 살상하였다.

### 3월 9일 (양. 4월 3일)

황 해주 송림일대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 500여 명이 출동한 일본군과 교전하여 14, 5명이 전사하고 강령 웅진 방향으로 퇴각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85쪽).

### 3월 10일 (양. 4월 4일)

황 정연 부사의 보고에 따르면 3월 7일, 10일 이틀에 걸쳐 송화부근에서 동학농민군 1,000여명과 관군이 전투를 벌였으며, 동학농민군 65명이 전사하고 관군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90쪽).

### 3월 12일 (양. 4월 6일)

황 용진으로 퇴각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추격을 받고 200여 명이 체포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86쪽, 289쪽).

### 3월 19일 (양. 4월 13일)

황 황해 감사가 체포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처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이름 있는 거괴는 모두 경성으로 호송할 것, ②본심으로 또는 잘못 생각해서 동학농민군에 가담했던 자로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귀순을 원하는 자 가운데 가산과 가족이 없어 도둑질할 우려가 있는 자는 부근 각 도서에 나누어 배치해서 징역에 처하고, ③ 그들 중 가산과 가족이 있어서 양민이 될 것이 확실한 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타이른 다음 석방할 것 ④강제로 동학에 끌어들여진 자로 그 정상이 용서될만한 자는 타이른 다음 석방할 것. 여기에 대해 일본군 측에서는 임종현 등 중요한 인물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하의 사항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88-289쪽).

### 3월 23일 (양. 4월 17일)

정 청일전쟁의 결과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서 독립을 명문화하여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는 조문(條文)으로 규정하였다(『日本外交文書』 28-2, No. 1089, 「媾和條約調印終了ノ旨通告ノ件」, 362-373쪽).

### 3월 29일 (양. 4월 23일)

정 오후 3시, 전봉준 등 21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 때 전봉준, 성두한(成斗漢), 최경선(崔慶善), 손화중(孫化中), 김덕명(金德明) 등에게 『대전회통』 형전의 ‘군복기마작변관문자 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施斬)’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全瑋準 『叢書』 18, 429-438쪽).\*

\* 갑오정권은 근대적 사법제도에 의해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실제 근대적 사법제도는 이미 3월 25일부로 공포되어 있었고, 이제 4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었다. 1895년 3월 25일 법률 1호로 반포된 ‘재판소구성법’과 같은 날 칙령 50호로 반포된 ‘재판소처무규정

통칙'에 의하면, 민사·형사사건 모두 적어도 2심외의 재판과 소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행 일인 4월 1일을 이틀 앞둔 3월 29일에 개설된 법무아문 권설 재판소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판결이 시급하게 선고된 것이었다. 더구나 새로운 형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봉건적인 형법인 『대전회통』 형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들은 근대적 재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정 전봉준이 사형선고를 받고 이날로 순화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한과 함께 사형당하였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全瑋準『叢書』18, 437쪽; 「二六新報」明治 28年 4月 26日『叢書』22, 272쪽; 「東京朝日新聞」明治 28年 4月 23日『叢書』22, 381-382쪽; 「大阪毎日新聞」明治 28年 4月 27日『叢書』23, 324쪽).\*

\* 사형집행을 앞둔 전봉준에게 어떤 사람이 “일본공사에게 청원하여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라”고 하자 전봉준은 분연히 말하기를 “이 마당에 이르러 어떠한 잘못된 비열한 마음도 가질 수 없다.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東京朝日新聞」明治 28年 3月 12日『叢書』22, 374쪽; 「大阪朝日新聞」明治 28年 3月 7日『叢書』23, 175쪽; ).

정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국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명실공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삼국간섭에 나서 “요동반도를 영유한다는 것은 청국의 수도를 위협하고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구히 극동의 평화에 대해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日本外交文書』28-2, No. 674, 「佛國公使覺書報告ノ件」, 19-20쪽).

## 1895년(乙未年) 4월

### 4월 1일 (양. 4월 25일)

황 어은동 일본군 병참부에서 임종현 등은 가족을 이끌고 종적을 감추었는데 함경도와 평안도로 잠행하였다는 풍설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이 조용해졌고 인민들은 안도하여 생업에 종사하며 일본군의 은혜라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은파와 사리원 근방에서 소규모의 동학농민군이 출몰한다고도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94쪽).

### 4월 15일 (양. 5월 9일)

황 문화의 접주 이도우가 은율의 민병들에게 체포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97).

### 4월 18일 (양. 5월 12일)

황 은율에서 13명, 문화에서 3명의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297쪽).

### 4월 19일 (양. 5월 13일)

정 1894년 말부터 4월까지 수개월동안 이준용 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농민전쟁을 이용하여 정부전복모의를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68쪽).

## 1895년(乙未年) 7월

### 7월 중순

황 황주 부근에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날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일청전쟁실기』 39, 1895년 9월 21일; 한우근, 앞의 논문, 395쪽).

### 7월 21일 (양. 9월 9일)

평 동학농민군 600명이 평안도 상원군에서 군수를 습격하였다(『일청전쟁실기』 40, 1895년 9월 27일 ; 한우근, 위의 논문, 395쪽).

### 7월 26일 (양. 9월 14일)

평 평안도 상원군에서 외국총을 휴대한 4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민가에 난입하였다. 이날 밤 동학농민군 600명이 상원군에서 동남쪽으로 약 50리 떨어진 지점에 집결하였다(『일청전쟁실기』 40, 1895년 9월 27일 ; 한우근, 위의 논문 395쪽).

### 7월 29일 (양. 9월 17일)

황 평산 북쪽 안성에서는 이중철이, 평산 남쪽에서는 오돌고가 봉기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곡산 석현의 접주 임중은 80명을 거느리고 봉산의 도덕리를 거쳐 남쪽으로 향하였다(『일청전쟁실기』 41, 1895년 9월 27일 ; 한우근, 위의 논문 396쪽).

### 7월 30일 (양. 9월 18일)

황 도주하던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가 장수산성으로 들어갔다. 당시 장수산성에는 82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 있었다(『일청전쟁실기』 42, 1895년 9월 27일 ; 한우근, 위의 논문 396쪽).

황 이들은 7월 30일 또는 8월 12일 해주 관병이 포위하여 공격하자 평안도로 도망하였다(『궁내부안』 규17801, 1985년 8월 15일; 『일안』 3, 345쪽 ; 송찬섭, 앞의 논문).

기 획 : 홍동현(조사연구팀)  
집 필 자 : 강효숙(치바대) : 일본군의 활동  
배향섭(고려대) : 교조신원운동,  
전라경기강원평안황해도 동학농민군의 활동  
신영우(충북대) : 충청·경상도 동학농민군의 활동  
왕현중(연세대) : 관군, 중앙 정부의 활동  
교 정 : 이경원(조사연구팀)

##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

발 행 일 : 2006. 12

발 행 인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501호

홈페이지 : [www.cdpr.go.kr](http://www.cdpr.go.kr)

연 락 처 : (전화) 02-732-2394 (팩스) 02-732-2399

인 쇄 : (주)계문사 (02-725-5216)

---

발행자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비매품)